



승인(협의)번호
제 14217 호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2015 Survey of High Potential Enterprise)

2016



중소기업청

ahp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이용자를 위하여

1. 2015년 중견기업실태조사는 중견기업 실태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5년 최초로 국가승인을 받고, 2014년말 기준 중견기업 2,979개사를 대상으로 2014년 경영 등 실적에 대해 표본조사한 결과를 모수 추정(Parameter Estimates)한 것으로, 기존 실태조사 값과 비교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음. 즉, 각 항목의 구성비 분석에는 유용하나 절대 규모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제약을 갖고 있음
2. 통계표의 모든 통계수치는 반올림상의 차이로 인해 세부항목의 합과 총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음
3. 통계표 중 복수응답 설문은 기업체 구성비 합계가 100.0을 초과함
4. 중견기업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042-481-6816) 또는 중견기업연합회(02-3275-2108)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에서도 볼 수 있음



요 약



1. 중견기업 현황

☐ 총괄

- 2014년 12월 말 기준 중견기업의 수는 2,979개로 일반중견기업 2,379개(79.9%), 관계기업 600개(20.1%)으로 구분

☐ 중견기업 지역별 현황

- 중견기업은 수도권 61.9%, 동남권 12.6%, 충청권 9.9% 순으로 분포

[표 1]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단위 : 개사)

광역권	1.수도권(61.9%)			2.충청권(9.9%)			3.호남권(6.5%)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35.9%	4.1%	22.0%	1.5%	3.5%	4.9%	2.2%	2.0%	2.3%
전업종	1,068	121	654	46	103	145	66	59	70
제조업	258	65	332	17	76	98	23	33	29
비제조업	810	56	322	29	27	47	43	26	41

광역권	4.대경권(6.2%)		5.동남권(12.6%)			6.강원	7.제주	8.세종	합계
지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2.5%	3.7%	5.1%	1.7%	5.8%	2.1%	0.6%	0.2%	
전업종	74	111	152	51	172	62	19	6	2,979
제조업	49	84	72	36	127	25	1	6	1,331
비제조업	25	27	80	15	45	37	18		1,648

☐ 중견기업 업종별 현황

- 전체 중견기업 중 제조업 1,331개(44.7%), 비제조업 1,648개(55.3%)를 차지

□ 중견기업 매출액 현황

- 2014년 중견기업의 총 매출액은 483.6조원,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은 1,821.4억원
- 1천억 미만 기업이 1,622개(54.4%)로 가장 많은 가운데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기업분포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임

[표 2] 매출액 구간별 중견기업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100억원 미만	100~500억원	500억원 ~ 1천억원	1천억원 ~ 2천억원	2천억원 ~ 3천억원	3천억원 ~ 5천억원	5천억원 ~ 1조원	1조원 이상	계
제 조 업	80	273	166	329	203	152	94	34	1,331
비제조업	313	609	181	248	127	94	59	17	1,648
합 계	393	882	347	577	330	246	153	51	2,979

□ 중견기업 업력 현황

- 중견기업의 평균 업력은 20.3년이며, 7~20년의 중견기업이 38.1%(1,134개)로 가장 많고, 0~6년이 19.5%로 나타나 20년 미만 중견기업이 전체의 57.6%를 차지

[표 3] 업력 구간별 중견기업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0~7년 미만	7~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50년 미만	50년 이상	계
제 조 업	145	438	298	193	152	105	1,331
비제조업	438	696	252	115	88	59	1,648
합 계	583	1,134	550	308	240	164	2,979

2.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 조사 대상

- 2014년말 기준 중견기업

☐ 조사 내용

- 조사는 기업 일반현황,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기술혁신, 인재확보, 국제화, 수·위탁거래 및 동반성장, 금융 및 자금조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8개 부문, 67개 문항으로 구성

☐ 중견기업 특성

- 전체 중견기업은 2,979개 기업으로 일반중견기업 2,379개(79.9%), 관계기업 600개(20.1%)
- 업종별로는 제조업(1,331개)이 44.7%, 비제조업(1,648개)이 55.3%를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 상세업종별로는 1차금속·금속가공 173개(13.0%), 전자부품 통신장비 170개(12.8%), 자동차·트레일러 165개(12.4%) 순으로 분포
 - 비제조업 상세업종별로는 도·소매업 381개(23.1%), 출판·통신·정보 서비스업 263개(16.0%), 건설업 209개(12.7%), 부동산·임대업 170개(10.3%) 순으로 분포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54.4%로 가장 많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응답기업 비중이 낮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명 미만인 기업이 45.0%로 가장 많고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응답기업의 비중이 낮음
- 업력별로는 설립된 지 7~20년 미만인 기업이 38.1%로 가장 많고, 0~7년 미만인 기업이 19.6%로 20년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60%정도 차지함
- 기업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1~3년차 기업이 5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중견기업의 21.6%는 비상장기업이며 78.4%는 상장기업

[표 4] 중견기업 일반 현황

(단위 :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2,979)	100.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79.9
	관계기업	(600)	20.1
업종	제조업	(1,331)	44.7
	비제조업	(1,648)	55.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13.2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29.6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11.6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19.4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11.1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8.3
	5천억원~1조원미만	(153)	5.1
	1조원이상	(51)	1.7
종사자수	50명미만	(894)	30.0
	50~100명미만	(447)	15.0
	100~200명미만	(457)	15.3
	200~300명미만	(340)	11.4
	300~500명미만	(351)	11.8
	500~1,000명미만	(295)	9.9
	1,000명이상	(193)	6.5
업력	0~7년미만	(583)	19.6
	7~20년미만	(1,134)	38.1
	20~30년미만	(550)	18.5
	30~40년미만	(308)	10.3
	40~50년미만	(240)	8.1
	50년이상	(164)	5.5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55.3
	진입4~5년차	(750)	25.2
	진입6~9년차	(220)	7.4
	진입10년차이상	(361)	12.1
상장	상장	(644)	21.6
	비상장	(2,335)	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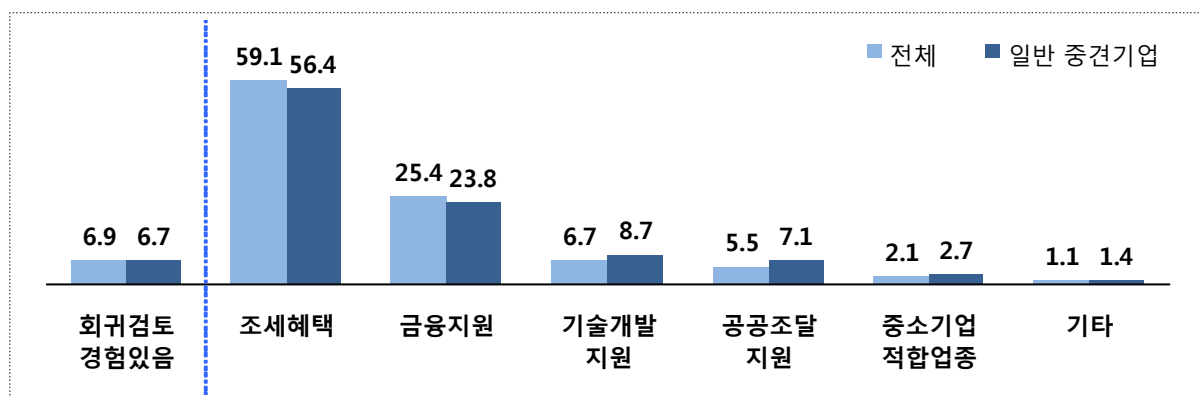
2.1.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및 검토 요인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은 6.9%, 일반 중견기업은 6.7%로 나타남
 -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한 가장 큰 요인(중소기업 정책)으로 조세혜택(59.1%), 금융지원(25.4%), 기술개발지원(6.7%) 순으로 나타남

[그림 1] 회귀검토 여부 및 회귀검토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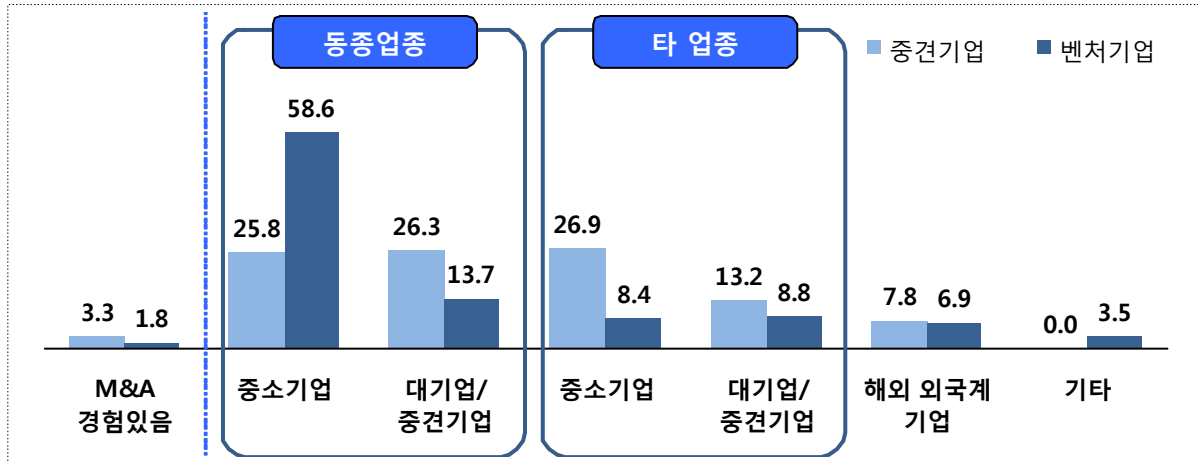


□ 인수합병(M&A)

- 2014년 중견기업의 3.3%는 M&A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험한 인수합병의 형태에 대해서, 중견기업은 타 업종의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26.9%)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동종업종의 대기업/중견기업과 인수합병(26.3%), 동종업종의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25.8%) 순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은 동종업종의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58.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동종업종의 대기업/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13.7%), 타 업종의 대기업/중견기업과의 인수합병(8.8%)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인수합병(M&A) 경험 유무 및 인수합병(M&A) 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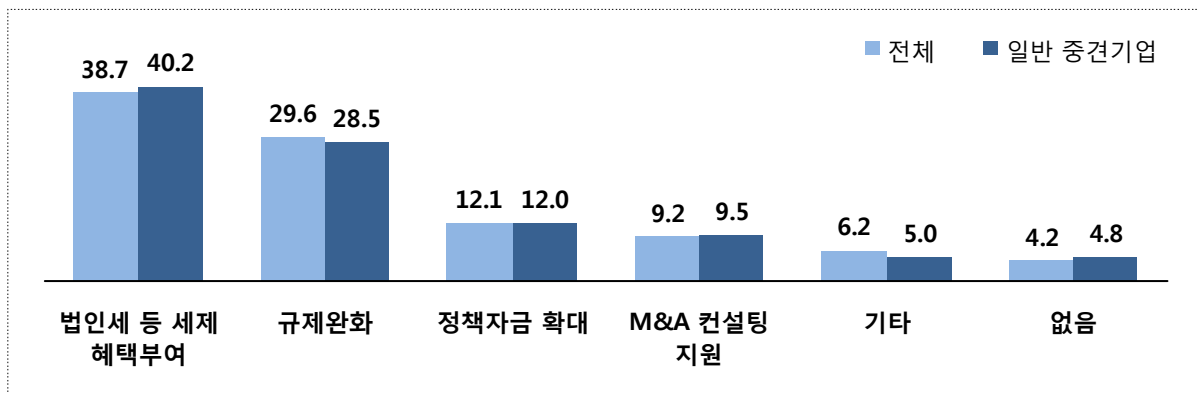


- 중견기업의 M&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부여(38.7%)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규제 완화(29.6%), 정책자금 확대(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부여(40.2%), 규제완화(28.5%), 정책자금 확대(12.0%) 순임

[그림 3]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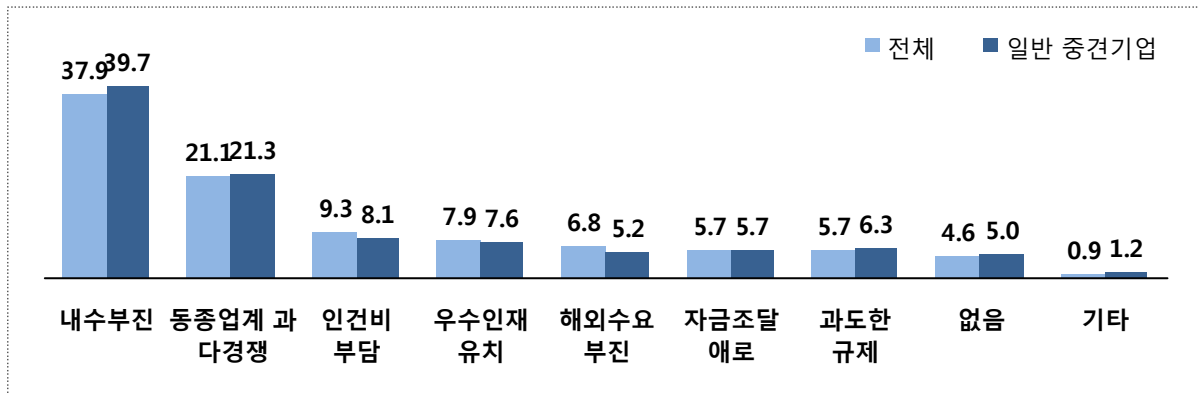
□ 경영 애로사항

- 중견기업의 가장 큰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37.9%)을 꼽았으며 동종 업계 과당경쟁(21.1%), 인건비 부담(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내수부진(39.7%), 동종업계 과당경쟁(21.3%), 인건비 부담(8.1%) 순임

[그림 4] 경영 애로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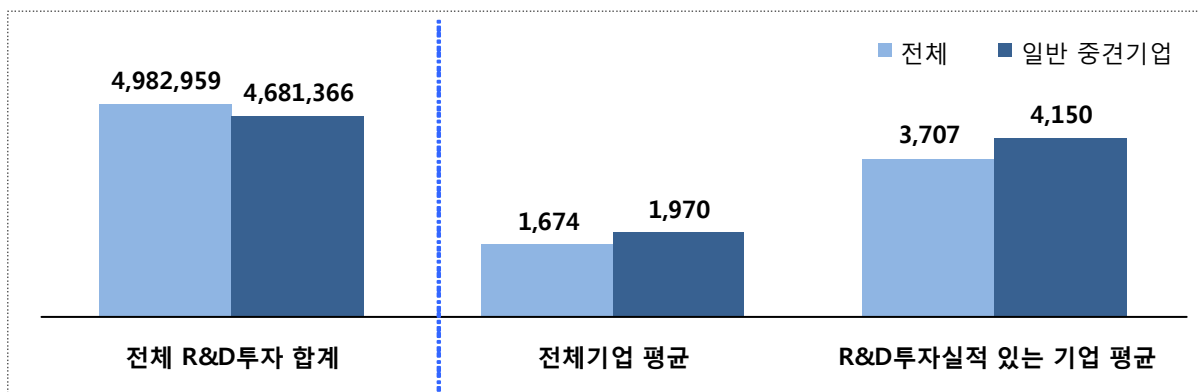
2.2. 기술 혁신

□ R&D 및 설비 투자

- 중견기업은 R&D에 총 4조 9,82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16.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경험이 있는 기업은 평균 37.1억을 투자함
 - 일반 중견기업은 4조 6,813억을 투자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19.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경험이 있는 기업은 평균 41.5억을 투자함

[그림 5] R&D 투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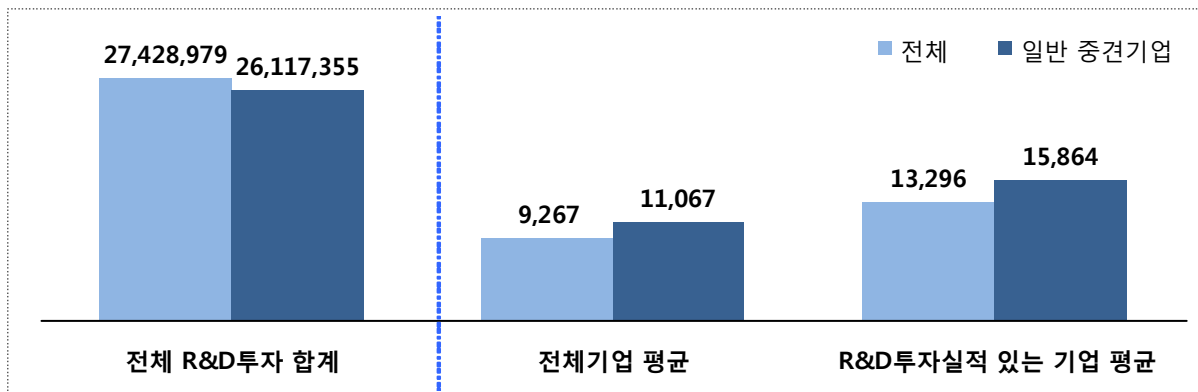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중견기업은 설비에 총 27조 4,28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92.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경험이 있는 기업은 평균 132.9억을 투자함
- 일반 중견기업은 26조 1,174억을 투자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110.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경험이 있는 기업은 평균 158.6억을 투자함

[그림 6] 설비투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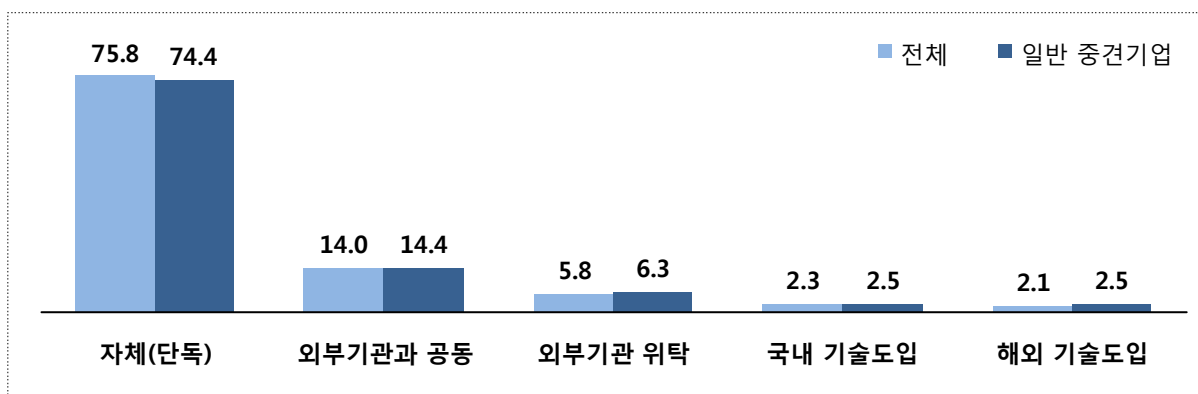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중견기업은 기술개발 시 자체개발하는 비중이 75.8%로 가장 높고 외부기관과의 공동개발(14.0%), 외부기관 위탁(5.8%), 국내 기술도입(2.3%), 해외기술 도입(2.1%)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자체개발(74.4%), 외부기관과의 공동개발(14.4%), 외부기관 위탁(6.3%), 국내 기술도입(2.5%), 해외 기술도입(2.5%) 순임

[그림 7] 기술개발 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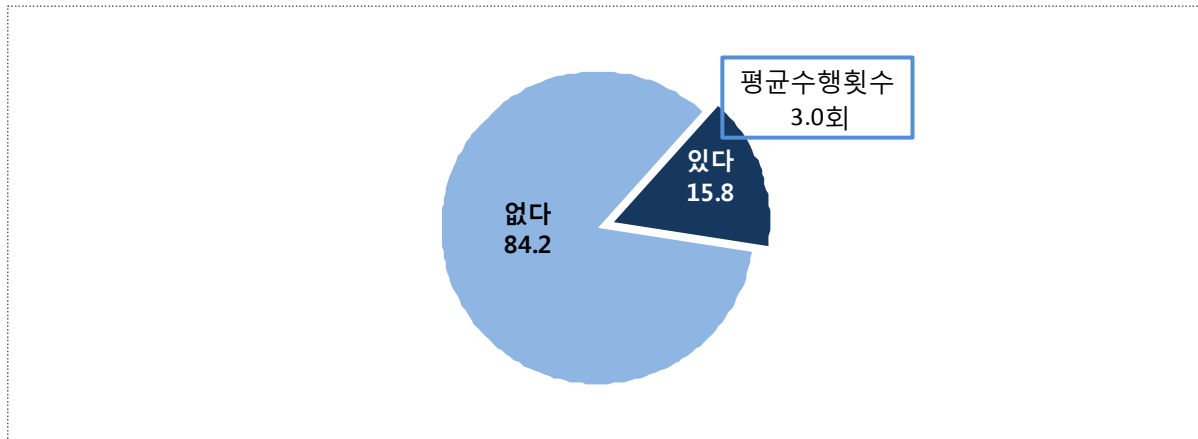


□ R&D관련 정부지원사업 수행

- 중견기업의 15.8%는 2014년에 정부지원 R&D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행한 기업들이 평균 수행횟수는 3.0회로 나타남

[그림 8] 정부지원 R&D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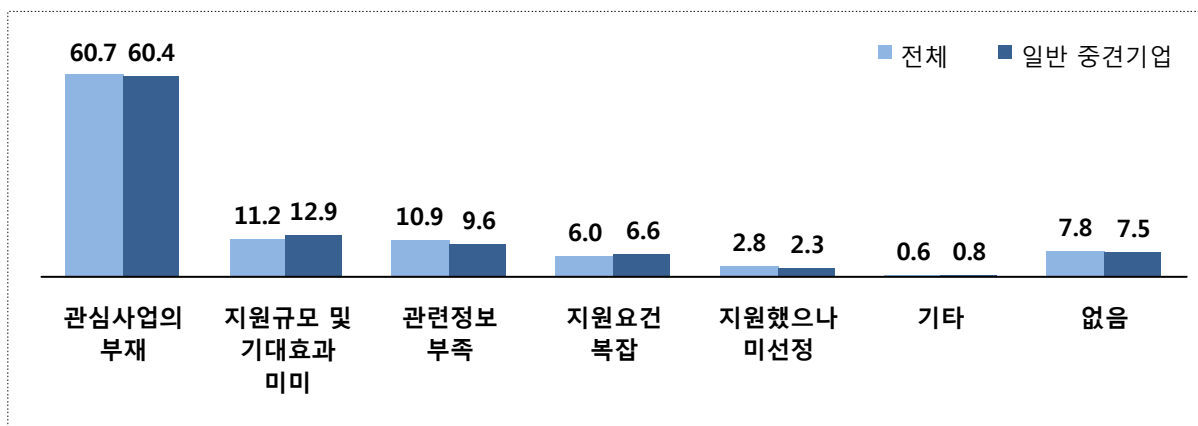
(단위: %)



- 정부지원 R&D사업 수행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중견기업은 관심사업의 부재(60.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지원 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11.2%), 관련정보 부족(10.9%), 지원요건 복잡(6.0%)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관심사업의 부재(60.4%),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12.9%), 관련 정보 부족(9.6%), 지원요건 복잡(6.6%) 순임

[그림 9]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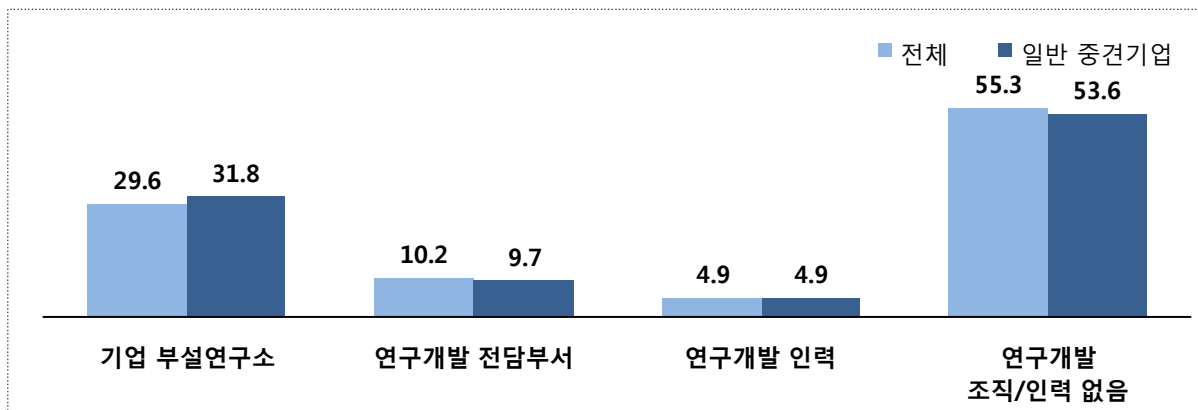


□ 연구개발 조직 형태

- 중견기업의 29.6%는 기업부설연구소를, 10.2%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4.9%는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31.8%), 연구개발 전담부서(9.7%), 연구개발인력(4.9%) 순임

[그림 10] 연구개발 조직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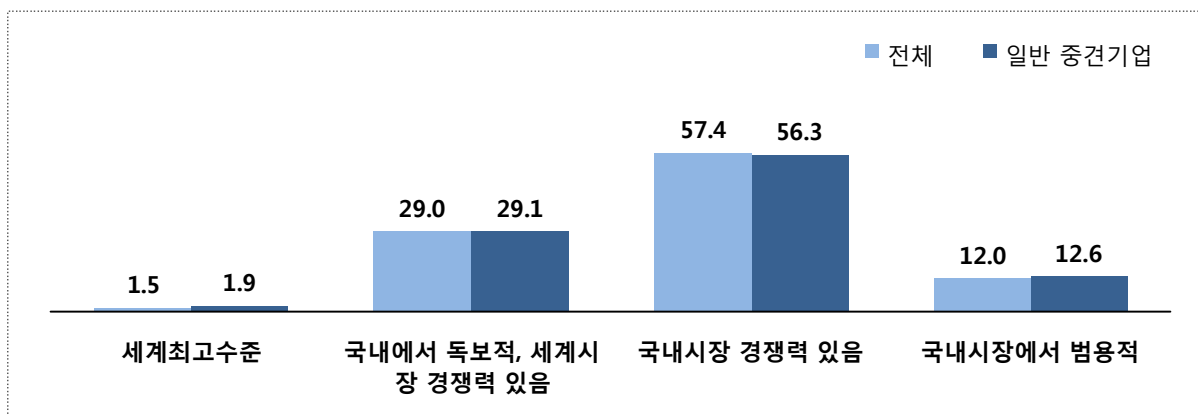


□ 주력기술 수준

-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술이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중견기업이 1.5%, 일반 중견기업이 1.9%로 나타남
 - 주력기술 수준에 있어서 국내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비중이 중견기업 57.4%, 일반 중견기업 56.3%로 각각 높게 나타남

[그림 11] 주력기술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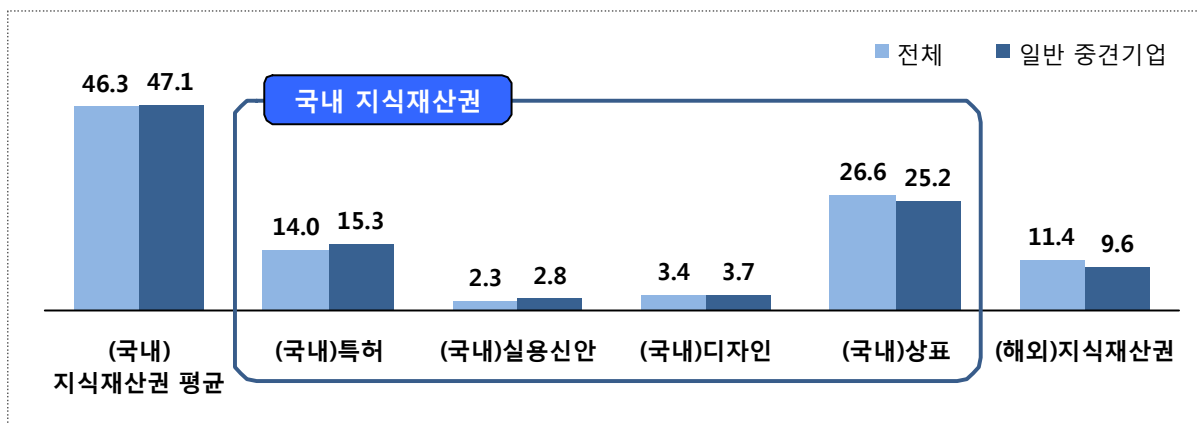


□ 지식재산권

- 중견기업당 평균 46.3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 26.6건, 특허 14.0건, 해외지식재산권 11.4건 순으로 보유함
 - 일반 중견기업당 평균 47.1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 25.2건, 특허 15.3건, 해외지식재산권 9.6건 순으로 보유함

[그림 12]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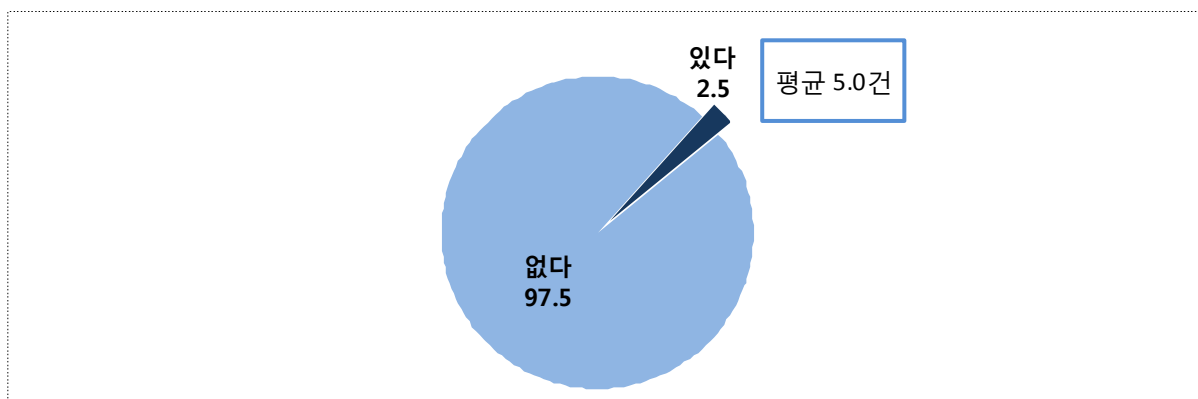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2.5%는 2014년에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으며, 침해당한 기업들이 평균 건수는 5.0건으로 나타남

[그림 13]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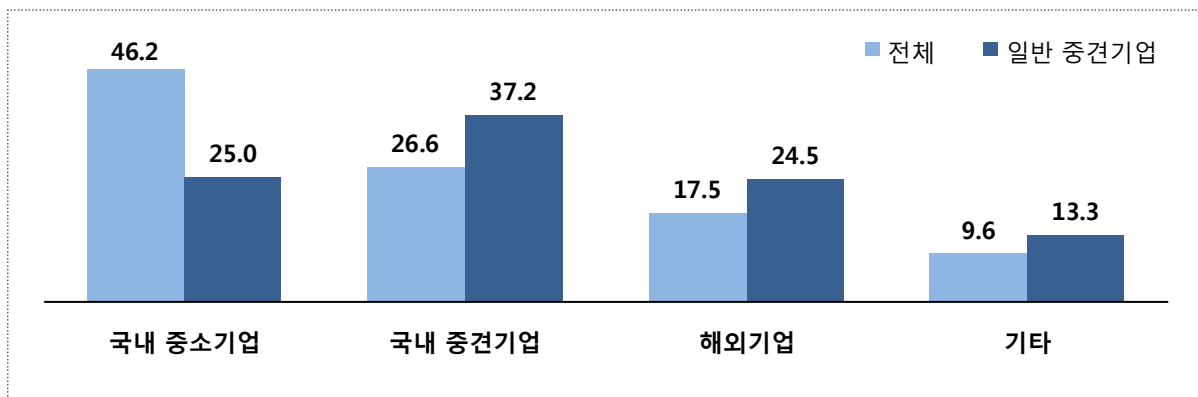
(단위: %)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주체에 대해, 중견기업은 국내 중소기업(46.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국내 중견기업(26.6%), 해외기업(17.5%), 기타(6.0%)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국내 중견기업(37.2%), 국내 중소기업(25.0%), 해외기업(24.5%), 기타(13.3%) 순임

[그림 14]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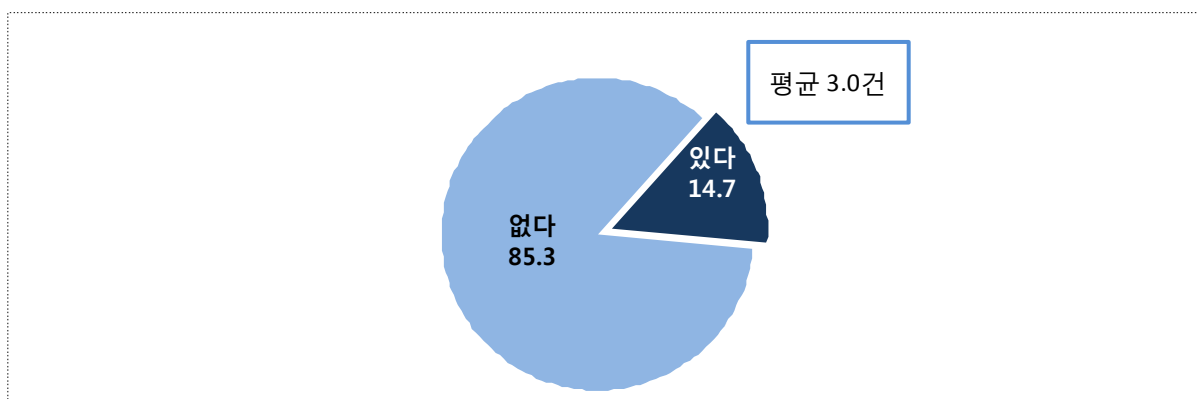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14.7%는 2014년에 대학, 연구소 등과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활동한 기업들의 평균 건수는 3.0건으로 나타남

[그림 15] 산학협력 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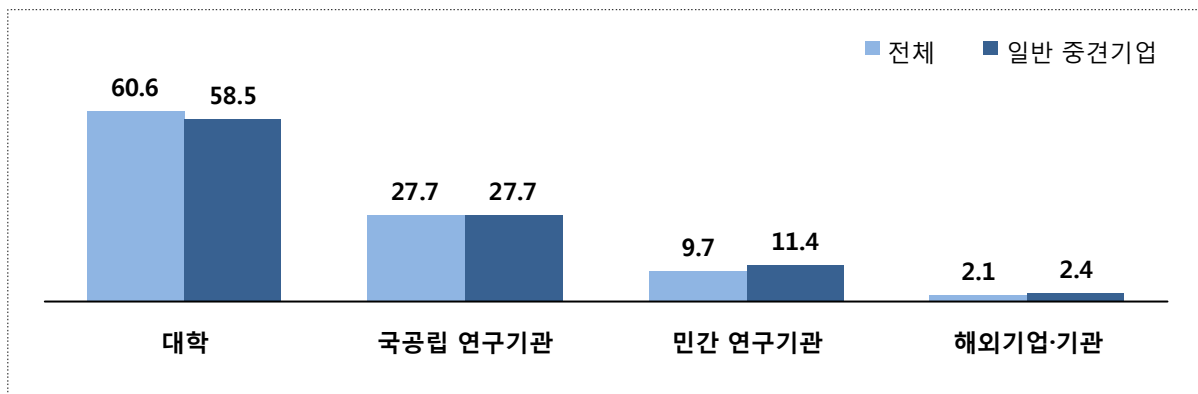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산학협력기관으로는 대학(6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국공립 연구기관(27.7%), 민간 연구기관(9.7%), 해외기업·기관(2.4%)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대학(58.5%), 국공립 연구기관(27.7%), 민간 연구기관(11.4%), 해외기업·기관(2.4%) 순임

[그림 16] 산학협력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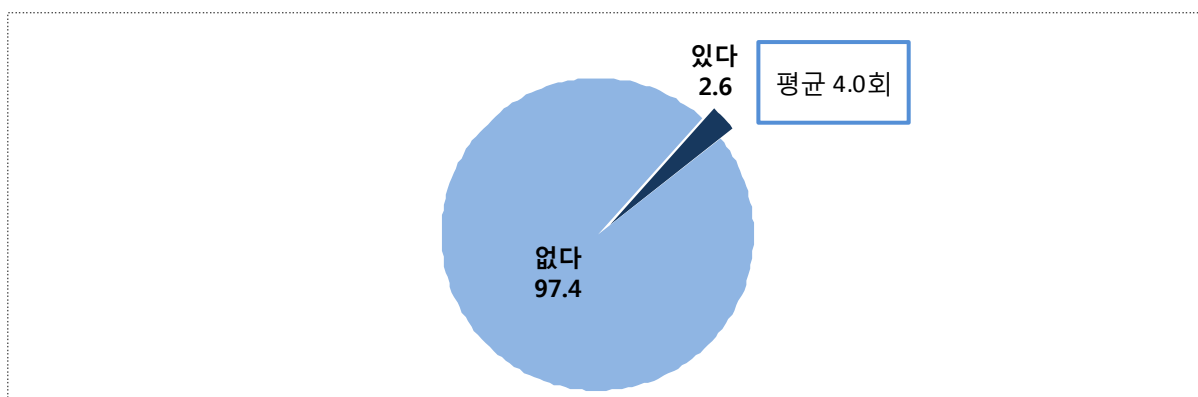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2.6%는 2014년에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적이 있으며, 평균 횟수는 4.0회로 나타남

[그림 17] 기술이전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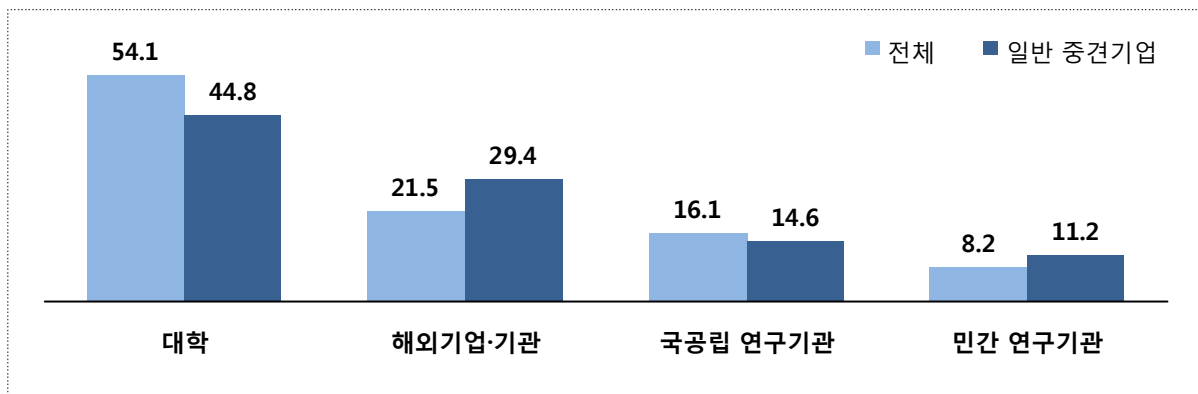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처로는 대학(54.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해외기업·기관(21.5%), 국공립 연구기관(16.1%), 민간 연구기관(8.2%)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대학(44.8%), 해외기업·기관(29.4%), 국공립 연구기관(14.6%), 민간 연구기관(11.2%) 순임

[그림 18] 기술이전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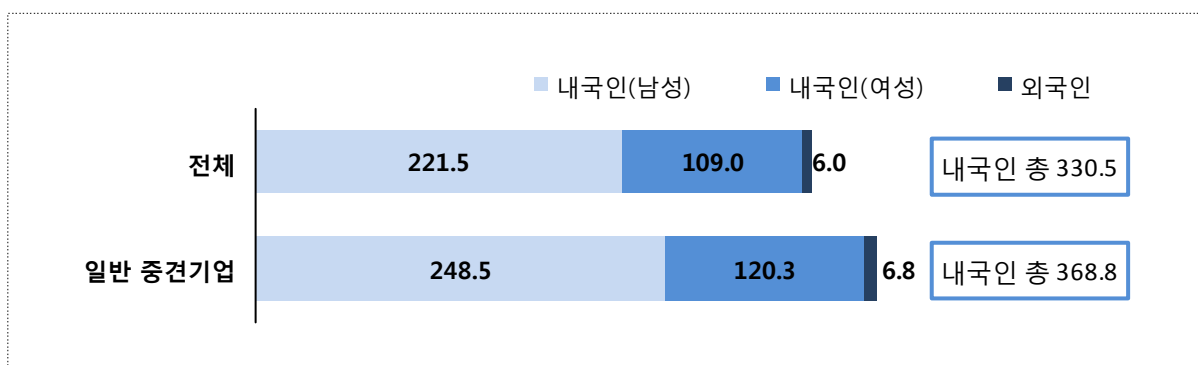
2.3. 인재확보

□ 인력 현황

- 중견기업의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는 330.5명, 외국인 근로자 수는 6.0명임
 -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는 368.8명, 외국인 근로자 수는 6.8명임

[그림 19] 중견기업 인력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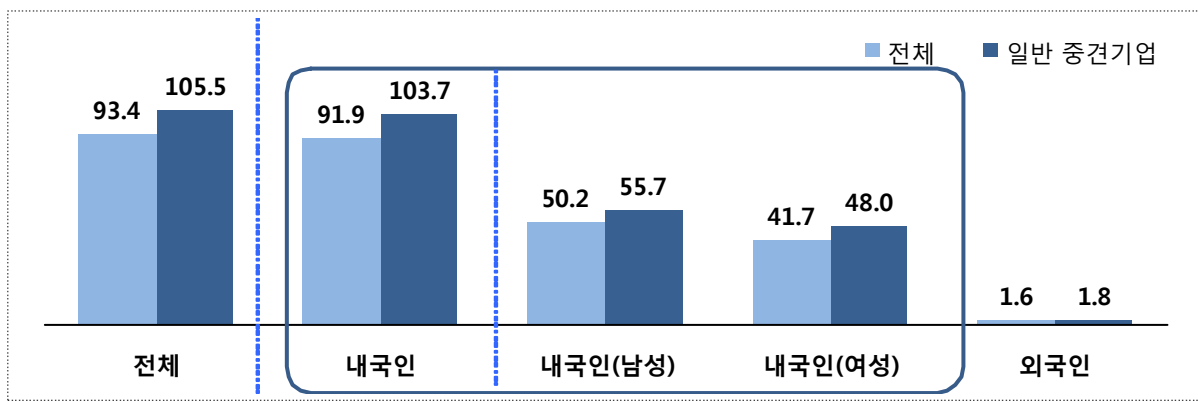


□ 신규 채용

- 중견기업의 총 93.4명을 채용하였으며, 내국인 91.9명(남성 50.2명, 여성 41.7명), 외국인 1.6명을 채용한 것을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총 105.5명을 채용하였으며, 내국인 103.7명(남성 55.7명, 여성 48.0명), 외국인 1.8명을 채용한 것을 나타남

[그림 20] 채용실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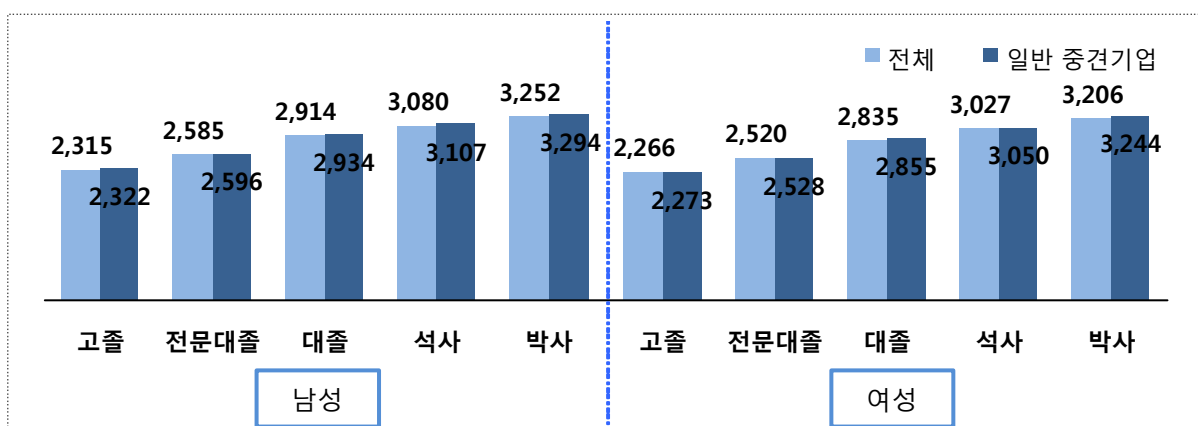


□ 신입사원 초임

- 신입사원 초임 수준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그림 21] 신입사원 초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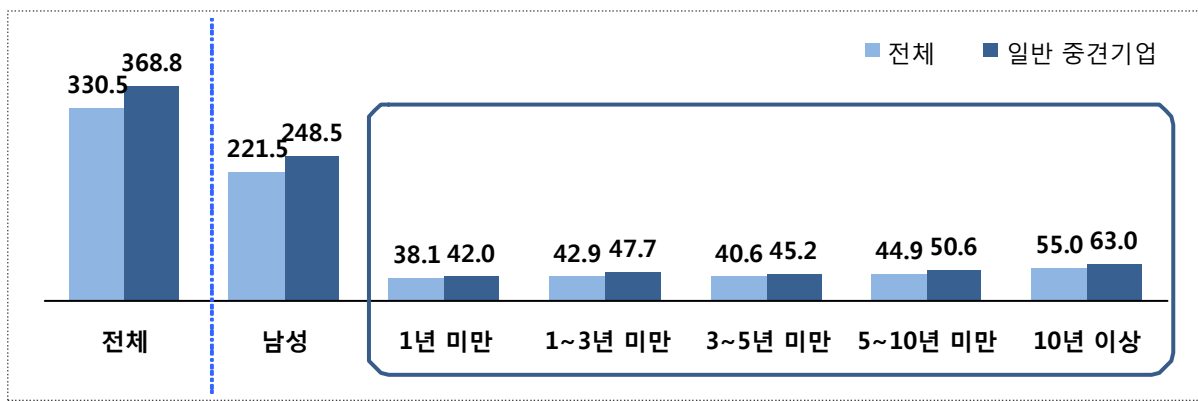


□ 재직연수

- 중견기업 남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0년 이상 55.0명, 5~10년 미만 44.9명, 1~3년 미만 42.9명, 1년 미만 38.1명, 3~5년 미만 33.9명 순임
- 일반 중견기업 남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0년 이상 63.0명, 5~10년 미만 50.6명, 1~3년 미만 47.7명, 3~5년 미만 45.2명, 1년 미만 42.0명 순임

[그림 22] 재직연수별 현황 -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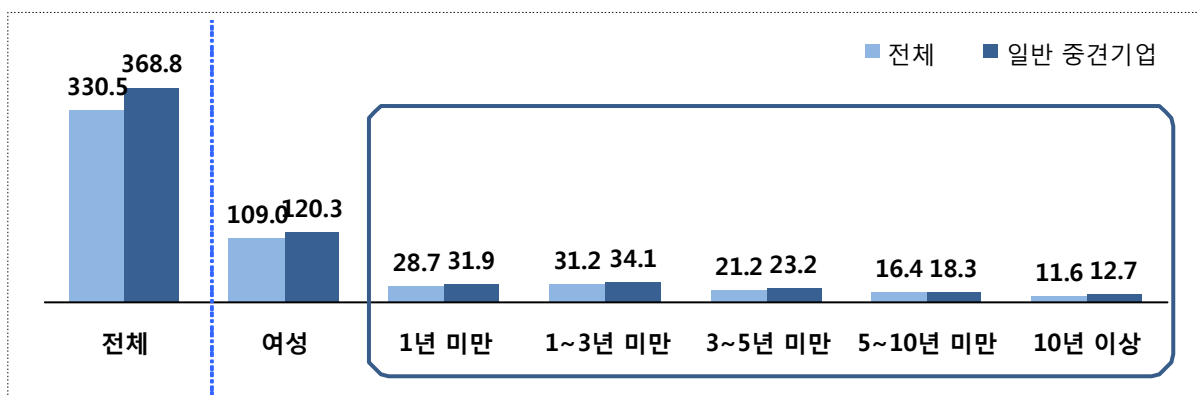
(단위: 명)



- 중견기업 여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3년 미만 31.2명, 1년 미만 28.7명, 3~5년 미만 21.2명, 5~10년 미만 16.4명, 10년 이상 11.6명 순임
- 일반 중견기업 여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3년 미만 34.1명, 1년 미만 31.9명, 3~5년 미만 23.2명, 5~10년 미만 18.3명, 10년 이상 12.7명 순임

[그림 23] 재직연수별 현황 - 여성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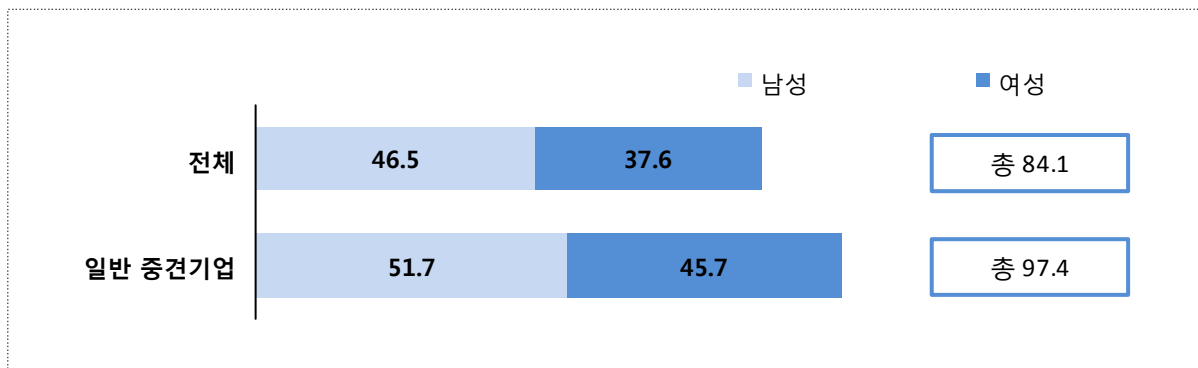


□ 이직

- 중견기업의 이직자는 평균 84.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46.5명, 여성 37.6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대비 이직자 비율은 27.6%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이직자는 평균 97.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51.7명, 여성 45.7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대비 이직자 비율은 27.8%로 나타남

[그림 24] 이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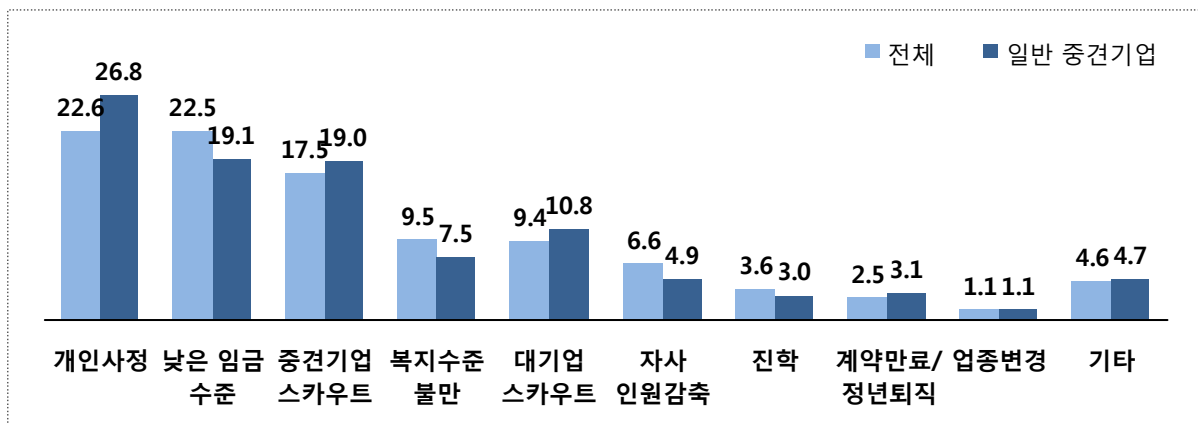
(단위: 명)



- 중견기업 이직자들의 주요 이직원인은 개인사정(22.6%), 낮은 임금수준(22.5%), 중견기업 스카우트(17.5%), 복지수준 불만(9.5%) 순임
 - 일반 중견기업 이직자들의 주요 이직원인은 개인사정(26.8%), 낮은 임금수준(19.1%), 중견기업 스카우트(19.0%), 대기업 스카우트(10.8%), 복지수준 불만(7.5%) 순임

[그림 25] 주요 이직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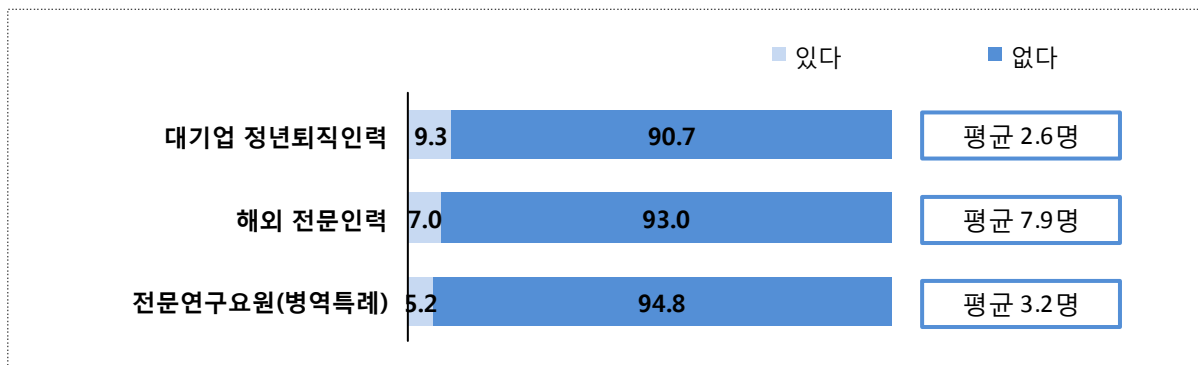


□ 유형별 보유인력

- 중견기업의 9.3%는 대기업 정년퇴직인력을, 7.0%는 해외 전문인력을, 5.2%는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년퇴직인력 평균 2.6명, 해외 전문인력 평균 7.9명,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평균 3.2명을 보유함

[그림 26] 유형별 보유인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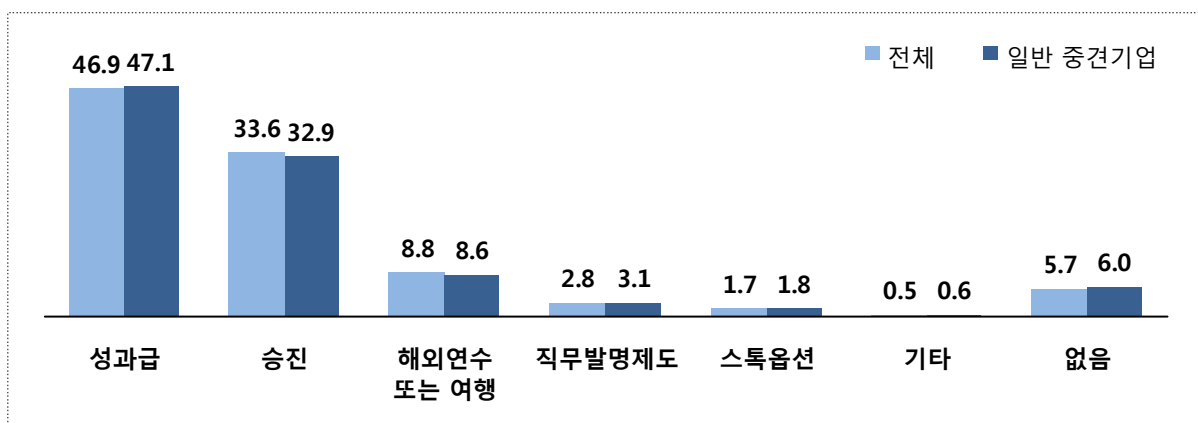


□ 성과보상 제도

- 중견기업의 성과보상 제도는 성과급(46.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승진(33.6%), 해외연수 또는 여행(8.8%), 직무 발명제도(2.8%)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성과급(47.1%), 승진(32.9%), 해외연수 또는 여행(8.6%), 직무 발명제도(3.1%) 순임

[그림 27] 성과보상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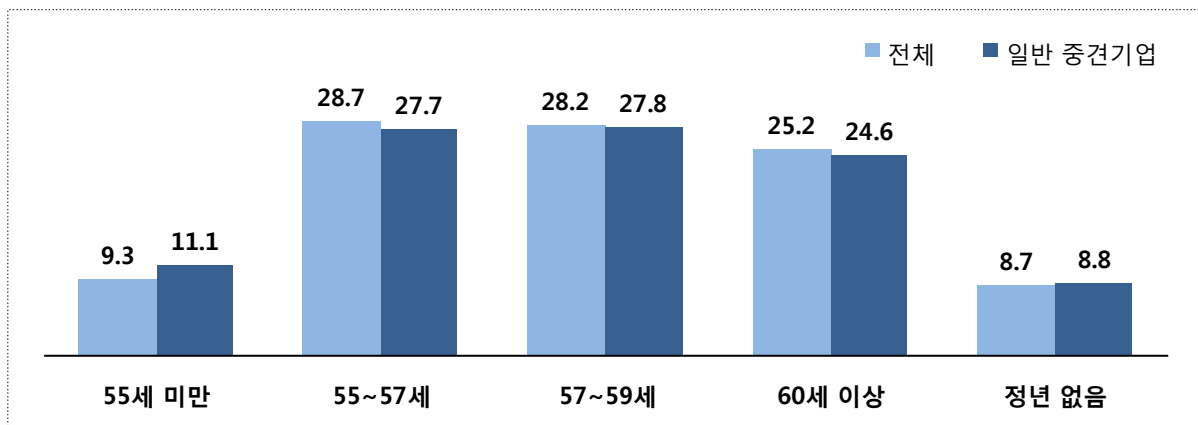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정년은 55~57세(28.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57~59세(28.2%), 60세이상(25.2%)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57~59세(27.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55~57세(27.7%), 60세이상(24.6%) 순임

[그림 28] 직원 정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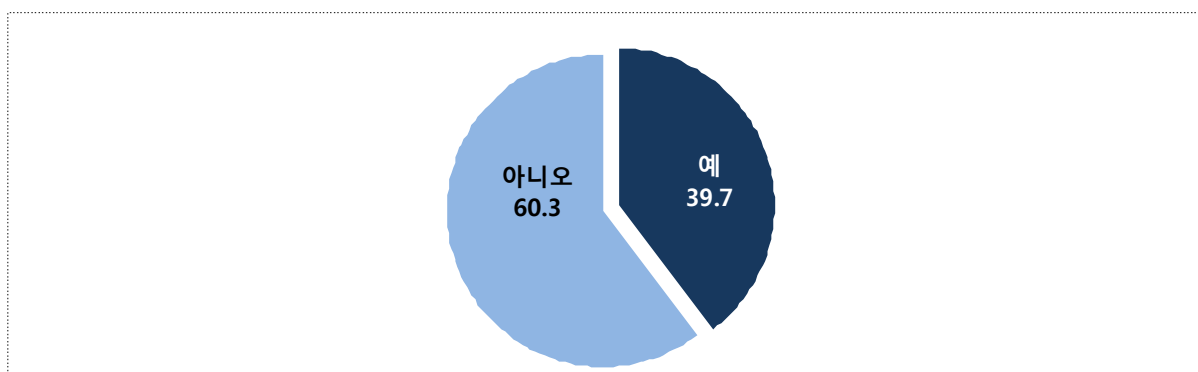
2.4. 국제화 촉진

□ 수출

- 중견기업 전체 중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39.7%이며, 일반 중견기업은 41.6%가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9] 해외 수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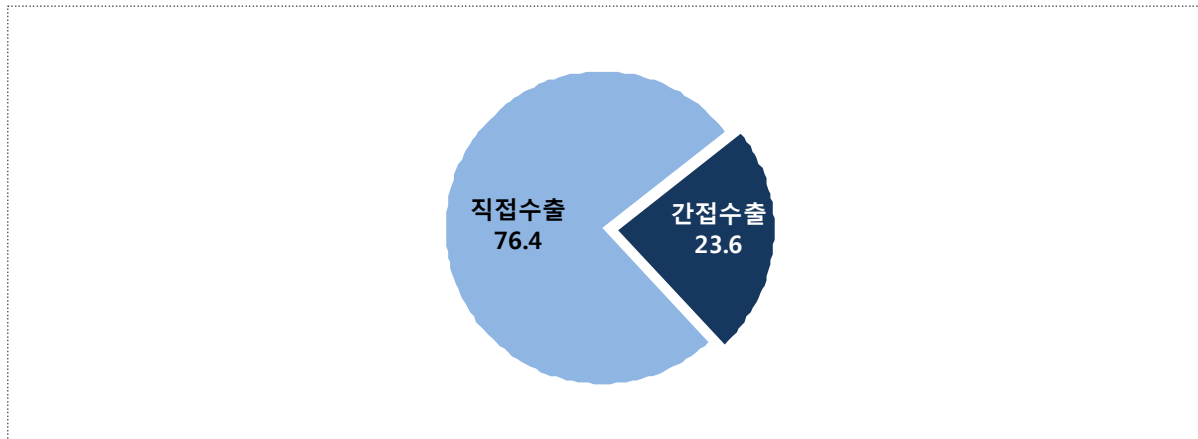


□ 직/간접수출 비중

- 전체 중견기업 중 직접 수출을 하는 기업은 76.4%, 간접수출을 하는 기업은 23.6%로 직접수출 비중이 간접수출 비중의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0] 직/간접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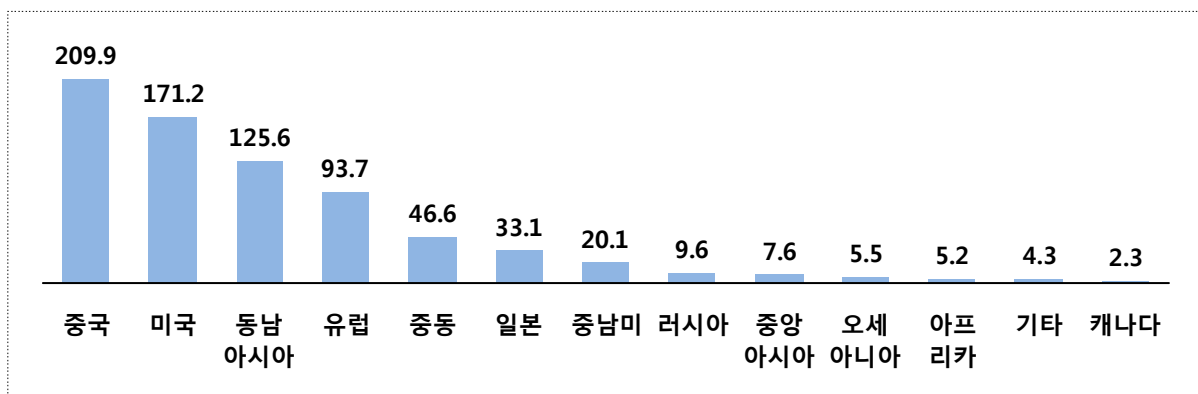
(단위: %)



-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의 전체 수출금액은 734.8억불이며, 가장 많이 수출한 지역은 중국(209.9억불), 미국(171.2억불), 동남아시아(125.6억불), 유럽(93.7억불)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 주요수출지역별 수출금액

(단위: 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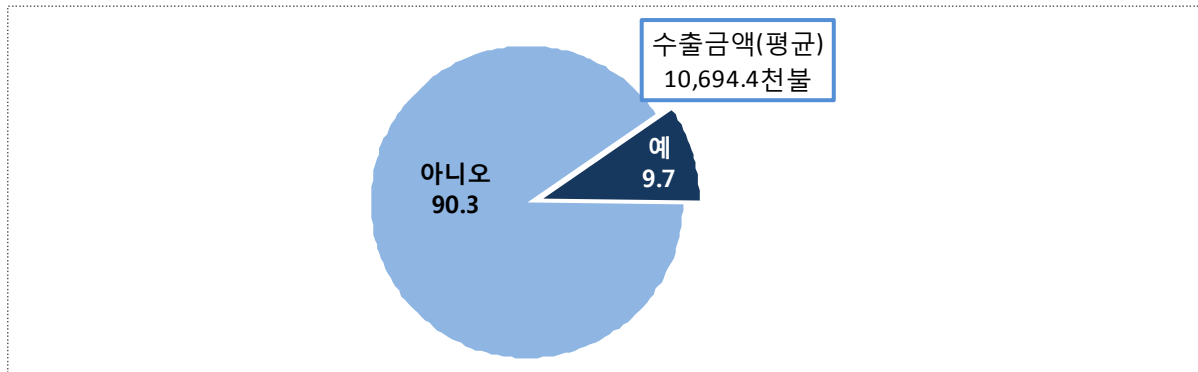


□ 해외 진출

- 2014년 해외로 신규 진출한 기업은 9.7%이며, 이들의 수출평균 금액은 10,694.4천불로 나타남

[그림 32] 신규 진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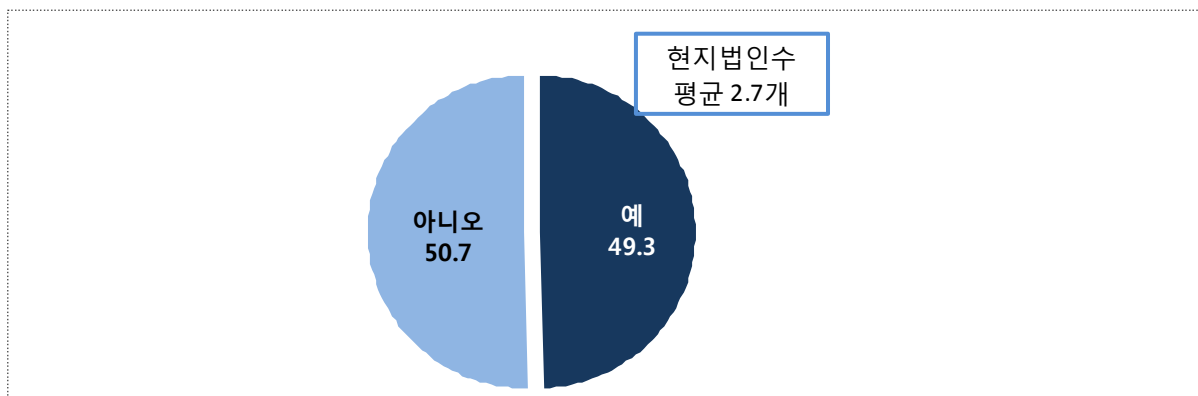
(단위: %)



- 해외에 현지법인이 있는 기업은 49.3%이며, 기업당 2.7개의 현지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현지법인 설립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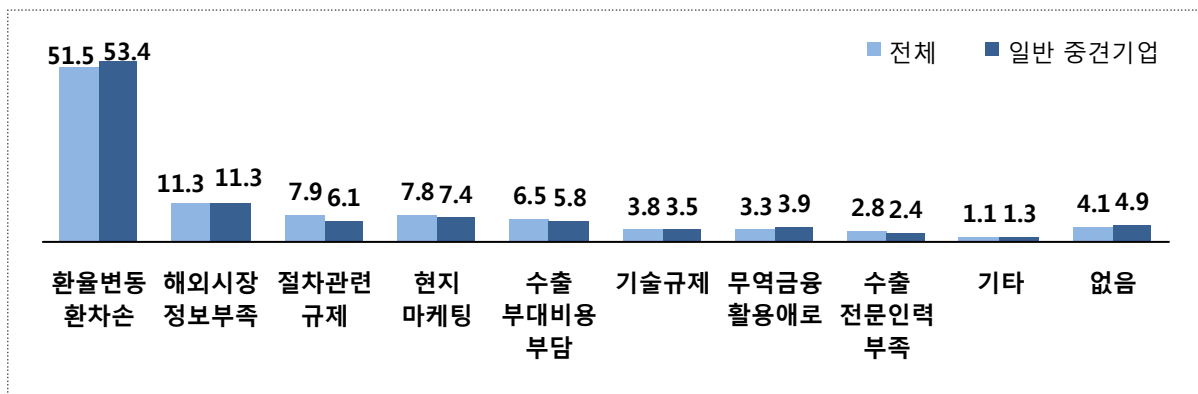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수출시 애로사항으로는 환율변동 환차손(51.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해외시장 정보부족(11.3%), 절차관련 규제(7.9%), 현지마케팅(7.8%)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환율변동 환차손(53.4%), 해외시장 정보부족(11.3%), 현지마케팅(7.4%), 절차관련 규제(6.1%) 순임

[그림 34] 수출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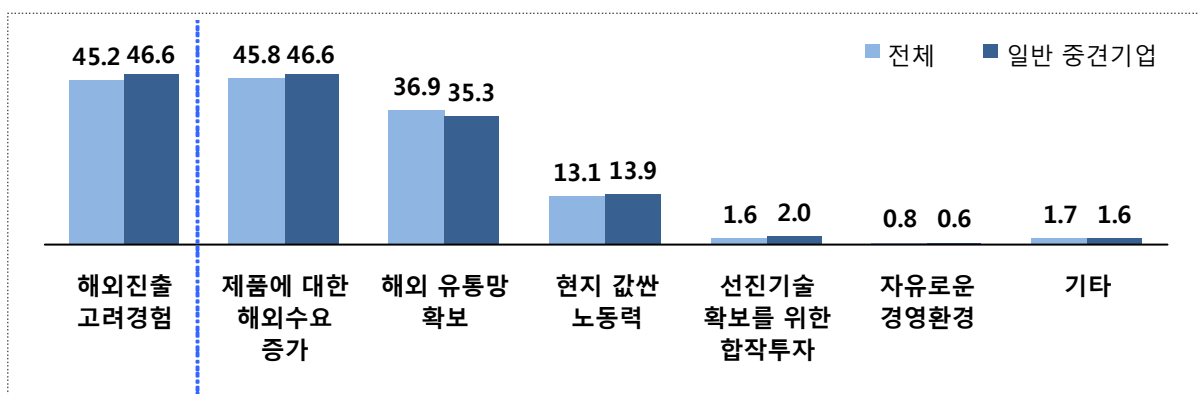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45.2%는 향후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의 증가(45.8%), 해외 유통망 확보(36.9%), 현지 값싼 노동력(13.1%)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46.6%가 향후 해외진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해외수요의 증가(46.6%), 해외유통망 확보(35.3%), 현지 값싼 노동력(13.9%) 순임

[그림 35] 해외진출 고려 여부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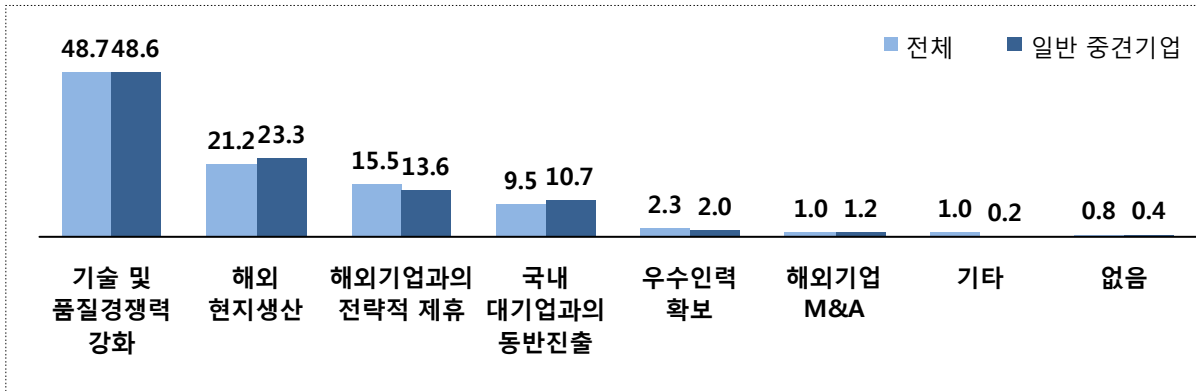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해외수출(진출)시 전략으로는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48.7%), 해외 현지생산(21.2%),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15.5%)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해외수출(진출)시 전략은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48.6%), 해외 현지생산(23.3%),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13.6%) 순임

[그림 36]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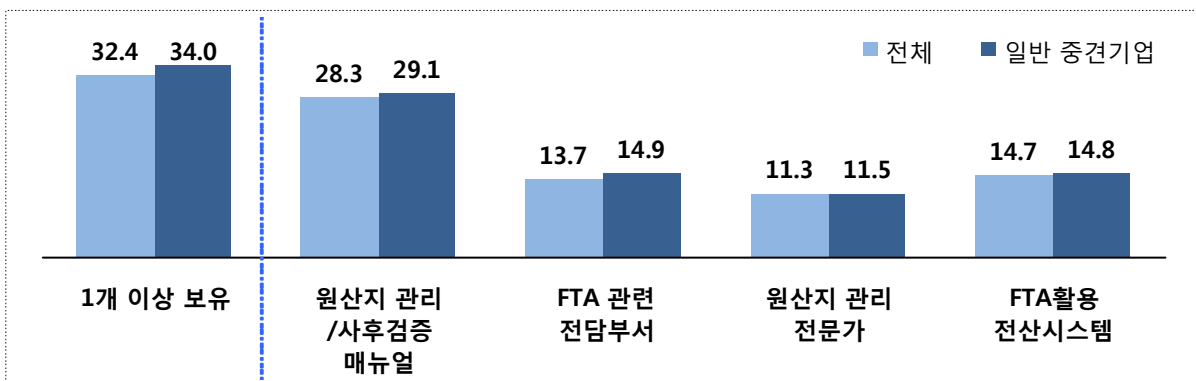


□ FTA 활용

- 중견기업의 32.4%는 1개 이상의 FTA 내부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관리/사후검증 매뉴얼(28.3%), FTA활용 전산시스템(14.7%), FTA 관련 전담부서(13.7%) 순으로 구축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34.0%가 1개 이상의 FTA 내부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관리/사후검증 매뉴얼(29.1%), FTA관련 전담부서(14.9%), FTA활용 전산시스템(14.8%) 순으로 구축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37]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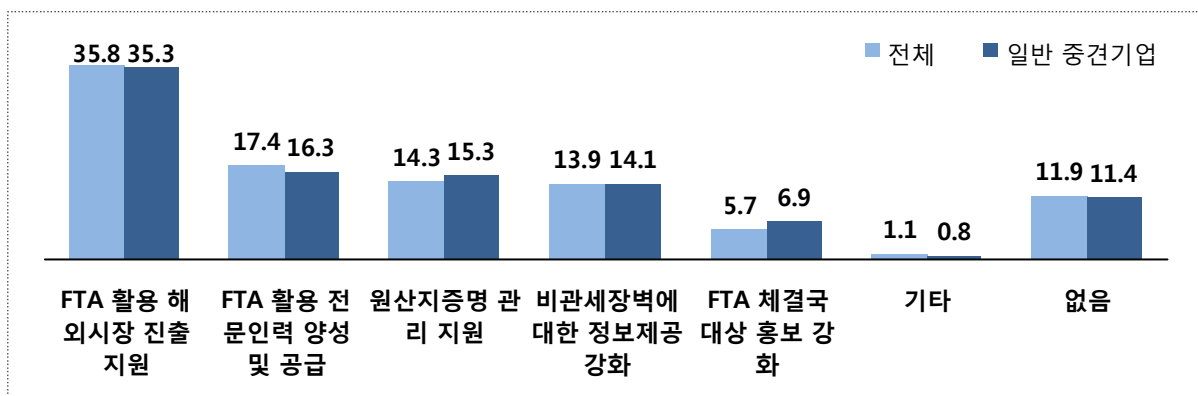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으로는 FTA 활용해외시장 진출지원(35.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17.4%),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14.3%),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13.9%)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은 FTA 활용해외시장 진출지원(35.3%),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16.3%),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15.3%) 순임

[그림 38]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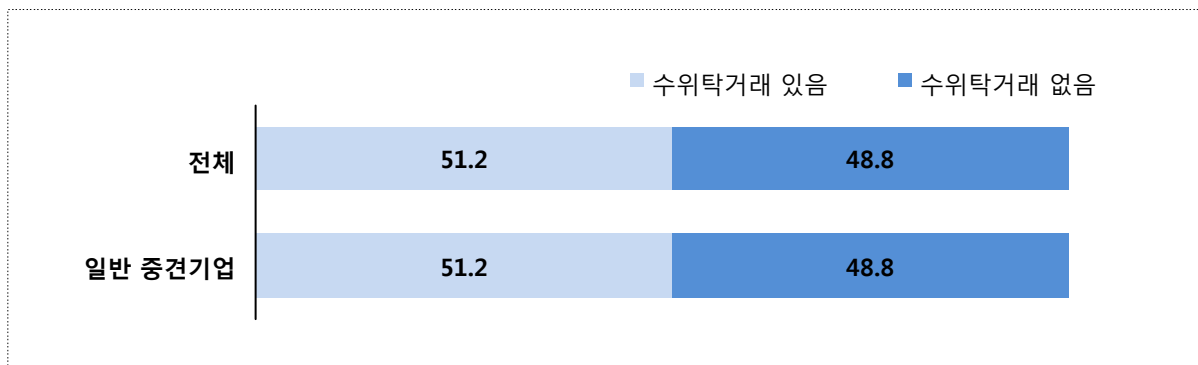
2.5. 수위탁거래 및 동반성장

□ 수·위탁거래

- 중견기업의 51.2%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으며, 일반 중견기업 역시 51.2%가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9] 수·위탁거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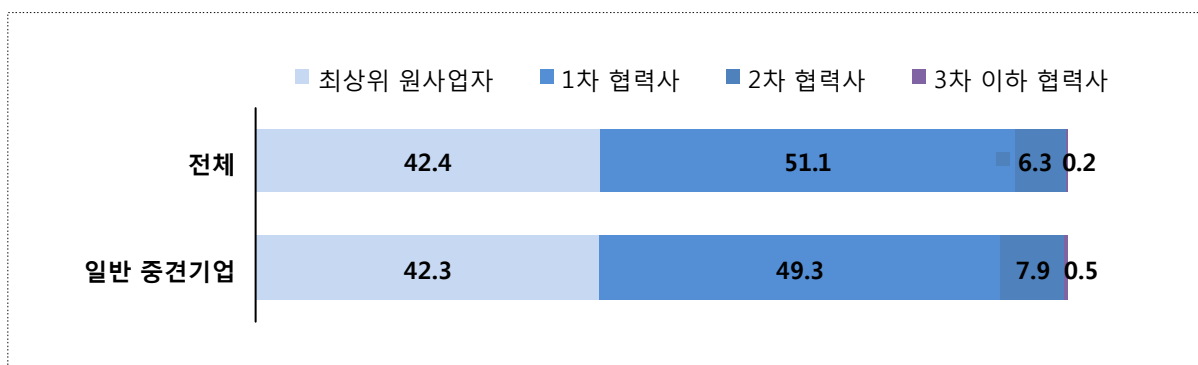
(단위: %)



- 수·위탁거래를 수행하는 중견기업들의 거래단계는 1차 협력사(51.1%)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최상위 원사업자(42.4%), 2차 협력사(6.3%)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수·위탁거래 거래단계는 1차 협력사(49.3%), 최상위 원사업자(42.3%), 2차 협력사(7.9%) 순임

[그림 40] 수·위탁거래 수행기업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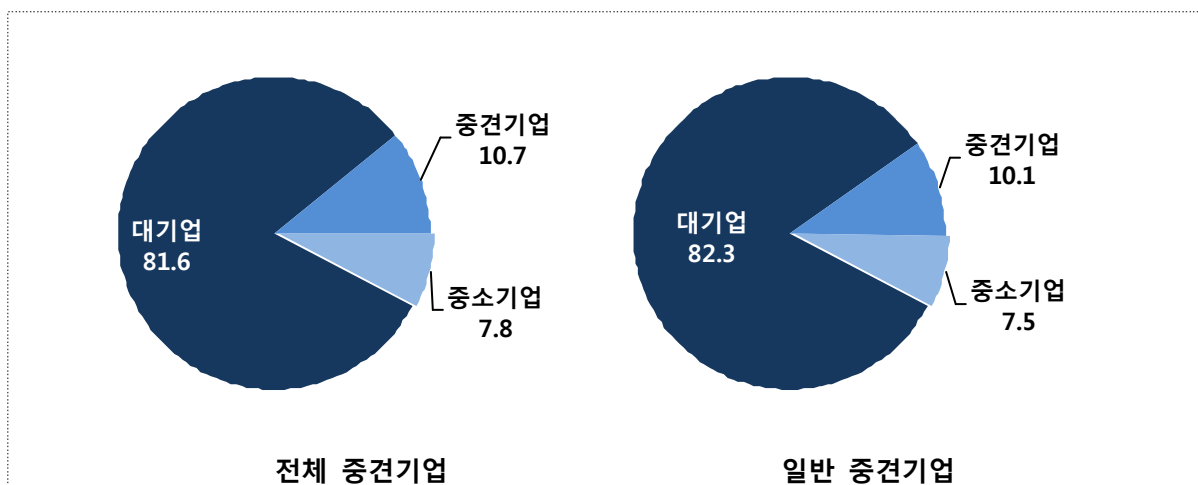
(단위: %)



- 하도급관계가 있는 중견기업의 거래대상별 매출 비중을 보면 81.6%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10.7%는 중견기업, 7.8%는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82.3%가 대기업과의 거래를 하고 있으며, 10.1%는 중견기업, 7.5%는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 위탁기업 거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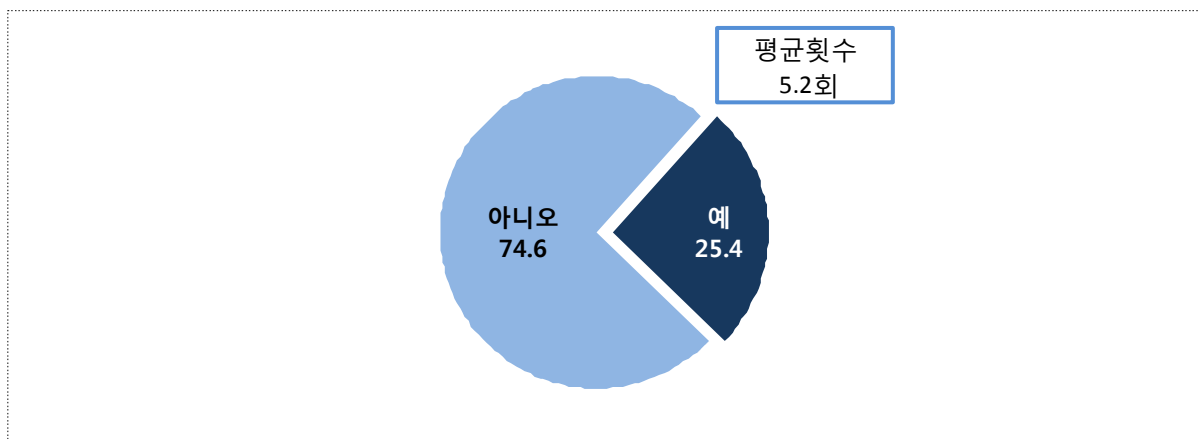
(단위: %, 하도급 관계 기업)



- 중견기업의 25.4%는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균 5.2회로 나타남

[그림 42] 납품단가 인하요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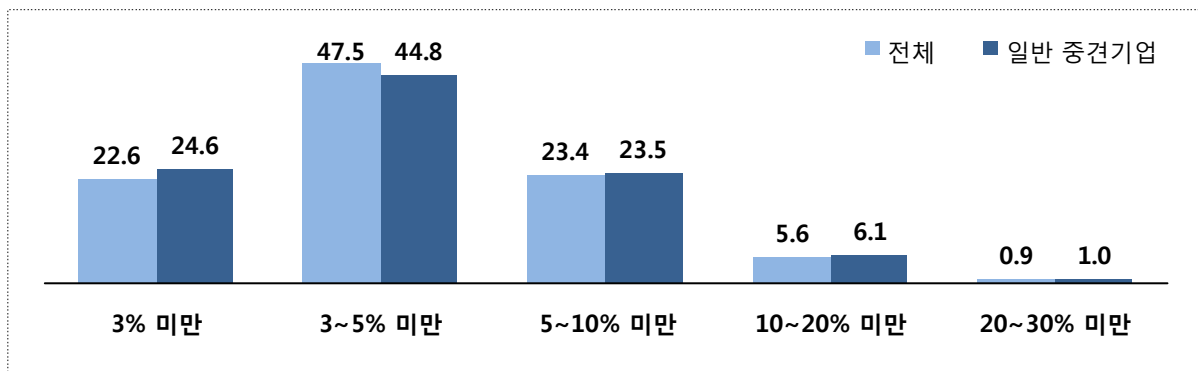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평균 단가인하율은 3~5% 미만(47.5%)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5~10% 미만(23.4%), 3% 미만(22.6%)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단가인하율은 3~5% 미만(44.8%), 3% 미만(24.6%), 5~10% 미만(23.5%) 순임

[그림 43] 평균 단가인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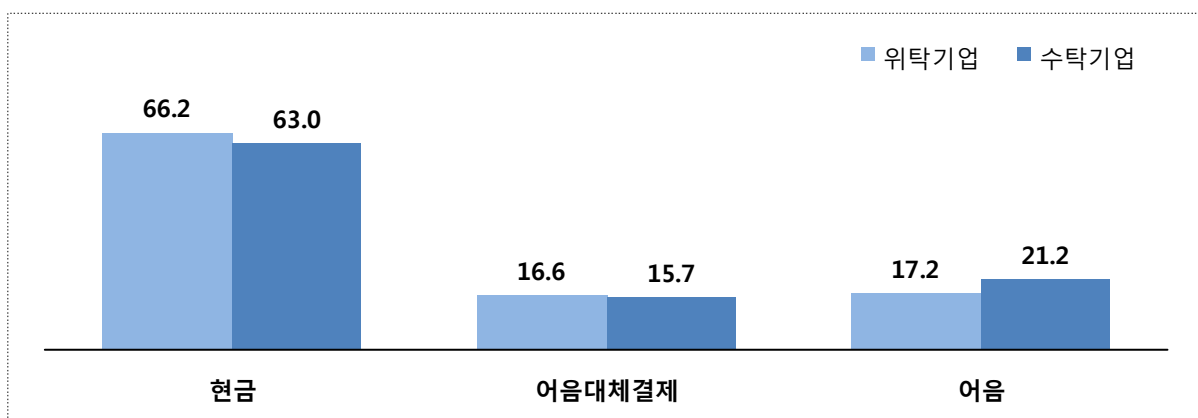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위탁기업 결제 수단 비중은 현금(66.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어음(17.2%), 어음대체결제(16.6%) 순으로 나타남
- 수탁기업의 결제 수단 비중은 현금(63.0%), 어음(21.2%), 어음대체결제(15.7%) 순임

[그림 44] 수·위탁거래 결제수단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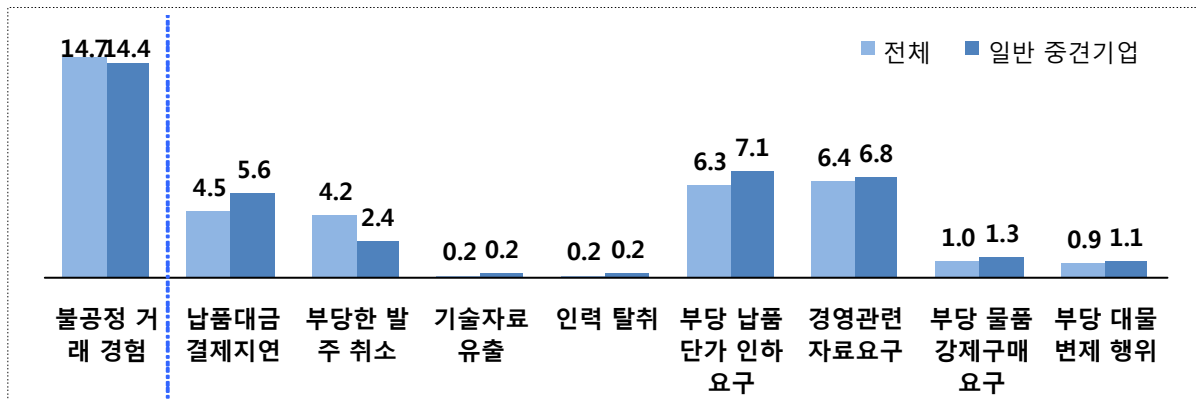


□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 1차 이하 협력사들 중 14.7%는 불공정 거래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유형은 경영관련 자료요구(6.4%), 부당 납품단가 인하요구(6.3%), 납품대금 결제지연(4.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14.4%가 불공정 거래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유형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 요구(7.1%), 경영관련 자료요구(6.8%), 납품대금 결제지연(5.6%) 순으로 나타남

[그림 45] 불공정거래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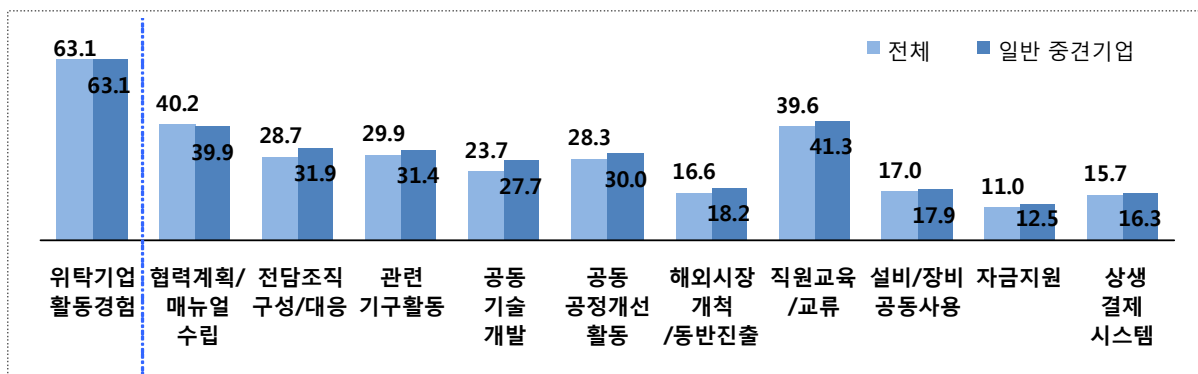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63.1%는 위탁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40.2%), 직원교육/교류(39.6%), 관련기구 활동(29.9%)이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위탁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은 63.1%로 나타났으며, 직원 교육/교류(41.3%), 협력계획 매뉴얼 수립(39.9%), 전담조직 구성/대응(31.9%) 등이 높게 나타남

[그림 46]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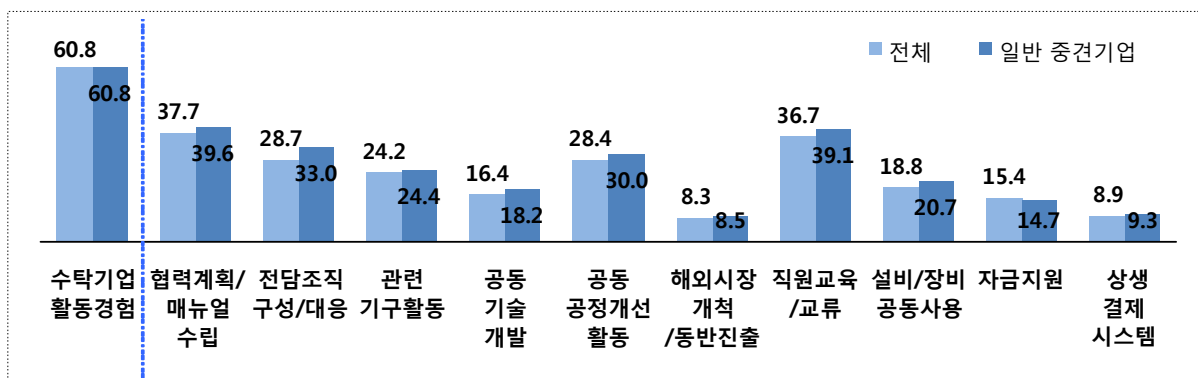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60.8%는 수탁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37.7%), 직원교육/교류(36.7%), 전담조직 구성/대응(28.7%)이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수탁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은 60.8%로 나타났으며, 협력계획 매뉴얼 수립(39.6%), 직원교육/교류(39.1%), 전담조직 구성/대응(33.0%) 등이 높게 나타남

[그림 47]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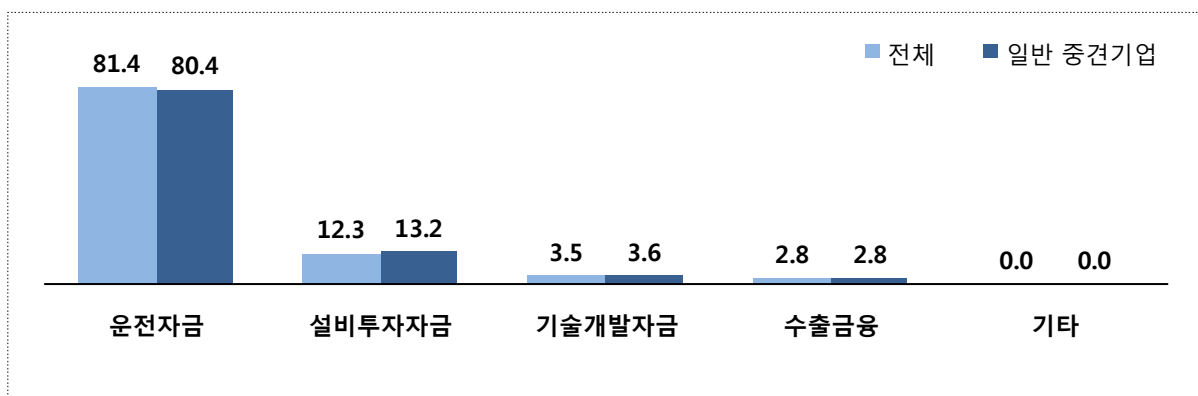
2.6. 금융 및 자금조달

□ 자금조달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용도는 운전자금(81.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설비투자자금(12.3%), 기술개발자금(3.5%)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용도는 운전자금(80.4%), 설비투자자금(13.2%), 기술개발자금(3.6%) 순임

[그림 48] 자금조달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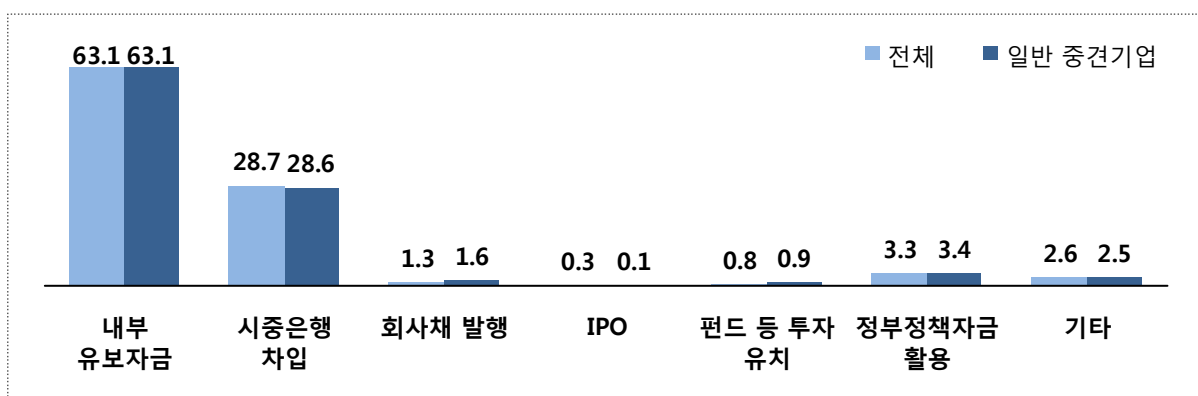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원은 내부 유보자금(63.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시중은행 차입(28.7%), 정부정책자금 활용(3.3%)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원은 내부 유보자금(63.1%), 시중은행 차입(28.6%), 정부정책자금 활용(3.4%) 순임

[그림 49] 자금조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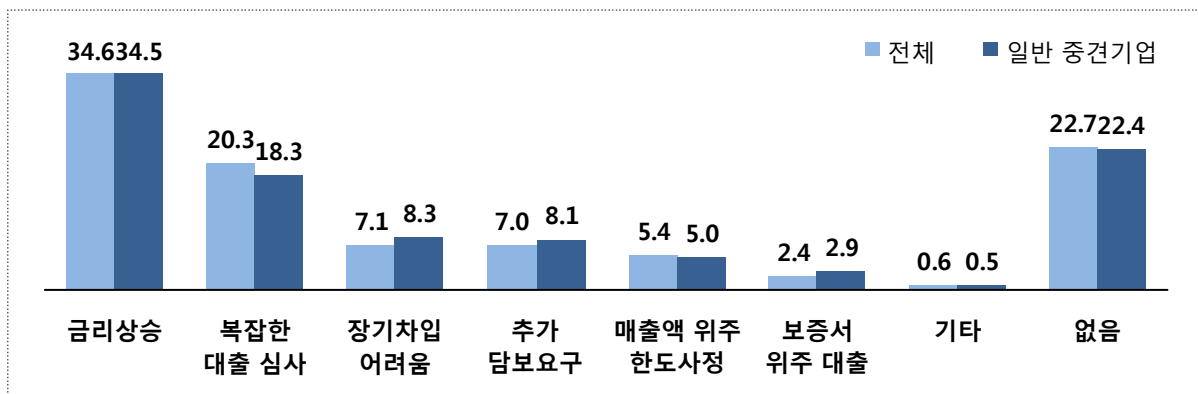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애로사항으로는 금리상승(34.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복잡한 대출심사(20.3%), 장기차입 어려움(7.1%)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애로사항은 금리상승(34.5%), 복잡한 대출심사(18.3%), 장기차입 어려움(8.3%) 순임

[그림 50]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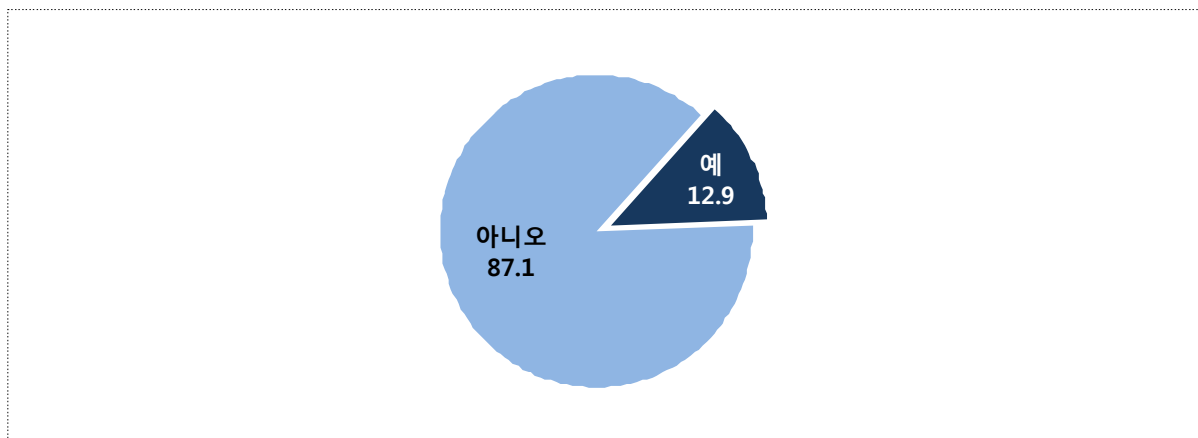


□ 정책자금

- 중견기업의 12.9%는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 정책자금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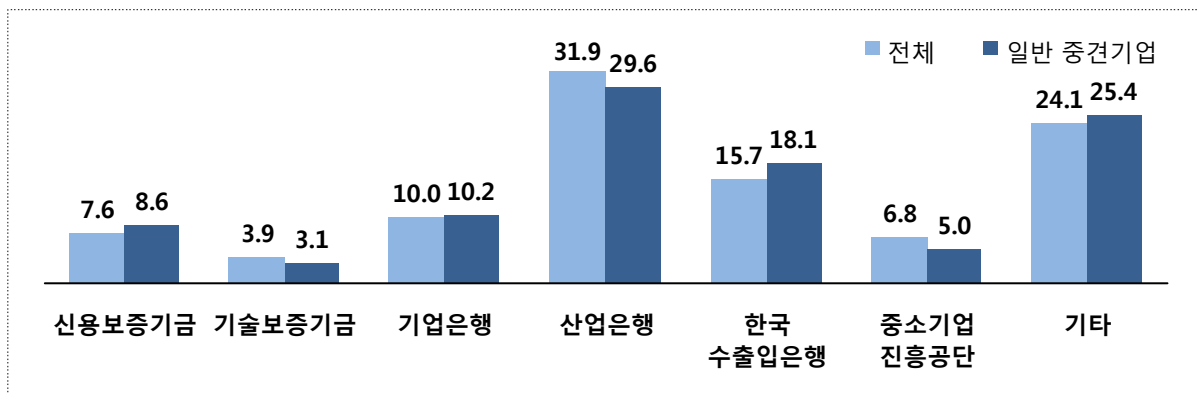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은 산업은행(31.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한국수출입은행(15.7%), 기업은행(10.0%)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정책자금 기관별 출처는 산업은행(29.6%), 한국수출입은행(18.1%), 기업은행(10.2%) 순임

[그림 52]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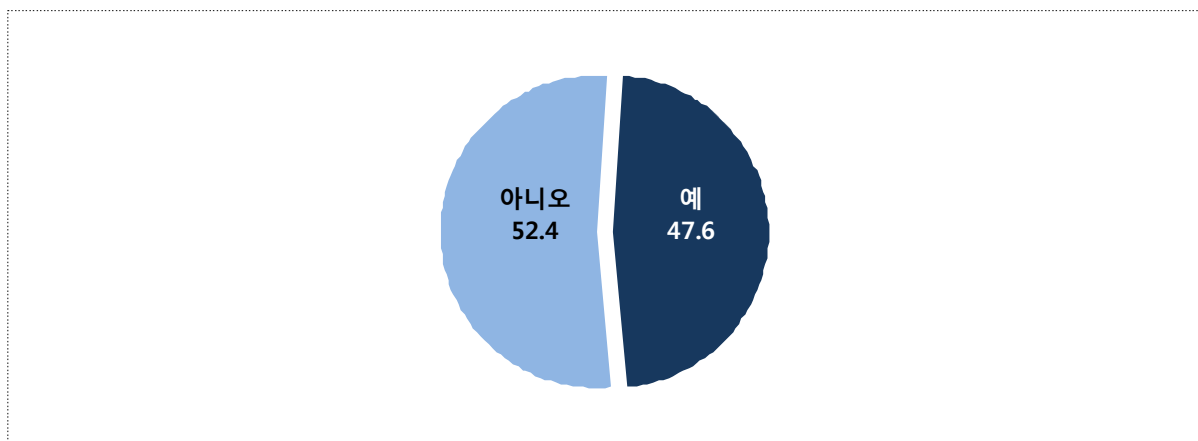
2.7.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사회공헌활동

- 중견기업의 47.6%는 사회공헌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3] 사회공헌활동 수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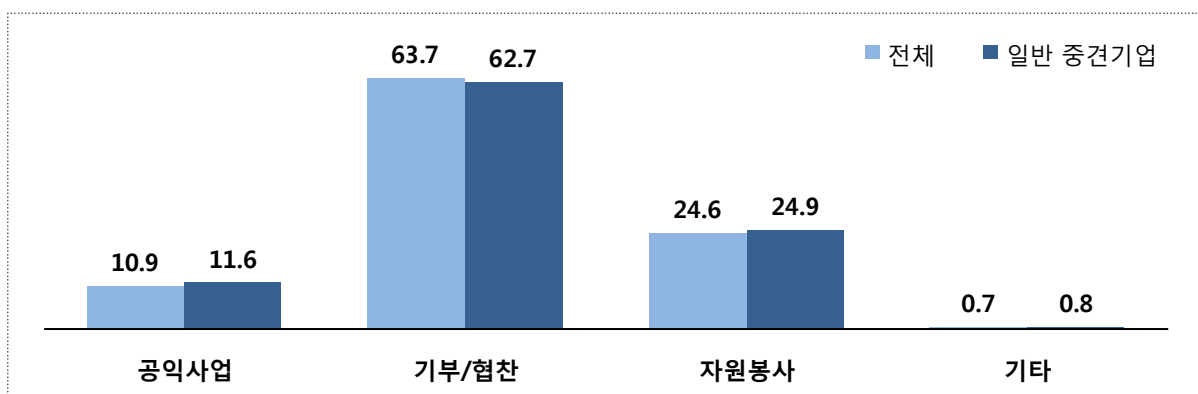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행 유형으로는 기부/협찬(63.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자원봉사(24.6%), 공익사업(10.9%)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행 유형은 기부/협찬(62.7%), 자원봉사(24.9%), 공익사업(11.6%) 순임

[그림 54] 사회공헌활동 수행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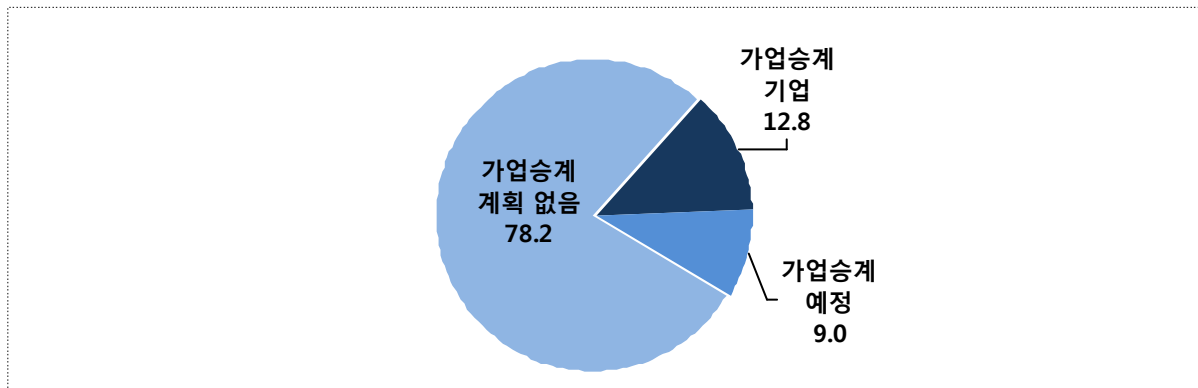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78.2%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8%는 가업승계 기업, 9.0%는 가업승계 예정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55] 가업승계 도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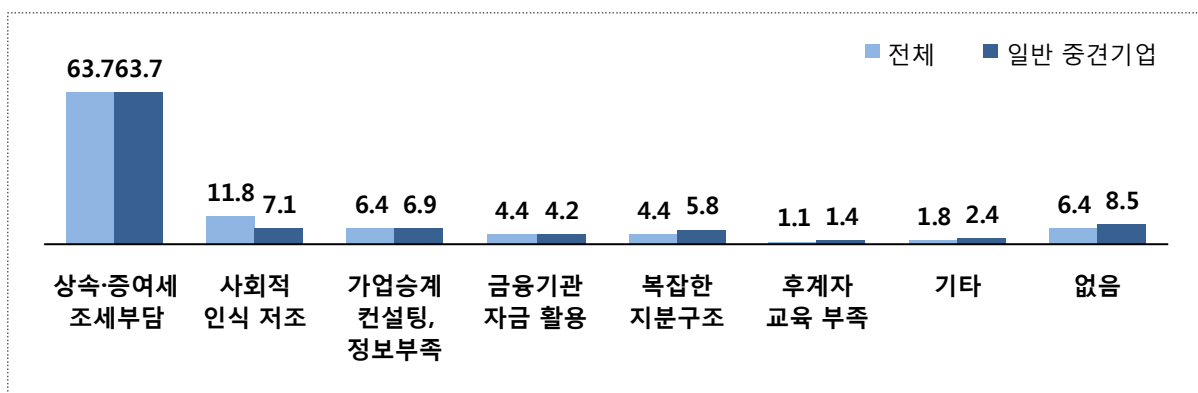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증여세 조세부담(63.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사회적 인식 저조(11.8%),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 부족(6.4%)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조세부담(63.7%), 사회적 인식 저조(7.1%),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부족(6.9%)순임

[그림 56] 가업승계 애로사항

(단위: %)



●●● 목 차 ●●●

- 제 1 장 조사개요1**
 - 1절 조사목적1
 - 2절 중견기업의 정의2
 - 1. 중견기업 정의 및 범위 2
 - 2. 중견기업 기준 3
 - 3절 조사설계5
 - 1. 조사개요 5
 - 2. 조사내용 6
 - 3. 표본설계 7
- 제 2 장 중견기업 현황10**
 - 1절 중견기업 현황10
 - 1. 총괄 10
 - 2. 지역별 현황 11
 - 3. 업종별 현황 12
 - 4. 매출액별 현황 13
 - 5. 업력별 현황 14
- 제 3 장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15**
 - 1절 중견기업 특성15
 - 1. 중견기업 기초 정보 15
 - 2. 일반중견기업 기초 정보 17
 - 3. 관계기업 기초 정보 18
 - 2절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19
 - 1.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19
 - 2. 인수합병 (M&A) 25
 - 3. 중견기업 경영 애로 32

3절 기술혁신	37
1. 중견기업의 기술/설비 투자	37
2. R&D관련 정부지원사업 수행	45
3. 연구개발	49
4. 지식재산권	53
4절 인재확보	72
1. 인력현황	72
2. 직원 복지	92
5절 국제화 촉진	96
1. 수출	96
2. 현지법인	107
3. FTA 활용	127
6절 수·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	135
1. 수·위탁 거래 현황	135
2.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145
7절 금융 및 자금조달	154
1. 자금조달	154
2. 정책자금의 활용	161
8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165
 부 록. 설문지	 177

●●● 표 목 차 ●●●

[표 1-1] 중견기업의 범위.....	2
[표 1-2] 기업 규모에 따른 관련 법령.....	2
[표 1-3] 업종별 중견기업 규모기준.....	3
[표 1-4] 조사개요.....	5
[표 1-5] 조사내용.....	6
[표 2-1] 연도별 중견기업 추이.....	10
[표 2-2]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11
[표 2-3] 매출액 구간별 중견기업 현황.....	13
[표 2-4] 업력 구간별 중견기업 현황.....	14
[표 3-1] 중견기업 일반 현황.....	16
[표 3-2] 일반 중견기업 일반 현황.....	17
[표 3-3] 관계기업 일반 현황.....	18
[표 3-4] 중소기업 회귀 검토 유무.....	20
[표 3-5]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	22
[표 3-6]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2순위.....	23
[표 3-7]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2순위.....	24
[표 3-8] 인수합병(M&A) 경험.....	26
[표 3-9]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28
[표 3-10] M&A활성화 필요정책 : 1순위.....	30
[표 3-11] M&A활성화 필요정책 : 1+2순위.....	31
[표 3-12] 경영 애로사항 : 1순위.....	33
[표 3-13] 경영 애로사항 : 1순위(계속).....	34
[표 3-14] 경영 애로사항 : 1+2순위.....	35
[표 3-15] 경영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36
[표 3-16] R&D 투자실적.....	39
[표 3-17] 설비투자실적.....	42
[표 3-18] 기술개발 방식.....	44
[표 3-19] 정부지원 R&D사업 수행 경험.....	46
[표 3-20]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48
[표 3-21] 연구개발 조직형태 및 인력수.....	50
[표 3-22] 기술수준 정의.....	51
[표 3-23] 주력기술 수준.....	52

[표 3-24]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54
[표 3-25]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	56
[표 3-26]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계속).....	57
[표 3-27]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합계.....	58
[표 3-28]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합계(계속).....	59
[표 3-29]	지식재산권 침해경험.....	61
[표 3-30]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63
[표 3-31]	산학협력 활동 경험.....	65
[표 3-32]	협력기관.....	67
[표 3-33]	기술이전 받은 경험.....	69
[표 3-34]	기술이전처.....	71
[표 3-35]	중견기업 인력 현황.....	73
[표 3-36]	채용실적.....	75
[표 3-37]	남성 신입사원 초임 : 평균.....	77
[표 3-38]	여성 신입사원 초임 : 평균.....	78
[표 3-39]	남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80
[표 3-40]	여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82
[표 3-41]	이직자 현황.....	84
[표 3-42]	주요 이직원인 : 1순위.....	86
[표 3-43]	주요 이직원인 : 1순위(계속).....	87
[표 3-44]	주요 이직원인 : 1+2순위.....	88
[표 3-45]	주요 이직원인 : 1+2순위(계속).....	89
[표 3-46]	유형별 보유인력	91
[표 3-47]	성과보상 제도.....	93
[표 3-48]	직원 정년.....	95
[표 3-49]	해외 수출 여부.....	97
[표 3-50]	직/간접수출 비중.....	99
[표 3-51]	주요수출지역 1+2+3순위.....	101
[표 3-52]	주요수출지역 1+2+3순위(계속).....	102
[표 3-53]	주요수출지역별 수출금액.....	103
[표 3-54]	신규 진출 여부.....	105
[표 3-55]	신규 진출 국가별 수출금액.....	106
[표 3-56]	현지법인 설립.....	108
[표 3-57]	진출국가별 현지법인 설립 현황.....	109
[표 3-58]	주요 지역별 현지법인 설립 현황 1+2+3순위.....	110
[표 3-59]	주요 지역별 현지법인 설립 현황 1+2+3순위(계속).....	111
[표 3-60]	수출시 애로사항 : 1순위.....	113
[표 3-61]	수출시 애로사항 : 1순위(계속).....	114

[표 3-62]	수출시 애로사항 : 1+2순위	115
[표 3-63]	수출시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116
[표 3-64]	해외진출 고려 여부	118
[표 3-65]	해외진출 고려 이유 : 1순위	120
[표 3-66]	해외진출 고려 이유 : 1+2순위	121
[표 3-67]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	123
[표 3-68]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계속)	124
[표 3-69]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2순위	125
[표 3-70]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2순위(계속)	126
[표 3-71]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129
[표 3-72]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	131
[표 3-73]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계속)	132
[표 3-74]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2순위	133
[표 3-75]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2순위(계속)	134
[표 3-76]	수·위탁거래 단계	136
[표 3-77]	위탁거래 현황	138
[표 3-78]	납품단가 인하 요구 경험 및 평균단가인하율	140
[표 3-79]	위탁거래 기업과의 결제기간/수단	142
[표 3-80]	수탁거래 기업과의 결제기간/수단	144
[표 3-81]	불공정거래 경험율	146
[표 3-82]	불공정거래 경험율(계속)	147
[표 3-83]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149
[표 3-84]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계속)	150
[표 3-85]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152
[표 3-86]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계속)	153
[표 3-87]	주요 자금조달 용도	155
[표 3-88]	주요 자금조달원 비중	157
[표 3-89]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159
[표 3-90]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계속)	160
[표 3-91]	정책자금 활용 여부	162
[표 3-92]	정책자금 활용 애로사항	164
[표 3-93]	사회공헌활동 수행 여부	166
[표 3-94]	사회공헌활동 유형별 비중	168
[표 3-95]	가업승계 도입 여부	170
[표 3-96]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순위	172
[표 3-97]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순위(계속)	173
[표 3-98]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2순위	174
[표 3-99]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175

●●● 그 림 목 차 ●●●

[그림 2-1] 연도별 중견기업 추이	10
[그림 2-2]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11
[그림 2-3] 제조업 상세업종별 중견기업 현황.....	12
[그림 2-4] 비제조업 상세업종별 중견기업 현황.....	12
[그림 2-5] 매출액 구간별 중견기업 현황.....	13
[그림 2-6] 업력 구간별 중견기업 현황.....	14
[그림 3-1] 중소기업 회귀 검토 유무.....	19
[그림 3-2]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	21
[그림 3-3] 인수합병(M&A) 경험.....	25
[그림 3-4]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27
[그림 3-5] M&A 활성화 필요정책 :1순위.....	29
[그림 3-6] 경영 애로사항.....	32
[그림 3-7] R&D 투자 유무.....	37
[그림 3-8] R&D 투자금액.....	37
[그림 3-9] 설비투자 유무.....	40
[그림 3-10] 설비투자금액.....	40
[그림 3-11] 기술개발 방식.....	43
[그림 3-12] 정부지원 R&D사업 수행경험.....	45
[그림 3-13]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47
[그림 3-14] 연구개발 조직형태 및 인력수.....	49
[그림 3-15] 주력기술 수준.....	51
[그림 3-16]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53
[그림 3-17]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	55
[그림 3-18]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	60
[그림 3-19]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62
[그림 3-20] 산학협력 활동 경험.....	64
[그림 3-21] 산학협력기관.....	66
[그림 3-22] 기술이전 받은 경험.....	68
[그림 3-23] 기술이전처.....	70
[그림 3-24] 중견기업 인력 현황 : 평균.....	72
[그림 3-25] 채용실적 : 평균.....	74
[그림 3-26] 신입사원 초임 : 평균.....	76
[그림 3-27] 남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79

[그림 3-28] 여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81
[그림 3-29] 이직자 현황 : 평균.....	83
[그림 3-30] 주요 이직원인 : 1순위.....	85
[그림 3-31] 유형별 보유인력.....	90
[그림 3-32] 성과보상 제도.....	92
[그림 3-33] 직원 정년.....	94
[그림 3-34] 해외 수출.....	96
[그림 3-35] 직/간접수출 비중.....	98
[그림 3-36] 주요수출지역 1+2+3순위.....	100
[그림 3-37] 주요수출지역별 수출금액.....	103
[그림 3-38] 신규 진출 여부.....	104
[그림 3-39] 신규 진출 국가.....	106
[그림 3-40] 현지법인 설립.....	107
[그림 3-41] 수출시 애로사항.....	112
[그림 3-42] 해외진출 고려 여부.....	117
[그림 3-43] 해외진출 고려 이유.....	119
[그림 3-44]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	122
[그림 3-45]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127
[그림 3-46]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	130
[그림 3-47] 수·위탁거래 단계.....	135
[그림 3-48] 위탁거래기업과의 거래 비중.....	137
[그림 3-49] 납품단가 인하 요구 경험.....	139
[그림 3-50] 위탁결제 수단 비중.....	141
[그림 3-51] 수탁거래 결제수단 비중.....	143
[그림 3-52] 불공정거래 경험을.....	145
[그림 3-53]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 비중.....	148
[그림 3-54]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151
[그림 3-55] 주요 자금조달 용도.....	154
[그림 3-56] 주요 자금조달원 비중.....	156
[그림 3-57]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158
[그림 3-58] 정책자금 활용 여부.....	161
[그림 3-59]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163
[그림 3-60] 사회공헌활동 수행 여부.....	165
[그림 3-61] 사회공헌활동 유형별 비중.....	167
[그림 3-62] 가업승계 도입 여부.....	169
[그림 3-63]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171

제 1 장 조사개요

1절 조사목적

□ 조사목적

- 현재까지의 정부의 산업 관련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 특히 대기업의 공정거래나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실하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지속 성장이 어려움
-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2014년 7월 22일 시행하고, 동법 제24조(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1항에 의거하여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중견기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인 중견기업 시책수립 및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2015년 11월 국가승인 통계로서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되었음
- 주요조사 항목은 중견기업의 인력, 자금, 경영, 성장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이며 실태조사 결과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 보완하여 중견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튼튼한 허리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2절 중견기업의 정의

1. 중견기업 정의 및 범위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을 의미
 - 중소기업 : 3년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로 400억원(숙박 및 음식업) ~ 1,500억원(1차 금속 제조업 등)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가 금지된 기업집단('15년, 61개 집단, 1,696개 기업)

[표 1-1] 중견기업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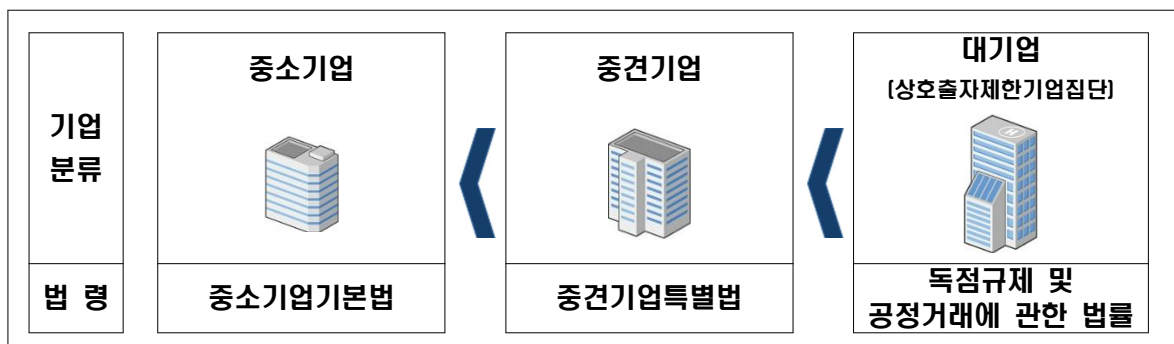
『중견기업법』 제2조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것

[표 1-2] 기업 규모에 따른 관련 법령



2.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상한, 독립성 3가지이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견기업에 해당
- (규모기준) 주된 업종¹⁾에 따른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유예기간²⁾을 경과한 기업

[표 1-3] 업종별 중견기업 규모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중견기업 규모 기준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초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 1) 주된 업종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간주
- 2)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으로서 규모기준을 충족한 사업년도에 다음 사업년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중견기업 규모 기준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3년 평균 매출액 800억원 초과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초과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 초과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교육 서비스업		P	

- (상한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자본총계+부채총계)가 5,000억원 이상인 기업
- (독립성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으로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관계가 아래의 2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해당기업의 최대출자자(최대주주)인 경우
 -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관계기업³⁾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벗어나는 기업

3) 관계기업 :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3절 조사설계

1. 조사개요

- 2014년 재무 기준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2,979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
- 조사방법은 개별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설문기간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응답자의 편리에 따라 전화, fax, E-mail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모집단 구성비에 맞도록 유효표본에 가중치(weight)를 부여 후 통계분석을 실시함

[표 1-4] 조사개요

구분	내 용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재무 기준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2,979개 → 일반 중견기업 2,379개, 관계기업 600개
조사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1월 ~ 2016년 2월
표본추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유형×업종×매출규모로 표본 먹등할당 ▪ 표본추출 시 기업유형×업종×매출규모 셀 내에 사업체를 지역별로 정렬 후 계통추출 함
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도 95%, 표본오차 ±1.77%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조사, 전화, fax, E-mail 조사를 병행
자료수집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표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틀 : 2014년말 기준 중견기업 2,979개 ▪ 표본 크기 결정식 $n = \frac{\left(\sum_{h=1}^L N_h S_h \right)^2}{N^2 \left(\frac{B}{1.96} \right)^2 + \sum_{h=1}^L N_h S_h^2}$ <p>여기에서 B : 허용오차 = $1.96 * \sqrt{\widehat{Var}(\overline{y_{st}})}$,</p> <p>$\overline{y_{st}}$: 표본평균, 상대표준오차 : $\frac{\sqrt{\widehat{Var}(\overline{y_{st}})}}{\overline{y_{st}}}$</p> <p>$N$: 모집단 크기, N_h : 부모집단 크기, S_h^2 : 부모집단의 분산</p> ▪ 표본 할당식 $n_h = n * \frac{(N_h S_h)^p}{\sum_{h=1}^L (N_h S_h)^p}, \quad 0 < p \leq 1$

2. 조사내용

[표 1-5] 조사내용

구분	내 용
기업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기업 기본정보 - 대표자 정보 - 주요 고객유형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회귀 검토 경험 여부 - 회귀 검토 주요 요인 - M&A 경험 여부 및 형태 - M&A 활성화를 위한 필요정책 - 경영애로요인
기술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투자 및 설비투자 실적 - 기술개발방식 - 정부지원 R&D사업 수행 경험 - 정부지원 R&D사업 소극적 이유 - 연구개발 조직/인력 현황 - 주력 기술 수준 -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및 침해 경험 여부 - 산학협력 활동 및 기관 - 기술이전 경험 및 기술이전처
인재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현황 및 채용 실적 - 신입사원 초임 - 재직연수 - 이직 현황 및 이직 이유 - 보유인력 유형 - 성과 보상 제도 및 정년
국제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수출 여부 및 실적(국가) - 현지법인 현황 - 수출시 애로사항 - 해외 진출 고려 여부 및 요인, 전략 - FTA활용 시스템 구축현황 및 필요 정부지원
수·위탁거래 및 동반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위탁거래 단계 및 거래 현황 - 납품단가 인하 요구 및 단가인하율 - 수·위탁거래 결제기간 및 수단 - 주거래 위탁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경험 - 수·위탁기업과의 결제기간 및 수단 - 수·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
금융 및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 용도 및 자금조달원 - 자금조달 애로사항 - 정책자금 활용 경험 및 기관별 활용 비중
기업사회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공헌활동 수행 경험 및 유형 - 가업승계 여부 및 애로사항

3. 표본설계

□ 모집단

- 2014년 재무 기준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2,979개

□ 층화

- 2개 업종별 × 2개 기업유형 × 8개 매출규모로 층화를 실시
 - 업종(2개) : 제조업, 비제조업
 - 기업유형(2개) : 일반중견기업, 관계중견기업
 - 매출규모(8개) : 1백억원미만, 1백억원~5백억원미만, 5백억원~1천억원미만, 1천억원~2천억원미만, 2천억원~3천억원미만, 3천억원~5천억원미만, 5천억원~1조원미만, 1조원이상

□ 표본의 크기 결정

- 전체 표본수는 대표성을 고려하여 1,152개로 설정함
- 표본 크기 결정식

$$n = \frac{\left(\sum_{h=1}^L N_h S_h \right)^2}{N^2 \left(\frac{B}{1.96} \right)^2 + \sum_{h=1}^L N_h S_h^2}$$

여기에서 B : 허용오차 = $1.96 * \sqrt{\widehat{Var}(\bar{y}_{st})}$, \bar{y}_{st} : 표본평균,

$$\text{상대표준오차} : \frac{\sqrt{\widehat{Var}(\bar{y}_{st})}}{\bar{y}_{st}}$$

N : 모집단 크기

N_h : 부모집단 크기

S_h^2 : 부모집단의 분산

- 표본할당식

$$n_h = n^* \frac{(N_h S_h)^p}{\sum_{h=1}^L (N_h S_h)^p}, \quad 0 < p \leq 1$$

□ 표본사업체 추출

- 조사모집단을 제조업_일반중견기업, 비제조_일반중견기업, 제조_관계중견기업, 비제조_관계중견기업으로 층화 후 층내에서 사업체를 매출액 크기로 층화함
- 각 구분별 매출액 층내에 속한 사업체를 매출액 순으로 정렬한후, 계통추출함

□ 추정식

- 업종별 평균 추정치 : $\bar{y}_h = \bar{Y}_{h1} + \sum_{i=2}^4 w_{hi} \bar{y}_{hi}$

여기에서 $\bar{y}_{hi} = \frac{1}{n_{hi}} \sum_{j=1}^{n_{hi}} y_{hij}$

h : 제조, 비제조

\bar{Y}_{h1} : 전수층의 평균

\bar{y}_{hi} : 각 층의 표본평균

n_{hi} : 각층에 할당된 표본의 크기

i : 업종내 매출액 층

y_{hij} : 업종내 매출액 층에 속한 사업체 j 의 특성 값

$$w_{hi} = \frac{N_{hi}}{n_{hi}}$$

- 업종별 표본평균에 대한 분산 추정 : $\hat{Var}(\bar{y}_h) = \sum_{i=2}^4 w_{hi}^2 \hat{Var}(\bar{y}_{hi})$

여기에서 $\hat{Var}(\bar{y}_{hi}) = \frac{1}{n_{hi} - 1} \sum_{j=1}^{n_{hi}} (y_{hij} - \bar{y}_{hi})^2$

- 업종별 총계 추정치 : $\hat{\tau}_{st} = \sum_{h=1}^4 \hat{\tau}_h = \tau_1 + \sum_{h=2}^4 N_h \bar{y}_h$, $h=1$ 은 전수층

- 업종별 총계의 분산 추정치 : $\hat{Var}(\hat{\tau}_h) = \sum_{h=2}^4 N_h^2 \left(\frac{N_h - n_h}{N_h} \right) \frac{s_h^2}{n_h}$
- 업종별 표본평균의 허용오차 : $\pm 1.96 * \sqrt{\hat{Var}(\bar{y}_h)}$
 - 표본평균의 상대표준오차 : $\frac{\sqrt{\hat{Var}(\bar{y}_h)}}{\bar{y}_h} * 100(\%)$

제 2 장 중견기업 현황

1절 중견기업 현황

1.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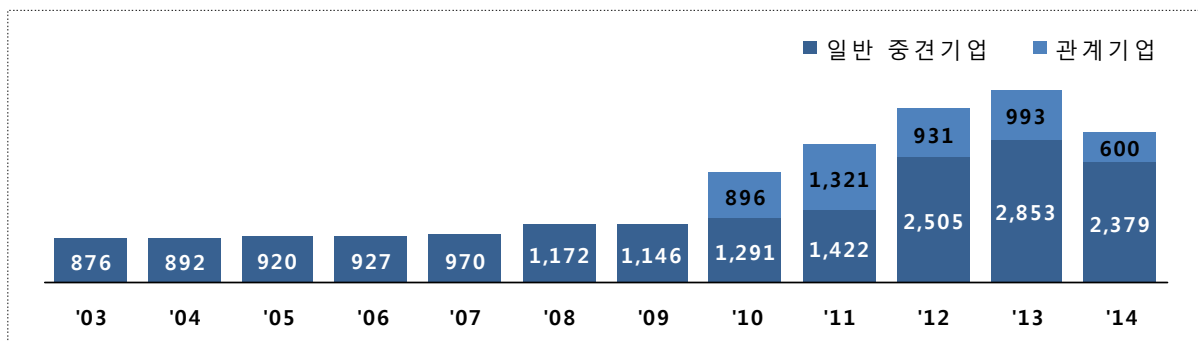
□ 2014년 12월 말 기준 중견기업 수 2,979개로, 일반 중견기업이 2,379개이며, 관계기업 제도에 의해 중견기업으로 편입된 기업이 600개사임

□ 연도별 중견기업 추이

- 중견기업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연평균 약 35%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2009년 1,146개사에서 2013년 3,846개사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4년 중견기업 기준 변경에 따라 2014년은 전년 대비 867개 감소함

[그림 2-1] 연도별 중견기업 추이

(단위: 개사)



[표 2-1] 연도별 중견기업 추이

(단위 : 개사)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전년 대비
전체 중견기업	전산업	876	892	920	927	970	1,172	1,146	2,187	2,743	3,436	3,846	2,979	-22.5%
	제조업	417	409	415	412	429	505	484	883	1,071	1,556	1,675	1,331	-20.5%
	비제조	459	483	505	515	541	667	662	1,304	1,672	1,880	2,171	1,648	-24.1%
일반 중견기업	전산업	876	892	920	927	970	1,172	1,146	1,291	1,422	2,505	2,853	2,379	-16.6%
	제조업	417	409	415	412	429	505	484	534	549	1,140	1,257	1,038	-17.4%
	비제조	459	483	505	515	541	667	662	757	873	1,365	1,596	1,341	-16.0%
관계기업	전산업	-	-	-	-	-	-	-	896	1,321	931	993	600	-39.6%
	제조업	-	-	-	-	-	-	-	349	522	416	418	293	-29.9%
	비제조	-	-	-	-	-	-	-	547	799	515	575	307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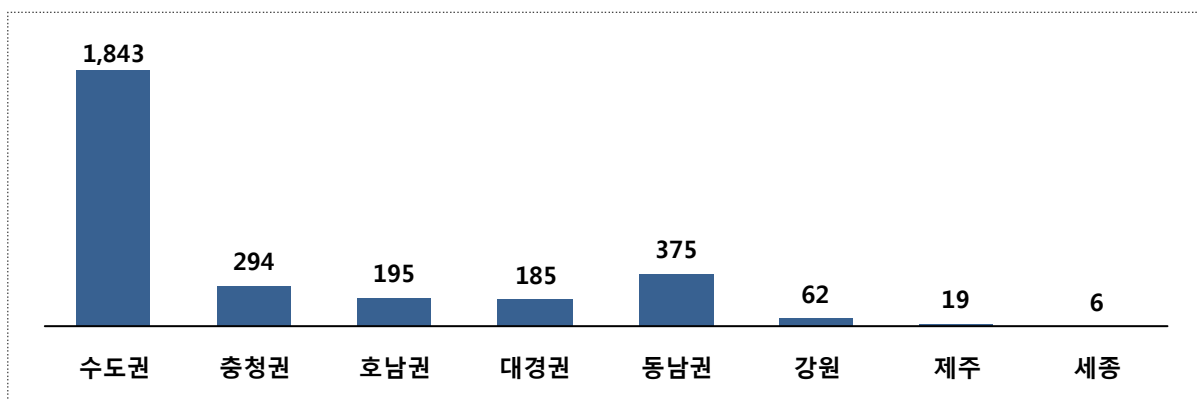
2. 지역별 현황

□ 수도권 61.9%, 동남권 12.6%, 충청권 9.9% 순으로 분포

- 세부적으로 서울 1,068개(35.9%), 경기 654개(22.0%) 등 수도권 지역 분포기업이 많았으며, 이어 경남 172개(5.8%), 부산 152개(5.1%), 충남(4.9%) 순으로 분포

[그림 2-2]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단위: 개사)



[표 2-2]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단위: 개사)

광역권	1.수도권(61.9%)			2.충청권(9.9%)			3.호남권(6.5%)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35.9%	4.1%	22.0%	1.5%	3.5%	4.9%	2.2%	2.0%	2.3%
전업종	1,068	121	654	46	103	145	66	59	70
제조업	258	65	332	17	76	98	23	33	29
비제조업	810	56	322	29	27	47	43	26	41

광역권	4.대경권(6.2%)		5.동남권(12.6%)			6.강원	7.제주	8.세종	합계
지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2.5%	3.7%	5.1%	1.7%	5.8%	2.1%	0.6%	0.2%	
전업종	74	111	152	51	172	62	19	6	2,979
제조업	49	84	72	36	127	25	1	6	1,331
비제조업	25	27	80	15	45	37	18		1,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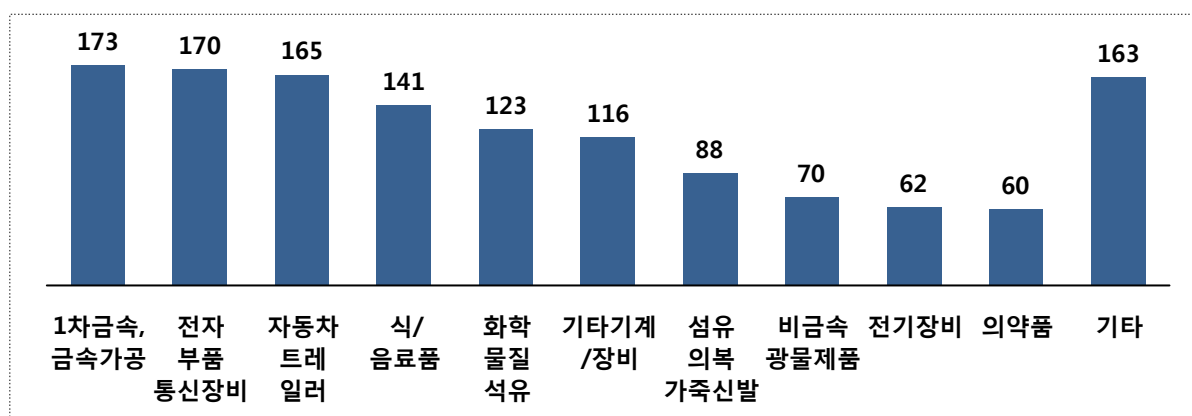
3. 업종별 현황

□ 전체 중견기업 중 제조업 1,331개(44.7%), 비제조업 1,648개(55.3%)를 차지

- 제조업은 1,331개이며 상세업종별로는 1차금속·금속가공 173개(13.0%), 전자부품 통신장비 170개(12.8%), 자동차·트레일러 165개(12.4%) 순으로 분포

[그림 2-3] 제조업 상세업종별 중견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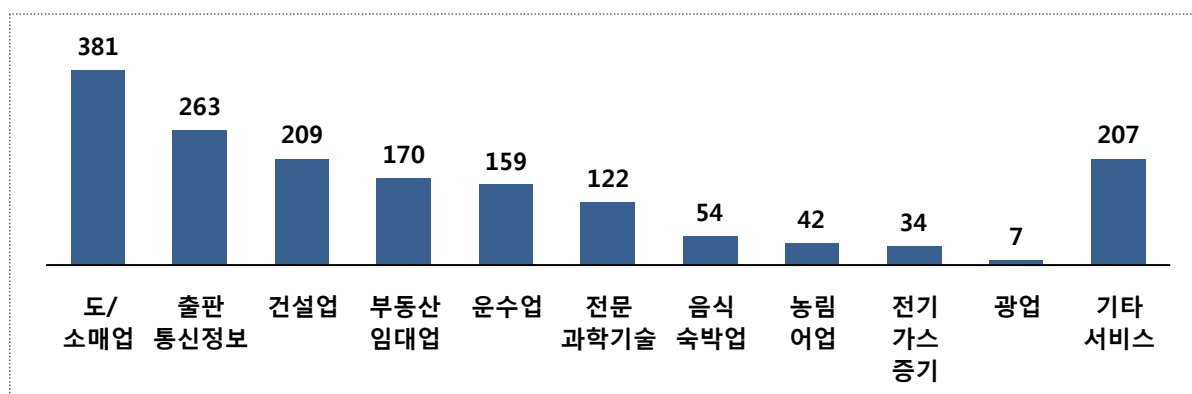
(단위: 개사)



- 비제조업은 1,648개이며 상세업종별로는 도·소매업 381개(23.1%), 출판·통신·정보 서비스업 263개(16.0%), 건설업 209개(12.7%), 부동산·임대업 170개(10.3%) 순으로 분포

[그림 2-4] 비제조업 상세업종별 중견기업 현황

(단위: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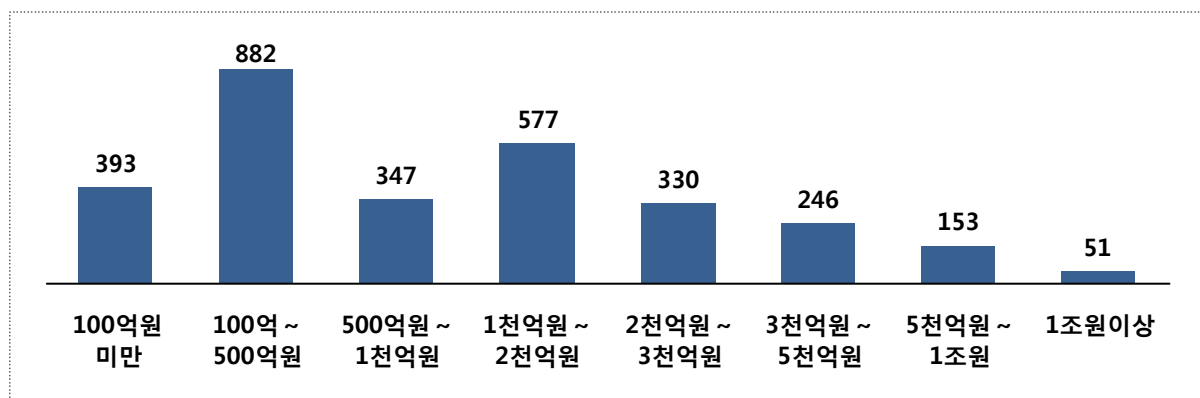
4. 매출액별 현황

□ 2014년 중견기업 총 매출액 483.6조원, 평균 매출액 1,821.4억원

- 1천억 미만 기업이 1,622개(54.4%)로 가장 많은 가운데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기업분포는 줄어드는 경향

[그림 2-5] 매출액 구간별 중견기업 현황

(단위: 개사)



[표 2-3] 매출액 구간별 중견기업 현황

(단위 :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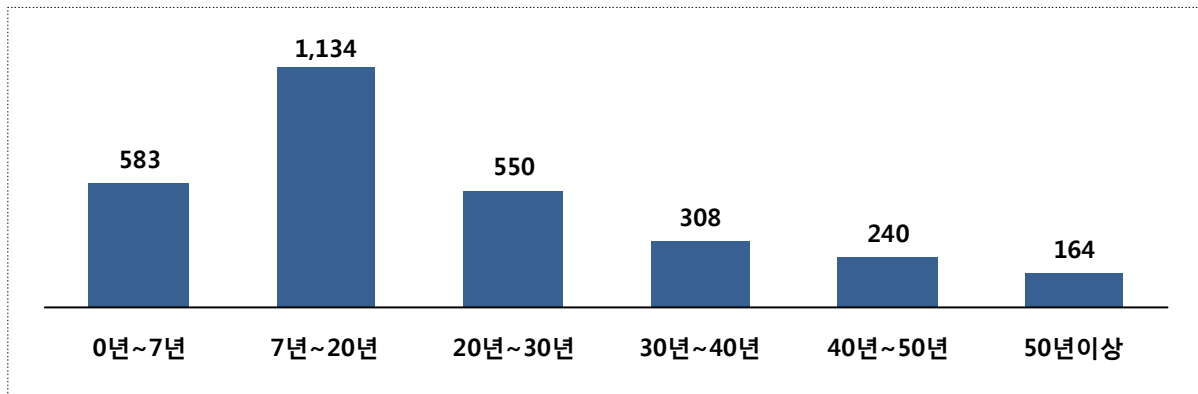
구 분	100억원 미만	100억원 ~ 500억원	500억원 ~ 1천억원	1천억원 ~ 2천억원	2천억원 ~ 3천억원	3천억원 ~ 5천억원	5천억원 ~ 1조원	1조원 이상	계
제 조 업	80	273	166	329	203	152	94	34	1,331
비제조업	313	609	181	248	127	94	59	17	1,648
합 계	393	882	347	577	330	246	153	51	2,979

5. 업력별 현황

- 7년~20년 구간이 1,134개로 가장 높으며 이후 업력이 높아질수록 기업 분포는 줄어드는 경향

[그림 2-6] 업력 구간별 중견기업 현황

(단위: 개사)



[표 2-4] 업력 구간별 중견기업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0년~7년 미만	7년~20년 미만	20년~ 30년 미만	30년~ 40년 미만	40년~ 50년 미만	50년 이상	계
제 조 업	145	438	298	193	152	105	1,331
비제조업	438	696	252	115	88	59	1,648
합 계	583	1,134	550	308	240	164	2,979

제 3 장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1절 중견기업 특성

1. 중견기업 기초 정보

- 중견기업은 2,979개 기업으로 일반중견기업이 2,379개(79.9%), 관계기업이 600개(20.1%)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331개(44.7%), 비제조업이 1,648개(55.3%)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54.4%로 가장 많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응답기업 비중이 낮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명 미만인 기업이 48.3%로 가장 많고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응답기업의 비중이 낮음
- 업력별로는 설립된 지 7~20년 미만인 기업이 38.1%로 가장 많고, 0~7년 미만인 기업이 19.5%로 20년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60%정도 차지함
-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1~3년차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5.3%로 가장 많았고, 진입 4~5년차는 25.2%, 진입 10년차 이상인 경우는 12.1%

[표 3-1] 중견기업 일반 현황

(단위 :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2,979)	100.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79.9
	관계기업	(600)	20.1
업종	제조업	(1,331)	44.7
	비제조업	(1,648)	55.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13.2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29.6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11.6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19.4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11.1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8.3
	5천억원~1조원미만	(153)	5.1
	1조원이상	(51)	1.7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22.8
	50~100명미만	(758)	25.4
	100~200명미만	(454)	15.2
	200~300명미만	(289)	9.7
	300~500명미만	(351)	11.8
	500~1,000명미만	(301)	10.1
	1,000명이상	(146)	4.9
업력	0~7년미만	(583)	19.6
	7~20년미만	(1,134)	38.1
	20~30년미만	(550)	18.5
	30~40년미만	(308)	10.3
	40~50년미만	(240)	8.1
	50년이상	(164)	5.5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55.3
	진입4~5년차	(750)	25.2
	진입6~9년차	(220)	7.4
	진입10년차이상	(361)	12.1
상장	상장	(644)	21.6
	비상장	(2,335)	78.4

2. 일반중견기업 기초 정보

- 전체 중견기업 중, 일반중견기업은 총 2,379개로 전체 중견기업의 79.9%를 차지
- 일반중견기업 중 제조업이 43.6%, 비제조업이 56.3%로 비제조업의 비중이 약간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44.3%으로 가장 많고, 매출규모가 클수록 기업 비중이 낮음
- 업력별로는 설립된 지 7~20년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35.7%로 가장 많으며, 0~7년 미만인 기업이 19.6%
-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1~3년차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8.2%로 가장 많았고, 진입 4~5년차는 18.2%, 진입 10년차 이상인 경우는 14.9%

[표 3-2] 일반 중견기업 일반 현황

(단위 :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2,379)	79.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79.9
	관계기업	-	-
업종	제조업	(1,038)	43.6
	비제조업	(1,340)	56.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36)	9.9
	1백억원~5백억원미만	(613)	25.8
	5백억원~1천억원미만	(204)	8.6
	1천억원~2천억원미만	(546)	23.0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13.9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10.3
	5천억원~1조원미만	(153)	6.4
	1조원이상	(51)	2.1
종사자수	50명미만	(453)	19.0
	50~100명미만	(575)	24.2
	100~200명미만	(326)	13.7
	200~300명미만	(254)	10.7
	300~500명미만	(327)	13.7
	500~1,000명미만	(299)	12.6
	1,000명이상	(145)	6.1
업력	0~7년미만	(466)	19.6
	7~20년미만	(849)	35.7
	20~30년미만	(447)	18.8
	30~40년미만	(261)	11.0
	40~50년미만	(211)	8.9
	50년이상	(145)	6.1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385)	58.2
	진입4~5년차	(434)	18.2
	진입6~9년차	(206)	8.7
	진입10년차이상	(354)	14.9
상장	상장	(576)	24.2
	비상장	(1,803)	75.8

3. 관계기업 기초 정보

- 전체 중견기업 중, 관계기업은 총 600개로 전체 중견기업의 20.1%를 차지
- 관계기업 중 제조업이 48.8%, 비제조업이 51.2%로 비제조업의 비중이 약간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00억원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71.0%으로 가장 많고, 2천억원 이상의 기업은 없음
- 업력별로는 설립된 지 7~20년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47.5%로 가장 많으며, 0~7년 미만인 기업이 19.5%
-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4~5년차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2.7로 가장 많았고, 진입 1~3년차는 43.8%, 진입 6~9년차인 경우는 2.3%

[표 3-3] 관계기업 일반 현황

(단위 :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600)	20.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	-
	관계기업	(600)	20.1
업종	제조업	(293)	48.8
	비제조업	(307)	51.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57)	26.2
	1백억원~5백억원미만	(269)	44.8
	5백억원~1천억원미만	(143)	23.8
	1천억원~2천억원미만	(31)	5.2
	2천억원~3천억원미만	-	-
	3천억원~5천억원미만	-	-
	5천억원~1조원미만	-	-
	1조원이상	-	-
종사자수	50명미만	(227)	37.8
	50~100명미만	(183)	30.5
	100~200명미만	(128)	21.3
	200~300명미만	(35)	5.8
	300~500명미만	(24)	4.0
	500~1,000명미만	(2)	0.3
	1,000명이상	(1)	0.2
업력	0~7년미만	(117)	19.5
	7~20년미만	(285)	47.5
	20~30년미만	(103)	17.2
	30~40년미만	(47)	7.8
	40~50년미만	(29)	4.8
	50년이상	(19)	3.2
성장단계	진입1~3년차	(263)	43.8
	진입4~5년차	(316)	52.7
	진입6~9년차	(14)	2.3
	진입10년차이상	(7)	1.2
상장	상장	(68)	11.3
	비상장	(532)	88.7

2절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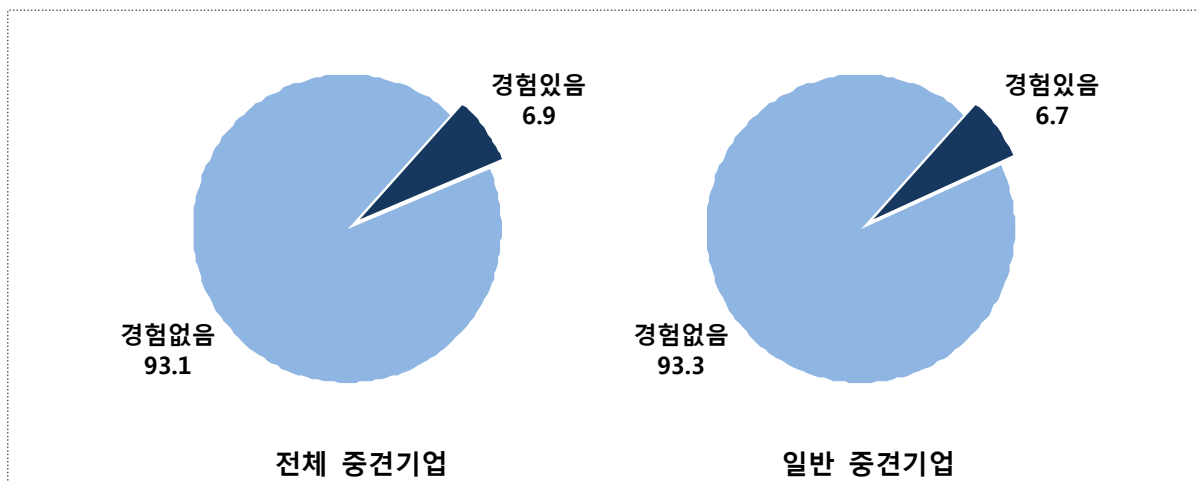
1.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여부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면 정부로부터의 지원혜택이 사라지고 각종 규제 및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는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은 6.9%, 일반 중견기업은 6.7%로 나타남

[그림 3-1] 중소기업 회귀 검토 유무

(단위: %)



특성별 분석

- 매출규모 5백억원~1천억원 미만 기업의 14.5%가 회귀 검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천억원~2천억원 기업의 10.2%가 회귀를 검토한 적이 있음
 - 매출액 규모 5백억원~2천억원 미만의 회귀검토 비중이 전체의 약 25%로 타 기업군에 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매출유형별로는 B2B의 6.9%, B2C의 4.7%, B2G의 19.5%가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주 거래처가 정부·공공기관인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비중이 높음

[표 3-4] 중소기업 회귀 검토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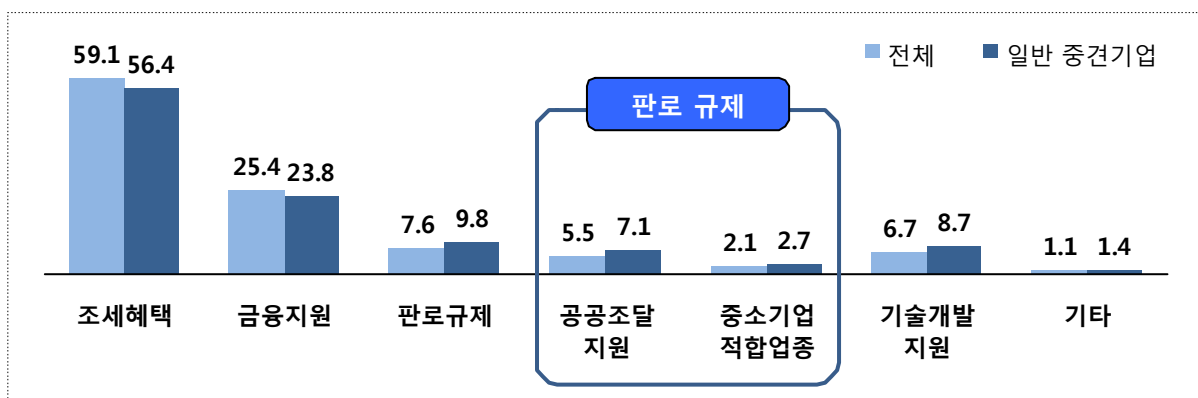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검토경험 있음	검토경험 없음
전체		(2,979)	6.9	93.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6.7	93.3
	관계기업	(600)	7.6	92.4
업종	제조업	(1,331)	7.8	92.2
	비제조업	(1,648)	6.1	93.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1.3	98.7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5.3	94.7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14.5	85.5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10.2	89.8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7.7	92.3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5.6	94.4
	5천억원~1조원미만	(153)	2.7	97.3
	1조원이상	(51)	0.0	10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8.7	91.3
	수출없음	(1,797)	5.6	94.4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4.3	95.7
	50~100명미만	(758)	7.3	92.7
	100~200명미만	(454)	7.1	92.9
	200~300명미만	(289)	15.5	84.5
	300~500명미만	(351)	7.4	92.6
	500~1,000명미만	(301)	6.1	93.9
	1,000명이상	(146)	1.4	98.6
업력	0~7년미만	(583)	2.5	97.5
	7~20년미만	(1,134)	9.3	90.7
	20~30년미만	(550)	9.2	90.8
	30~40년미만	(308)	4.9	95.1
	40~50년미만	(240)	2.9	97.1
	50년이상	(164)	2.6	97.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8.1	91.9
	진입4~5년차	(750)	7.1	92.9
	진입6~9년차	(220)	6.3	93.7
	진입10년차이상	(361)	1.7	98.3
매출유형	B2B	(2,261)	6.9	93.1
	B2C	(620)	4.7	95.3
	B2G	(98)	19.5	80.5
상장	상장	(644)	8.9	91.1
	비상장	(2,335)	6.2	93.8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검토 요인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게 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59.1%가 ‘조세혜택’을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금융지원’ (25.4%), ‘판로규제’ (7.6%), ‘기술개발 지원’ (6.7%) 순임
 - 일반 중견기업은 ‘조세혜택’ (56.4%), ‘금융지원’ (23.8%), ‘판로규제’ (9.8%), ‘기술개발 지원’ (8.7%) 순임

[그림 3-2]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

(단위: %, 중소기업 회귀 검토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중견기업과 관계기업 모두 ‘조세혜택’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함
 -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회귀검토 요인은 ‘금융지원’이 일반 중견기업의 경우 23.8%, 관계기업의 경우 31.3%로 같은 양상을 보임
- 매출액별로는 1백억원 미만과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은 ‘기술개발 지원’을, 1백억원~5천억원 기업은 ‘조세혜택’을 회귀 검토 요인 1순위로 응답함
- 수출기업, 내수기업 모두 ‘조세혜택’이 회귀를 검토하게 한 가장 큰 요인
 - ‘조세혜택’ 다음으로는 수출기업의 경우 ‘금융지원(43.8%)’이 회귀를 검토하게 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수 기업의 경우 ‘판로 규제(11.0%)’인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 50~100명 기업은 ‘금융지원’을, 1,000명 이상 기업은 ‘기술개발 지원’을 검토요인으로 응답한 경우가 타 규모의 기업에 비해 많음

[표 3-5]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

(단위 : %, 중소기업 회귀 검토 기업 206개사)

구분		조세혜택	금융지원	계	판로 규제		기술개발 지원	기타
					공공조달 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전체		59.1	25.4	7.6	5.5	2.1	6.7	1.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6.4	23.8	9.8	7.1	2.7	8.7	1.4
	관계기업	68.7	31.3	0.0	0.0	0.0	0.0	0.0
업종	제조업	51.5	37.4	4.3	4.3	0.0	6.8	0.0
	비제조업	67.1	13.0	11.0	6.7	4.3	6.7	2.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2.9	0.0	0.0	0.0	0.0	67.1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50.9	29.8	19.3	19.3	0.0	0.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79.0	9.7	0.0	0.0	0.0	11.4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50.0	38.1	7.4	3.7	3.7	4.5	0.0
	2천억원~3천억원미만	64.2	18.9	8.4	0.0	8.4	0.0	8.4
	3천억원~5천억원미만	57.1	42.9	0.0	0.0	0.0	0.0	0.0
	5천억원~1조원미만	48.7	0.0	0.0	0.0	0.0	51.3	0.0
	1조원이상	-	-	-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47.2	43.8	4.3	4.3	0.0	2.7	2.1
	수출없음	71.4	6.7	11.0	6.7	4.3	10.9	0.0
종사자수	50명미만	59.0	11.9	24.6	24.6	0.0	4.5	0.0
	50~100명미만	31.2	58.3	5.9	0.0	5.9	4.6	0.0
	100~200명미만	79.4	20.6	0.0	0.0	0.0	0.0	0.0
	200~300명미만	73.1	13.8	0.0	0.0	0.0	9.0	4.1
	300~500명미만	53.4	29.8	16.7	8.4	8.3	0.0	0.0
	500~1,000명미만	58.1	26.1	0.0	0.0	0.0	15.8	0.0
	1,000명이상	0.0	0.0	0.0	0.0	0.0	100.0	0.0
업력	0~7년미만	30.2	0.0	47.4	47.4	0.0	0.0	22.3
	7~20년미만	56.2	27.5	5.9	4.0	1.9	10.4	0.0
	20~30년미만	68.3	27.5	4.2	4.2	0.0	0.0	0.0
	30~40년미만	62.0	25.8	12.2	0.0	12.2	0.0	0.0
	40~50년미만	71.5	0.0	0.0	0.0	0.0	28.5	0.0
	50년이상	57.2	42.8	0.0	0.0	0.0	0.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5.1	27.8	12.1	8.7	3.4	3.3	1.7
	진입4~5년차	70.5	26.3	0.0	0.0	0.0	3.1	0.0
	진입6~9년차	33.1	13.5	0.0	0.0	0.0	53.4	0.0
	진입10년차이상	100.0	0.0	0.0	0.0	0.0	0.0	0.0
매출유형	B2B	50.6	31.7	8.6	5.8	2.8	7.8	1.4
	B2C	86.0	8.4	0.0	0.0	0.0	5.7	0.0
	B2G	88.5	0.0	11.5	11.5	0.0	0.0	0.0
상장	상장	76.2	16.9	0.0	0.0	0.0	3.4	3.5
	비상장	51.8	29.1	10.8	7.8	3.0	8.2	0.0

※ 전문인력확보, 해외시장 개척은 1순위 응답이 없음

[표 3-6]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2순위

(단위 : %, 중소기업 회귀 검토 기업 206개사)

구분		조세혜택	금융지원	판로 규제		
				계	공공조달 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전체		73.5	65.2	25.4	13.8	11.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1.8	55.3	26.8	17.8	9.0
	관계기업	79.4	100.0	20.6	0.0	20.6
업종	제조업	68.7	70.0	28.2	9.5	18.7
	비제조업	78.5	60.4	22.6	18.3	4.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2.9	0.0	65.9	0.0	65.9
	1백억원~5백억원미만	50.9	80.5	49.0	29.0	2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94.5	60.1	16.9	11.4	5.5
	1천억원~2천억원미만	71.7	66.4	11.9	8.2	3.7
	2천억원~3천억원미만	90.5	56.8	16.8	8.4	8.4
	3천억원~5천억원미만	57.1	71.3	42.9	14.2	28.7
	5천억원~1조원미만	100.0	48.7	0.0	0.0	0.0
	1조원이상	-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66.1	77.9	17.9	6.9	11.0
	수출없음	81.1	52.3	33.1	20.9	12.2
종사자수	50명미만	64.9	69.7	55.0	45.1	9.9
	50~100명미만	44.4	77.5	50.6	7.2	43.4
	100~200명미만	79.4	65.1	6.1	6.1	0.0
	200~300명미만	95.8	60.7	7.9	4.1	3.8
	300~500명미만	72.0	65.5	16.7	8.4	8.3
	500~1,000명미만	73.1	54.8	15.8	15.8	0.0
	1,000명이상	100.0	0.0	0.0	0.0	0.0
업력	0~7년미만	52.6	77.7	47.4	47.4	0.0
	7~20년미만	76.5	65.5	18.1	12.9	5.2
	20~30년미만	72.9	67.4	40.8	13.8	27.0
	30~40년미만	62.0	52.9	32.4	11.0	21.4
	40~50년미만	100.0	35.8	0.0	0.0	0.0
	50년이상	57.2	100.0	0.0	0.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70.3	64.2	29.3	21.9	7.4
	진입4~5년차	79.5	72.1	22.5	0.0	22.5
	진입6~9년차	67.5	46.6	0.0	0.0	0.0
	진입10년차이상	100.0	71.1	28.9	0.0	28.9
매출유형	B2B	69.4	66.7	25.5	12.4	13.1
	B2C	86.0	49.6	27.1	15.8	11.3
	B2G	88.5	77.2	22.8	22.8	0.0
상장	상장	95.7	64.7	3.2	0.0	3.2
	비상장	64.0	65.5	35.0	19.8	15.2

[표 3-7]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2순위

(단위 : %, 중소기업 회귀 검토 기업 206개사)

구분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확보지원	해외시장 개척	기타
전체		12.3	1.1	1.1	1.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5.9	1.4	1.4	1.4
	관계기업	0.0	0.0	0.0	0.0
업종	제조업	15.7	0.0	0.0	0.0
	비제조업	8.9	2.2	2.2	2.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7.1	0.0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0.0	0.0	0.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11.4	0.0	0.0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17.2	3.7	3.7	0.0
	2천억원~3천억원미만	0.0	0.0	0.0	8.4
	3천억원~5천억원미만	28.7	0.0	0.0	0.0
	5천억원~1조원미만	51.3	0.0	0.0	0.0
	1조원이상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11.6	0.0	2.1	2.1
	수출없음	13.1	2.2	0.0	0.0
종사자수	50명미만	4.5	0.0	6.0	0.0
	50~100명미만	4.6	0.0	0.0	0.0
	100~200명미만	14.5	0.0	0.0	0.0
	200~300명미만	18.2	0.0	0.0	4.1
	300~500명미만	0.0	8.4	0.0	0.0
	500~1,000명미만	26.9	0.0	0.0	0.0
	1,000명이상	100.0	0.0	0.0	0.0
업력	0~7년미만	0.0	0.0	0.0	22.3
	7~20년미만	18.7	0.0	2.0	0.0
	20~30년미만	0.0	4.2	0.0	0.0
	30~40년미만	0.0	0.0	0.0	0.0
	40~50년미만	28.5	0.0	0.0	0.0
	50년이상	42.8	0.0	0.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6	1.7	1.7	1.7
	진입4~5년차	8.0	0.0	0.0	0.0
	진입6~9년차	66.9	0.0	0.0	0.0
	진입10년차이상	0.0	0.0	0.0	0.0
매출유형	B2B	15.1	0.0	1.4	1.4
	B2C	5.7	0.0	0.0	0.0
	B2G	0.0	11.5	0.0	0.0
상장	상장	12.1	0.0	0.0	3.5
	비상장	12.5	1.5	1.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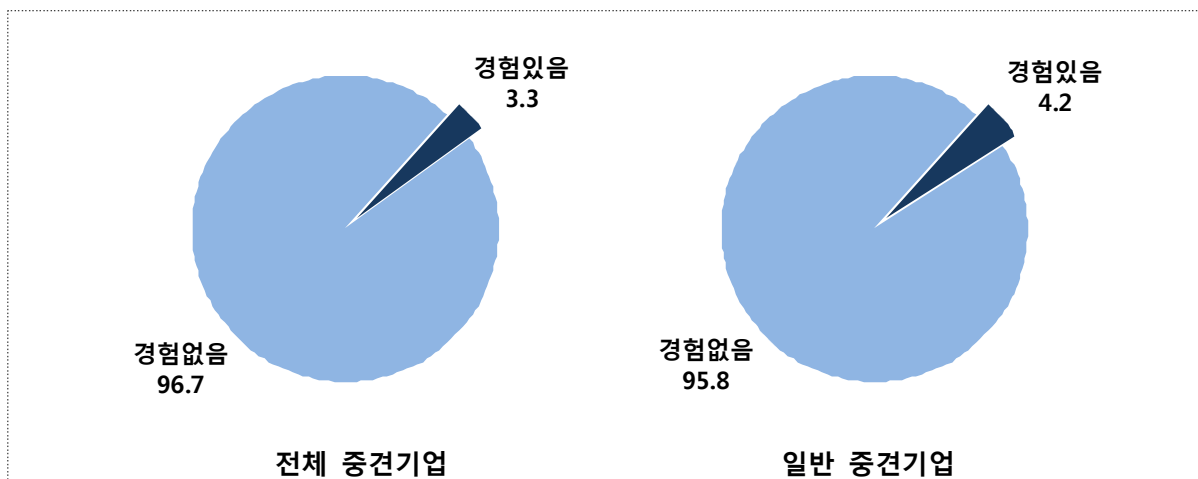
2. 인수합병 (M&A)

□ 인수합병(M&A) 경험

- 중견기업의 3.3%는 2014년에 M&A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A를 경험한 기업의 평균 인수 규모는 1,863.9억원임
 - 일반 중견기업의 M&A 경험은 4.2%, 관계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인수합병(M&A) 경험

(단위: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5.4%, 비제조업의 1.7%가 M&A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평균 인수규모는 2,418억원, 비제조업은 184.4억원으로 제조업의 평균 인수규모가 비제조업에 비해 13배 이상 큼
- 수출기업의 6.0%, 내수기업의 1.6%가 2014년에 M&A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인수규모는 수출기업은 272.9억원, 내수기업은 5,845.8억원으로 내수기업의 평균 인수규모가 약 21.4배 큼
- 매출유형별로는 B2B의 M&A경험은 3.6%, B2C는 2.7%, B2G기업은 0.0%로 M&A는 공공기관이 주 거래처인 기업보다 주 거래처가 기업·개인인 기업들 사이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표 3-8] 인수합병(M&A) 경험

(단위 :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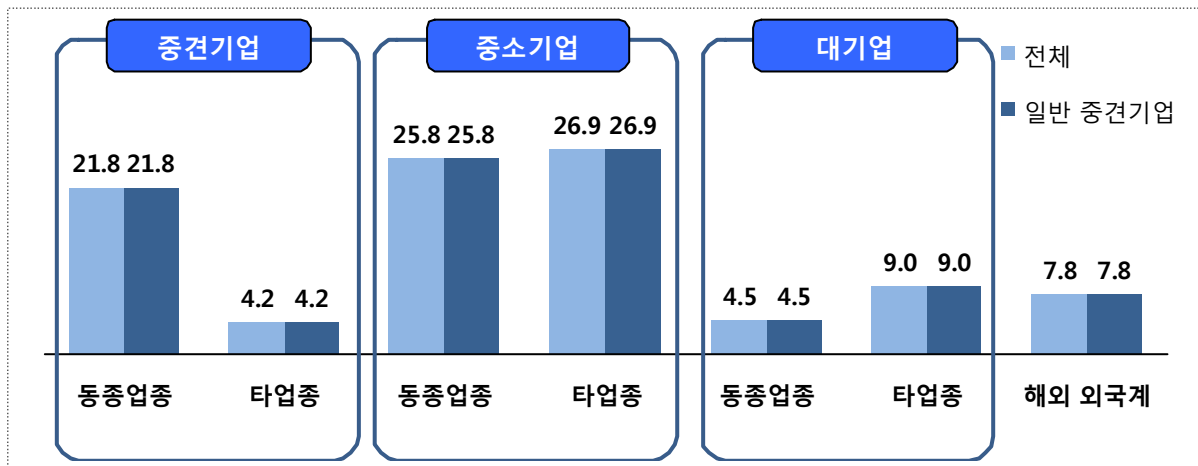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인수합병 경험 있음		인수합병 경험 없음
				평균 인수 규모	
전체		(2,979)	3.3	1,863.9	96.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4.2	1,863.9	95.8
	관계기업	(600)	0.0	-	100.0
업종	제조업	(1,331)	5.4	2,418.0	94.6
	비제조업	(1,648)	1.7	184.4	98.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2.1	1,270.3	97.9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2.5	6,096.3	97.5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0.8	280.0	99.2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5.1	297.4	94.9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4.9	102.2	95.1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5.6	266.9	94.4
	5천억원~1조원미만	(153)	3.9	535.0	96.1
	1조원이상	(51)	0.0	-	10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6.0	272.9	94.0
	수출없음	(1,797)	1.6	5,845.8	98.4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1.5	880.2	98.5
	50~100명미만	(758)	2.3	11,595.8	97.7
	100~200명미만	(454)	4.2	161.1	95.8
	200~300명미만	(289)	5.6	118.2	94.4
	300~500명미만	(351)	3.7	675.9	96.3
	500~1,000명미만	(301)	5.3	117.2	94.7
	1,000명이상	(146)	4.1	608.4	95.9
업력	0~7년미만	(583)	2.0	1,139.4	98.0
	7~20년미만	(1,134)	3.3	242.1	96.7
	20~30년미만	(550)	4.7	5,998.3	95.3
	30~40년미만	(308)	1.9	619.0	98.1
	40~50년미만	(240)	6.0	73.7	94.0
	50년이상	(164)	1.0	1,050.0	99.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4.0	2,709.7	96.0
	진입4~5년차	(750)	1.6	125.3	98.4
	진입6~9년차	(220)	4.4	356.6	95.6
	진입10년차이상	(361)	3.4	128.2	96.6
매출유형	B2B	(2,261)	3.6	240.8	96.4
	B2C	(620)	2.7	9,960.4	97.3
	B2G	(98)	0.0	-	100.0
상장	상장	(644)	6.0	160.1	94.0
	비상장	(2,335)	2.5	2,992.5	97.5

□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 M&A를 경험한 기업의 인수합병 형태로는 중소기업 타업종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 동종업종, 중견기업 동종업종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타 업종보다는 동종업종 중견기업과 M&A를 고려중이거나 진행 중인 반면, 중소/대기업으로는 타 업종 기업과의 M&A를 고려 중인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28.1%, 비제조업의 23.8%가 타 업종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을 고려하고 있음
 - 제조업의 45.9%는 동종업종 기업들과의 인수합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은 68.3%가 동종업종 기업들과의 인수합병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제조업에 비해 동종업종 기업들과의 인수합병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수출기업은 타 업종의 중소기업과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기업이 28.7%로 가장 많은 반면 내수기업은 동종업종 중견기업과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기업이 35.6%로 가장 많음
 - 또한, 내수기업보다 수출기업이 해외 외국계 기업과의 M&A를 더 선호함
- 상장기업의 중소기업 M&A 고려비율이 69.8%로 비상장기업 40.3%에 비해 높음

[표 3-9]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단위 : %, 인수합병 경험 기업 9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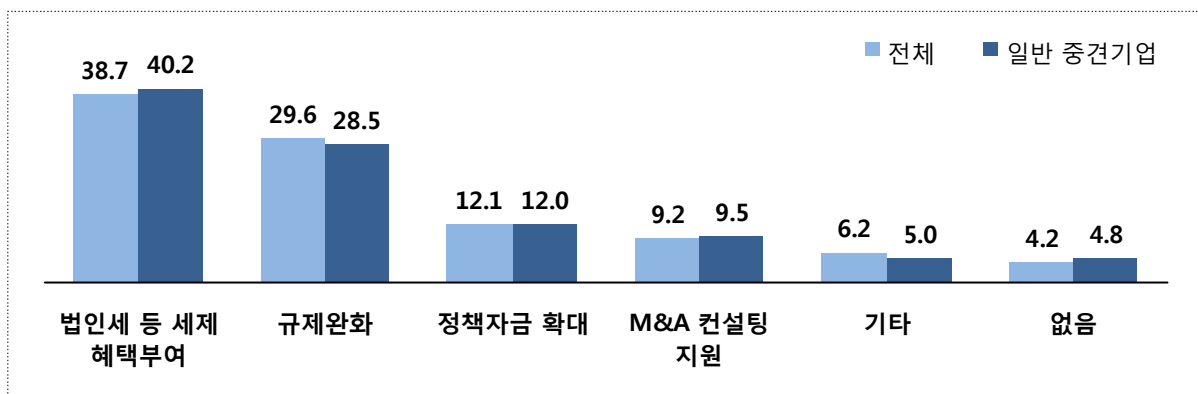
구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해외 외국계
		동종업종	타업종	동종업종	타업종	동종업종	타업종	
전체		21.8	4.2	25.8	26.9	4.5	9.0	7.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1.8	4.2	25.8	26.9	4.5	9.0	7.8
	관계기업	-	-	-	-	-	-	-
업종	제조업	18.3	2.8	21.4	28.1	6.2	12.4	10.8
	비제조업	31.0	8.0	37.3	23.8	0.0	0.0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0.1	0.0	40.1	0.0	0.0	19.7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40.4	0.0	0.0	19.9	19.9	19.9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0.0	0.0	0.0	0.0	0.0	100.0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16.4	7.4	32.8	25.4	0.0	0.0	18.0
	2천억원~3천억원미만	15.0	0.0	28.3	41.7	0.0	0.0	15.0
	3천억원~5천억원미만	14.3	0.0	42.8	42.9	0.0	0.0	0.0
	5천억원~1조원미만	0.0	33.3	33.3	33.3	0.0	0.0	0.0
	1조원이상	-	-	-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16.3	5.9	27.9	28.7	0.0	10.3	10.9
	수출없음	35.6	0.0	20.6	22.3	15.7	5.8	0.0
종사자수	50명미만	61.0	0.0	26.1	0.0	0.0	12.8	0.0
	50~100명미만	0.0	0.0	0.0	61.5	38.5	0.0	0.0
	100~200명미만	46.1	0.0	25.3	13.9	0.0	14.7	0.0
	200~300명미만	14.0	0.0	10.4	24.2	0.0	23.5	28.0
	300~500명미만	0.0	32.2	35.5	32.2	0.0	0.0	0.0
	500~1,000명미만	15.9	0.0	29.1	39.0	0.0	0.0	15.9
	1,000명이상	0.0	0.0	74.6	25.4	0.0	0.0	0.0
업력	0~7년미만	0.0	0.0	21.2	0.0	0.0	78.8	0.0
	7~20년미만	37.1	5.5	20.7	24.1	0.0	0.0	12.7
	20~30년미만	17.0	0.0	8.1	38.3	16.5	10.3	9.8
	30~40년미만	0.0	0.0	69.1	30.9	0.0	0.0	0.0
	40~50년미만	14.4	0.0	56.3	29.3	0.0	0.0	0.0
	50년이상	0.0	100.0	0.0	0.0	0.0	0.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9.6	6.6	26.7	21.9	7.0	14.0	4.2
	진입4~5년차	20.3	0.0	0.0	37.3	0.0	0.0	42.5
	진입6~9년차	0.0	0.0	40.4	59.6	0.0	0.0	0.0
	진입10년차이상	50.7	0.0	33.1	16.2	0.0	0.0	0.0
매출유형	B2B	20.6	5.1	23.9	32.3	0.0	8.8	9.4
	B2C	27.7	0.0	35.4	0.0	26.9	9.9	0.0
	B2G	-	-	-	-	-	-	-
상장	상장	5.8	4.8	37.6	32.2	0.0	6.7	12.8
	비상장	33.4	3.8	17.3	23.0	7.7	10.6	4.2

□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중견기업의 M&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부여(38.7%)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규제 완화(29.6%), 정책자금 확대(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부여(40.2%), 규제완화(28.5%), 정책자금 확대(12.0%) 순임

[그림 3-5] M&A 활성화 필요정책 : 1순위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40.2%가 M&A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8.5%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일반 중견기업은 ‘법인세 등 세제 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는 비중이 높은 반면, 관계 기업은 계열사 편입, 중소기업 졸업 유예 등의 ‘규제완화’가 M&A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음
-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6~9년차에서 ‘규제완화(38.7%)’, ‘정책자금 확대(25.0%)’, ‘세제 혜택(2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기업군에서는 ‘세제 혜택’, ‘규제완화’, ‘정책자금 확대’ 순으로 조사됨
-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B는 ‘세제 혜택(41.2%)’을 인수합병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한 반면, B2C와 B2G는 각각 32.1%, 39.7%로 ‘규제완화’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0] M&A활성화 필요정책 : 1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	규제완화	정책자금 확대	M&A 컨설팅 지원	기타	없음
전체		(2,979)	38.7	29.6	12.1	9.2	6.2	4.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40.2	28.5	12.0	9.5	5.0	4.8
	관계기업	(600)	33.0	34.1	12.1	8.1	11.0	1.7
업종	제조업	(1,331)	45.3	28.3	13.2	8.2	1.5	3.5
	비제조업	(1,648)	33.4	30.7	11.1	10.0	10.0	4.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30.1	29.1	12.1	8.8	11.6	8.3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34.5	32.0	11.5	9.4	9.6	3.1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40.2	30.1	11.1	9.7	4.2	4.7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43.8	25.9	12.0	9.6	4.9	3.8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43.8	27.2	14.6	9.0	2.0	3.4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49.6	24.0	12.0	8.0	0.8	5.6
	5천억원~1조원미만	(153)	33.2	45.5	11.9	8.1	0.0	1.4
	1조원이상	(51)	42.4	26.1	12.7	12.1	6.7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41.7	29.2	15.6	7.9	2.8	2.8
	수출없음	(1,797)	36.8	29.9	9.7	10.1	8.4	5.2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40.6	28.1	11.1	5.5	8.0	6.8
	50~100명미만	(758)	32.2	28.7	13.7	15.4	6.6	3.2
	100~200명미만	(454)	41.1	30.6	10.3	9.3	5.4	3.3
	200~300명미만	(289)	40.6	27.1	12.5	12.4	2.8	4.8
	300~500명미만	(351)	42.0	32.2	10.8	4.4	6.8	3.9
	500~1,000명미만	(301)	34.4	32.2	20.2	10.7	1.5	0.9
	1,000명이상	(146)	39.1	31.9	5.9	10.2	11.0	1.9
업력	0~7년미만	(583)	33.2	28.1	9.1	10.3	11.8	7.5
	7~20년미만	(1,134)	37.5	27.4	13.1	8.9	8.5	4.6
	20~30년미만	(550)	44.1	29.0	10.1	9.9	3.4	3.5
	30~40년미만	(308)	35.6	38.4	11.0	9.0	3.3	2.7
	40~50년미만	(240)	49.6	23.7	16.4	8.5	0.8	1.0
	50년이상	(164)	33.5	39.2	13.5	8.4	1.1	4.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40.7	26.1	11.0	9.7	7.1	5.4
	진입4~5년차	(750)	38.9	33.6	10.4	7.1	6.9	3.1
	진입6~9년차	(220)	23.3	38.7	25.0	6.6	1.9	4.5
	진입10년차이상	(361)	39.4	30.6	11.9	12.8	3.7	1.5
매출유형	B2B	(2,261)	41.2	28.5	11.8	8.5	5.8	4.3
	B2C	(620)	31.4	32.1	11.4	12.3	8.2	4.7
	B2G	(98)	29.0	39.7	23.1	5.9	2.2	0.0
상장	상장	(644)	44.0	29.2	13.8	10.0	0.6	2.4
	비상장	(2,335)	37.1	29.7	11.5	9.0	7.9	4.7

[표 3-11] M&A활성화 필요정책 : 1+2순위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	규제완화	정책자금 확대	M&A 컨설팅 지원	기타	없음
전체		(2,979)	55.8	49.1	26.4	17.3	6.2	4.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57.7	50.3	26.5	18.0	5.0	4.8
	관계기업	(600)	48.3	44.4	25.8	14.7	11.0	1.7
업종	제조업	(1,331)	63.1	52.1	31.9	14.3	1.5	3.5
	비제조업	(1,648)	49.9	46.7	21.9	19.7	10.0	4.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41.5	45.1	21.4	19.3	11.6	8.3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52.3	46.5	24.5	18.3	9.6	3.1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53.0	44.2	26.1	17.8	4.2	4.7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60.8	52.0	29.3	15.4	4.9	3.8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66.0	47.7	27.3	16.5	2.0	3.4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65.6	52.8	29.6	16.8	0.8	5.6
	5천억원~1조원미만	(153)	65.2	69.4	33.1	12.1	0.0	1.4
	1조원이상	(51)	49.1	56.4	24.8	25.5	6.7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61.1	50.6	33.5	14.7	2.8	2.8
	수출없음	(1,797)	52.4	48.1	21.7	19.0	8.4	5.2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51.6	45.4	19.4	16.3	8.0	6.8
	50~100명미만	(758)	47.6	43.4	31.2	21.7	6.6	3.2
	100~200명미만	(454)	63.5	55.1	23.8	15.4	5.4	3.3
	200~300명미만	(289)	62.0	48.9	29.0	20.4	2.8	4.8
	300~500명미만	(351)	58.5	52.6	32.2	12.5	6.8	3.9
	500~1,000명미만	(301)	58.3	51.7	38.2	18.2	1.5	0.9
	1,000명이상	(146)	58.5	55.8	18.5	16.9	11.0	1.9
업력	0~7년미만	(583)	48.2	40.6	17.7	16.5	11.8	7.5
	7~20년미만	(1,134)	55.3	44.7	23.8	17.4	8.5	4.6
	20~30년미만	(550)	62.0	55.1	29.6	12.8	3.4	3.5
	30~40년미만	(308)	51.1	56.8	31.4	22.0	3.3	2.7
	40~50년미만	(240)	68.3	49.2	36.7	18.3	0.8	1.0
	50년이상	(164)	48.9	61.0	27.2	21.6	1.1	4.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55.8	45.5	24.2	18.1	7.1	5.4
	진입4~5년차	(750)	54.7	53.4	24.8	12.0	6.9	3.1
	진입6~9년차	(220)	55.7	52.1	36.8	13.4	1.9	4.5
	진입10년차이상	(361)	58.2	53.6	32.1	26.5	3.7	1.5
매출유형	B2B	(2,261)	57.5	48.7	26.0	16.7	5.8	4.3
	B2C	(620)	48.9	50.0	26.8	19.8	8.2	4.7
	B2G	(98)	60.6	51.9	33.5	15.9	2.2	0.0
상장	상장	(644)	62.8	55.4	31.1	20.6	0.6	2.4
	비상장	(2,335)	53.7	47.2	25.0	16.3	7.9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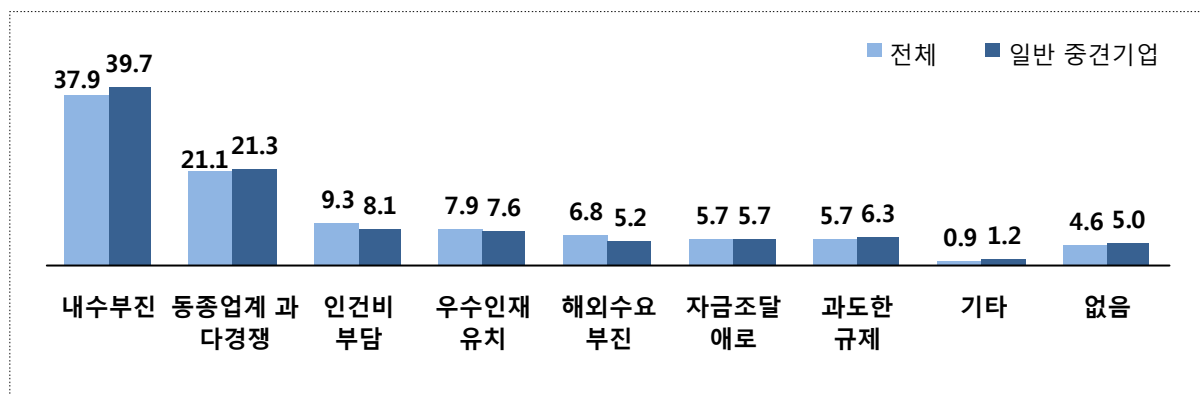
3. 중견기업 경영 애로

□ 경영 애로사항

- 중견기업은 가장 큰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37.9%)을 꼽았으며 동종업계 과당경쟁(21.1%), 인건비 부담(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내수부진(39.7%), 동종업계 과당경쟁(21.3%), 인건비 부담(8.1%) 순임

[그림 3-6] 경영 애로사항

(단위: %)



특성별 분석

- 수출기업은 ‘내수부진’ 38.2%, ‘동종업계 과다경쟁’ 23.1%, ‘해외수요 부진’ 13.0% 순임
- 1,000명 미만의 종사자수 기업은 ‘내수부진’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낸 반면, 1,000명 이상의 종사자수 기업은 ‘인건비 부담(31.0%)’이 가장 큰 애로점으로 드러나 인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다른 요인들보다도 인건비에 대한 경영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업력이 짧은 신생기업보다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내수부진’에 대한 애로점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개인/기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기업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을, 정부/공공기관을 주 고객으로 하는 기업은 ‘동종업계 과다경쟁’을 1순위로 응답하여 주 거래처에 따라 다른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조사됨

[표 3-12] 경영 애로사항 : 1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내수부진	동종업계 과다경쟁	인건비 부담	우수인재 유치
전체		(2,979)	37.9	21.1	9.3	7.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39.7	21.3	8.1	7.6
	관계기업	(600)	30.9	20.3	14.2	9.3
업종	제조업	(1,331)	44.8	19.3	5.3	6.8
	비제조업	(1,648)	32.3	22.6	12.5	8.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26.9	19.1	5.0	11.7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37.5	16.3	12.8	10.4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45.9	22.0	11.5	2.2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42.1	23.4	7.5	6.9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37.9	28.3	7.0	5.7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37.6	23.2	6.4	8.0
	5천억원~1조원미만	(153)	30.8	27.7	10.7	8.1
	1조원이상	(51)	50.3	12.7	12.1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38.2	23.1	5.7	7.2
	수출없음	(1,797)	37.7	19.8	11.7	8.5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35.7	17.7	4.1	9.8
	50~100명미만	(758)	36.4	23.8	8.8	9.8
	100~200명미만	(454)	45.4	23.6	4.8	6.4
	200~300명미만	(289)	41.2	23.0	10.9	4.7
	300~500명미만	(351)	37.4	21.1	13.2	5.8
	500~1,000명미만	(301)	38.0	22.6	10.3	8.4
	1,000명이상	(146)	29.6	18.4	31.0	7.3
업력	0~7년미만	(583)	27.4	19.1	9.6	12.6
	7~20년미만	(1,134)	35.1	21.9	10.8	8.1
	20~30년미만	(550)	37.6	18.5	10.7	8.1
	30~40년미만	(308)	44.1	20.0	5.5	9.6
	40~50년미만	(240)	49.3	28.5	6.8	1.6
	50년이상	(164)	50.6	20.4	6.0	2.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37.9	19.7	7.5	9.5
	진입4~5년차	(750)	33.9	24.5	11.2	7.6
	진입6~9년차	(220)	39.8	16.6	16.2	3.6
	진입10년차이상	(361)	44.6	23.1	9.2	4.8
매출유형	B2B	(2,261)	38.5	20.3	8.3	8.0
	B2C	(620)	37.9	22.0	11.8	8.7
	B2G	(98)	25.1	34.0	17.3	1.7
상장	상장	(644)	43.3	22.9	6.4	5.5
	비상장	(2,335)	36.3	20.6	10.2	8.7

[표 3-13] 경영 애로사항 : 1순위(계속)

(단위 : %)

구분		사례수	해외수요 부진	과도한 규제	자금조달 애로	기타	없음
전체		(2,979)	6.8	5.7	5.7	0.9	4.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5.2	5.7	6.3	1.2	5.0
	관계기업	(600)	13.0	6.1	3.4	0.0	2.8
업종	제조업	(1,331)	10.3	4.7	5.8	0.5	2.4
	비제조업	(1,648)	4.0	6.6	5.6	1.3	6.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0.4	8.3	8.0	0.9	19.7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7.5	6.7	4.2	0.5	4.1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10.3	3.1	3.3	0.0	1.7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6.7	5.0	6.2	0.4	1.7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5.7	4.9	6.4	2.8	1.3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9.6	4.8	8.8	1.6	0.0
	5천억원~1조원미만	(153)	7.8	5.4	5.3	2.8	1.4
	1조원이상	(51)	12.1	6.7	6.1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13.0	4.2	7.3	0.9	0.4
	수출없음	(1,797)	2.7	6.8	4.6	0.9	7.3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5.1	7.6	7.8	0.7	11.6
	50~100명미만	(758)	7.0	6.8	4.4	0.0	3.0
	100~200명미만	(454)	5.6	3.6	7.8	0.9	1.8
	200~300명미만	(289)	12.5	3.1	3.2	1.3	0.0
	300~500명미만	(351)	6.4	5.1	5.6	3.1	2.1
	500~1,000명미만	(301)	8.9	6.3	3.9	0.8	0.7
	1,000명이상	(146)	4.4	4.7	2.5	0.0	2.2
업력	0~7년미만	(583)	6.0	5.0	4.5	1.2	14.7
	7~20년미만	(1,134)	5.4	6.8	6.8	0.5	4.6
	20~30년미만	(550)	9.5	7.7	4.1	1.1	2.6
	30~40년미만	(308)	7.7	3.3	6.3	1.2	2.3
	40~50년미만	(240)	7.4	3.5	3.0	0.0	0.0
	50년이상	(164)	6.7	2.4	8.2	3.2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5.3	4.2	7.7	1.0	7.2
	진입4~5년차	(750)	8.5	8.9	3.2	0.6	1.7
	진입6~9년차	(220)	12.5	5.5	4.5	0.0	1.3
	진입10년차이상	(361)	6.3	6.2	3.0	1.6	1.1
매출유형	B2B	(2,261)	7.9	4.8	6.0	1.0	5.2
	B2C	(620)	3.6	8.0	5.2	0.6	2.2
	B2G	(98)	3.0	12.7	2.2	0.0	3.9
상장	상장	(644)	8.4	5.6	4.3	1.0	2.7
	비상장	(2,335)	6.3	5.8	6.1	0.9	5.1

[표 3-14] 경영 애로사항 : 1+2순위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내수부진	동종업계 과다경쟁	인건비 부담	해외수요 부진
전체		(2,979)	48.5	42.5	17.4	14.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49.1	43.0	16.5	12.7
	관계기업	(600)	46.0	40.5	20.8	19.0
업종	제조업	(1,331)	54.6	43.8	13.3	22.2
	비제조업	(1,648)	43.6	41.5	20.7	7.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31.8	27.9	11.3	6.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47.2	41.3	22.8	1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56.3	45.5	14.7	20.8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52.6	46.9	17.5	16.0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53.2	48.5	14.7	18.7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51.3	46.4	13.6	17.6
	5천억원~1조원미만	(153)	48.1	42.4	18.8	17.1
	1조원이상	(51)	57.0	49.7	18.2	18.2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49.8	45.6	13.5	28.7
	수출없음	(1,797)	47.6	40.5	19.9	4.3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40.3	31.2	9.6	8.4
	50~100명미만	(758)	47.3	49.2	22.1	12.7
	100~200명미만	(454)	59.5	47.0	9.4	14.3
	200~300명미만	(289)	53.2	46.2	19.4	24.3
	300~500명미만	(351)	53.9	41.9	20.7	17.3
	500~1,000명미만	(301)	46.1	50.7	17.4	21.7
	1,000명이상	(146)	47.1	47.0	46.1	6.3
업력	0~7년미만	(583)	35.3	30.1	13.0	11.1
	7~20년미만	(1,134)	45.8	42.3	19.0	11.6
	20~30년미만	(550)	49.6	44.3	17.4	17.0
	30~40년미만	(308)	50.2	39.9	17.9	16.4
	40~50년미만	(240)	64.9	47.7	21.0	20.9
	50년이상	(164)	63.6	61.2	9.9	12.1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45.8	38.8	15.0	12.6
	진입4~5년차	(750)	47.4	45.1	19.2	14.8
	진입6~9년차	(220)	53.2	41.2	26.7	21.9
	진입10년차이상	(361)	58.3	53.3	17.8	13.2
매출유형	B2B	(2,261)	48.8	40.2	15.9	16.2
	B2C	(620)	49.7	49.6	21.1	5.9
	B2G	(98)	33.9	51.9	27.8	14.6
상장	상장	(644)	56.4	45.9	14.6	21.3
	비상장	(2,335)	46.1	41.5	18.2	11.8

[표 3-15] 경영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과도한 규제	우수인재 유치	자금조달 애로	기타	없음
전체		(2,979)	12.1	11.8	11.6	1.6	4.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1.1	12.1	12.2	2.0	5.0
	관계기업	(600)	16.2	11.0	9.0	0.0	2.8
업종	제조업	(1,331)	9.3	12.4	11.3	1.6	2.4
	비제조업	(1,648)	14.4	11.4	11.8	1.6	6.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13.2	14.8	10.1	1.7	19.7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17.4	14.0	9.4	1.0	4.1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6.7	6.1	10.9	0.0	1.7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9.1	11.4	12.3	1.8	1.7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10.4	9.3	11.8	2.8	1.3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10.4	12.8	18.4	2.4	0.0
	5천억원~1조원미만	(153)	9.4	12.0	14.7	4.1	1.4
	1조원이상	(51)	12.7	6.7	12.7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8.3	12.9	13.2	1.9	0.4
	수출없음	(1,797)	14.7	11.2	10.5	1.4	7.3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15.5	12.6	16.3	1.1	11.6
	50~100명미만	(758)	15.9	12.5	7.5	1.4	3.0
	100~200명미만	(454)	8.2	8.9	14.5	0.9	1.8
	200~300명미만	(289)	11.9	7.8	10.6	3.4	0.0
	300~500명미만	(351)	8.0	14.4	10.3	3.1	2.1
	500~1,000명미만	(301)	9.5	15.0	9.3	1.5	0.7
	1,000명이상	(146)	8.7	11.6	2.5	0.0	2.2
업력	0~7년미만	(583)	9.2	14.0	11.7	1.6	14.7
	7~20년미만	(1,134)	12.4	12.3	13.1	1.2	4.6
	20~30년미만	(550)	16.0	11.9	9.4	1.1	2.6
	30~40년미만	(308)	11.2	16.9	10.5	2.5	2.3
	40~50년미만	(240)	9.4	4.4	6.7	1.9	0.0
	50년이상	(164)	9.9	5.1	16.3	3.2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10.5	13.3	13.5	1.9	7.2
	진입4~5년차	(750)	15.8	9.5	9.8	0.9	1.7
	진입6~9년차	(220)	10.5	11.6	11.4	0.9	1.3
	진입10년차이상	(361)	12.6	10.6	7.5	2.1	1.1
매출유형	B2B	(2,261)	11.0	12.4	11.9	1.8	5.2
	B2C	(620)	13.6	11.5	11.0	0.9	2.2
	B2G	(98)	29.5	1.7	8.3	0.0	3.9
상장	상장	(644)	10.3	11.8	11.1	2.4	2.7
	비상장	(2,335)	12.7	11.9	11.7	1.3	5.1

3절 기술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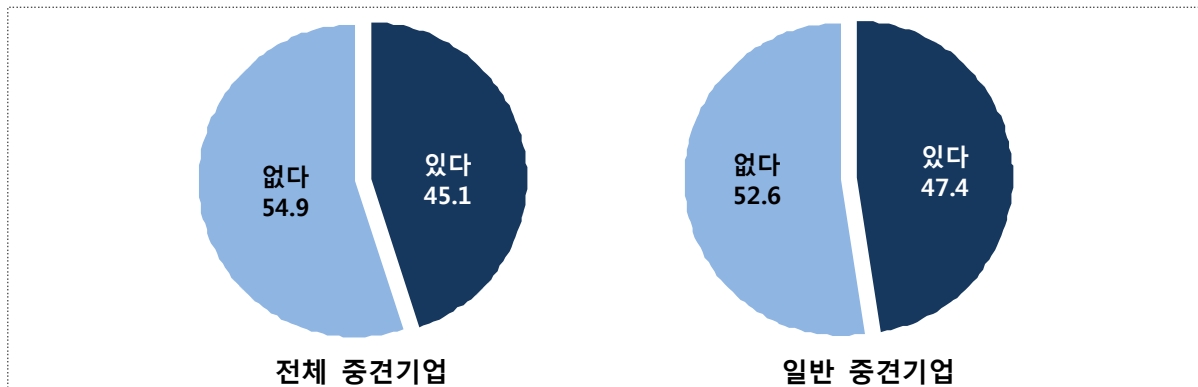
1. 중견기업의 기술/설비 투자

□ R&D 투자 실적

- 중견기업의 45.1%는 ‘14년 R&D 투자실적이 있으며, 총 4조 9,829억원을 투자함. 전체 중견기업은 기업당 평균 16.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균 37.1억을 투자함
- 일반 중견기업 중 47.4%가 ‘14년 R&D 투자실적이 있으며, 총 4조 6,813억원을 투자함. 기업당 평균 19.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균 41.5억원을 투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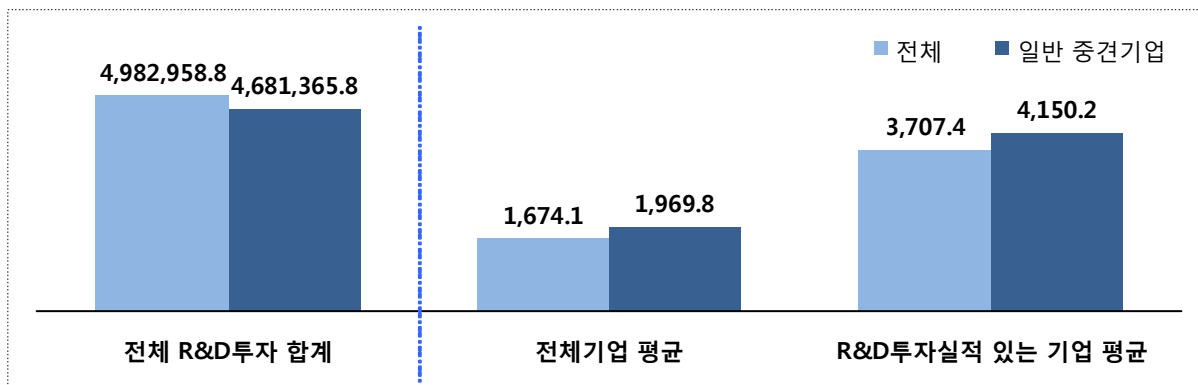
[그림 3-7] R&D 투자 유무

(단위: %)



[그림 3-8] R&D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2014년에 R&D 투자를 한 기업의 비중이 제조업이 73.8%, 비제조업이 22.0%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R&D 투자가 많음
 - R&D 투자금액은 제조업이 전체 4조 216억원을 투자, 비제조업이 9,614억원을 투자
 - 제조업 평균 30억원, 비제조업 평균 6억원을 R&D에 투자
 - 2014년에 R&D 투자실적이 있는 제조업은 평균 41억원, 비제조업은 평균 27억원을 투자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2014년에 R&D 투자를 한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평균 R&D 투자액 역시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작은 기업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매출액이 큰, 업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R&D투자를 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비용 또한 크게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 여부별로는 수출을 하는 기업의 77.3%가 2014년에 R&D 투자 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은 23.9%만이 R&D 투자 실적이 있음
- 상장 여부별로는 비상장 기업의 34.7%가 2014년에 R&D 투자 실적이 있으며 상장기업은 80.0%가 R&D 투자 실적이 있음

[표 3-16] R&D 투자실적

(단위 :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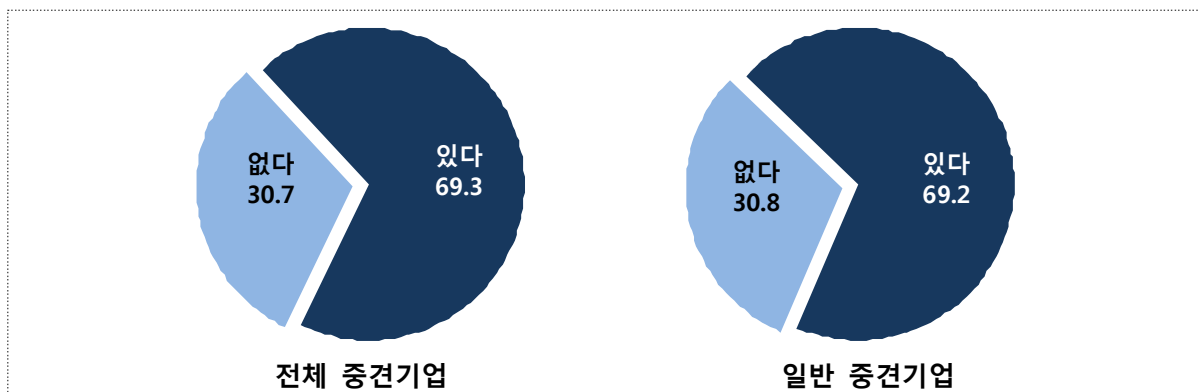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R&D 투자여부		전체 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	
			투자함	투자안함		전체 기업	투자실적 있는 기업
전체		(2,979)	45.1	54.9	4,982,958.8	1,674.1	3,707.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47.4	52.6	4,681,365.8	1,969.8	4,150.2
	관계기업	(600)	36.0	64.0	301,593.0	502.7	1,395.7
업종	제조업	(1,331)	73.8	26.2	4,021,572.6	3,027.0	4,096.7
	비제조업	(1,648)	22.0	78.0	961,386.2	583.4	2,652.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15.8	84.2	63,336.0	161.2	1,021.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30.7	69.3	203,354.1	230.6	751.2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46.5	53.5	290,711.8	837.8	1,802.5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57.6	42.4	855,785.8	1,483.2	2,574.3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59.6	40.4	843,047.8	2,573.5	4,287.7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68.9	31.1	1,130,993.8	4,597.5	6,673.2
	5천억원~1조원미만	(153)	69.9	30.1	1,150,781.2	7,521.4	10,758.6
	1조원이상	(51)	87.3	12.7	444,948.4	8,724.5	9,996.8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77.3	22.7	3,701,967.6	3,137.6	4,049.5
	수출없음	(1,797)	23.9	76.1	1,280,991.2	713.0	2,979.8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13.4	86.6	63,778.4	75.3	562.2
	50~100명미만	(758)	35.3	64.7	218,890.7	436.9	1,238.2
	100~200명미만	(454)	54.6	45.4	347,977.2	775.4	1,419.2
	200~300명미만	(289)	67.0	33.0	631,610.0	1,867.0	2,785.2
	300~500명미만	(351)	70.7	29.3	948,046.2	2,731.9	3,837.6
	500~1,000명미만	(301)	81.4	18.6	1,651,993.9	5,747.0	7,059.8
	1,000명이상	(146)	48.8	51.2	1,120,662.4	5,425.6	11,115.7
업력	0~7년미만	(583)	25.8	74.2	234,676.5	605.4	2,346.2
	7~20년미만	(1,134)	37.8	62.2	1,288,939.4	1,068.5	2,825.1
	20~30년미만	(550)	48.1	51.9	1,375,113.1	2,412.6	4,994.3
	30~40년미만	(308)	58.8	41.2	787,830.4	2,176.3	3,699.0
	40~50년미만	(240)	71.0	29.0	646,352.4	2,551.7	3,595.0
	50년이상	(164)	60.7	39.3	650,047.0	3,294.5	5,431.5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39.9	60.1	1,794,035.1	1,128.6	2,823.0
	진입4~5년차	(750)	42.6	57.4	667,334.3	881.0	2,067.1
	진입6~9년차	(220)	50.9	49.1	1,003,279.1	4,317.8	8,487.1
	진입10년차이상	(361)	67.4	32.6	1,518,310.4	3,823.6	5,675.7
매출유형	B2B	(2,261)	47.8	52.2	4,152,564.2	1,838.6	3,839.3
	B2C	(620)	35.6	64.4	641,421.6	1,033.8	2,901.4
	B2G	(98)	42.4	57.6	188,973.0	1,936.4	4,563.9
상장	상장	(644)	80.0	20.0	3,181,167.6	4,634.2	5,790.9
	비상장	(2,335)	34.7	65.3	1,801,791.3	786.8	2,267.2

□ 설비투자 실적

- 중견기업 중 69.3%는 ‘14년 설비 투자실적이 있으며, 총 27조 4,290억원을 투자함. 전체 중견기업은 기업당 평균 92.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균 133.0억원을 투자함
- 일반 중견기업 중 69.2%가 ‘14년 설비 투자실적이 있으며, 총 26조 1,174억원을 투자함. 기업당 평균 110.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경험이 있는 기업은 평균 158.6억원을 투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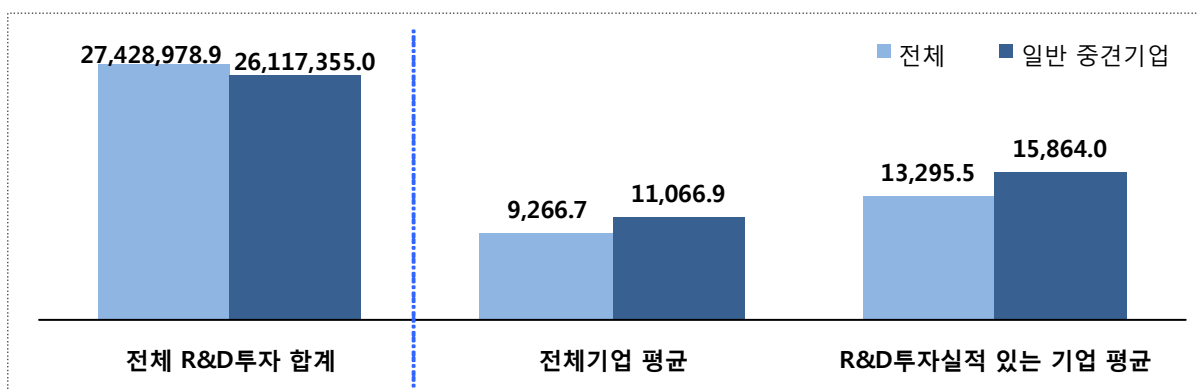
[그림 3-9] 설비투자 유무

(단위: %)



[그림 3-10] 설비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87.1%, 비제조업의 54.8%가 2014년 설비에 투자하였으며, 전체 투자금액은 제조업이 총 17조 4,597억원, 비제조업이 총 9조 9,693억원을 투자하여 제조업의 설비투자액이 비제조업에 비해 약 2배 많음
 - 기업당 평균 설비투자액은 전체 기업 기준 제조업 132억원, 비제조업 61억원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이 낮은 1백억원 미만 기업(29.9%)이 2014년 설비 투자 비중이 낮은 반면, 1조원 이상의 매출액 높은 기업은 80.0%가 설비투자를 진행하여 매출액에 따라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남
- 수출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비중은 85.8%, 내수기업의 설비투자 비중은 58.4%로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설비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평균 설비투자액은 수출기업 149억원, 내수기업 55억원으로 약 3배 정도 차이를 보임
- 중견기업 성장단계별로는 초기단계에서 중견기업 진입연차가 오래될수록 설비 투자 비중이 높은 편

[표 3-17] 설비투자실적

(단위 :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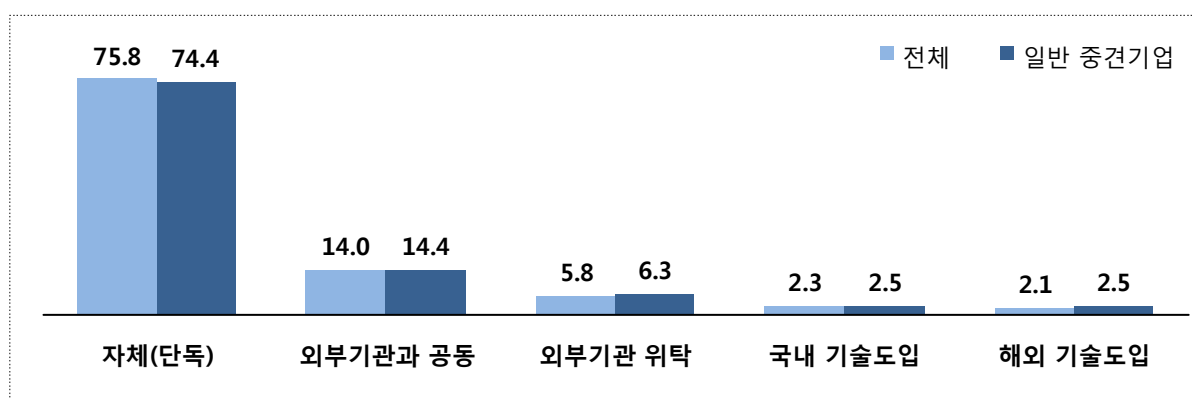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설비투자여부		전체 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	
			투자함	투자안함		전체 기업	투자실적 있는 기업
전체		(2,979)	69.3	30.7	27,428,978.9	9,266.7	13,295.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69.2	30.8	26,117,355.0	11,066.9	15,864.0
	관계기업	(600)	69.4	30.6	1,311,623.9	2,186.0	3,147.7
업종	제조업	(1,331)	87.1	12.9	17,459,661.9	13,163.4	15,059.5
	비제조업	(1,648)	54.8	45.2	9,969,317.0	6,102.8	11,032.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29.9	70.1	1,316,054.4	3,377.9	11,196.1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66.7	33.3	2,050,218.4	2,336.6	3,486.7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71.8	28.2	1,401,646.7	4,039.3	5,622.4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76.2	23.8	3,316,383.3	5,818.3	7,540.0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88.8	11.2	4,644,134.9	14,073.1	15,856.9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84.8	15.2	3,837,490.9	15,725.7	18,386.4
	5천억원~1조원미만	(153)	82.3	17.7	5,407,262.8	35,835.1	42,939.1
	1조원이상	(51)	80.0	20.0	5,455,787.4	106,976.2	133,720.3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85.8	14.2	17,617,693.9	14,926.3	17,367.6
	수출없음	(1,797)	58.4	41.6	9,811,285.0	5,513.1	9,356.4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48.7	51.3	3,704,115.9	4,423.7	8,981.8
	50~100명미만	(758)	72.2	27.8	1,724,623.1	3,457.5	4,766.1
	100~200명미만	(454)	78.0	22.0	2,748,066.6	6,123.3	7,845.8
	200~300명미만	(289)	90.6	9.4	2,051,200.6	6,063.2	6,694.0
	300~500명미만	(351)	73.6	26.4	3,550,283.8	10,217.6	13,797.1
	500~1,000명미만	(301)	82.4	17.6	6,475,093.5	22,904.2	27,345.3
	1,000명이상	(146)	66.8	33.2	7,175,595.4	34,739.9	52,006.9
업력	0~7년미만	(583)	51.8	48.2	2,156,501.2	5,654.2	10,729.2
	7~20년미만	(1,134)	63.6	36.4	6,813,428.5	5,676.6	8,882.7
	20~30년미만	(550)	74.4	25.6	6,223,172.9	10,872.2	14,610.6
	30~40년미만	(308)	78.2	21.8	3,283,539.0	9,123.7	11,604.8
	40~50년미만	(240)	85.2	14.8	3,296,534.7	13,014.1	15,275.0
	50년이상	(164)	86.3	13.7	5,655,802.7	29,351.4	33,212.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64.7	35.3	8,353,042.9	5,274.7	8,103.3
	진입4~5년차	(750)	69.9	30.1	5,570,394.3	7,374.9	10,521.0
	진입6~9년차	(220)	79.1	20.9	2,374,798.3	10,295.6	12,913.3
	진입10년차이상	(361)	80.3	19.7	11,130,743.3	28,514.0	34,909.8
매출유형	B2B	(2,261)	70.6	29.4	20,437,723.7	9,098.4	12,800.0
	B2C	(620)	63.9	36.1	6,932,233.7	11,252.4	17,495.0
	B2G	(98)	71.8	28.2	59,021.5	604.8	842.2
상장	상장	(644)	88.9	11.1	13,451,632.4	19,789.7	22,031.9
	비상장	(2,335)	63.4	36.6	13,977,346.5	6,129.8	9,623.2

□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방식

- 중견기업은 기술개발 시 자체개발하는 비중이 75.8%로 가장 높고 외부기관과의 공동개발(14.0%), 외부기관 위탁(5.8%), 국내 기술도입(2.3%), 해외기술 도입(2.1%)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자체개발(74.4%), 외부기관과의 공동개발(14.4%), 외부기관 위탁(6.3%), 국내 기술도입(2.5%), 해외 기술도입(2.5%) 순임

[그림 3-11] 기술개발 방식

(단위: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비중이 78.2%로 비제조업(69.5%)에 비해 ‘자체개발’ 비중이 높은 편
-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비해 ‘자체개발’ 비중이 높았으며, 내수기업은 수출기업에 비해 ‘외부기관에 위탁’ 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종사자 수가 증가할수록 ‘자체개발’ 비중이 높게 조사됨(100~300명 제외)
-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4~5년차 기업과 진입 1~3년차 기업의 ‘자체개발’ 비중이 각각 77.8%, 76.8%로 다른 기업군에 비해 높고, 진입 6~9년차의 기업은 다른 기업군에 비해 ‘외부기관과 공동개발(22.7%)’ 비중이 높음

[표 3-18] 기술개발 방식

(단위 : %)

구분		사례수	자체(단독)	외부기관과 공동	외부기관 위탁	국내 기술도입	해외 기술도입
전체		(2,979)	75.8	14.0	5.8	2.3	2.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74.4	14.4	6.3	2.5	2.5
	관계기업	(600)	83.3	12.1	3.4	1.2	0.0
업종	제조업	(1,331)	78.2	14.5	3.5	1.6	2.2
	비제조업	(1,648)	69.5	12.7	11.8	4.2	1.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85.0	6.7	3.0	1.4	3.9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69.8	14.8	11.2	2.1	2.1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80.8	12.8	0.3	1.2	4.8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72.3	17.8	6.3	2.0	1.5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85.8	7.3	4.5	2.1	0.3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71.9	15.7	6.3	4.2	1.9
	5천억원~1조원미만	(153)	79.9	11.7	4.2	2.4	1.7
	1조원이상	(51)	64.9	26.5	1.0	4.2	3.5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77.1	16.0	2.8	2.0	2.0
	수출없음	(1,797)	73.1	9.7	12.1	2.9	2.2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68.4	11.3	11.5	2.4	6.5
	50~100명미만	(758)	66.4	15.7	9.0	4.9	4.0
	100~200명미만	(454)	82.9	10.9	2.4	2.2	1.5
	200~300명미만	(289)	81.6	11.6	2.7	1.8	2.4
	300~500명미만	(351)	74.6	17.7	6.0	1.7	0.0
	500~1,000명미만	(301)	75.5	15.7	6.7	1.4	0.7
	1,000명이상	(146)	75.5	14.4	5.3	2.7	2.1
업력	0~7년미만	(583)	81.2	6.4	2.8	1.0	8.6
	7~20년미만	(1,134)	73.0	12.7	8.7	3.4	2.2
	20~30년미만	(550)	76.4	15.3	4.5	1.8	2.0
	30~40년미만	(308)	76.2	17.0	4.5	2.0	0.4
	40~50년미만	(240)	79.1	15.3	2.8	1.4	1.4
	50년이상	(164)	75.6	15.4	6.7	2.3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76.8	11.9	5.7	2.0	3.5
	진입4~5년차	(750)	77.8	11.7	6.7	3.7	0.1
	진입6~9년차	(220)	69.8	22.7	3.7	3.8	0.0
	진입10년차이상	(361)	73.7	17.9	5.8	0.7	1.9
매출유형	B2B	(2,261)	75.2	14.3	5.7	2.2	2.5
	B2C	(620)	79.9	11.6	5.0	3.1	0.5
	B2G	(98)	70.2	17.6	12.2	0.0	0.0
상장	상장	(644)	77.9	16.4	3.2	1.8	0.6
	비상장	(2,335)	74.4	12.3	7.5	2.6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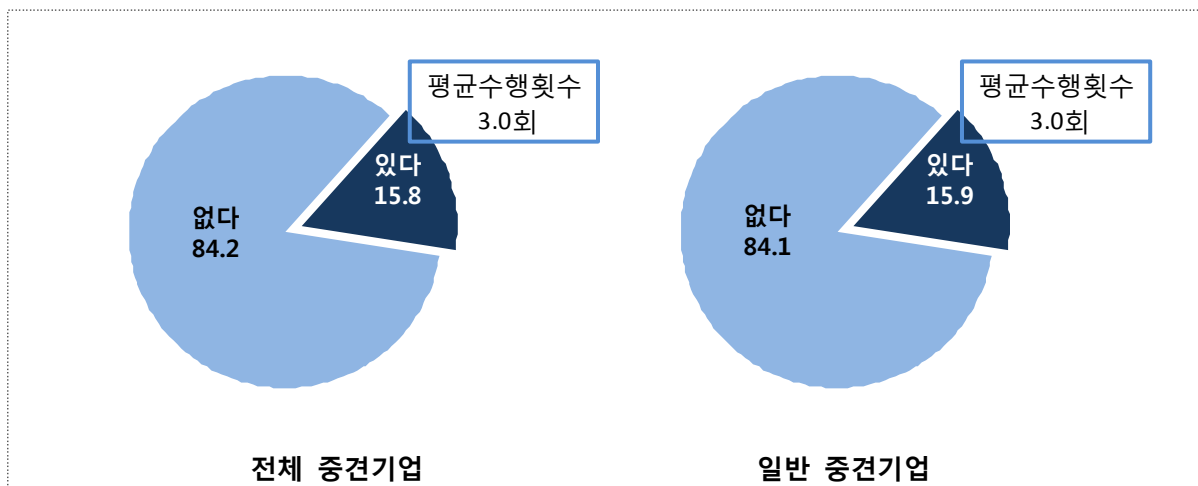
2. R&D관련 정부지원사업 수행

□ 2014년 R&D관련 정부지원사업 수행 여부

- 중견기업의 15.8%는 2014년에 정부지원 R&D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행한 기업들의 평균 수행횟수는 3.0회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15.9%는 2014년에 정부지원 R&D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행한 기업들의 평균 수행횟수는 3.0회로 나타남

[그림 3-12] 정부지원 R&D사업 수행경험

(단위: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 일반 중견기업의 15.9%가 3.0건, 관계기업의 15.7%가 2.6건의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30.6%, 비제조업의 3.9%가 정부지원 R&D사업 참여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원 R&D사업이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길수록, 성장단계가 오래될수록 정부지원 R&D 사업을 수행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매출규모가 1조원 이상의 기업의 평균 수행 횟수가 7.1건으로 타 기업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표 3-19] 정부지원 R&D사업 수행 경험

(단위 :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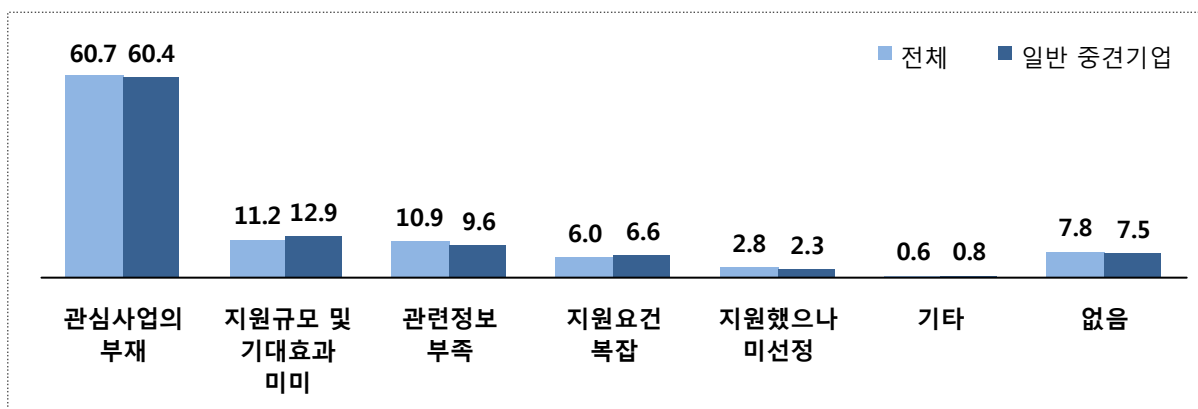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수행경험 있음		수행경험 없음
				평균수행횟수	
전체		(2,979)	15.8	3.0	84.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5.9	3.0	84.1
	관계기업	(600)	15.7	2.6	84.3
업종	제조업	(1,331)	30.6	3.1	69.4
	비제조업	(1,648)	3.9	2.3	96.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4.4	1.1	95.6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8.9	2.5	91.1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16.7	2.8	83.3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20.1	2.9	79.9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25.4	3.2	74.6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24.1	2.6	75.9
	5천억원~1조원미만	(153)	28.8	3.4	71.2
	1조원이상	(51)	30.9	7.1	69.1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33.9	3.0	66.1
	수출없음	(1,797)	3.9	2.5	96.1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3.3	1.5	96.7
	50~100명미만	(758)	10.9	3.0	89.1
	100~200명미만	(454)	15.8	2.4	84.2
	200~300명미만	(289)	23.0	2.6	77.0
	300~500명미만	(351)	28.7	2.8	71.3
	500~1,000명미만	(301)	36.9	3.2	63.1
	1,000명이상	(146)	16.5	5.8	83.5
업력	0~7년미만	(583)	7.9	3.6	92.1
	7~20년미만	(1,134)	11.9	2.3	88.1
	20~30년미만	(550)	21.4	3.0	78.6
	30~40년미만	(308)	23.4	3.2	76.6
	40~50년미만	(240)	21.7	3.2	78.3
	50년이상	(164)	17.8	3.8	82.2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14.1	2.4	85.9
	진입4~5년차	(750)	13.1	3.0	86.9
	진입6~9년차	(220)	22.7	3.4	77.3
	진입10년차이상	(361)	23.9	4.2	76.1
매출유형	B2B	(2,261)	17.2	3.0	82.8
	B2C	(620)	10.7	2.7	89.3
	B2G	(98)	17.6	2.6	82.4
상장	상장	(644)	37.2	3.4	62.8
	비상장	(2,335)	9.5	2.4	90.5

□ R&D관련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

- 정부지원 R&D사업 수행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중견기업은 관심사업의 부재(60.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지원 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11.2%), 관련정보 부족(10.9%), 지원요건 복잡(6.0%)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관심사업의 부재(60.4%),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12.9%), 관련 정보 부족(9.6%), 지원요건 복잡(6.6%) 순임

[그림 3-13]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단위: %, R&D사업 미참여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경우 미참여 이유로 '관심사업 부재',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가 높은 반면, 관계기업은 '관심사업 부재', '관련정보 부족'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48.4%, 비제조업의 67.8%가 '관심사업의 부재'로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라고 응답함
 - '관심사업의 부재'라고 응답한 비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지원 R&D사업이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업력별로는 업력이 짧은 기업보다 업력이 길수록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가 미미'하여 참여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많음
- 상장기업은 '관심사업 부재' 51.8%,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 18.5%, 비상장기업은 '관심사업 부재' 62.5%, '관련정보 부족' 11.0% 조사됨

[표 3-20]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단위 : %, R&D사업 미참여 기업 2,508개사)

구분		관심사업 부재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	관련정보 부족	지원요건 복잡	지원했으 나 미선정	기타	없음
전체		60.7	11.2	10.9	6.0	2.8	0.6	7.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0.4	12.9	9.6	6.6	2.3	0.8	7.5
	관계기업	61.8	4.7	15.9	3.6	4.8	0.0	9.2
업종	제조업	48.4	19.5	14.2	10.7	5.1	1.3	0.8
	비제조업	67.8	6.4	8.9	3.3	1.5	0.2	11.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7.5	3.1	7.6	1.4	0.5	0.0	9.9
	1백억원~5백억원미만	62.7	10.2	9.2	5.1	3.0	0.0	9.9
	5백억원~1천억원미만	56.0	10.5	13.5	6.6	4.3	1.0	8.1
	1천억원~2천억원미만	51.3	13.6	14.6	9.3	3.3	1.1	6.7
	2천억원~3천억원미만	62.1	9.6	11.3	8.8	2.0	0.0	6.1
	3천억원~5천억원미만	46.3	27.4	10.5	6.3	4.2	0.0	5.2
	5천억원~1조원미만	62.6	15.1	9.4	5.6	3.7	3.7	0.0
	1조원이상	55.3	8.8	17.5	9.6	0.0	8.8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42.8	19.2	14.9	11.3	6.4	1.6	3.8
	수출없음	68.7	7.6	9.1	3.6	1.2	0.2	9.6
종사자수	50명미만	73.1	5.7	7.4	2.3	0.8	0.0	10.6
	50~100명미만	60.9	12.8	9.0	6.7	2.5	0.7	7.5
	100~200명미만	52.9	17.0	15.5	4.4	3.9	0.7	5.5
	200~300명미만	52.8	12.0	21.0	5.1	7.6	0.8	0.8
	300~500명미만	57.0	11.4	5.6	14.6	3.5	1.1	6.8
	500~1,000명미만	42.3	18.4	13.1	17.4	5.1	0.0	3.7
	1,000명이상	54.2	11.4	12.0	2.4	0.0	3.0	17.1
업력	0~7년미만	81.4	4.1	3.8	2.9	0.0	0.0	7.7
	7~20년미만	59.2	8.2	13.0	4.3	4.7	0.7	9.8
	20~30년미만	61.5	12.4	9.9	8.6	0.5	1.8	5.3
	30~40년미만	54.7	17.6	9.8	5.5	2.5	0.0	10.0
	40~50년미만	47.4	18.5	13.4	14.9	1.0	0.0	4.7
	50년이상	48.7	23.1	13.8	6.9	5.6	0.0	1.8
성장단계	진입1~3년차	66.0	9.8	10.6	3.7	1.8	0.9	7.0
	진입4~5년차	57.8	11.1	10.5	8.3	3.0	0.0	9.2
	진입6~9년차	45.5	12.8	13.4	7.9	9.7	0.0	10.5
	진입10년차이상	51.7	16.7	11.2	10.2	2.4	1.0	6.7
매출유형	B2B	59.8	11.1	10.5	6.9	2.9	0.8	8.1
	B2C	63.8	12.0	9.8	4.1	2.7	0.0	7.6
	B2G	60.2	7.7	27.3	0.0	2.1	0.0	2.7
상장	상장	51.8	18.5	10.3	11.6	3.2	1.2	3.5
	비상장	62.5	9.7	11.0	4.9	2.7	0.5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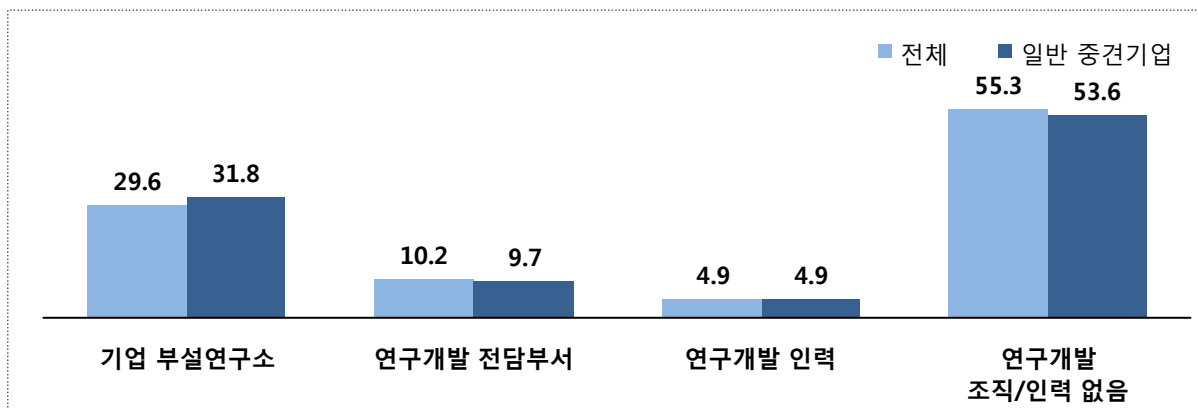
3. 연구개발

□ 연구개발 조직형태

- 중견기업의 29.6%는 기업부설연구소를, 10.2%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4.9%는 연구개발인력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31.8%), 연구개발 전담부서(9.7%), 연구개발인력(4.9%) 순임

[그림 3-14] 연구개발 조직형태 및 인력수

(단위: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53.5%가 기업부설연구소를, 14.5%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6.2%가 연구개발 인력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10.2%가 기업부설연구소를, 6.8%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3.8%가 연구개발 인력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 편차가 큼
 -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 조직인력이 74.3% 있는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20.8%만이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비제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임
- 대체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 수출을 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보유비율이 높음
- 업력이 길수록(40~50년 미만 제외) 연구개발 조직/인력수가 높은 반면,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4~5년차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인력수가 21.5명으로 가장 낮음

[표 3-21] 연구개발 조직형태 및 인력수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조직/인력 없음	연구개발 인력 수
전체		(2,979)	29.6	10.2	4.9	55.3	35.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31.8	9.7	4.9	53.6	38.0
	관계기업	(600)	20.7	12.3	4.9	62.1	22.1
업종	제조업	(1,331)	53.5	14.5	6.2	25.7	38.5
	비제조업	(1,648)	10.2	6.8	3.8	79.2	25.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7.1	2.3	8.8	81.8	6.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14.1	8.4	5.6	71.9	17.7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28.7	14.1	3.6	53.5	19.9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42.6	10.9	3.9	42.7	31.3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46.3	14.0	3.5	36.2	37.3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46.5	16.0	3.2	34.3	38.5
	5천억원~1조원미만	(153)	51.1	12.0	4.1	32.8	73.6
	1조원이상	(51)	73.9	13.3	0.0	12.7	153.9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60.0	14.4	4.7	20.9	42.3
	수출없음	(1,797)	9.5	7.5	5.0	78.0	18.2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4.5	5.3	3.9	86.3	5.4
	50~100명미만	(758)	15.3	6.6	8.7	69.4	10.7
	100~200명미만	(454)	33.8	14.3	7.1	44.8	14.4
	200~300명미만	(289)	44.9	19.7	3.1	32.3	29.7
	300~500명미만	(351)	54.9	14.0	4.8	26.3	33.3
	500~1,000명미만	(301)	66.1	10.6	3.3	20.0	51.6
	1,000명이상	(146)	39.3	8.0	0.0	52.8	141.9
업력	0~7년미만	(583)	12.8	9.9	3.1	74.2	22.8
	7~20년미만	(1,134)	24.8	7.4	4.5	63.4	34.0
	20~30년미만	(550)	31.0	12.6	4.1	52.2	38.9
	30~40년미만	(308)	45.9	11.3	3.8	39.0	39.0
	40~50년미만	(240)	39.5	19.5	11.2	29.8	31.4
	50년이상	(164)	45.1	7.8	6.8	40.2	40.9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26.4	10.1	4.4	59.1	28.0
	진입4~5년차	(750)	25.1	9.4	5.7	59.8	21.5
	진입6~9년차	(220)	38.2	6.3	6.0	49.4	57.5
	진입10년차이상	(361)	45.7	14.5	4.6	35.3	59.4
매출유형	B2B	(2,261)	32.4	11.0	4.2	52.5	35.1
	B2C	(620)	21.0	6.5	6.9	65.6	40.4
	B2G	(98)	19.3	17.4	8.4	54.9	17.0
상장	상장	(644)	61.1	15.7	4.3	18.8	51.2
	비상장	(2,335)	20.1	8.6	5.0	66.3	23.7

□ 주력기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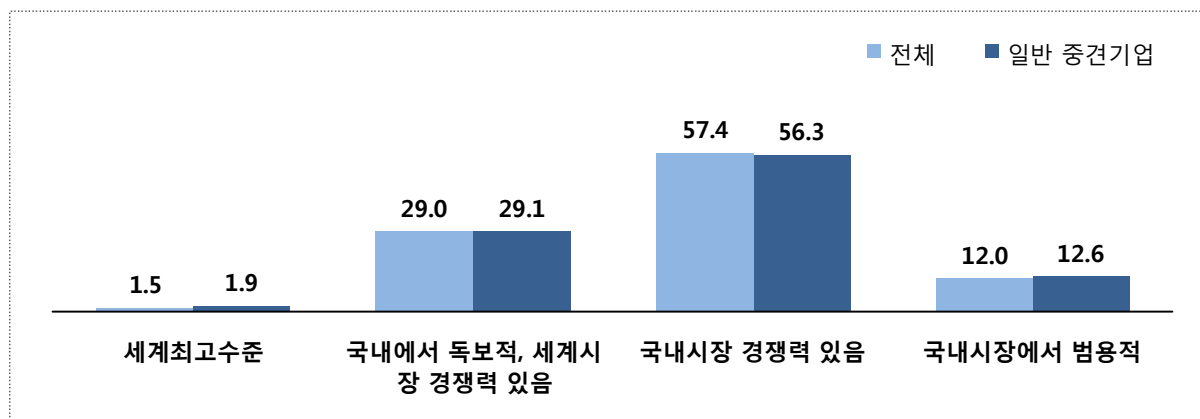
-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술이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중견기업이 1.5%, 일반 중견기업이 1.9%로 나타남
 - 주력기술 수준에 있어서 국내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비중이 중견기업 57.4%, 일반 중견기업 56.3%로 각각 높게 나타남

[표 3-22] 기술수준 정의

기술 수준	기술 수준의 정의
100% 수준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인 수준
80~100%	국내시장에서 독보적이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준
60~80%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수준
60% 미만	국내시장에서도 범용적인 기술수준

[그림 3-15] 주력기술 수준

(단위: %)



특성별 분석

- 매출액 규모가 1백억원 미만 기업은 0.4%만이 주력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1조원 이상 기업은 6.1% 라고 응답하여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기술 수준을 높게 평가함
- 업력별로는 신생기업의 주력기술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주력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40~50년 미만 제외)
- B2C기업이 타 기업군보다 주력기술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3] 주력기술 수준

(단위 : %)

구분		사례수	세계최고수준	국내에서 독보적, 세계시장 경쟁력 있음	국내시장 경쟁력 있음	국내시장에서 범용적
전체		(2,979)	1.5	29.0	57.4	12.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9	29.1	56.3	12.6
	관계기업	(600)	0.0	28.7	61.9	9.4
업종	제조업	(1,331)	2.1	40.1	51.7	6.1
	비제조업	(1,648)	1.1	20.1	62.1	16.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0.4	17.2	57.6	24.8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1.0	20.8	63.2	15.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2.4	33.7	50.7	13.1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1.4	38.2	53.2	7.2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0.0	36.1	56.3	7.6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6.4	32.8	56.8	4.0
	5천억원~1조원미만	(153)	0.0	37.2	61.4	1.4
	1조원이상	(51)	6.1	37.0	50.3	6.7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1.5	44.1	51.3	3.0
	수출없음	(1,797)	1.5	19.1	61.5	17.9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1.1	18.8	59.0	21.2
	50~100명미만	(758)	2.1	28.5	54.2	15.3
	100~200명미만	(454)	0.9	26.7	66.2	6.2
	200~300명미만	(289)	0.0	38.2	52.4	9.4
	300~500명미만	(351)	1.9	33.9	61.2	3.1
	500~1,000명미만	(301)	2.5	42.4	52.6	2.4
	1,000명이상	(146)	4.4	35.8	48.7	11.1
업력	0~7년미만	(583)	0.4	15.1	57.2	27.2
	7~20년미만	(1,134)	1.3	30.0	58.0	10.8
	20~30년미만	(550)	2.0	31.9	54.0	12.2
	30~40년미만	(308)	2.2	33.9	56.9	7.1
	40~50년미만	(240)	1.8	34.3	56.7	7.2
	50년이상	(164)	2.6	26.9	66.7	3.9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1.2	26.9	57.4	14.6
	진입4~5년차	(750)	1.1	32.7	55.4	10.8
	진입6~9년차	(220)	4.2	28.7	61.9	5.2
	진입10년차이상	(361)	2.3	31.0	59.0	7.7
매출유형	B2B	(2,261)	1.4	31.2	56.9	10.6
	B2C	(620)	2.4	23.1	57.4	17.2
	B2G	(98)	0.0	16.5	71.5	12.0
상장	상장	(644)	2.0	41.4	54.7	1.9
	비상장	(2,335)	1.4	25.3	58.3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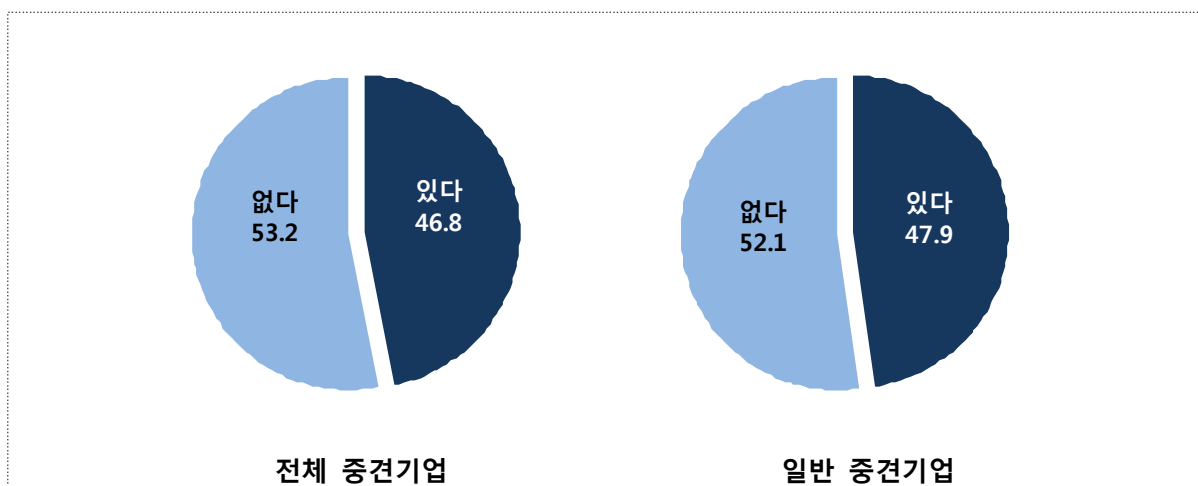
4.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는 46.8%이며, 일반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는 47.9%로 나타남

[그림 3-16]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단위: %)



특성별 분석

- 관계기업보다 일반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율이 높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69.4%, 비제조업의 28.6%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 편차가 큼
-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식재산권 보유 비율도 높음
 - 매출액 1천억원 미만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인 반면, 1천억원 이상 기업은 60% 이상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1조원 이상 기업은 81.8%가 지식재산권을 보유
- 업력이 길수록,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비중이 높음
-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시기가 오래될수록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4]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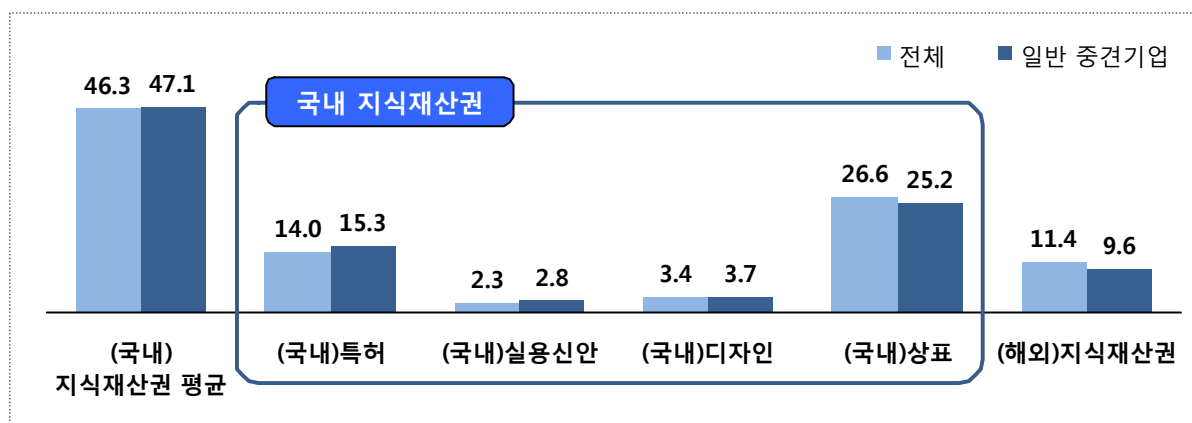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지식재산권 보유	지식재산권 미보유
전체		(2,979)	46.8	53.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47.9	52.1
	관계기업	(600)	42.5	57.5
업종	제조업	(1,331)	69.4	30.6
	비제조업	(1,648)	28.6	71.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20.0	8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32.5	67.5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49.1	50.9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62.1	37.9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59.0	41.0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68.1	31.9
	5천억원~1조원미만	(153)	63.5	36.5
	1조원이상	(51)	81.8	18.2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75.2	24.8
	수출없음	(1,797)	28.1	71.9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18.6	81.4
	50~100명미만	(758)	29.1	70.9
	100~200명미만	(454)	59.8	40.2
	200~300명미만	(289)	67.2	32.8
	300~500명미만	(351)	72.2	27.8
	500~1,000명미만	(301)	78.2	21.8
	1,000명이상	(146)	57.4	42.6
업력	0~7년미만	(583)	26.4	73.6
	7~20년미만	(1,134)	40.5	59.5
	20~30년미만	(550)	47.3	52.7
	30~40년미만	(308)	62.2	37.8
	40~50년미만	(240)	65.3	34.7
	50년이상	(164)	72.1	27.9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41.2	58.8
	진입4~5년차	(750)	43.2	56.8
	진입6~9년차	(220)	56.9	43.1
	진입10년차이상	(361)	70.2	29.8
매출유형	B2B	(2,261)	48.0	52.0
	B2C	(620)	44.2	55.8
	B2G	(98)	36.3	63.7
상장	상장	(644)	81.3	18.7
	비상장	(2,335)	36.5	63.5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중견기업은 평균 46.3건의 국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 26.6건, 특허 14.0건, 디자인권 3.4건, 실용신안권 2.3건 순이고 해외지식재산권은 11.4건 보유함
 - 일반 중견기업당 평균 47.1건의 국내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 25.2건, 특허 15.3건, 디자인권 3.7건, 실용신안권 2.8건 순이고 해외지식재산권은 9.6건 보유함

[그림 3-17]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

(단위: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보유한 전체 특허권은 평균 34.5건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의 2.5건으로 제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수가 약 14배 가까이 많음
- 대체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매출액 1조원 이상인 기업이 평균 148.1건을 보유한 반면, 매출액이 1백억원 미만인 기업은 1.0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편차가 큼
 -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연구개발 전담 조직 및 인력의 보유 비중이 높고,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수가 매출액이 작은 기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임
- 주 거래처가 개인인 기업은 상표권을 평균 99.8건 보유하여 타 기업군에 비해 상표권 등록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5]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

(단위 :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1,394개사)

구분		국내				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		14.0	2.3	3.4	26.6	2.7	1.1	0.5	7.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5.3	2.8	3.7	25.2	3.3	1.3	0.7	4.3
	관계기업	8.7	0.4	2.0	32.1	0.4	0.0	0.0	18.1
업종	제조업	28.7	5.0	5.9	42.8	5.8	2.4	1.2	6.9
	비제조업	2.2	0.2	1.4	13.4	0.3	0.0	0.0	7.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8	0.1	0.1	1.0	0.2	0.0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4.4	0.3	0.9	13.1	0.3	0.0	0.0	12.4
	5백억원~1천억원미만	8.9	0.7	2.6	43.4	0.3	0.0	0.0	0.7
	1천억원~2천억원미만	12.5	1.2	4.0	28.3	1.6	0.1	0.2	3.2
	2천억원~3천억원미만	24.6	11.0	2.1	11.6	12.7	9.5	1.1	9.0
	3천억원~5천억원미만	17.7	1.8	4.8	53.2	2.1	0.0	1.5	14.1
	5천억원~1조원미만	50.9	7.2	6.3	78.5	10.3	0.1	0.9	3.0
	1조원이상	136.9	12.2	63.4	134.2	11.2	0.0	11.5	20.2
수출여부	수출있음	31.3	5.6	6.9	52.1	6.5	2.7	1.3	13.8
	수출없음	2.6	0.2	1.1	9.8	0.3	0.0	0.0	2.6
종사자수	50명미만	0.7	0.1	0.2	5.3	0.1	0.0	0.0	0.5
	50~100명미만	3.8	0.1	0.2	1.2	0.4	0.0	0.0	0.2
	100~200명미만	4.9	0.7	1.6	12.8	0.8	0.0	0.0	0.9
	200~300명미만	9.8	1.5	4.0	37.1	1.5	0.0	0.1	31.5
	300~500명미만	23.3	1.5	7.2	53.6	2.2	0.0	2.0	9.3
	500~1,000명미만	40.8	16.5	5.1	30.5	15.5	11.1	0.7	11.3
	1,000명이상	66.7	3.9	18.0	136.6	8.7	0.0	3.0	13.8
업력	0~7년미만	2.6	0.1	0.1	1.0	0.7	0.0	0.0	0.2
	7~20년미만	14.0	3.5	2.2	15.8	3.2	2.6	0.3	9.0
	20~30년미만	19.4	1.7	4.9	40.1	2.1	0.0	1.0	7.4
	30~40년미만	16.7	3.1	9.0	36.6	1.8	0.1	0.7	4.9
	40~50년미만	14.7	1.7	2.3	43.6	5.8	0.0	0.1	2.1
	50년이상	14.7	1.3	3.7	62.9	3.6	0.1	1.8	17.7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0.2	1.3	2.8	12.0	1.0	0.0	0.7	1.9
	진입4~5년차	6.5	0.6	1.6	15.3	1.2	0.0	0.4	5.8
	진입6~9년차	34.5	14.9	1.4	24.1	16.4	13.6	0.2	50.2
	진입10년차이상	31.7	2.5	10.1	107.9	4.9	0.0	0.2	4.8
매출유형	B2B	14.9	2.3	2.1	13.9	2.9	1.4	0.1	2.9
	B2C	11.8	2.7	8.4	76.7	2.5	0.0	2.2	23.1
	B2G	7.8	0.8	1.8	1.0	0.1	0.0	0.0	0.0
상장	상장	32.6	3.2	8.0	74.3	4.8	0.1	1.2	9.2
	비상장	8.4	2.1	2.0	12.3	2.1	1.4	0.3	6.4

[표 3-26]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계속)

(단위 :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1,394개사)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		16.7	3.4	3.9	33.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8.6	4.1	4.4	29.5
	관계기업	9.1	0.4	2.0	50.2
업종	제조업	34.5	7.4	7.1	49.7
	비제조업	2.5	0.2	1.4	20.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0	0.1	0.1	1.0
	1백억원~5백억원미만	4.7	0.3	0.9	25.5
	5백억원~1천억원미만	9.2	0.7	2.6	44.1
	1천억원~2천억원미만	14.1	1.3	4.2	31.5
	2천억원~3천억원미만	37.3	20.5	3.2	20.6
	3천억원~5천억원미만	19.8	1.8	6.3	67.3
	5천억원~1조원미만	61.2	7.3	7.2	81.5
	1조원이상	148.1	12.2	74.9	154.4
수출여부	수출있음	37.8	8.3	8.2	65.9
	수출없음	2.9	0.2	1.1	12.4
종사자수	50명미만	0.8	0.1	0.2	5.8
	50~100명미만	4.2	0.1	0.2	1.4
	100~200명미만	5.7	0.7	1.6	13.7
	200~300명미만	11.3	1.5	4.1	68.6
	300~500명미만	25.5	1.5	9.2	62.9
	500~1,000명미만	56.3	27.6	5.8	41.8
	1,000명이상	75.4	3.9	21.0	150.4
업력	0~7년미만	3.3	0.1	0.1	1.2
	7~20년미만	17.2	6.1	2.5	24.8
	20~30년미만	21.5	1.7	5.9	47.5
	30~40년미만	18.5	3.2	9.7	41.5
	40~50년미만	20.5	1.7	2.4	45.7
	50년이상	18.3	1.4	5.5	80.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1.2	1.3	3.5	13.9
	진입4~5년차	7.7	0.6	2.0	21.1
	진입6~9년차	50.9	28.5	1.6	74.3
	진입10년차이상	36.6	2.5	10.3	112.7
매출유형	B2B	17.8	3.7	2.2	16.8
	B2C	14.3	2.7	10.6	99.8
	B2G	7.9	0.8	1.8	1.0
상장	상장	37.4	3.3	9.2	83.5
	비상장	10.5	3.5	2.3	18.7

[표 3-27]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합계

(단위 :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1,394개사)

구분		국내				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		41,737	6,977	10,072	79,105	8,182	3,209	1,580	20,95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6,498	6,737	8,861	59,842	7,945	3,209	1,580	10,113
	관계기업	5,239	240	1,211	19,263	237	0	0	10,839
업종	제조업	38,182	6,623	7,809	56,966	7,656	3,200	1,576	9,157
	비제조업	3,555	354	2,263	22,140	526	9	4	11,79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09	26	35	375	86	0	0	7
	1백억원~5백억원미만	3,857	231	780	11,555	226	0	0	10,912
	5백억원~1천억원미만	3,097	243	905	15,075	104	0	8	260
	1천억원~2천억원미만	7,219	683	2,284	16,341	924	51	118	1,826
	2천억원~3천억원미만	8,130	3,633	686	3,823	4,177	3,142	372	2,985
	3천억원~5천억원미만	4,353	442	1,178	13,076	523	4	361	3,475
	5천억원~1조원미만	7,789	1,098	969	12,014	1,569	12	136	455
	1조원이상	6,983	622	3,235	6,847	572	0	584	1,032
수출여부	수출있음	37,049	6,606	8,112	61,569	7,690	3,200	1,576	16,352
	수출없음	4,689	371	1,960	17,536	492	9	4	4,601
종사자수	50명미만	618	69	204	4,492	84	0	0	462
	50~100명미만	1,921	43	100	600	214	0	0	89
	100~200명미만	2,219	296	737	5,722	373	9	4	403
	200~300명미만	3,327	509	1,346	12,546	495	0	40	10,640
	300~500명미만	8,145	520	2,520	18,745	767	15	711	3,265
	500~1,000명미만	11,728	4,742	1,452	8,777	4,444	3,185	199	3,243
	1,000명이상	13,779	798	3,714	28,224	1,803	0	626	2,849
업력	0~7년미만	1,008	20	26	393	274	0	0	86
	7~20년미만	16,926	4,200	2,691	19,069	3,861	3,150	341	10,881
	20~30년미만	11,108	959	2,788	22,941	1,223	2	588	4,212
	30~40년미만	6,058	1,116	3,242	13,260	648	41	269	1,769
	40~50년미만	3,733	422	590	11,041	1,474	2	36	521
	50년이상	2,903	260	734	12,402	701	13	346	3,48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181	2,063	4,486	19,040	1,551	27	1,142	2,946
	진입4~5년차	4,957	453	1,242	11,625	900	0	325	4,422
	진입6~9년차	8,005	3,457	329	5,611	3,803	3,166	36	11,671
	진입10년차이상	12,594	1,004	4,015	42,830	1,928	16	76	1,913
매출유형	B2B	33,639	5,202	4,691	31,393	6,602	3,179	223	6,650
	B2C	7,338	1,701	5,207	47,617	1,572	30	1,357	14,302
	B2G	761	74	174	95	8	0	0	0
상장	상장	22,367	2,216	5,481	51,003	3,290	45	795	6,299
	비상장	19,370	4,761	4,591	28,102	4,892	3,164	785	14,653

[표 3-28]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합계(계속)

(단위 :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1,394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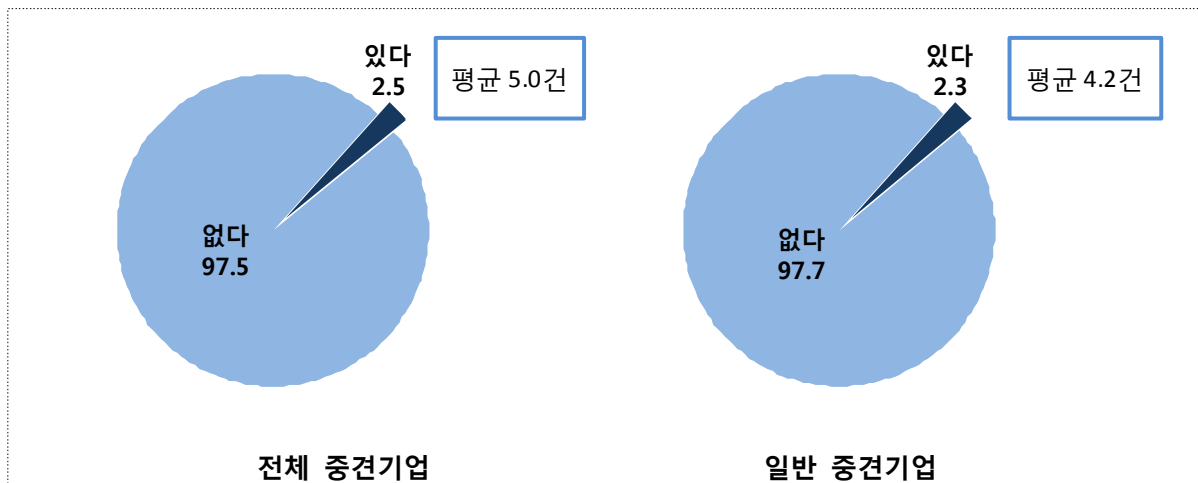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		49,919	10,186	11,652	100,05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4,443	9,946	10,441	69,955
	관계기업	5,476	240	1,211	30,102
업종	제조업	45,838	9,823	9,385	66,123
	비제조업	4,081	363	2,267	33,93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5	26	35	382
	1백억원~5백억원미만	4,083	231	780	22,467
	5백억원~1천억원미만	3,201	243	913	15,335
	1천억원~2천억원미만	8,143	734	2,402	18,167
	2천억원~3천억원미만	12,307	6,775	1,058	6,808
	3천억원~5천억원미만	4,876	446	1,539	16,551
	5천억원~1조원미만	9,358	1,110	1,105	12,469
	1조원이상	7,555	622	3,819	7,879
수출여부	수출있음	44,739	9,806	9,688	77,921
	수출없음	5,181	380	1,964	22,137
종사자수	50명미만	702	69	204	4,954
	50~100명미만	2,135	43	100	689
	100~200명미만	2,592	305	741	6,125
	200~300명미만	3,822	509	1,386	23,186
	300~500명미만	8,912	535	3,231	22,010
	500~1,000명미만	16,172	7,927	1,651	12,020
	1,000명이상	15,582	798	4,340	31,073
업력	0~7년미만	1,282	20	26	479
	7~20년미만	20,787	7,350	3,032	29,950
	20~30년미만	12,331	961	3,376	27,153
	30~40년미만	6,706	1,157	3,511	15,029
	40~50년미만	5,207	424	626	11,562
	50년이상	3,604	273	1,080	15,88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7,732	2,090	5,628	21,986
	진입4~5년차	5,857	453	1,567	16,047
	진입6~9년차	11,808	6,623	365	17,282
	진입10년차이상	14,522	1,020	4,091	44,743
매출유형	B2B	40,241	8,381	4,914	38,043
	B2C	8,910	1,731	6,564	61,919
	B2G	769	74	174	95
상장	상장	25,657	2,261	6,276	57,302
	비상장	24,262	7,925	5,376	42,755

□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

-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중견기업 2.5%, 일반 중견기업 2.3%가 침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평균 침해건수는 중견기업 5.0건, 일반 중견기업 4.2건으로 나타남

[그림 3-18]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

(단위: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의 2.3%, 관계기업의 3.6%가 2014년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음
 - 일반 중견기업이 2014년에 경험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평균 4.2회, 관계기업은 7.1회로 관계기업이 침해당한 횟수가 더 많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2.2%, 비제조업의 2.8%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음
 - 제조업은 평균 6.3회, 비제조업은 평균 4.2회 침해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지식재산권 침해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제조업이 낮지만 침해횟수는 비제조업에 비해 더 많음
- 매출규모 1천억원~2천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침해율은 2.6%로 낮지만 평균 침해횟수는 10.2회로 많음
-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4~5년차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율이 4.7%로 가장 높고, 진입 1~3년차가 1.0%로 가장 낮음

[표 3-29] 지식재산권 침해경험

(단위 :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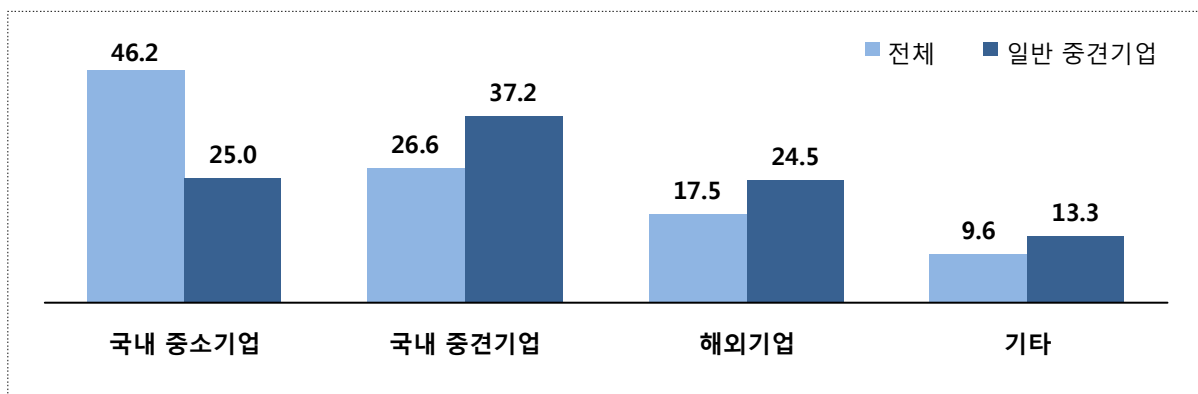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침해경험 있음		침해경험 없음
				평균 침해 건수	
전체		(2,979)	2.5	5.0	97.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2.3	4.2	97.7
	관계기업	(600)	3.6	7.1	96.4
업종	제조업	(1,331)	2.2	6.3	97.8
	비제조업	(1,648)	2.8	4.2	97.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0.4	1.0	99.6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3.7	5.4	96.3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2.8	1.0	97.2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2.6	10.2	97.4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1.5	2.5	98.5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4.0	2.2	96.0
	5천억원~1조원미만	(153)	1.3	2.0	98.7
	1조원이상	(51)	0.0	-	10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2.5	6.3	97.5
	수출없음	(1,797)	2.6	4.2	97.4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0.0	-	100.0
	50~100명미만	(758)	0.6	1.0	99.4
	100~200명미만	(454)	5.5	1.2	94.5
	200~300명미만	(289)	0.8	1.0	99.2
	300~500명미만	(351)	4.1	11.8	95.9
	500~1,000명미만	(301)	5.1	1.9	94.9
	1,000명이상	(146)	8.1	8.9	91.9
업력	0~7년미만	(583)	0.4	1.0	99.6
	7~20년미만	(1,134)	2.9	4.9	97.1
	20~30년미만	(550)	2.5	1.5	97.5
	30~40년미만	(308)	5.2	8.9	94.8
	40~50년미만	(240)	0.9	1.0	99.1
	50년이상	(164)	2.2	3.7	97.8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1.0	9.7	99.0
	진입4~5년차	(750)	4.7	5.0	95.3
	진입6~9년차	(220)	3.9	2.0	96.1
	진입10년차이상	(361)	3.8	1.8	96.2
매출유형	B2B	(2,261)	2.0	7.1	98.0
	B2C	(620)	5.0	1.9	95.0
	B2G	(98)	0.0	-	100.0
상장	상장	(644)	2.6	2.6	97.4
	비상장	(2,335)	2.5	5.7	97.5

□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주체에 대해, 중견기업은 국내 중소기업(46.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국내 중견기업(26.6%), 해외기업(17.5%), 기타(9.6%)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국내 중견기업(37.2%), 국내 중소기업(25.0%), 해외기업(24.5%), 기타(13.3%) 순임

[그림 3-19]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단위: %, 지재권 침해경험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국내 중견기업(37.2%)을 지식재산권 침해 주체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관계기업은 모두 국내 중소기업(100.0%)을 응답하여 기업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임
- 제조업, 수출기업, 상장기업의 경우, 국내 중견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천억원~2천억원 미만의 기업이 국내 중소기업(17.7%), 국내 중견기업(32.3%)보다 해외기업(35.4%)을 지재권 침해 주체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타 기업군과 대조적임

[표 3-30]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단위 : %, 지재권 침해경험 기업 75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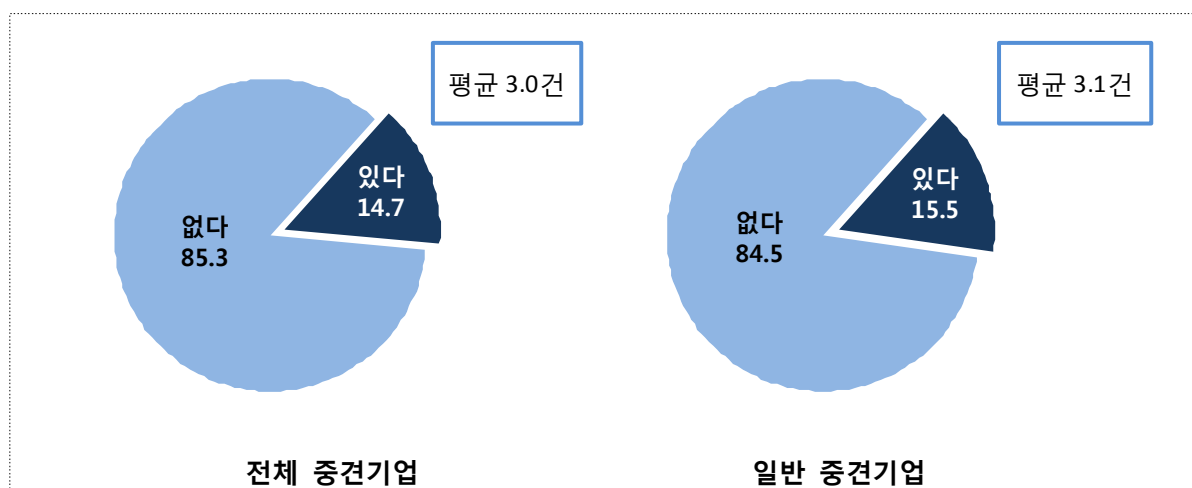
구분		국내 중소기업	국내 중견기업	해외기업	기타
전체		46.2	26.6	9.6	17.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5.0	37.2	13.3	24.5
	관계기업	100.0	0.0	0.0	0.0
업종	제조업	30.3	45.3	24.4	0.0
	비제조업	56.5	14.6	0.0	28.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0.0	0.0	10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58.6	27.4	0.0	13.9
	5백억원~1천억원미만	70.1	0.0	0.0	29.9
	1천억원~2천억원미만	17.7	32.3	35.4	14.6
	2천억원~3천억원미만	50.0	50.0	0.0	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40.1	20.0	20.0	19.9
	5천억원~1조원미만	0.0	100.0	0.0	0.0
	1조원이상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30.3	45.3	24.4	0.0
	수출없음	56.5	14.6	0.0	28.8
종사자수	50명미만	-	-	-	-
	50~100명미만	0.0	0.0	0.0	100.0
	100~200명미만	46.1	17.9	10.7	25.3
	200~300명미만	100.0	0.0	0.0	0.0
	300~500명미만	0.0	81.5	18.5	0.0
	500~1,000명미만	43.3	28.4	13.4	14.8
	1,000명이상	88.2	0.0	0.0	11.8
업력	0~7년미만	0.0	0.0	0.0	100.0
	7~20년미만	69.3	11.9	0.0	18.7
	20~30년미만	32.5	48.7	18.8	0.0
	30~40년미만	21.1	49.2	14.1	15.6
	40~50년미만	0.0	0.0	0.0	100.0
	50년이상	55.0	0.0	45.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5	39.9	33.0	10.6
	진입4~5년차	60.1	13.5	0.0	26.4
	진입6~9년차	0.0	100.0	0.0	0.0
	진입10년차이상	72.5	0.0	13.1	14.4
매출유형	B2B	47.3	25.9	11.7	15.1
	B2C	44.8	27.7	6.4	21.2
	B2G	-	-	-	-
상장	상장	24.7	52.0	11.1	12.3
	비상장	52.8	18.9	9.1	19.2

□ 산학협력 활동 경험

- 중견기업의 14.7%는 2014년에 대학, 연구소 등과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활동한 기업들의 평균 건수는 3.0건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15.5%가 산학협력 활동을 하였으며, 평균 3.1건으로 나타남

[그림 3-20] 산학협력 활동 경험

(단위: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의 15.5%, 관계기업의 11.6%가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일반 중견기업이 산학협력 활동 건수는 평균 3.1건, 관계기업은 2.3건으로 일반 중견기업 산학협력 활동 건수가 더 높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25.9%, 비제조업의 5.7%가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제조업은 평균 3.3건, 비제조업은 평균 2.0건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산학협력 활동의 비중과 건수 모두 제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규모가 높을수록 산학협력 활동의 비중과 건수가 높음
-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10년차 이상 기업의 산학협력 활동이 26.0%, 활동 건수 3.0건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반면, 진입 1~3년차는 13.0%의 낮은 비중에도 산학협력 활동 건수는 3.8건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1] 산학협력 활동 경험

(단위 :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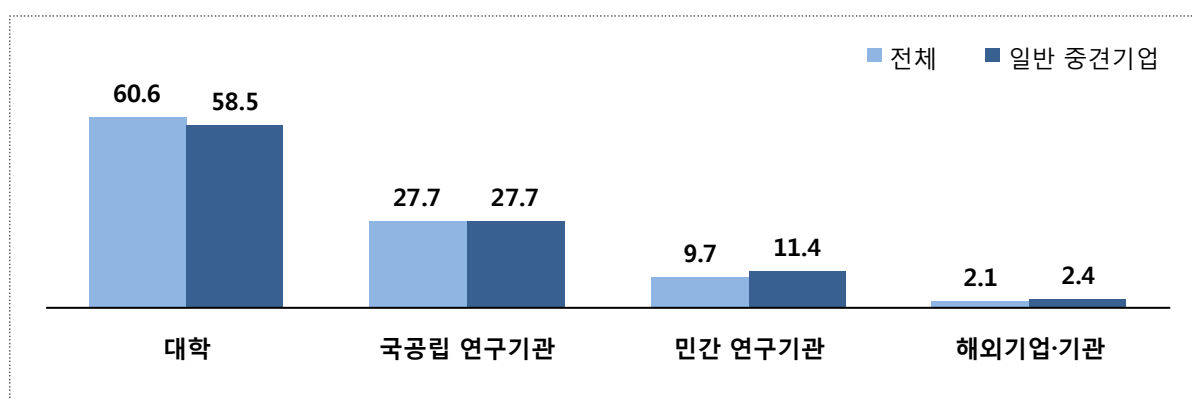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활동 경험 있음		활동 경험 없음
			평균 건수		
전체		(2,979)	14.7	3.0	85.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5.5	3.1	84.5
	관계기업	(600)	11.6	2.3	88.4
업종	제조업	(1,331)	25.9	3.3	74.1
	비제조업	(1,648)	5.7	2.0	94.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2.7	1.0	97.3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8.9	2.1	91.1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14.7	2.2	85.3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17.9	2.2	82.1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19.0	2.0	81.0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23.3	1.9	76.7
	5천억원~1조원미만	(153)	32.8	7.3	67.2
	1조원이상	(51)	49.7	8.0	50.3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30.2	3.3	69.8
	수출없음	(1,797)	4.5	1.7	95.5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2.9	1.0	97.1
	50~100명미만	(758)	8.6	1.4	91.4
	100~200명미만	(454)	11.9	2.2	88.1
	200~300명미만	(289)	21.4	1.8	78.6
	300~500명미만	(351)	26.1	2.4	73.9
	500~1,000명미만	(301)	33.4	2.3	66.6
	1,000명이상	(146)	28.2	9.4	71.8
업력	0~7년미만	(583)	6.6	12.7	93.4
	7~20년미만	(1,134)	11.3	1.9	88.7
	20~30년미만	(550)	17.5	2.9	82.5
	30~40년미만	(308)	21.5	2.1	78.5
	40~50년미만	(240)	20.8	2.0	79.2
	50년이상	(164)	23.3	3.8	76.7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13.0	3.8	87.0
	진입4~5년차	(750)	10.6	1.5	89.4
	진입6~9년차	(220)	20.7	2.3	79.3
	진입10년차이상	(361)	26.0	3.0	74.0
매출유형	B2B	(2,261)	15.9	2.2	84.1
	B2C	(620)	10.6	7.6	89.4
	B2G	(98)	14.1	2.5	85.9
상장	상장	(644)	29.3	4.1	70.7
	비상장	(2,335)	10.3	2.1	89.7

□ 산학협력기관

- 중견기업의 산학협력기관으로는 대학(6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국공립 연구기관(27.7%), 민간 연구기관(9.7%), 해외기업·기관(2.1%)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대학(58.5%), 국공립 연구기관(27.7%), 민간 연구기관(11.4%), 해외기업·기관(2.4%) 순임

[그림 3-21] 산학협력기관

(단위: %, 산학협력 경험 기업)



특성별 분석

-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교수)이 협력기관인 기업은 제조업 58.1%, 비제조업 70.4%로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이 2014년 대학과의 적극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임
- 매출규모로는 1백억원 미만의 기업은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 투자기관포함)과 많은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매출액이 큰 다른 기업은 대학과의 산학협력 활동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매출이 작을수록 업력이 낮을수록 대학보다는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2] 협력기관

(단위 : %, 산학협력 경험 기업 43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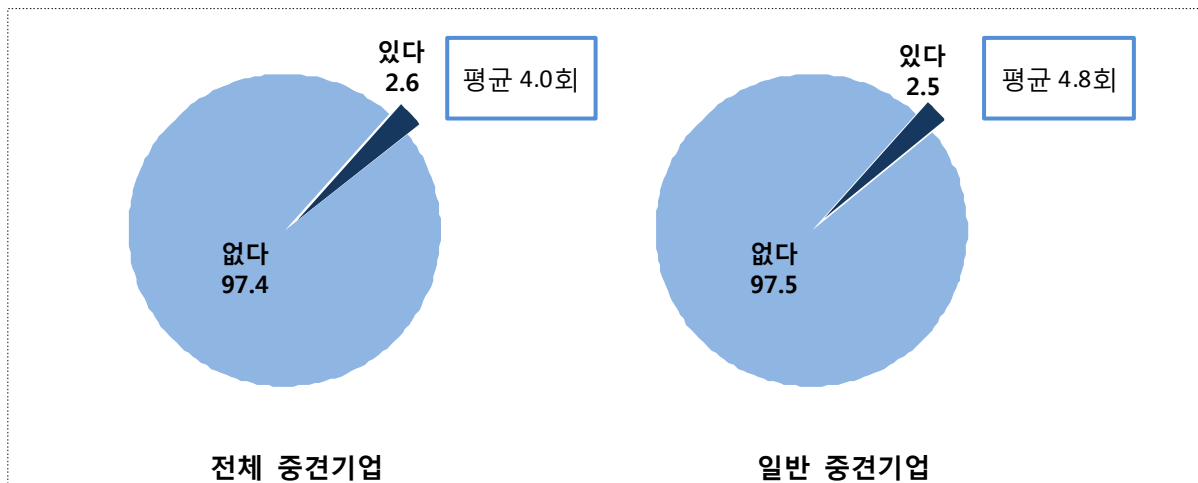
구분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해외기업·기관
전체		60.6	27.7	9.7	2.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8.5	27.7	11.4	2.4
	관계기업	72.3	27.7	0.0	0.0
업종	제조업	58.1	29.8	9.5	2.6
	비제조업	70.4	19.3	10.3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5.6	84.4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67.1	28.3	4.6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66.6	25.3	8.1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66.1	20.2	13.7	0.0
	2천억원~3천억원미만	51.4	42.6	6.1	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57.5	27.5	12.5	2.5
	5천억원~1조원미만	58.0	26.2	10.5	5.2
	1조원이상	57.7	14.1	14.1	14.1
수출여부	수출있음	59.8	28.2	9.9	2.1
	수출없음	64.5	24.9	8.6	2.0
종사자수	50명미만	53.9	46.1	0.0	0.0
	50~100명미만	47.2	45.0	7.8	0.0
	100~200명미만	69.4	27.4	3.2	0.0
	200~300명미만	72.5	18.7	8.8	0.0
	300~500명미만	67.4	25.2	7.4	0.0
	500~1,000명미만	50.9	32.4	13.9	2.8
	1,000명이상	60.6	15.2	15.4	8.8
업력	0~7년미만	43.9	45.0	5.5	5.5
	7~20년미만	64.0	28.8	6.0	1.1
	20~30년미만	54.4	25.7	16.4	3.4
	30~40년미만	73.4	23.6	3.0	0.0
	40~50년미만	55.0	32.3	12.7	0.0
	50년이상	61.5	20.1	13.4	4.9
성장단계	진입1~3년차	60.3	27.0	10.0	2.6
	진입4~5년차	61.5	32.1	6.5	0.0
	진입6~9년차	60.7	33.1	3.1	3.0
	진입10년차이상	60.4	23.4	14.0	2.1
매출유형	B2B	59.0	30.5	9.1	1.5
	B2C	67.7	14.2	11.9	6.1
	B2G	70.3	14.8	14.8	0.0
상장	상장	57.8	27.5	10.6	4.1
	비상장	63.5	27.8	8.7	0.0

□ 기술이전 받은 경험

- 중견기업의 2.6%는 2014년에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적이 있으며, 평균 횟수는 4.0회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2.5%가 기술이전을 받았으며, 평균 4.8건으로 나타남

[그림 3-22] 기술이전 받은 경험

(단위: %)



특성별 분석

-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것은 일반 중견기업의 2.5%가 4.8건, 관계기업의 3.2%가 1.7건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5.0%, 비제조업의 0.7%가 기술이전을 받아본 것으로 나타나 기술이전 활동이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출기업의 기술이전 경험 비중은 5.6%로 내수기업에 비해 8배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이전 건수는 수출기업 평균 4.4건으로 내수기업보다 2.8배 높음
- 주 거래처가 개인고객인 B2C기업은 기술이전이 평균 29.3건으로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을 주 거래처로 하는 기업(1.8건)보다 약 16배 높아 B2C기업이 더욱 더 많은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3] 기술이전 받은 경험

(단위 :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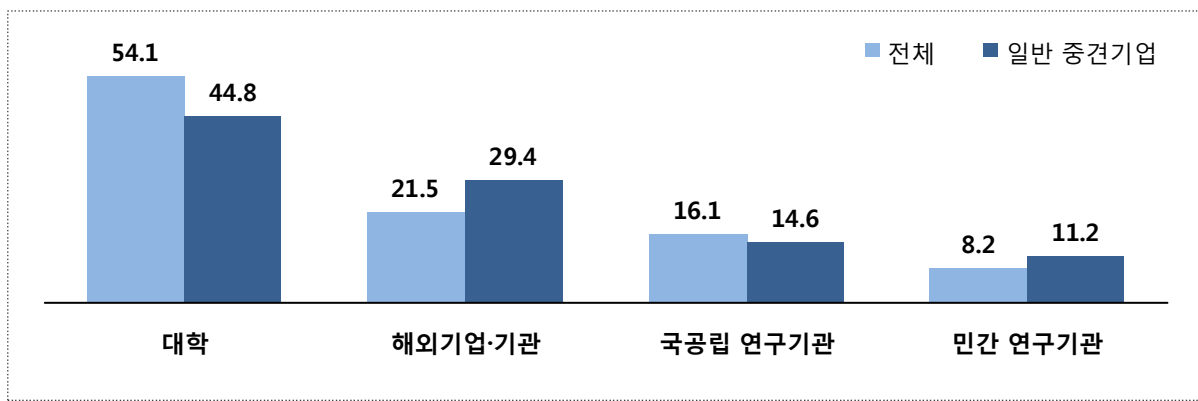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기술이전 경험 있음		기술이전 경험 없음
				평균 건수	
전체		(2,979)	2.6	4.0	97.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2.5	4.8	97.5
	관계기업	(600)	3.2	1.7	96.8
업종	제조업	(1,331)	5.0	4.3	95.0
	비제조업	(1,648)	0.7	2.0	99.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2.1	1.8	97.9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1.6	2.0	98.4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4.4	1.4	95.6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2.7	2.4	97.3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1.5	1.5	98.5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4.8	1.0	95.2
	5천억원~1조원미만	(153)	3.9	30.3	96.1
	1조원이상	(51)	6.1	1.0	93.9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5.6	4.4	94.4
	수출없음	(1,797)	0.7	1.6	99.3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0.8	1.5	99.2
	50~100명미만	(758)	2.0	1.6	98.0
	100~200명미만	(454)	1.1	3.6	98.9
	200~300명미만	(289)	7.6	1.7	92.4
	300~500명미만	(351)	3.3	1.7	96.7
	500~1,000명미만	(301)	2.9	2.0	97.1
	1,000명이상	(146)	5.4	16.1	94.6
업력	0~7년미만	(583)	4.7	11.0	95.3
	7~20년미만	(1,134)	1.7	2.1	98.3
	20~30년미만	(550)	1.7	1.4	98.3
	30~40년미만	(308)	5.4	1.5	94.6
	40~50년미만	(240)	2.4	2.3	97.6
	50년이상	(164)	2.7	1.5	97.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3.2	5.5	96.8
	진입4~5년차	(750)	0.6	1.0	99.4
	진입6~9년차	(220)	5.5	1.4	94.5
	진입10년차이상	(361)	2.6	2.0	97.4
매출유형	B2B	(2,261)	3.2	1.8	96.8
	B2C	(620)	1.0	29.3	99.0
	B2G	(98)	0.0	-	100.0
상장	상장	(644)	2.6	5.8	97.4
	비상장	(2,335)	2.5	1.9	97.5

□ 기술이전처

-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처로는 대학(54.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해외기업·기관(21.5%), 국공립 연구기관(16.1%), 민간 연구기관(8.2%)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대학(44.8%), 해외기업·기관(29.4%), 국공립 연구기관(14.6%), 민간 연구기관(11.2%) 순임

[그림 3-23] 기술이전처

(단위: %, 기술이전 경험 기업)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으로는 일반 중견기업은 대학(44.8%), 해외기업/기관(29.4%)순으로 나타났으며, 관계기업은 대학(79.7%), 국공립 연구기관(20.3%) 순임
- 제조업, 수출기업은 대학에서의 기술이전 경험이 많으며 비제조업, 내수기업은 민간 연구기관에서의 기술이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과 수출기업은 기술이전 경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학과의 기술이전 경험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매출규모가 작을수록 종사자수가 적을수록 업력이 낮을수록 대학보다는 민간 연구기관과의 경험이 많아 기술이전처와 기업과의 매출액, 종사자수 등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표 3-34] 기술이전처

(단위 : %, 기술이전 경험 기업 77개사)

구분		대학	해외기업·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전체		54.1	21.5	16.1	8.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4.8	29.4	14.6	11.2
	관계기업	79.7	0.0	20.3	0.0
업종	제조업	59.8	19.0	18.6	2.6
	비제조업	18.0	38.0	0.0	44.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39.9	19.6	40.6
	1백억원~5백억원미만	67.9	32.1	0.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61.7	14.4	24.0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82.8	17.2	0.0	0.0
	2천억원~3천억원미만	100.0	0.0	0.0	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33.4	16.7	33.4	16.6
	5천억원~1조원미만	16.7	33.3	33.3	16.7
	1조원이상	10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57.5	21.2	18.7	2.6
	수출없음	33.5	23.5	0.0	43.1
종사자수	50명미만	0.0	24.6	24.6	50.9
	50~100명미만	27.4	72.6	0.0	0.0
	100~200명미만	100.0	0.0	0.0	0.0
	200~300명미만	75.6	16.8	7.6	0.0
	300~500명미만	58.2	0.0	29.8	12.0
	500~1,000명미만	28.9	47.5	23.6	0.0
	1,000명이상	53.6	11.6	23.2	11.6
업력	0~7년미만	47.3	22.2	15.1	15.4
	7~20년미만	27.0	35.2	19.6	18.2
	20~30년미만	70.7	29.3	0.0	0.0
	30~40년미만	80.0	0.0	20.0	0.0
	40~50년미만	0.0	66.5	33.5	0.0
	50년이상	100.0	0.0	0.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4.0	26.8	9.8	9.4
	진입4~5년차	57.4	0.0	0.0	42.6
	진입6~9년차	38.7	11.2	50.1	0.0
	진입10년차이상	80.3	19.7	0.0	0.0
매출유형	B2B	59.9	19.7	16.0	4.4
	B2C	16.8	33.3	16.8	33.2
	B2G	-	-	-	-
상장	상장	58.8	11.9	21.5	7.9
	비상장	48.1	34.0	9.2	8.6

4절 인재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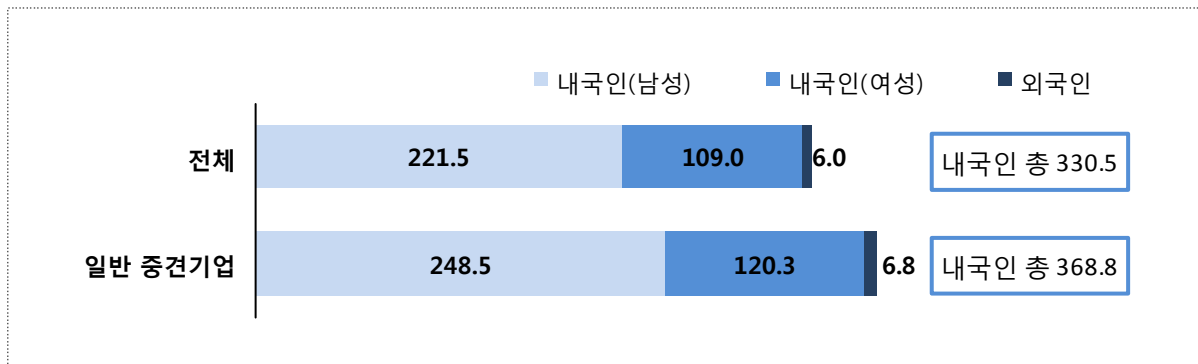
1. 인력현황

□ 전체 인력 현황

- 중견기업의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는 330.5명(남성 221.5명, 여성 109.0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정도 많으며, 외국인 근로자 수는 6.0명임
 -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는 368.8명(남성 248.5명, 여성 120.3명), 외국인 근로자 수는 6.8명임

[그림 3-24] 중견기업 인력 현황 : 평균

(단위: 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는 368.8명, 관계기업은 178.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각각 6.8명, 2.8명을 고용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 평균 338.4명, 비제조업 평균 324.1명이 종사함
 - 제조업 종사자 평균 338.4명 중 남성이 255.8명, 여성이 82.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324.1명 중 남성이 193.8명, 여성이 130.3명인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의 남녀 성비 차이가 비제조업에 비해 더 높음

[표 3-35] 중견기업 인력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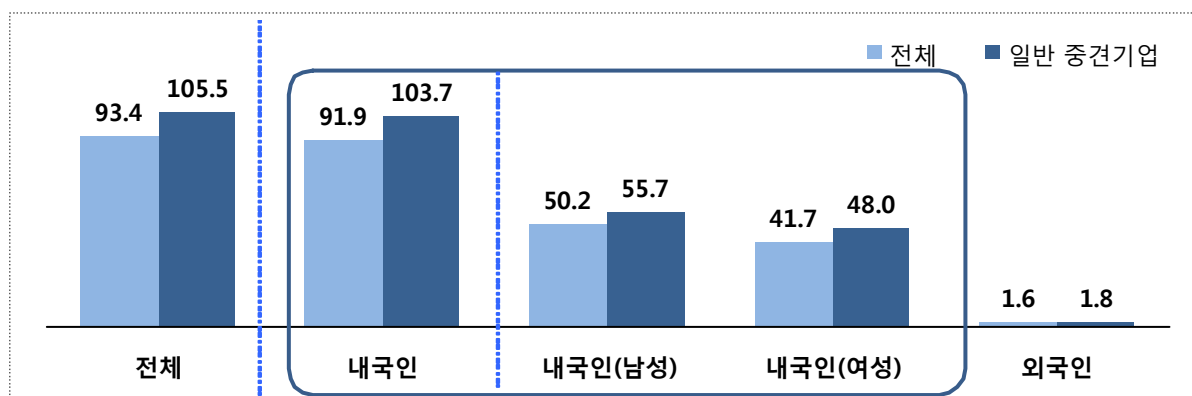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체 인력				평균 인력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2,979)	659,912	324,745	984,657	17,744	221.5	109.0	330.5	6.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591,204	286,099	877,303	16,080	248.5	120.3	368.8	6.8
	관계기업	(600)	68,709	38,646	107,355	1,664	114.5	64.4	178.9	2.8
업종	제조업	(1,331)	340,535	109,986	450,521	11,902	255.8	82.6	338.4	8.9
	비제조업	(1,648)	319,378	214,759	534,137	5,842	193.8	130.3	324.1	3.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7,651	3,283	10,934	183	19.5	8.4	27.9	0.5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90,708	65,110	155,818	2,824	102.8	73.8	176.6	3.2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66,499	41,140	107,639	1,886	191.6	118.6	310.2	5.4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123,302	56,347	179,649	2,449	213.7	97.7	311.4	4.2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107,803	58,398	166,201	3,052	326.7	177.0	503.7	9.2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106,024	35,364	141,388	6,736	431.0	143.8	574.8	27.4
	5천억원~1조원미만	(153)	87,145	40,640	127,785	369	569.6	265.6	835.2	2.4
수출여부	1조원이상	(51)	70,782	24,463	95,245	244	1387.9	479.7	1867.6	4.8
	수출있음	(1,182)	354,919	123,663	478,582	12,376	300.2	104.6	404.8	10.5
	수출없음	(1,797)	304,993	201,082	506,075	5,368	169.8	111.9	281.7	3.0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13,849	3,530	17,379	299	16.3	4.2	20.5	0.4
	50~100명미만	(758)	25,984	7,662	33,646	926	51.9	15.3	67.2	1.8
	100~200명미만	(454)	49,959	13,535	63,494	1,159	111.3	30.2	141.5	2.6
	200~300명미만	(289)	64,595	15,805	80,400	1,913	190.9	46.7	237.6	5.7
	300~500명미만	(351)	97,222	36,058	133,280	1,440	278.2	103.2	381.4	4.1
	500~1,000명미만	(301)	149,649	42,607	192,256	2,927	520.6	148.2	668.8	10.2
	1,000명이상	(146)	258,654	205,548	464,202	9,080	1252.2	995.1	2247.3	44.0
업력	0~7년미만	(583)	37,661	22,389	60,050	279	97.1	57.8	154.9	0.7
	7~20년미만	(1,134)	211,733	143,209	354,942	4,121	175.5	118.7	294.2	3.4
	20~30년미만	(550)	123,499	69,019	192,518	7,492	215.8	120.6	336.4	13.1
	30~40년미만	(308)	116,062	42,976	159,038	5,129	320.6	118.7	439.3	14.2
	40~50년미만	(240)	77,085	19,953	97,038	448	304.3	78.8	383.1	1.8
	50년이상	(164)	93,872	27,199	121,071	274	475.8	137.8	613.6	1.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199,986	90,649	290,635	5,958	125.6	56.9	182.5	3.7
	진입4~5년차	(750)	115,620	73,720	189,340	2,353	152.6	97.3	249.9	3.1
	진입6~9년차	(220)	86,006	57,013	143,019	5,107	370.1	245.4	615.5	22.0
	진입10년차이상	(361)	258,300	103,363	361,663	4,326	650.5	260.3	910.8	10.9
매출유형	B2B	(2,261)	494,814	230,114	724,928	15,598	218.8	101.8	320.6	6.9
	B2C	(620)	137,653	92,437	230,090	1,704	221.9	149.0	370.9	2.7
	B2G	(98)	27,445	2,194	29,639	442	281.2	22.5	303.7	4.5
상장	상장	(644)	276,642	96,544	373,186	9,805	403.0	140.6	543.6	14.3
	비상장	(2,335)	383,271	228,200	611,471	7,939	167.2	99.5	266.7	3.5

□ 채용실적

- 중견기업의 총 93.4명을 채용하였으며, 내국인 91.9명(남성 50.2명, 여성 41.7명), 외국인 1.6명을 채용한 것을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총 105.5명을 채용하였으며, 내국인 103.7명(남성 55.7명, 여성 48.0명), 외국인 1.8명을 채용한 것을 나타남

[그림 3-25] 채용실적 : 평균

(단위: 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내국인 평균 103.7명을 채용한 반면, 관계기업은 45.2명을 채용하여 일반 중견기업의 채용실적이 월등히 높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의 평균 채용인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4년에는 제조업 평균 58.7명, 비제조업은 118.8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의 채용이 비제조업의 채용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매출규모별로는 5천억원~1조원미만 규모의 기업에서 2014년 채용한 내국인은 평균 213.9명으로 다른 규모의 기업에 비해 많음

[표 3-36] 채용실적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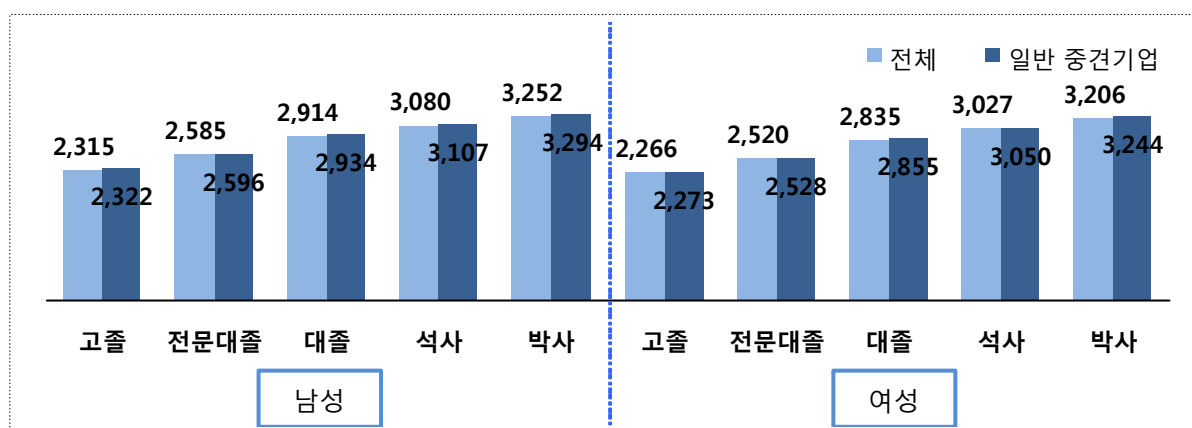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전체 인력				평균 인력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2,979)	148,361	123,092	271,453	4,603	50.2	41.7	91.9	1.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31,301	112,984	244,285	4,231	55.7	48.0	103.7	1.8
	관계기업	(600)	17,060	10,108	27,168	372	28.4	16.8	45.2	0.6
업종	제조업	(1,331)	47,860	29,794	77,654	1,543	36.2	22.5	58.7	1.2
	비제조업	(1,648)	100,501	93,298	193,799	3,060	61.6	57.2	118.8	1.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1,149	638	1,787	32	2.9	1.6	4.5	0.1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31,863	25,224	57,087	1,810	36.1	28.6	64.7	2.1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22,810	15,801	38,611	740	66.3	45.9	112.2	2.2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22,796	14,434	37,230	761	40.0	25.3	65.3	1.3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23,943	32,275	56,218	1,012	73.5	99.1	172.6	3.1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27,273	10,829	38,102	195	114.5	45.5	160.0	0.8
	5천억원~1조원미만	(153)	11,597	20,706	32,303	40	76.8	137.1	213.9	0.3
수출여부	1조원이상	(51)	6,928	3,184	10,112	12	135.8	62.4	198.2	0.2
	수출있음	(1,182)	54,421	54,088	108,509	1,442	46.4	46.1	92.5	1.2
	수출없음	(1,797)	93,940	69,004	162,944	3,161	52.7	38.7	91.4	1.8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2,207	680	2,887	58	2.6	0.8	3.4	0.1
	50~100명미만	(758)	3,962	1,615	5,577	154	7.9	3.2	11.1	0.3
	100~200명미만	(454)	8,177	3,111	11,288	258	18.3	7.0	25.3	0.6
	200~300명미만	(289)	9,925	3,368	13,293	549	29.5	10.0	39.5	1.6
	300~500명미만	(351)	16,109	9,469	25,578	425	46.7	27.4	74.1	1.2
	500~1,000명미만	(301)	23,442	12,465	35,907	2,290	82.7	44.0	126.7	8.1
	1,000명이상	(146)	84,538	92,386	176,924	869	428.5	468.2	896.7	4.4
업력	0~7년미만	(583)	16,614	12,928	29,542	58	42.9	33.3	76.2	0.2
	7~20년미만	(1,134)	59,479	62,799	122,278	1,406	49.6	52.4	102.0	1.2
	20~30년미만	(550)	27,873	21,163	49,036	452	48.7	37.0	85.7	0.8
	30~40년미만	(308)	28,137	19,131	47,268	2,472	79.6	54.1	133.7	7.0
	40~50년미만	(240)	7,402	3,211	10,613	156	29.6	12.8	42.4	0.6
	50년이상	(164)	8,855	3,859	12,714	59	45.8	20.0	65.8	0.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48,587	30,782	79,369	3,197	30.6	19.4	50.0	2.0
	진입4~5년차	(750)	23,555	21,365	44,920	456	31.4	28.5	59.9	0.6
	진입6~9년차	(220)	22,320	27,971	50,291	84	97.9	122.7	220.6	0.4
	진입10년차이상	(361)	53,898	42,974	96,872	866	137.8	109.9	247.7	2.2
매출유형	B2B	(2,261)	106,459	74,582	181,041	3,391	47.5	33.2	80.7	1.5
	B2C	(620)	38,223	47,983	86,206	770	62.2	78.1	140.3	1.3
	B2G	(98)	3,678	527	4,205	442	37.7	5.4	43.1	4.5
상장	상장	(644)	41,589	24,045	65,634	1,121	60.9	35.2	96.1	1.6
	비상장	(2,335)	106,772	99,047	205,819	3,482	47.0	43.6	90.6	1.5

□ 신입사원 초임

- 중견기업의 신입사원 초임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남
 - 남성 : 박사 3,252만원, 석사 3,080만원, 대졸 2,914만원, 전문대졸 2,585만원, 고졸 2,315만원
 - 여성 : 박사 3,206만원, 석사 3,027만원, 대졸 2,835만원, 전문대졸 2,520만원, 고졸 2,266만원

[그림 3-26] 신입사원 초임 : 평균

(단위: 만원)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비제조업(대졸신입 2,825만원)에 비해 제조업(대졸신입 3,022만원)의 초임이 197만원 더 높음
- 매출액 규모가 크고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평균적으로 신입사원의 초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비해 신입사원 초임이 높은 편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고졸 및 박사 학력 초임 차이가 많이 남
 - 상장기업의 고졸 남성 초임은 2,378만원, 박사 남성 초임은 3,603만원으로 1,225만원 차이가 나는 반면, 비상장기업의 고졸 남성 초임은 2,297만원, 박사 남성 초임은 3,146만원으로 849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임

[표 3-37] 남성 신입사원 초임 : 평균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전체		(2,979)	2,315	2,585	2,914	3,080	3,25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2,322	2,596	2,934	3,107	3,294
	관계기업	(600)	2,289	2,544	2,832	2,980	3,108
업종	제조업	(1,331)	2,386	2,658	3,022	3,212	3,442
	비제조업	(1,648)	2,254	2,525	2,825	2,965	3,08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2,161	2,441	2,715	2,902	3,033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2,278	2,523	2,809	2,955	3,062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2,267	2,515	2,829	2,988	3,158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2,355	2,613	2,935	3,110	3,313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2,400	2,712	3,093	3,269	3,522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2,411	2,666	3,048	3,250	3,514
	5천억원~1조원미만	(153)	2,489	2,833	3,326	3,514	3,813
	1조원이상	(51)	2,605	3,018	3,615	3,747	3,993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2,391	2,689	3,086	3,270	3,529
	수출없음	(1,797)	2,265	2,517	2,800	2,949	3,065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2,233	2,524	2,793	2,932	3,046
	50~100명미만	(758)	2,289	2,538	2,850	2,980	3,132
	100~200명미만	(454)	2,334	2,605	2,966	3,177	3,391
	200~300명미만	(289)	2,372	2,614	2,916	3,077	3,325
	300~500명미만	(351)	2,342	2,637	3,009	3,165	3,332
	500~1,000명미만	(301)	2,514	2,772	3,194	3,413	3,672
	1,000명이상	(146)	2,256	2,514	2,899	3,128	3,323
업력	0~7년미만	(583)	2,211	2,501	2,760	2,940	3,048
	7~20년미만	(1,134)	2,288	2,526	2,818	2,987	3,149
	20~30년미만	(550)	2,360	2,629	2,955	3,095	3,289
	30~40년미만	(308)	2,361	2,666	3,018	3,191	3,400
	40~50년미만	(240)	2,351	2,675	3,158	3,333	3,553
	50년이상	(164)	2,430	2,727	3,175	3,360	3,56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2,262	2,529	2,829	3,003	3,172
	진입4~5년차	(750)	2,339	2,578	2,931	3,073	3,212
	진입6~9년차	(220)	2,473	2,728	3,002	3,116	3,355
	진입10년차이상	(361)	2,405	2,747	3,173	3,416	3,656
매출유형	B2B	(2,261)	2,331	2,607	2,957	3,130	3,318
	B2C	(620)	2,256	2,506	2,764	2,893	3,011
	B2G	(98)	2,317	2,564	2,852	3,051	3,105
상장	상장	(644)	2,378	2,713	3,175	3,362	3,603
	비상장	(2,335)	2,297	2,547	2,836	2,994	3,146

[표 3-38] 여성 신입사원 초임 : 평균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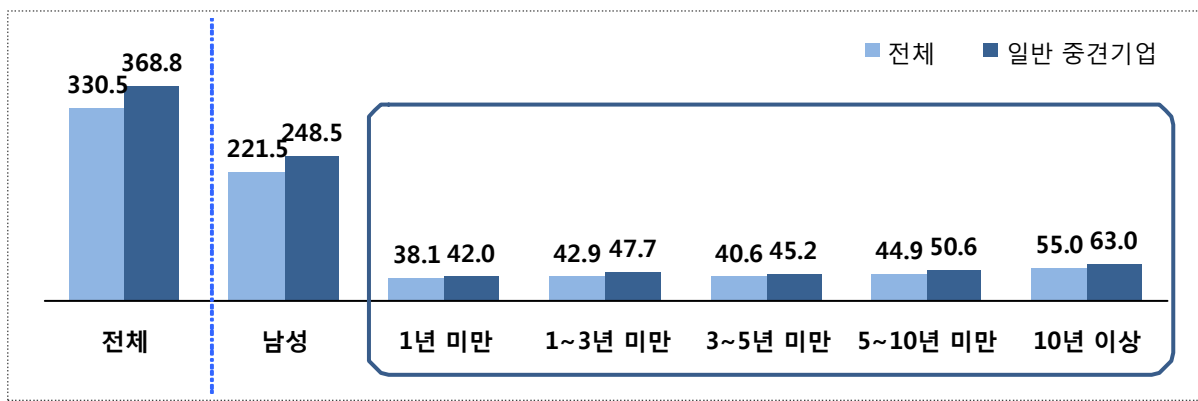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전체		(2,979)	2,266	2,520	2,835	3,027	3,20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2,273	2,528	2,855	3,050	3,244
	관계기업	(600)	2,241	2,488	2,756	2,944	3,079
업종	제조업	(1,331)	2,325	2,578	2,934	3,149	3,398
	비제조업	(1,648)	2,217	2,472	2,754	2,921	3,03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2,130	2,401	2,663	2,876	2,999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2,240	2,473	2,747	2,911	3,022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2,226	2,449	2,752	2,944	3,137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2,292	2,544	2,830	3,034	3,254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2,332	2,613	3,004	3,225	3,486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2,345	2,602	2,946	3,202	3,460
	5천억원~1조원미만	(153)	2,459	2,758	3,279	3,422	3,733
	1조원이상	(51)	2,460	2,782	3,408	3,667	4,033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2,338	2,624	3,014	3,221	3,489
	수출없음	(1,797)	2,219	2,451	2,717	2,894	3,018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2,188	2,468	2,725	2,904	3,017
	50~100명미만	(758)	2,234	2,469	2,768	2,912	3,071
	100~200명미만	(454)	2,295	2,539	2,882	3,130	3,358
	200~300명미만	(289)	2,315	2,546	2,841	3,028	3,296
	300~500명미만	(351)	2,322	2,590	2,939	3,115	3,293
	500~1,000명미만	(301)	2,419	2,690	3,096	3,310	3,570
	1,000명이상	(146)	2,219	2,417	2,804	3,069	3,276
업력	0~7년미만	(583)	2,163	2,457	2,690	2,907	3,015
	7~20년미만	(1,134)	2,253	2,483	2,765	2,943	3,117
	20~30년미만	(550)	2,304	2,532	2,845	3,031	3,223
	30~40년미만	(308)	2,294	2,572	2,905	3,125	3,353
	40~50년미만	(240)	2,305	2,617	3,091	3,266	3,499
	50년이상	(164)	2,343	2,618	3,067	3,294	3,497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2,221	2,471	2,752	2,957	3,134
	진입4~5년차	(750)	2,292	2,511	2,853	3,010	3,157
	진입6~9년차	(220)	2,413	2,660	2,919	3,059	3,309
	진입10년차이상	(361)	2,322	2,658	3,090	3,359	3,606
매출유형	B2B	(2,261)	2,277	2,538	2,871	3,071	3,270
	B2C	(620)	2,233	2,460	2,715	2,863	2,977
	B2G	(98)	2,220	2,475	2,755	2,980	3,047
상장	상장	(644)	2,309	2,617	3,067	3,296	3,553
	비상장	(2,335)	2,254	2,491	2,766	2,946	3,104

□ 재직연수별 현황

- 중견기업 남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0년 이상 55.0명, 5~10년 미만 44.9명, 1~3년 미만 42.9명, 1년 미만 38.1명, 3~5년 미만 33.9명 순임
- 일반 중견기업 남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0년 이상 63.0명, 5~10년 미만 50.6명, 1~3년 미만 47.7명, 3~5년 미만 45.2명, 1년 미만 42.0명 순임

[그림 3-27] 남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단위: 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 남성직원의 근속연수는 10년 이상이 63.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기업 남성직원의 근속연수는 1년~3년 미만이 23.8명으로 가장 높아 관계기업보다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근속연수가 긴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근속연수는 10년 이상이 81.9명, 비제조업은 1년 미만 46.9명인 것으로 가장 높게 조사됨
- 매출 규모가 클수록 전체 상시 남성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대체로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이 길고 중견기업에 진입한지 오래된 기업일수록 남성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길게 나타남
- B2B 기업 남성근무자의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 38.4명으로 비중이 높고, B2G 기업 남성근무자의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 89.2명으로 비중이 높아 B2G 기업 남성근무자의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

[표 3-39] 남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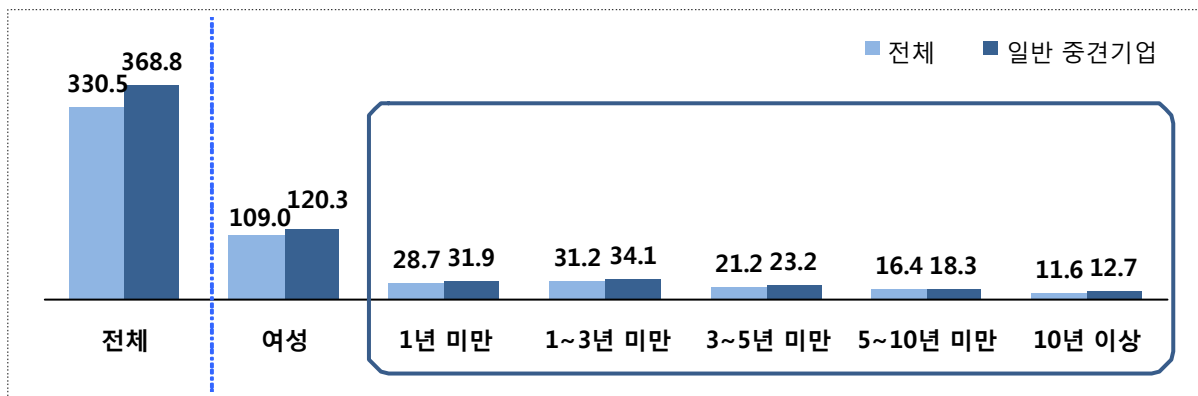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전체	남성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전체		(2,979)	330.5	221.5	38.1	42.9	40.6	44.9	55.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368.8	248.5	42.0	47.7	45.2	50.6	63.0
	관계기업	(600)	178.9	114.5	22.3	23.8	22.4	22.4	23.6
업종	제조업	(1,331)	338.5	255.8	27.1	43.5	46.9	56.4	81.9
	비제조업	(1,648)	324.1	193.8	46.9	42.4	35.5	35.7	33.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27.8	19.5	2.7	5.5	4.4	4.1	2.7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176.7	102.8	24.2	20.5	18.5	18.8	20.8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310.2	191.6	48.1	44.8	35.6	31.7	31.5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311.3	213.7	34.2	44.8	37.6	41.8	55.3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503.6	326.7	51.0	72.2	74.3	63.9	65.2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574.7	431.0	97.0	82.5	71.9	87.2	92.3
	5천억원~1조원미만	(153)	835.2	569.6	62.5	93.6	96.1	120.5	196.9
	1조원이상	(51)	1867.5	1387.9	84.8	150.4	232.7	382.8	537.3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404.8	300.2	34.1	50.9	54.7	66.1	94.4
	수출없음	(1,797)	281.7	169.8	40.7	37.7	31.3	31.0	29.1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20.5	16.3	2.2	3.9	3.7	3.7	2.8
	50~100명미만	(758)	67.2	51.9	6.3	9.3	10.0	13.1	13.2
	100~200명미만	(454)	141.5	111.3	13.5	21.4	18.7	22.6	35.2
	200~300명미만	(289)	237.7	190.9	23.9	34.5	36.8	42.0	53.7
	300~500명미만	(351)	381.4	278.2	33.2	55.8	52.4	57.5	79.4
	500~1,000명미만	(301)	668.8	520.6	67.1	96.0	97.0	104.4	156.1
	1,000명이상	(146)	2247.4	1252.2	306.9	249.5	221.3	240.5	234.2
업력	0~7년미만	(583)	154.9	97.1	23.2	25.4	20.2	13.9	14.5
	7~20년미만	(1,134)	294.2	175.5	40.7	37.8	30.0	30.1	37.0
	20~30년미만	(550)	336.3	215.8	30.3	41.1	44.6	55.0	44.7
	30~40년미만	(308)	439.3	320.6	57.1	64.1	60.6	59.1	79.7
	40~50년미만	(240)	383.1	304.3	34.8	42.0	42.9	60.5	124.1
	50년이상	(164)	613.6	475.8	43.0	76.1	93.9	121.4	141.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182.6	125.6	19.8	27.5	25.4	25.7	27.3
	진입4~5년차	(750)	250.0	152.6	25.9	31.5	29.6	30.0	35.6
	진입6~9년차	(220)	615.5	370.1	82.4	77.6	62.2	69.3	78.7
	진입10년차이상	(361)	910.8	650.5	108.5	106.1	109.8	136.3	189.8
매출유형	B2B	(2,261)	320.6	218.8	38.4	42.5	40.2	43.7	54.1
	B2C	(620)	370.9	221.9	38.0	43.9	40.4	46.4	53.0
	B2G	(98)	303.7	281.2	31.8	46.4	50.2	63.7	89.2
상장	상장	(644)	543.6	403.0	44.8	66.8	73.1	96.9	121.3
	비상장	(2,335)	266.7	167.2	36.0	35.7	30.8	29.4	35.2

- 중견기업 여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3년 미만 31.2명, 1년 미만 28.7명, 3~5년 미만 21.2명, 5~10년 미만 16.4명, 10년 이상 11.6명 순임
- 일반 중견기업 여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3년 미만 34.1명, 1년 미만 31.9명, 3~5년 미만 23.2명, 5~10년 미만 18.3명, 10년 이상 12.7명 순임

[그림 3-28] 여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단위: 명)



특성별 분석

- 제조업 여성직원의 근속연수는 1년~3년 미만이 20.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제조업 여성직원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 40.0명으로 가장 높아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의 평균 근속연수가 긴 것으로 나타남
- 남성직원과 같이 매출 규모가 클수록, 업력이 길수록, 중견기업에 진입한지 오래된 기업일수록 전체 상시 여성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대체로 긴 것으로 나타난 반면, 종사자수가 많은 기업은 평균 근속연수가 대체로 짧아 이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상장기업의 여성직원 근속연수는 모두 비슷한 분포를 띄고 있는 반면, 비상장기업은 평균 근속연수가 대체적으로 짧은 것으로 조사됨

[표 3-40] 여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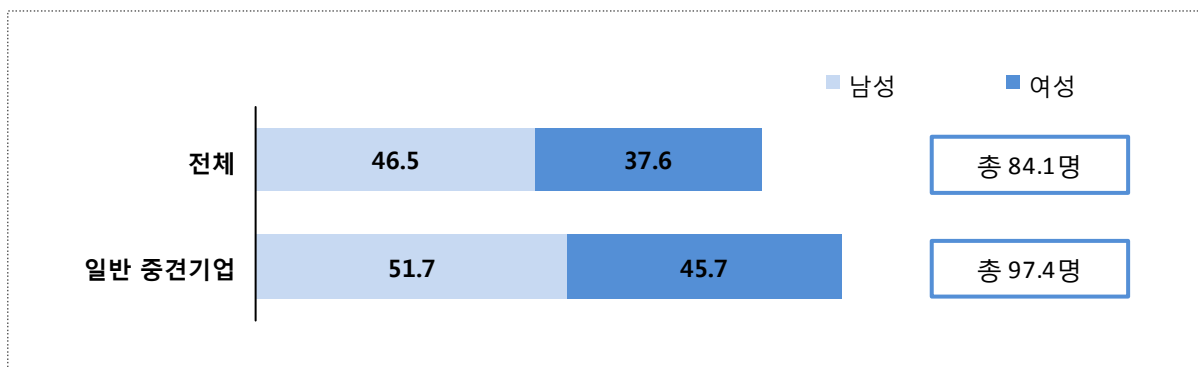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체	여성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전체		(2,979)	330.5	109.0	28.7	31.2	21.2	16.4	11.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368.8	120.3	31.9	34.1	23.2	18.3	12.7
	관계기업	(600)	178.9	64.4	16.3	19.5	12.9	8.5	7.2
업종	제조업	(1,331)	338.5	82.6	14.8	20.6	16.0	15.8	15.4
	비제조업	(1,648)	324.1	130.3	40.0	39.7	25.3	16.8	8.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27.8	8.4	1.5	2.4	2.2	1.5	0.7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176.7	73.8	22.1	21.4	13.9	10.6	5.8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310.2	118.6	36.7	37.8	23.2	12.0	8.9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311.3	97.7	25.9	29.2	17.5	14.4	10.7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503.6	177.0	51.0	48.6	45.2	21.3	10.8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574.7	143.8	36.2	42.1	27.0	22.9	15.6
	5천억원~1조원미만	(153)	835.2	265.6	64.9	80.2	34.6	50.0	35.9
	1조원이상	(51)	1867.5	479.7	43.8	84.6	95.1	118.1	138.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404.8	104.6	21.4	25.9	19.4	19.6	18.3
	수출없음	(1,797)	281.7	111.9	33.6	34.6	22.3	14.2	7.2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20.5	4.2	0.7	1.3	1.0	0.8	0.4
	50~100명미만	(758)	67.2	15.3	2.5	4.3	3.6	3.1	1.8
	100~200명미만	(454)	141.5	30.2	5.6	9.6	6.1	4.7	4.2
	200~300명미만	(289)	237.7	46.7	8.2	11.4	10.5	9.2	7.4
	300~500명미만	(351)	381.4	103.2	22.1	28.7	21.3	18.1	12.9
	500~1,000명미만	(301)	668.8	148.2	33.3	42.4	32.0	23.3	17.3
	1,000명이상	(146)	2247.4	995.1	296.4	286.4	181.6	136.9	93.9
업력	0~7년미만	(583)	154.9	57.8	18.4	16.7	12.3	7.3	3.1
	7~20년미만	(1,134)	294.2	118.7	34.3	35.1	23.3	16.7	9.3
	20~30년미만	(550)	336.3	120.6	30.0	34.8	20.4	21.4	14.0
	30~40년미만	(308)	439.3	118.7	34.1	34.3	25.4	15.0	9.9
	40~50년미만	(240)	383.1	78.8	16.7	19.0	14.6	13.1	15.4
	50년이상	(164)	613.6	137.8	17.0	34.7	28.6	24.3	33.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182.6	56.9	13.5	16.0	11.5	10.6	5.4
	진입4~5년차	(750)	250.0	97.3	24.0	27.5	22.7	13.9	9.2
	진입6~9년차	(220)	615.5	245.4	71.2	70.2	38.1	32.0	34.0
	진입10년차이상	(361)	910.8	260.3	74.1	76.1	47.1	35.1	27.8
매출유형	B2B	(2,261)	320.6	101.8	26.3	29.4	21.5	13.9	10.6
	B2C	(620)	370.9	149.0	41.3	41.4	22.8	27.0	16.5
	B2G	(98)	303.7	22.5	5.2	5.7	4.1	4.8	2.7
상장	상장	(644)	543.6	140.6	25.9	31.5	27.8	29.9	25.5
	비상장	(2,335)	266.7	99.5	29.6	31.1	19.2	12.3	7.4

□ 이직자 현황

- 중견기업의 이직자는 평균 84.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46.5명, 여성 37.6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대비 이직자 비율은 27.6%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이직자는 평균 97.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51.7명, 여성 45.7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대비 이직자 비율은 27.8%로 나타남

[그림 3-29] 이직자 현황 : 평균

(단위: 명, 이직자가 있는 기업)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은 평균 97.4명, 관계기업은 평균 32.9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이직자가 관계기업에 비해 약 3배 많으나 이직률은 유사하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 평균 이직률 17.2%, 비제조업은 평균 이직률 36.3%로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약 2.1배 이직률이 높은 편임
- 업력 0~7년 미만 기업의 평균 이직률이 49.2%로 다른 업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업력이 오래될수록 이직률이 낮은 편임
- 수출기업(22.7%)이 내수기업(32.2%)보다, 상장기업(17.6%)이 비상장기업(33.7%)보다 이직률이 낮게 나타남

[표 3-41] 이직자 현황

(단위 : 명, 이직자가 있는 기업)

구분		사례수	전체 인력			평균 인력			이직률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2,979)	134,777	109,126	243,903	46.5	37.6	84.1	22.5	37.9	27.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19,061	105,084	224,145	51.7	45.7	97.4	22.2	39.5	27.8
	관계기업	(600)	15,716	4,043	19,759	26.2	6.7	32.9	24.8	26.2	25.3
업종	제조업	(1,331)	39,400	22,708	62,108	30.5	17.6	48.1	14.1	27.1	17.2
	비제조업	(1,648)	95,377	86,418	181,795	59.2	53.7	112.9	31.5	43.4	36.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1,007	523	1,530	2.6	1.3	3.9	15.0	19.4	16.3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27,135	16,752	43,887	31.1	19.2	50.3	35.1	38.7	36.6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21,721	12,696	34,417	63.1	36.9	100.0	34.3	38.4	35.9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24,511	24,453	48,964	43.8	43.7	87.5	18.5	25.6	20.7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20,231	28,109	48,340	63.1	87.7	150.8	22.2	55.3	33.8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25,250	7,683	32,933	114.6	34.9	149.5	25.7	30.6	26.9
	5천억원~1조원미만	(153)	9,000	17,054	26,054	62.3	118	180.3	13.3	50.9	25.3
	1조원이상	(51)	5,922	1,857	7,779	124.4	39	163.4	9.8	13.0	10.6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45,890	47,243	93,133	40.2	41.4	81.6	15.3	43.7	22.7
	수출없음	(1,797)	88,887	61,884	150,771	50.5	35.2	85.7	30.8	34.3	32.2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1,487	540	2,027	1.8	0.6	2.4	15.9	19.3	16.6
	50~100명미만	(758)	3,728	1,314	5,042	7.5	2.6	10.1	15.2	21.1	16.6
	100~200명미만	(454)	7,119	2,778	9,897	16.4	6.4	22.8	16.4	23.0	17.8
	200~300명미만	(289)	8,797	2,415	11,212	27.8	7.6	35.4	15.4	21.3	16.5
	300~500명미만	(351)	15,944	8,701	24,645	47.1	25.7	72.8	16.6	26.3	19.2
	500~1,000명미만	(301)	17,550	9,706	27,256	64.1	35.5	99.6	15.7	29.3	18.7
	1,000명이상	(146)	80,150	83,673	163,823	408.6	426.6	835.2	32.7	44.9	38.1
업력	0~7년미만	(583)	13,033	10,245	23,278	33.8	26.5	60.3	44.1	57.7	49.2
	7~20년미만	(1,134)	59,569	63,916	123,485	50.5	54.2	104.7	28.1	43.9	34.5
	20~30년미만	(550)	22,008	12,080	34,088	39.3	21.6	60.9	22.6	30.7	25.5
	30~40년미만	(308)	26,007	16,807	42,814	75.4	48.7	124.1	24.2	44.5	29.7
	40~50년미만	(240)	5,854	2,682	8,536	23.6	10.8	34.4	9.6	16.1	10.9
	50년이상	(164)	8,306	3,396	11,702	45.4	18.6	64.0	9.4	14.2	10.5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40,181	24,479	64,660	25.7	15.7	41.4	24.3	34.0	27.3
	진입4~5년차	(750)	19,546	16,265	35,811	26.6	22.1	48.7	20.4	29.0	23.7
	진입6~9년차	(220)	25,239	34,903	60,142	109.6	151.6	261.2	26.0	49.1	35.2
	진입10년차이상	(361)	49,811	33,479	83,290	133.7	89.9	223.6	20.9	41.6	26.8
매출유형	B2B	(2,261)	99,634	72,329	171,963	45.1	32.8	77.9	21.5	32.4	25.0
	B2C	(620)	31,256	36,194	67,450	52.5	60.8	113.3	27.8	51.9	37.5
	B2G	(98)	3,887	604	4,491	39.8	6.2	46.0	13.4	24.0	14.2
상장	상장	(644)	35,087	18,567	53,654	54.1	28.6	82.7	15.0	24.9	17.6
	비상장	(2,335)	99,690	90,559	190,249	44.3	40.2	84.5	27.9	43.4	33.7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업종은 인력순환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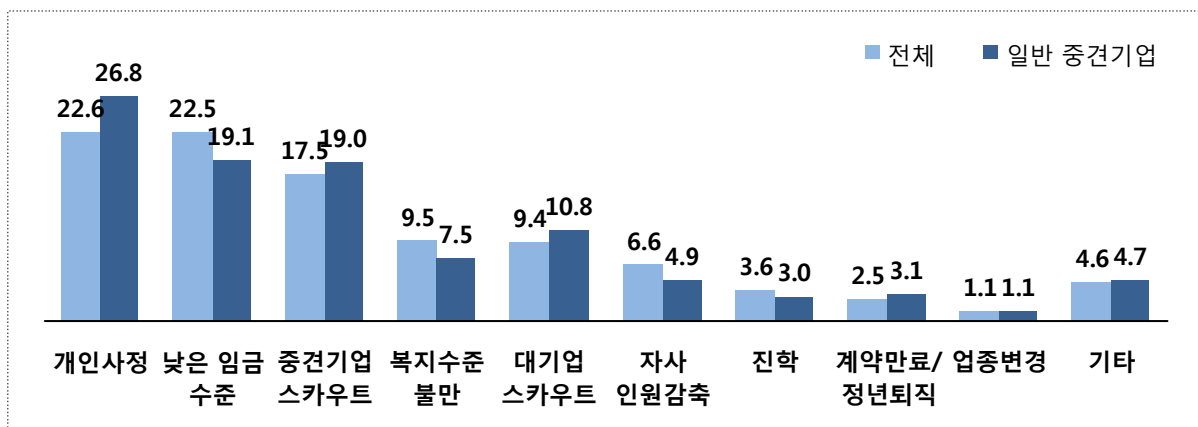
※ 해당 기업 포함하여 산출하였음

□ 주요 이직원인

- 중견기업 이직자들의 주요 이직원인은 개인사정(22.6%), 낮은 임금수준(22.5%), 중견기업 스카우트(17.5%), 복지수준 불만(9.5%) 순임
- 일반 중견기업 이직자들의 주요 이직원인은 개인사정(26.8%), 낮은 임금수준(19.1%), 중견기업 스카우트(19.0%), 대기업 스카우트(10.8%), 복지수준 불만(7.5%) 순임

[그림 3-30] 주요 이직원인 : 1순위

(단위: %, 이직자가 있는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개인 사정’ (26.8%)을 가장 높은 원인으로 응답한 반면, 관계 기업은 ‘낮은 임금 수준’ (38.5%)을 가장 높은 원인으로 응답함
-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이 가장 많으며 ‘낮은 임금 수준’, ‘중견기업으로부터의 스카우트’ 순으로 나타남
- 매출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3천억원~5천억원 미만제외)
 - 매출액 규모가 2천억원~3천억원 규모 기업에서는 다른 규모의 기업에 비해 ‘중견기업 스카우트’ (20.2%)에 의한 이직이 상대적으로 많음
 - 매출액 규모가 1조원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대기업 스카우트’ (37.0%)에 의한 이직이 많은 것으로 보아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대기업으로의 스카우트가 많은 것으로 예상됨

[표 3-42] 주요 이직원인 : 1순위

(단위 : %, 이직자가 있는 기업)

구분		개인사정	낮은 임금 수준	중견기업 스카우트	복지수준 불만	대기업 스카우트
전체		22.6	22.5	17.5	9.5	9.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6.8	19.1	19.0	7.5	10.8
	관계기업	3.1	38.5	10.1	18.8	2.9
업종	제조업	21.7	22.3	17.6	11.7	10.2
	비제조업	23.6	22.7	17.3	7.5	8.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3.9	25.3	17.3	6.4	2.8
	1백억원~5백억원미만	23.2	28.8	14.5	11.6	4.4
	5백억원~1천억원미만	18.0	26.2	16.4	12.6	5.2
	1천억원~2천억원미만	22.4	17.8	19.9	9.1	10.5
	2천억원~3천억원미만	26.5	18.6	20.2	11.3	11.0
	3천억원~5천억원미만	20.2	24.2	17.7	4.8	16.9
	5천억원~1조원미만	21.8	9.4	22.9	5.3	21.6
	1조원이상	30.9	6.1	6.7	0.0	37.0
수출여부	수출있음	21.6	18.9	18.4	10.7	13.3
	수출없음	23.5	25.4	16.7	8.5	6.3
종사자수	50명미만	30.7	18.0	16.3	8.4	2.3
	50~100명미만	21.2	30.9	19.1	10.4	5.6
	100~200명미만	22.9	24.2	16.6	10.5	11.3
	200~300명미만	22.2	25.9	20.9	12.6	7.0
	300~500명미만	25.0	16.0	17.8	7.5	12.8
	500~1,000명미만	18.2	11.9	17.7	11.5	16.9
	1,000명이상	10.2	31.1	12.0	3.3	17.3
업력	0~7년미만	30.8	25.2	13.7	13.6	4.8
	7~20년미만	23.2	24.9	16.6	10.5	7.2
	20~30년미만	21.3	21.7	20.2	10.1	10.0
	30~40년미만	17.6	20.3	18.7	5.3	15.2
	40~50년미만	24.4	19.0	13.9	7.7	15.8
	50년이상	20.4	16.6	21.8	7.4	6.8
성장단계	진입1~3년차	24.8	23.9	18.6	7.9	8.8
	진입4~5년차	21.2	24.7	15.5	14.4	4.9
	진입6~9년차	17.4	17.6	20.7	12.7	10.3
	진입10년차이상	20.8	17.1	15.0	5.3	18.2
매출유형	B2B	23.4	21.1	16.4	10.6	9.8
	B2C	21.9	23.6	21.2	7.4	7.6
	B2G	12.0	43.9	17.5	0.0	12.2
상장	상장	20.9	19.0	17.1	5.5	13.3
	비상장	23.3	23.8	17.6	10.9	8.1

[표 3-43] 주요 이직원인 : 1순위(계속)

(단위 : %, 이직자가 있는 기업)

구분		자사 인원감축	진학	계약만료/ 정년퇴직	업종변경	기타
전체		6.6	3.6	2.5	1.1	4.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9	3.0	3.1	1.1	4.7
	관계기업	14.8	6.5	0.0	1.3	3.9
업종	제조업	5.6	3.7	1.5	0.6	5.1
	비제조업	7.6	3.4	3.5	1.6	4.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2.9	2.8	0.9	4.0	3.7
	1백억원~5백억원미만	8.5	2.0	3.2	0.6	3.2
	5백억원~1천억원미만	8.1	7.1	2.9	0.9	2.6
	1천억원~2천억원미만	5.9	2.5	3.1	2.1	6.8
	2천억원~3천억원미만	3.0	4.4	0.7	0.8	3.6
	3천억원~5천억원미만	3.2	4.8	3.2	0.0	4.8
	5천억원~1조원미만	5.4	4.1	2.7	0.0	6.7
	1조원이상	0.0	6.1	0.0	0.0	13.3
수출여부	수출있음	5.5	3.4	1.6	1.1	5.6
	수출없음	7.6	3.7	3.3	1.2	3.8
종사자수	50명미만	13.8	3.3	3.4	2.1	1.8
	50~100명미만	5.6	1.4	1.5	0.5	3.7
	100~200명미만	4.0	3.3	2.2	0.6	4.4
	200~300명미만	3.9	2.1	0.6	0.8	4.1
	300~500명미만	8.8	2.8	3.9	2.6	2.9
	500~1,000명미만	4.9	4.7	4.0	0.0	10.0
	1,000명이상	2.0	11.5	2.4	1.1	9.0
업력	0~7년미만	3.8	0.7	3.0	0.0	4.3
	7~20년미만	6.6	4.0	1.8	1.5	3.8
	20~30년미만	5.8	3.9	2.9	0.4	3.6
	30~40년미만	5.8	4.9	0.0	2.4	9.7
	40~50년미만	6.3	1.9	8.4	0.0	2.7
	50년이상	14.5	3.8	2.2	1.5	5.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7.2	1.4	2.7	1.2	3.4
	진입4~5년차	3.4	7.1	1.8	1.7	5.4
	진입6~9년차	6.5	3.5	4.2	1.0	5.9
	진입10년차이상	9.8	5.4	2.3	0.0	6.2
매출유형	B2B	6.2	4.0	2.9	1.0	4.4
	B2C	8.2	2.5	0.8	1.6	5.2
	B2G	5.6	0.0	5.1	0.0	3.8
상장	상장	8.3	5.2	2.7	1.1	7.0
	비상장	6.0	3.0	2.5	1.1	3.7

[표 3-44] 주요 이직원인 : 1+2순위

(단위 : %, 이직자가 있는 기업, 중복응답)

구분		낮은 임금 수준	개인사정	중견기업 스카우트	복지수준 불만	대기업 스카우트
전체		29.6	25.8	24.4	19.5	11.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7.2	30.4	26.2	16.0	12.8
	관계기업	40.9	4.2	15.5	36.0	7.3
업종	제조업	29.6	23.7	25.7	25.4	12.1
	비제조업	29.6	27.8	23.1	14.0	11.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0.2	24.8	20.0	8.3	3.7
	1백억원~5백억원미만	33.9	25.0	17.0	23.7	6.4
	5백억원~1천억원미만	30.7	24.5	28.1	23.7	7.8
	1천억원~2천억원미만	26.0	25.7	25.7	18.4	12.3
	2천억원~3천억원미만	31.9	30.0	25.4	22.7	14.7
	3천억원~5천억원미만	29.0	25.8	31.4	14.5	23.4
	5천억원~1조원미만	22.9	23.2	39.1	14.7	21.6
	1조원이상	6.1	30.9	24.8	6.1	37.0
수출여부	수출있음	26.7	24.5	28.4	22.0	15.8
	수출없음	32.0	26.9	21.1	17.5	8.7
종사자수	50명미만	23.5	32.8	20.2	13.7	5.5
	50~100명미만	35.2	27.4	23.0	23.9	6.0
	100~200명미만	32.7	26.1	24.8	23.9	11.8
	200~300명미만	31.7	24.3	27.3	22.1	11.2
	300~500명미만	24.3	29.6	25.9	13.4	16.6
	500~1,000명미만	22.4	19.1	26.6	20.9	21.4
	1,000명이상	40.1	12.2	24.6	17.8	18.3
업력	0~7년미만	35.5	32.8	17.7	17.6	4.8
	7~20년미만	31.7	27.3	22.3	18.8	8.0
	20~30년미만	31.0	23.1	28.4	25.4	12.3
	30~40년미만	25.2	22.4	27.4	13.5	19.4
	40~50년미만	25.7	25.2	25.6	22.4	19.2
	50년이상	20.2	23.7	25.5	16.9	17.1
성장단계	진입1~3년차	30.7	28.4	23.3	17.8	10.2
	진입4~5년차	30.7	24.6	23.0	25.6	6.0
	진입6~9년차	26.1	19.4	28.2	15.0	14.1
	진입10년차이상	26.2	22.9	27.9	18.3	25.4
매출유형	B2B	27.6	26.1	22.9	20.2	12.4
	B2C	32.4	26.8	28.5	20.1	9.6
	B2G	54.6	14.9	29.9	1.9	14.6
상장	상장	27.9	23.2	28.3	18.3	19.3
	비상장	30.2	26.8	22.9	19.9	9.2

[표 3-45] 주요 이직원인 : 1+2순위(계속)

(단위 : %, 이직자가 있는 기업,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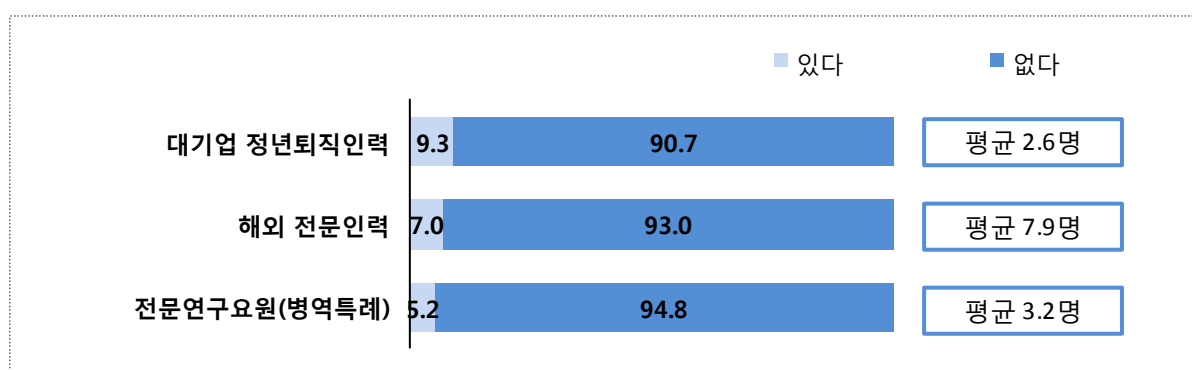
구분		자사 인원감축	진학	계약만료/ 정년퇴직	업종변경	기타
전체		10.2	6.9	2.9	1.5	5.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6	7.0	3.6	1.5	5.9
	관계기업	22.6	6.5	0.0	1.3	6.1
업종	제조업	7.9	7.8	2.0	1.2	6.7
	비제조업	12.4	6.0	3.8	1.8	5.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2.9	3.7	0.9	4.0	5.6
	1백억원~5백억원미만	14.4	3.9	3.8	0.6	4.5
	5백억원~1천억원미만	11.6	8.0	2.9	1.9	2.6
	1천억원~2천억원미만	10.4	5.7	4.0	2.1	8.6
	2천억원~3천억원미만	5.2	8.1	0.7	1.4	4.3
	3천억원~5천억원미만	3.2	11.3	3.2	0.8	8.1
	5천억원~1조원미만	6.8	13.5	2.7	1.3	8.1
	1조원이상	6.7	18.2	0.0	0.0	13.3
수출여부	수출있음	8.8	7.3	2.0	1.4	7.6
	수출없음	11.4	6.5	3.7	1.5	4.6
종사자수	50명미만	13.8	3.6	3.4	2.1	3.0
	50~100명미만	7.9	5.1	2.5	0.5	6.8
	100~200명미만	7.3	6.4	2.2	0.6	4.9
	200~300명미만	13.2	5.9	2.1	0.8	4.8
	300~500명미만	11.5	6.0	3.9	3.8	4.1
	500~1,000명미만	9.8	10.5	4.0	1.7	12.3
	1,000명이상	7.5	16.8	2.4	1.1	9.0
업력	0~7년미만	5.8	0.7	3.0	0.9	5.2
	7~20년미만	11.6	6.5	2.3	1.8	5.9
	20~30년미만	8.6	6.9	2.9	0.4	4.6
	30~40년미만	11.4	10.8	0.0	2.4	10.3
	40~50년미만	7.4	6.8	10.3	0.8	4.6
	50년이상	14.5	9.4	2.2	2.6	5.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0.3	4.0	3.1	1.6	4.4
	진입4~5년차	5.7	7.8	1.8	1.7	7.3
	진입6~9년차	15.4	15.8	6.3	1.0	8.4
	진입10년차이상	14.4	10.0	2.3	1.0	7.4
매출유형	B2B	8.6	7.6	3.5	1.5	6.2
	B2C	13.9	5.4	0.8	1.6	5.5
	B2G	21.9	0.0	5.1	0.0	3.8
상장	상장	10.8	8.9	2.7	1.7	7.4
	비상장	10.0	6.2	3.0	1.4	5.4

□ 유형별 보유인력

- 중견기업의 9.3%는 대기업 정년퇴직인력을, 7.0%는 해외 전문인력을, 5.2%는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년퇴직인력 평균 2.6명, 해외 전문인력 평균 7.9명,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평균 3.2명을 보유함

[그림 3-31] 유형별 보유인력

(단위: %, 명)



특성별 분석

- B2G기업의 24.7%는 ‘대기업 정년퇴직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1.6명을 채용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11.5%, 비제조업의 3.3%가 ‘해외 전문인력’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평균 8.9명, 5.2명을 채용, ‘병역 특례 등의 전문연구요원’은 제조업 9.9%(3.0명), 비제조업 1.5%(4.0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단계가 높을수록 ‘해외 전문인력’,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내수기업의 0.9%만이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출기업은 11.9%가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한 적이 있음
- 업력별로는 20년~30년 미만 기업에서 ‘해외 전문인력’ 채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10년 이상 기업의 채용 비율이 그 이하 기업에 비해 높음

[표 3-46] 유형별 보유인력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대기업 정년퇴직인력			해외 전문인력			전문연구요원		
			보유	평균	미보유	보유	평균	미보유	보유	평균	미보유
전체		(2,979)	9.3	2.6	90.7	7.0	7.9	93.0	5.2	3.2	94.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9.4	2.8	90.6	7.5	8.9	92.5	5.4	3.2	94.6
	관계기업	(600)	8.7	1.5	91.3	4.7	1.7	95.3	4.7	3.2	95.3
업종	제조업	(1,331)	10.5	3.3	89.5	11.5	8.9	88.5	9.9	3.0	90.1
	비제조업	(1,648)	8.3	1.8	91.7	3.3	5.2	96.7	1.5	4.0	98.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1.3	1.0	98.7	1.3	1.0	98.7	0.9	1.5	99.1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9.6	1.4	90.4	2.1	1.5	97.9	2.0	4.6	98.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6.4	1.1	93.6	8.6	3.6	91.4	11.1	2.6	88.9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10.1	2.7	89.9	9.1	6.3	90.9	8.0	3.2	92.0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14.3	3.6	85.7	10.8	18.0	89.2	5.0	1.9	95.0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16.8	3.9	83.2	16.0	6.3	84.0	4.8	3.5	95.2
	5천억원~1조원미만	(153)	9.2	3.8	90.8	13.3	11.3	86.7	10.5	4.8	89.5
	1조원이상	(51)	6.1	4.0	93.9	12.7	9.3	87.3	12.1	2.5	87.9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11.0	3.2	89.0	14.9	9.0	85.1	11.9	2.9	88.1
	수출없음	(1,797)	8.1	1.9	91.9	1.8	2.1	98.2	0.9	6.1	99.1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5.8	1.7	94.2	1.9	2.8	98.1	0.5	1.0	99.5
	50~100명미만	(758)	10.4	1.7	89.6	5.5	2.8	94.5	2.7	5.7	97.3
	100~200명미만	(454)	9.1	2.1	90.9	4.4	5.9	95.6	6.8	3.1	93.2
	200~300명미만	(289)	12.6	2.9	87.4	6.9	7.8	93.1	6.0	1.3	94.0
	300~500명미만	(351)	9.8	2.7	90.2	15.3	4.0	84.7	11.5	3.3	88.5
	500~1,000명미만	(301)	13.3	3.7	86.7	16.7	16.0	83.3	10.4	2.4	89.6
	1,000명이상	(146)	9.1	4.9	90.9	9.8	12.4	90.2	8.1	5.3	91.9
업력	0~7년미만	(583)	6.4	2.4	93.6	2.0	4.0	98.0	2.0	4.0	98.0
	7~20년미만	(1,134)	8.7	2.0	91.3	5.3	7.1	94.7	7.0	3.3	93.0
	20~30년미만	(550)	11.1	2.8	88.9	11.9	5.0	88.1	3.1	2.7	96.9
	30~40년미만	(308)	14.1	3.0	85.9	7.8	20.3	92.2	7.0	3.1	93.0
	40~50년미만	(240)	7.2	2.4	92.8	7.3	6.9	92.7	3.3	3.6	96.7
	50년이상	(164)	6.7	4.6	93.3	10.8	5.7	89.2	6.4	2.2	93.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10.8	2.3	89.2	5.9	6.8	94.1	5.7	3.2	94.3
	진입4~5년차	(750)	5.8	1.8	94.2	6.3	2.6	93.7	2.2	2.5	97.8
	진입6~9년차	(220)	9.2	3.3	90.8	8.4	6.0	91.6	9.2	4.3	90.8
	진입10년차이상	(361)	9.8	4.1	90.2	11.6	16.5	88.4	6.9	2.5	93.1
매출유형	B2B	(2,261)	9.1	2.8	90.9	8.2	8.2	91.8	6.5	3.1	93.5
	B2C	(620)	7.6	2.1	92.4	2.9	3.6	97.1	1.1	6.2	98.9
	B2G	(98)	24.7	1.6	75.3	3.5	15.0	96.5	3.0	1.0	97.0
상장	상장	(644)	8.5	4.1	91.5	13.1	6.9	86.9	12.5	3.0	87.5
	비상장	(2,335)	9.5	2.2	90.5	5.1	8.7	94.9	3.1	3.4	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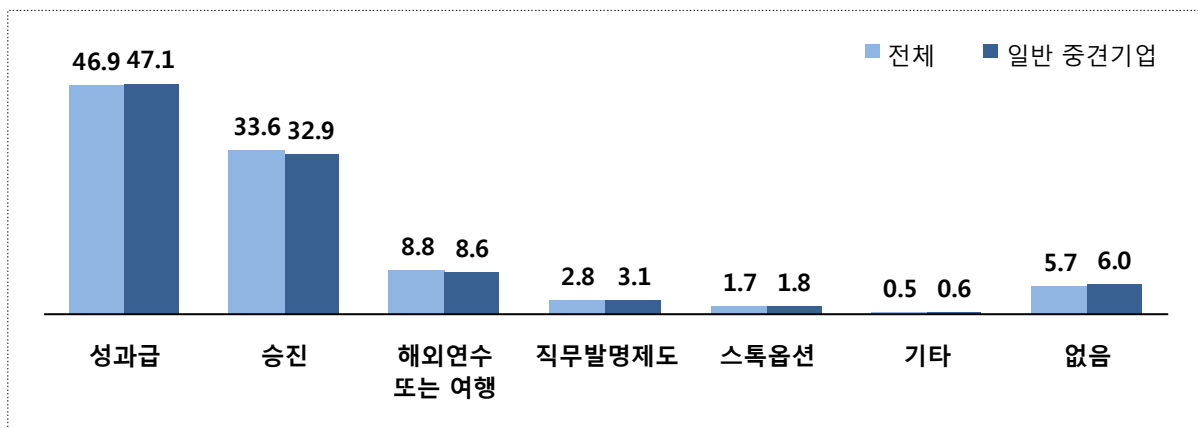
2. 직원 복지

□ 성과보상 제도

- 중견기업의 성과보상 제도는 성과급(46.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승진(33.6%), 해외연수 또는 여행(8.8%), 직무 발명제도(2.8%)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성과급(47.1%), 승진(32.9%), 해외연수 또는 여행(8.6%), 직무 발명제도(3.1%) 순임

[그림 3-32] 성과보상 제도

(단위: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은 성과보상 제도의 ‘성과급’ 비중이 48.4%로 비제조업(45.6%)에 비해 성과급 비중이 높은 편임
- 매출규모별로는 ‘성과급’, ‘승진’, ‘해외연수 또는 여행’, ‘직무발명제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1백억원~5백억원미만의 기업이 다른 기업군에 비해 ‘성과급’ (51.1%)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종사자수별로 보면 50~100명미만 기업의 성과급 비중이 52.6%로 타 기업군에 비해 높음
- 업력별로는 7~20년미만(48.4%), 40~50년미만(48.5%)기업의 성과급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50년이상의 기업은 39.9%로 낮게 나타남
- 대체적으로 성과보상 제도는 ‘성과급’ 과 ‘승진’ 으로 이루어짐

[표 3-47] 성과보상 제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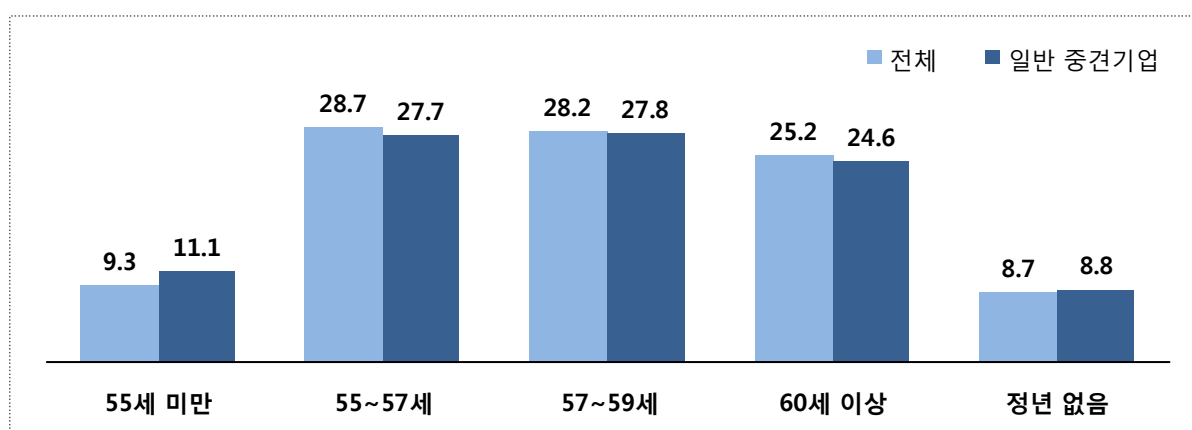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성과급	승진	해외연수 /여행	직무발명 제도	스톡옵션	기타	없음
전체		(2,979)	46.9	33.6	8.8	2.8	1.7	0.5	5.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47.1	32.9	8.6	3.1	1.8	0.6	6.0
	관계기업	(600)	46.3	36.7	9.6	1.5	1.2	0.0	4.7
업종	제조업	(1,331)	48.4	34.5	7.4	4.8	2.1	0.3	2.5
	비제조업	(1,648)	45.6	32.9	10.0	1.0	1.3	0.6	8.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44.5	26.6	4.5	0.7	1.8	0.7	21.2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51.1	32.3	8.9	0.7	1.7	0.3	5.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46.5	37.2	9.0	0.9	1.5	0.0	4.9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45.4	35.3	9.3	4.0	1.9	0.5	3.6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45.5	35.7	7.5	5.8	1.4	0.9	3.3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45.7	34.4	10.4	3.6	2.3	0.9	2.7
	5천억원~1조원미만	(153)	44.2	36.8	12.3	5.4	0.0	0.0	1.4
	1조원이상	(51)	41.1	27.6	13.8	10.4	3.4	0.0	3.7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47.5	34.0	8.8	5.2	2.2	0.5	1.9
	수출없음	(1,797)	46.4	33.4	8.9	0.9	1.3	0.4	8.8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47.3	31.7	6.2	0.1	1.2	0.7	12.7
	50~100명미만	(758)	52.6	34.8	6.6	0.3	1.3	0.0	4.4
	100~200명미만	(454)	45.9	35.7	9.5	3.2	0.7	0.3	4.6
	200~300명미만	(289)	47.0	32.6	8.4	5.0	5.4	0.8	0.8
	300~500명미만	(351)	44.3	32.0	11.4	4.6	1.9	0.7	5.2
	500~1,000명미만	(301)	45.5	37.8	7.6	5.9	1.0	0.0	2.1
	1,000명이상	(146)	42.8	32.3	17.3	3.9	0.5	0.6	2.7
업력	0~7년미만	(583)	44.1	29.3	7.8	2.6	4.5	0.3	11.3
	7~20년미만	(1,134)	48.8	32.8	8.3	2.0	1.4	0.6	6.1
	20~30년미만	(550)	47.5	34.3	9.8	2.9	1.9	0.5	3.1
	30~40년미만	(308)	45.8	38.0	7.9	3.0	0.8	0.4	4.1
	40~50년미만	(240)	48.5	33.6	7.4	4.0	0.5	0.5	5.5
	50년이상	(164)	39.3	36.0	14.0	4.9	0.9	0.0	4.8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46.5	31.5	8.3	2.7	2.5	0.8	7.7
	진입4~5년차	(750)	49.3	37.5	7.0	1.7	0.7	0.0	3.9
	진입6~9년차	(220)	47.3	29.8	14.4	3.1	1.7	0.0	3.7
	진입10년차이상	(361)	44.5	37.0	10.3	4.5	0.3	0.3	3.0
매출유형	B2B	(2,261)	48.0	33.3	8.3	3.0	2.1	0.5	4.9
	B2C	(620)	43.1	34.2	10.6	2.0	0.4	0.5	9.3
	B2G	(98)	47.7	37.7	9.4	2.9	0.0	0.0	2.3
상장	상장	(644)	44.5	33.7	10.7	6.5	2.4	0.5	1.7
	비상장	(2,335)	47.8	33.6	8.1	1.4	1.4	0.4	7.3

□ 직원 정년

- 중견기업의 정년은 55~57세(28.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57~59세(28.2%), 60세이상(25.2%)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57~59세(27.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55~57세(27.7%), 60세이상(24.6%) 순임

[그림 3-33] 직원 정년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27.8%는 ‘57~59세’가 정년으로 나타났으나 관계기업은 32.8%가 ‘55~57세’가 정년으로 조사됨
- 매출규모별로는 1백억원 미만과 1조원 이상의 기업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업이 높게 나타난 반면, 1백억원 ~ 1조원 미만의 기업들은 ‘55세~59세’에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특히, 1백억원 미만의 기업은 ‘정년이 없는 기업’ (21.7%)이 다른 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정년이 높거나 어떠한 기준 없이 기업을 계속 다닐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상대적으로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정년 나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력별로는 오래된 기업보다 신생기업일수록 정년이 없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임

[표 3-48] 직원 정년

(단위 : %)

구분		사례수	55세미만	55~57세	57~59세	60세이상	정년없음
전체		(2,979)	9.3	28.7	28.2	25.2	8.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1.1	27.7	27.8	24.6	8.8
	관계기업	(600)	2.4	32.8	29.5	27.4	7.9
업종	제조업	(1,331)	8.3	28.9	35.4	24.9	2.4
	비제조업	(1,648)	10.2	28.5	22.3	25.3	13.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8.7	22.7	20.2	26.6	21.7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7.8	32.9	25.1	25.7	8.5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8.8	31.1	29.8	24.2	6.2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9.1	28.8	31.6	22.8	7.7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11.8	22.3	32.7	28.4	4.7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12.0	35.2	29.6	18.4	4.8
	5천억원~1조원미만	(153)	13.4	18.7	36.1	29.2	2.7
	1조원이상	(51)	6.7	24.8	30.9	37.6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9.9	28.0	31.6	26.8	3.7
	수출없음	(1,797)	9.0	29.2	25.9	24.1	11.9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5.8	22.4	23.9	27.8	20.1
	50~100명미만	(758)	7.4	38.7	30.1	16.3	7.6
	100~200명미만	(454)	10.3	36.0	25.3	25.5	2.9
	200~300명미만	(289)	16.4	28.3	29.3	25.2	0.7
	300~500명미만	(351)	10.0	35.1	28.0	21.6	5.3
	500~1,000명미만	(301)	13.7	17.3	38.6	26.4	3.9
	1,000명이상	(146)	7.6	20.4	30.7	39.3	2.1
업력	0~7년미만	(583)	9.5	22.3	29.4	23.1	15.6
	7~20년미만	(1,134)	8.2	28.3	24.3	27.6	11.6
	20~30년미만	(550)	10.5	33.3	26.2	22.3	7.7
	30~40년미만	(308)	11.8	27.5	31.2	27.4	2.3
	40~50년미만	(240)	7.3	32.4	38.4	20.2	1.7
	50년이상	(164)	10.6	28.1	36.4	24.9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9.1	27.0	25.1	26.8	12.0
	진입4~5년차	(750)	8.8	34.3	29.2	21.4	6.4
	진입6~9년차	(220)	6.6	34.4	36.8	20.5	1.8
	진입10년차이상	(361)	13.0	21.6	33.5	28.4	3.5
매출유형	B2B	(2,261)	8.7	27.6	30.7	24.9	8.2
	B2C	(620)	11.5	33.8	21.8	22.9	10.0
	B2G	(98)	10.7	22.5	10.4	46.0	10.4
상장	상장	(644)	11.1	32.8	29.8	25.9	0.3
	비상장	(2,335)	8.8	27.5	27.6	24.9	11.2

5절 국제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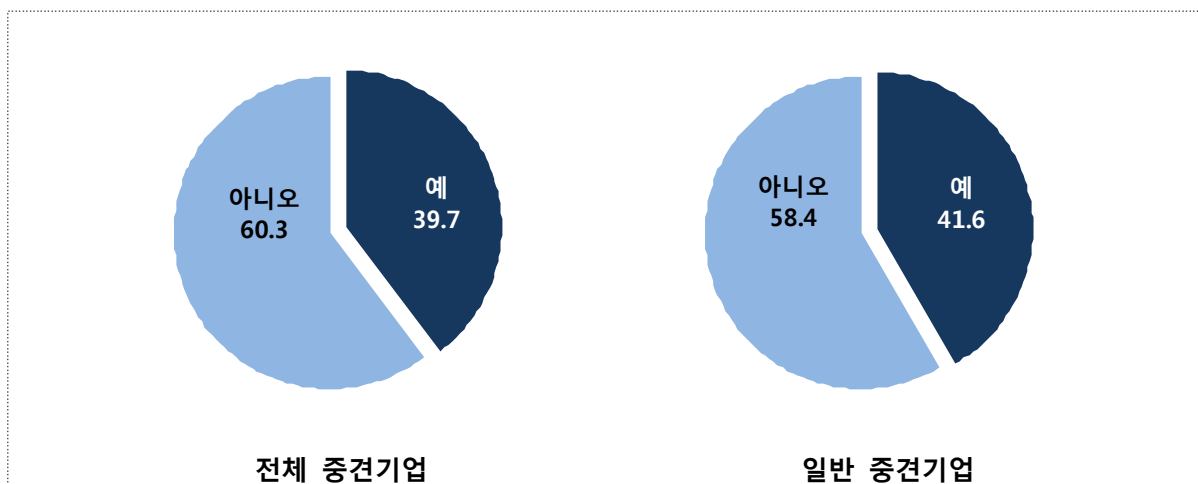
1. 수출

□ 해외수출

- 중견기업 전체 중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39.7%이며, 일반 중견기업은 41.6%가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4] 해외 수출

(단위: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70.9%, 비제조업의 14.5%가 수출실적이 있다고 응답, 제조업의 수출 실적이 월등히 높음
- 매출액 규모가 커질수록, 업력이 많을수록, 성장단계가 높을수록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을 제외한 기업군에서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9] 해외 수출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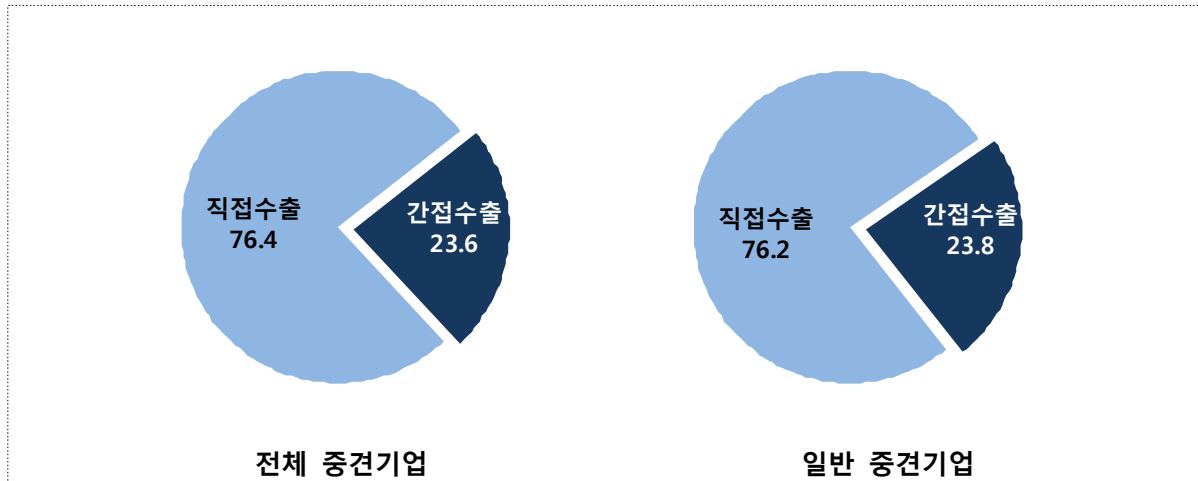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2,979)	39.7	60.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41.6	58.4
	관계기업	(600)	32.0	68.0
업종	제조업	(1,331)	70.9	29.1
	비제조업	(1,648)	14.5	85.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9.9	90.1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20.3	79.7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40.1	59.9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56.4	43.6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63.7	36.3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60.9	39.1
	5천억원~1조원미만	(153)	64.5	35.5
	1조원이상	(51)	80.0	2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100.0	0.0
	수출없음	(1,797)	0.0	100.0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12.1	87.9
	50~100명미만	(758)	30.3	69.7
	100~200명미만	(454)	48.5	51.5
	200~300명미만	(289)	61.1	38.9
	300~500명미만	(351)	60.5	39.5
	500~1,000명미만	(301)	74.7	25.3
	1,000명이상	(146)	37.5	62.5
업력	0~7년미만	(583)	18.1	81.9
	7~20년미만	(1,134)	31.1	68.9
	20~30년미만	(550)	45.3	54.7
	30~40년미만	(308)	52.5	47.5
	40~50년미만	(240)	64.6	35.4
	50년이상	(164)	62.4	37.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36.3	63.7
	진입4~5년차	(750)	37.7	62.3
	진입6~9년차	(220)	46.4	53.6
	진입10년차이상	(361)	53.1	46.9
매출유형	B2B	(2,261)	45.5	54.5
	B2C	(620)	21.8	78.2
	B2G	(98)	18.3	81.7
상장	상장	(644)	71.5	28.5
	비상장	(2,335)	30.2	69.8

□ 직/간접수출 비중

- 전체 중견기업 중 직접 수출을 하는 기업은 76.4%, 간접수출을 하는 기업은 23.6%로 직접수출 비중이 간접수출 비중의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5] 직/간접수출 비중

(단위: %, 수출기업)



특성별 분석

- 제조업 수출기업 중 74.5%가 ‘직접수출’을 하고 25.5%가 ‘간접수출’을 한다고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은 14.5% 중 94.7%가 ‘직접수출’을 하고 5.3%가 ‘간접수출’을 한다고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1백억원~5백억원 미만 기업의 ‘직접수출’이 93.2%로 타 매출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3천억원~5천억원 미만 기업의 ‘직접수출’은 68.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업력이 길어질수록 ‘간접수출’이 많아지는 반면, 50년 이상의 기업은 ‘직접수출’이 85.0%로 높게 나타남

[표 3-50] 직/간접수출 비중

(단위 : %, 수출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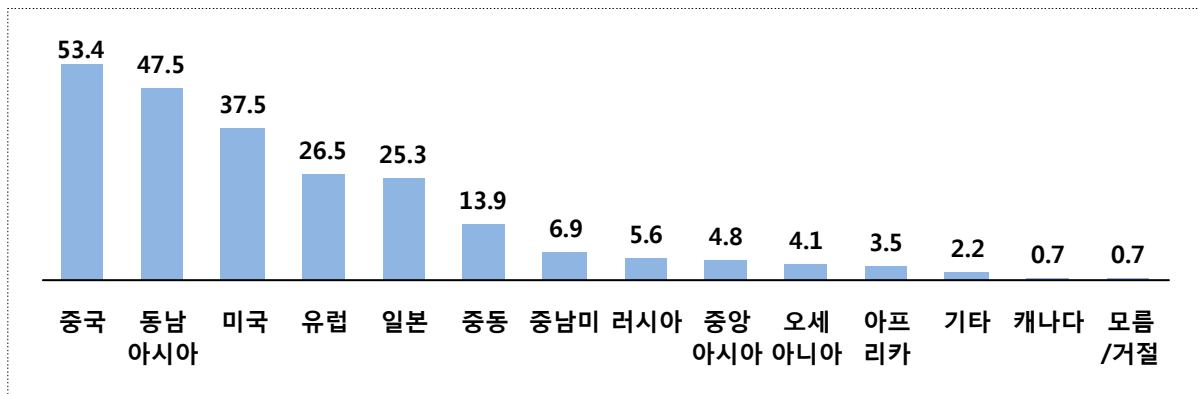
구분		직접수출	간접수출
전체		76.4	23.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6.2	23.8
	관계기업	82.8	17.2
업종	제조업	74.5	25.5
	비제조업	94.7	5.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83.1	16.9
	1백억원~5백억원미만	93.2	6.8
	5백억원~1천억원미만	74.1	25.9
	1천억원~2천억원미만	76.0	24.0
	2천억원~3천억원미만	79.4	20.6
	3천억원~5천억원미만	68.7	31.3
	5천억원~1조원미만	77.6	22.4
	1조원이상	80.1	19.9
수출여부	수출있음	76.4	23.6
	수출없음	-	-
종사자수	50명미만	94.1	5.9
	50~100명미만	86.3	13.7
	100~200명미만	70.8	29.2
	200~300명미만	72.2	27.8
	300~500명미만	80.3	19.7
	500~1,000명미만	65.5	34.5
	1,000명이상	93.4	6.6
업력	0~7년미만	91.0	9.0
	7~20년미만	78.8	21.2
	20~30년미만	74.4	25.6
	30~40년미만	74.7	25.3
	40~50년미만	69.7	30.3
	50년이상	85.0	15.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75.5	24.5
	진입4~5년차	77.6	22.4
	진입6~9년차	80.1	19.9
	진입10년차이상	76.2	23.8
매출유형	B2B	75.0	25.0
	B2C	97.4	2.6
	B2G	98.7	1.3
상장	상장	78.2	21.8
	비상장	73.9	26.1

□ 주요 수출지역 및 금액

- 중견기업 중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의 수출 지역으로는 중국이 5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남아시아(47.5%), 미국(37.5%), 유럽(26.5%), 일본(2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6] 주요수출지역 1+2+3순위

(단위: %, 수출기업, 중복응답)



특성별 분석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억미만 기업은 중국 수출이 많았으며, 5천억이상 기업은 동남아시아, 미국으로 수출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력이 짧을수록 중국으로 수출이 많으며, 50년이상 업력 기업은 동남아시아 수출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1] 주요수출지역 1+2+3순위

(단위 : %, 수출기업 1,182개사, 중복응답)

구분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일본	중동	중남미
전체		53.4	47.5	37.5	26.5	25.3	13.9	6.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1.1	49.6	37.1	27.8	24.9	14.2	7.8
	관계기업	65.1	36.6	39.7	20.0	27.6	12.3	2.5
업종	제조업	54.5	47.6	40.6	29.5	25.1	14.5	7.9
	비제조업	49.0	47.0	25.0	14.5	26.0	11.7	3.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6.0	8.4	12.8	22.7	31.6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44.2	45.7	46.4	15.3	33.8	15.5	2.5
	5백억원~1천억원미만	60.6	51.7	24.9	22.0	15.1	13.8	11.6
	1천억원~2천억원미만	52.1	49.8	33.9	29.7	27.4	17.0	6.5
	2천억원~3천억원미만	58.7	49.4	41.8	31.8	27.3	10.2	10.1
	3천억원~5천억원미만	59.2	46.1	30.3	23.7	21.1	14.5	6.6
	5천억원~1조원미만	49.0	51.2	59.2	32.5	24.5	10.1	6.1
	1조원이상	37.9	47.0	45.5	37.9	7.6	22.7	7.6
수출여부	수출있음	53.4	47.5	37.5	26.5	25.3	13.9	6.9
	수출없음	-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41.9	39.3	29.6	17.6	14.6	6.4	0.0
	50~100명미만	56.1	46.8	26.6	27.7	20.3	11.0	5.2
	100~200명미만	47.7	50.8	33.4	23.1	29.2	8.3	8.0
	200~300명미만	55.0	55.5	42.1	23.1	30.9	22.0	10.4
	300~500명미만	57.5	41.8	38.4	25.9	28.8	14.7	7.9
	500~1,000명미만	53.5	46.2	41.4	35.6	19.3	17.1	7.7
	1,000명이상	63.4	48.4	55.2	30.7	30.7	13.1	2.6
업력	0~7년미만	51.7	29.2	42.2	29.6	18.1	25.5	6.5
	7~20년미만	53.4	41.9	35.7	24.9	26.8	13.8	7.3
	20~30년미만	64.5	55.7	31.2	24.9	21.7	9.2	5.9
	30~40년미만	55.0	48.8	42.7	28.0	21.4	11.4	8.5
	40~50년미만	44.1	47.7	42.2	31.1	30.8	15.5	6.2
	50년이상	40.8	55.3	39.0	24.6	31.2	19.5	6.9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3.6	49.9	36.6	26.9	25.4	12.2	6.8
	진입4~5년차	52.3	46.1	35.7	24.7	19.8	19.0	5.9
	진입6~9년차	52.6	48.1	39.0	16.0	46.2	12.3	4.4
	진입10년차이상	54.5	42.6	41.5	33.1	21.7	12.6	10.0
매출유형	B2B	51.6	48.5	36.2	28.5	24.3	15.2	7.1
	B2C	74.0	39.8	52.2	14.4	36.3	4.1	4.1
	B2G	0.0	47.3	0.0	0.0	0.0	12.2	16.4
상장	상장	53.6	51.8	37.9	30.1	28.7	12.9	7.6
	비상장	53.2	44.4	37.2	24.0	22.9	14.6	6.5

[표 3-52] 주요수출지역 1+2+3순위(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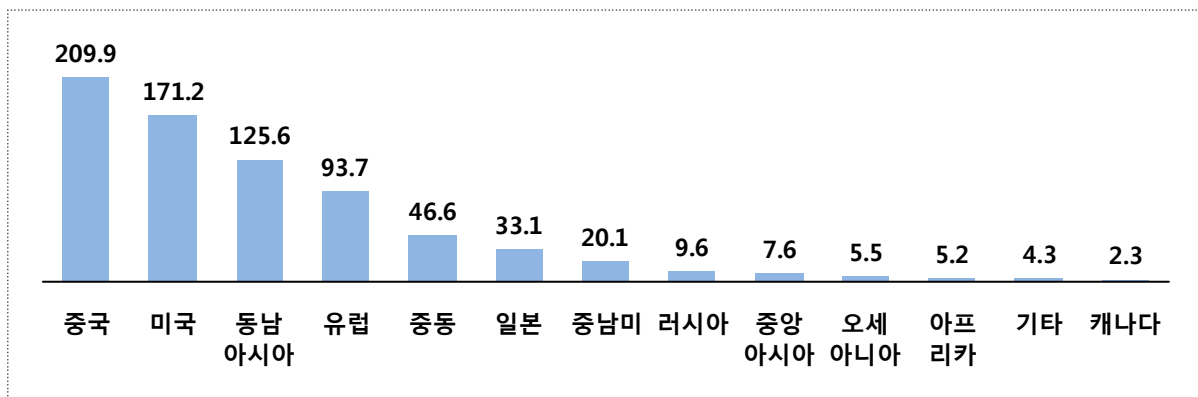
(단위 : %, 수출기업 1,182개사, 중복응답)

구분		러시아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기타	캐나다	모름/거절
전체		5.6	4.8	4.1	3.5	2.2	0.7	0.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2	4.8	4.9	3.2	2.6	0.9	0.8
	관계기업	7.4	5.1	0.0	5.1	0.0	0.0	0.0
업종	제조업	6.0	4.7	4.0	2.8	1.9	0.9	0.9
	비제조업	3.9	5.5	4.4	6.4	3.3	0.0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4	0.0	0.0	0.0	0.0	4.2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5.2	5.0	2.5	5.0	0.0	0.0	2.5
	5백억원~1천억원미만	5.5	11.1	0.0	7.0	4.2	0.0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4.1	3.2	4.6	3.6	1.6	0.8	0.0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	2.0	3.3	2.3	2.3	1.1	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14.5	3.9	9.2	1.3	3.9	1.3	2.6
	5천억원~1조원미만	2.0	6.1	8.1	4.2	4.1	0.0	0.0
	1조원이상	8.3	15.2	0.0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5.6	4.8	4.1	3.5	2.2	0.7	0.7
	수출없음	-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1.7	2.1	2.1	2.1	0.0	1.6	4.3
	50~100명미만	9.2	4.2	4.7	0.0	1.9	0.0	0.0
	100~200명미만	6.5	9.6	3.2	5.3	1.2	1.1	0.0
	200~300명미만	4.5	3.3	1.9	1.3	2.1	2.2	0.0
	300~500명미만	4.5	2.5	5.2	6.6	2.2	0.0	0.0
	500~1,000명미만	7.1	5.9	7.0	5.3	4.3	0.0	0.0
	1,000명이상	2.5	4.0	2.5	0.0	2.5	0.0	5.1
업력	0~7년미만	0.0	0.0	2.8	0.0	3.8	2.3	0.0
	7~20년미만	5.5	4.6	4.6	1.2	1.3	0.0	1.2
	20~30년미만	4.1	7.5	3.6	4.4	2.7	2.7	0.0
	30~40년미만	6.3	4.0	3.5	5.0	1.5	0.0	0.0
	40~50년미만	12.6	6.0	2.4	4.2	5.1	0.0	0.0
	50년이상	1.6	2.5	7.5	7.6	0.0	0.0	3.2
성장단계	진입1~3년차	4.2	2.8	4.7	1.6	0.8	1.2	0.8
	진입4~5년차	7.5	7.3	0.7	2.6	1.9	0.7	0.0
	진입6~9년차	1.8	8.4	5.5	14.7	2.4	0.0	0.0
	진입10년차이상	8.8	5.1	6.3	4.2	6.3	0.0	1.9
매출유형	B2B	5.9	5.3	4.0	3.1	2.1	0.8	0.6
	B2C	1.5	0.0	5.2	0.0	2.9	0.0	1.5
	B2G	19.1	16.4	0.0	52.3	0.0	0.0	0.0
상장	상장	5.1	3.7	2.6	3.4	3.2	0.9	0.8
	비상장	5.9	5.6	5.2	3.6	1.5	0.6	0.6

-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의 전체 수출금액은 734.8억불이며, 가장 많이 수출한 지역은 중국(209.9억불), 미국(171.2억불), 동남아시아(125.6억불), 유럽(93.7억불)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수출금액은 중국 18,912천불, 미국 15,428천불, 동남아시아 11,317.5천불, 유럽 8,444.8천불, 중동 4,201.5천불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7] 주요수출지역별 수출금액

(단위: 억불, 수출기업)



[표 3-53] 주요수출지역별 수출금액

(단위 : 천불, %, 수출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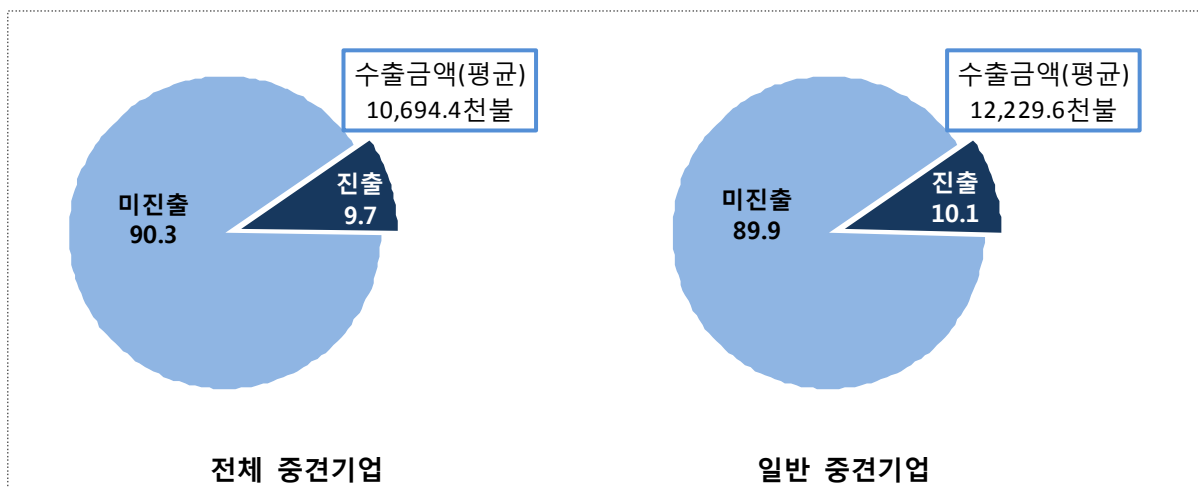
구 분	지역별 수출금액		지역별 평균수출금액
	전체 수출금액	비율	
전체	73,478,262	100.0	66,202.5
중국	20,990,609	28.6	18,912.1
미국	17,124,243	23.3	15,428.6
동남아시아	12,561,348	17.1	11,317.5
유럽	9,372,878	12.8	8,444.8
중동	4,663,247	6.3	4,201.5
일본	3,311,057	4.5	2,983.2
중남미	2,009,712	2.7	1,810.7
러시아	957,430	1.3	862.6
중앙아시아	761,846	1.0	686.4
오세아니아	554,661	0.8	499.7
아프리카	515,154	0.7	464.1
캐나다	226,077	0.3	203.7
기타	430,000	0.6	387.4

□ 해외 신규 진출

- 중견기업 중 2014년 해외로 신규 진출한 기업은 9.7%이며, 이들의 평균 수출금액은 10,694.4천불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 중 2014년 해외로 신규 진출한 기업은 10.1%이며, 이들의 평균 수출금액은 12,229.6천불로 나타남

[그림 3-38] 신규 진출 여부

(단위: %, 수출기업)



특성별 분석

- 기업유형별로 일반 중견기업이 10.1%로 관계기업 7.4%에 비해 해외 신규진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 기업의 9.3%가 해외에 신규진출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제조업은 11.4%가 해외 신규진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견기업 성장단계별로 진입 10년차 이상 기업이 16.5%, 진입 1~3년차 9.7%, 진입 4~5년차의 6.6% 순으로 신규진출이 나타남

[표 3-54] 신규 진출 여부

(단위: %, 천불, 개, 수출기업 1,182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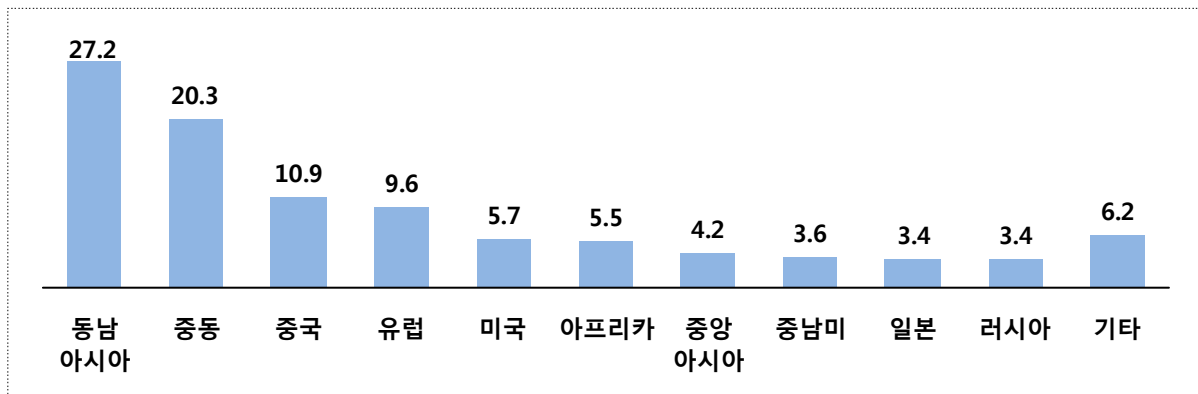
구분		미진출	진출	평균 수출금액
전체		90.3	9.7	10,694.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89.9	10.1	12,229.6
	관계기업	92.6	7.4	362.8
업종	제조업	90.7	9.3	11,190.6
	비제조업	88.6	11.4	9,006.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00.0	0.0	7,493.6
	1백억원~5백억원미만	92.2	7.8	643.1
	5백억원~1천억원미만	94.5	5.5	3,537.3
	1천억원~2천억원미만	89.9	10.1	2,313.8
	2천억원~3천억원미만	90.2	9.8	10,909.9
	3천억원~5천억원미만	86.8	13.2	19,382.7
	5천억원~1조원미만	89.8	10.2	52,750.9
	1조원이상	76.5	23.5	10,694.4
수출여부	수출있음	90.3	9.7	16,026.8
	수출없음	-	-	-
종사자수	50명미만	93.4	6.6	46.7
	50~100명미만	92.2	7.8	8,710.3
	100~200명미만	94.7	5.3	5,102.5
	200~300명미만	87.4	12.6	493.3
	300~500명미만	95.2	4.8	15,467.5
	500~1,000명미만	86.2	13.8	23,517.5
	1,000명이상	75.7	24.3	9,080.6
업력	0~7년미만	77.5	22.5	19,025.9
	7~20년미만	91.4	8.6	5,232.1
	20~30년미만	90.0	10.0	4,601.7
	30~40년미만	89.5	10.5	1,063.9
	40~50년미만	94.5	5.5	20,632.9
	50년이상	90.7	9.3	7,944.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90.3	9.7	561.9
	진입4~5년차	93.4	6.6	1,000.0
	진입6~9년차	95.5	4.5	23,730.0
	진입10년차이상	83.5	16.5	10,964.4
매출유형	B2B	91.5	8.5	8,102.5
	B2C	82.3	17.7	22,288.0
	B2G	80.9	19.1	13,381.9
상장	상장	85.6	14.4	5,869.9
	비상장	93.6	6.4	5,869.9

□ 신규 진출 국가

- 해외 수출기업 중 신규진출 국가가 있는 기업의 수출 지역으로는 동남아시아가 2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동(20.3%), 중국(10.9%), 유럽(9.6%), 미국(5.7%), 아프리카(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수출금액은 중남미 25,421.2천불, 중동 21,607.1천불, 미국 16,135.5천불, 유동남 아시아 15,358.2천불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9] 신규 진출 국가

(단위: %, 수출기업 중 신규진출 기업)



[표 3-55] 신규 진출 국가별 수출금액

(단위 : 천불, %, 수출기업 중 신규진출 기업)

구 분	신규 진출 국가		지역별 평균수출금액
	전체 수출금액	비율	
전체	1,177,281.1	100.0	10,694.4
동남아시아	478,771.4	40.7	15,358.2
중동	449,641.4	38.2	21,607.1
중국	10,179.0	0.9	814.3
유럽	4906.7	0.4	445.2
미국	106,079.1	9.0	16,135.5
아프리카	69.4	0.0	16.8
중앙아시아	3495.1	0.3	728.7
중남미	104,902.3	8.9	25,421.2
일본	10,306.4	0.9	2,610.5
러시아	296.1	0.0	75.0
기타	8,634.1	0.7	1,2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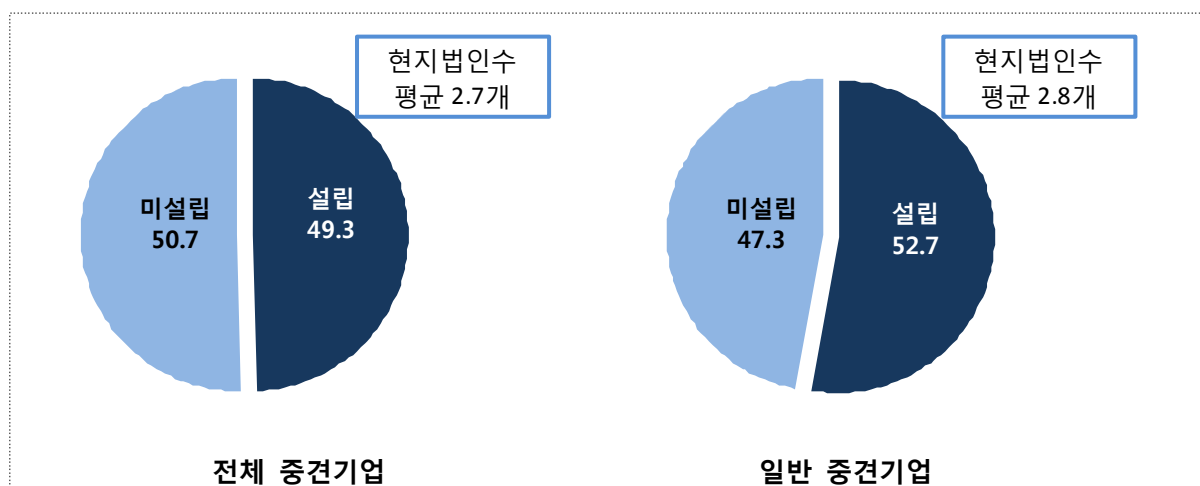
2. 현지법인

□ 현지법인 설립

- 해외수출기업 중 해외에 현지법인이 있는 기업은 49.3%이며, 기업당 2.7개의 현지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 중 현지법인이 있는 기업은 52.7%이며, 기업당 2.8개의 현지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0] 현지법인 설립

(단위: %, 수출기업)



특성별 분석

- 기업유형별로 일반 중견기업이 52.7%로 관계기업 31.9%에 비해 해외에 현지법인이 있다는 비중이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기업의 비중이 높음
-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업력이 길수록 대체로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많음
- 중견기업 성장단계별로 현지법인 설립률은 진입 10년차 이상 기업이 67.6%, 진입 6~9년차 63.5%, 진입 1~3년차의 46.8% 순

[표 3-56] 현지법인 설립

(단위: %, 천불, 개, 수출기업 1.183개사)

구분		미설립	설립	평균 법인수
전체		50.7	49.3	2.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7.3	52.7	2.8
	관계기업	68.1	31.9	1.9
업종	제조업	50.8	49.2	2.7
	비제조업	50.2	49.8	2.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95.8	4.2	1.0
	1백억원~5백억원미만	76.2	23.8	1.7
	5백억원~1천억원미만	63.6	36.4	1.8
	1천억원~2천억원미만	51.8	48.2	2.2
	2천억원~3천억원미만	42.8	57.2	3.5
	3천억원~5천억원미만	34.2	65.8	2.6
	5천억원~1조원미만	24.4	75.6	3.1
	1조원이상	7.6	92.4	3.6
수출여부	수출있음	50.7	49.3	2.7
	수출없음	-	-	-
종사자수	50명미만	90.7	9.3	1.5
	50~100명미만	67.5	32.5	2.4
	100~200명미만	70.0	30.0	2.9
	200~300명미만	44.6	55.4	1.9
	300~500명미만	31.9	68.1	2.6
	500~1,000명미만	30.2	69.8	2.8
	1,000명이상	34.4	65.6	4.6
업력	0~7년미만	76.0	24.0	2.6
	7~20년미만	49.3	50.7	2.2
	20~30년미만	54.5	45.5	3.1
	30~40년미만	45.0	55.0	3.2
	40~50년미만	47.1	52.9	2.7
	50년이상	45.6	54.4	2.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3.2	46.8	2.5
	진입4~5년차	64.3	35.7	2.1
	진입6~9년차	36.5	63.5	2.1
	진입10년차이상	32.4	67.6	3.7
매출유형	B2B	53.7	46.3	2.7
	B2C	30.9	69.1	2.6
	B2G	26.7	73.3	2.4
상장	상장	35.4	64.6	2.9
	비상장	61.5	38.5	2.4

□ 현지법인 설립 국가

- 현지법인을 설립한 기업의 현지법인은 총 1,560개이며, 기업당 평균 2.68개의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표 3-57] 진출국가별 현지법인 설립 현황

(단위 : 개사, %, 현지법인 설립기업, 중복응답)

구 분	전체		평균 현지법인 수
	현지법인 수	비중	
전체	1,560	100.0	2.68
미국	221	14.2	0.38
중국	634	40.6	1.09
일본	44	2.8	0.08
러시아	33	2.1	0.06
동남아시아	378	24.2	0.65
유럽	129	8.3	0.22
중동	22	1.4	0.04
캐나다	0	0.0	0.00
중앙아시아	29	1.9	0.05
오세아니아	2	0.1	0.00
아프리카	13	0.8	0.02
중남미	51	3.3	0.09
기타	4	0.3	0.01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은 중국에 현지법인이 총 549개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비제조업은 동남아시아에 90개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음
-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국가에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력별로는 7~20년 미만 기업군이 가장 많은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 매출유형별로는 B2B 기업이 가장 많은 해외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B2G 기업은 현지법인 수 및 국가의 다양성에서 뒤처지는 경향을 보임

[표 3-58] 주요 지역별 현지법인 설립 현황 1+2+3순위

(단위 : 개사, %, 현지법인 설립기업 583개사, 중복응답)

구분		전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전체		1,560	221	634	44	33	378	129	2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446	182	583	34	33	373	120	22
	관계기업	114	39	51	9	-	5	10	-
업종	제조업	1,253	168	549	35	23	288	108	8
	비제조업	307	53	84	9	10	90	21	1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	-	2	-	-	-	-	-
	1백억원~5백억원미만	71	29	28	9	-	-	-	-
	5백억원~1천억원미만	93	15	31	-	-	22	10	-
	1천억원~2천억원미만	352	46	140	14	5	89	35	7
	2천억원~3천억원미만	418	38	166	5	-	143	34	-
	3천억원~5천억원미만	259	32	104	4	16	67	18	12
	5천억원~1조원미만	230	44	113	8	2	41	12	-
	1조원이상	137	19	49	3	10	16	22	3
수출여부	수출있음	1,560	221	634	44	33	378	129	22
	수출없음	-	-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14	-	7	-	-	7	-	-
	50~100명미만	118	13	47	-	3	27	14	3
	100~200명미만	188	32	73	3	12	49	8	2
	200~300명미만	214	34	88	2	3	64	15	3
	300~500명미만	377	60	156	19	2	82	34	2
	500~1,000명미만	422	55	142	6	14	118	37	6
	1,000명이상	233	27	120	14	-	33	23	7
업력	0~7년미만	44	5	19	-	-	11	9	-
	7~20년미만	425	87	184	16	2	82	39	3
	20~30년미만	363	39	162	8	-	85	29	7
	30~40년미만	332	34	135	5	15	81	28	10
	40~50년미만	236	25	84	9	14	65	16	3
	50년이상	162	32	50	6	3	54	7	-
성장단계	진입1~3년차	682	89	288	21	16	167	47	7
	진입4~5년차	216	36	82	7	3	53	22	3
	진입6~9년차	144	32	51	10	2	27	7	10
	진입10년차이상	519	64	212	6	12	131	54	3
매출유형	B2B	1,285	159	542	26	23	326	110	17
	B2C	244	62	91	18	-	46	20	3
	B2G	32	-	-	-	10	6	-	2
상장	상장	924	138	394	17	17	209	88	5
	비상장	638	83	240	27	16	169	42	17

[표 3-59] 주요 지역별 현지법인 설립 현황 1+2+3순위(계속)

(단위 : 개사, %, 현지법인 설립기업 583개사,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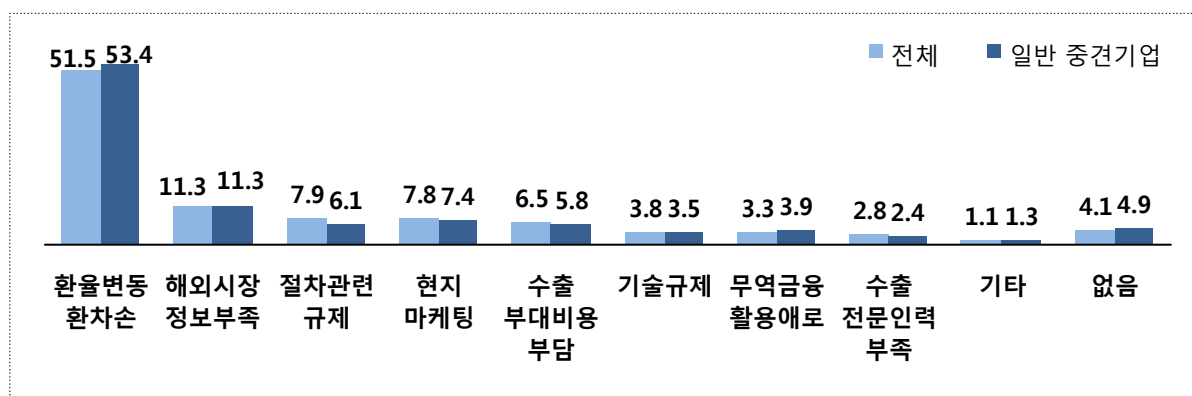
구분		전체	캐나다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남미	기타	모름/거절
전체		1,560	-	29	2	13	51	4	-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446	-	29	2	13	51	4	-
	관계기업	114	-	-	-	-	-	-	-
업종	제조업	1,253	-	17	2	9	42	4	-
	비제조업	307	-	12	-	5	9	-	-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	-	-	-	-	-	-	-
	1백억원~5백억원미만	71	-	-	-	5	-	-	-
	5백억원~1천억원미만	93	-	12	-	-	3	-	-
	1천억원~2천억원미만	352	-	5	-	-	11	-	-
	2천억원~3천억원미만	418	-	2	2	2	26	-	-
	3천억원~5천억원미만	259	-	-	-	-	6	-	-
	5천억원~1조원미만	230	-	-	2	-	6	4	-
	1조원이상	137	-	9	-	6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1,560	-	29	-	13	51	4	-
	수출없음	-	-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14	-	-	-	-	-	-	-
	50~100명미만	118	-	6	-	-	5	-	-
	100~200명미만	188	-	-	-	-	9	-	-
	200~300명미만	214	-	-	-	-	5	-	-
	300~500명미만	377	-	3	-	-	19	-	-
	500~1,000명미만	422	-	11	2	13	14	4	-
	1,000명이상	233	-	9	-	-	-	-	-
업력	0~7년미만	44	-	-	-	-	-	-	-
	7~20년미만	425	-	3	-	-	9	-	-
	20~30년미만	363	-	6	-	7	20	-	-
	30~40년미만	332	-	12	-	-	10	2	-
	40~50년미만	236	-	6	-	-	12	2	-
	50년이상	162	-	2	2	6	-	-	-
성장단계	진입1~3년차	682	-	6	-	6	33	2	-
	진입4~5년차	216	-	3	-	-	7	-	-
	진입6~9년차	144	-	-	-	5	-	-	-
	진입10년차이상	519	-	20	2	2	11	2	-
매출유형	B2B	1,285	-	23	-	9	48	2	-
	B2C	244	-	-	2	-	-	2	-
	B2G	32	-	6	-	5	3	-	-
상장	상장	924	-	12	2	9	29	4	-
	비상장	638	-	17	-	5	22	-	-

□ 수출시 애로사항

- 중견기업의 수출시 애로사항으로는 환율변동 환차손(51.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해외시장 정보부족(11.3%), 절차관련 규제(7.9%), 현지마케팅(7.8%)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환율변동 환차손(53.4%), 해외시장 정보부족(11.3%), 현지마케팅(7.4%), 절차관련 규제(6.1%) 순임

[그림 3-41] 수출시 애로사항

(단위: %, 수출기업)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과 관계기업 모두 ‘환율변동 환차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함
 -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수출시 애로사항은 일반 중견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정보부족’이 11.3%, 관계기업의 경우 ‘절차관련 규제’가 17.4%로 다소 다르게 나타남
-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환율변동 환차손’이 수출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 ‘환율변동 환차손’ 다음으로는 제조업, 비제조업 경우 모두 ‘해외시장 정보부족’이 각각 10.3%, 15.1%로 수출시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5천억원~1조원미만 기업은 ‘환율변동 환차손’ (63.3%)을 1순위 애로요인으로 응답해 다른 규모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종사자 규모가 500~1000명의 기업은 ‘환율변동 환차손’을, 50명미만 기업은 ‘해외시장 정보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경우가 다른 규모의 기업에 비해 많음

[표 3-60] 수출시 애로사항 : 1순위

(단위 : %, 수출기업 1,182개사)

구분		환율변동 환차손	해외시장 정보부족	절차관련 규제	현지마케팅	수출 부대비용 부담
전체		51.5	11.3	7.9	7.8	6.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3.4	11.3	6.1	7.4	5.8
	관계기업	41.8	11.3	17.4	9.8	9.9
업종	제조업	53.0	10.3	8.1	7.1	7.1
	비제조업	45.8	15.1	7.1	10.2	4.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5.7	18.4	14.5	8.4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38.4	15.3	10.5	15.5	7.8
	5백억원~1천억원미만	51.6	9.1	9.6	4.1	13.1
	1천억원~2천억원미만	49.1	10.3	8.4	6.1	6.4
	2천억원~3천억원미만	56.8	13.3	5.5	6.3	4.6
	3천억원~5천억원미만	57.9	11.8	5.3	6.6	5.3
	5천억원~1조원미만	63.3	4.1	6.1	6.2	6.1
	1조원이상	53.8	7.6	7.6	15.2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51.5	11.3	7.9	7.8	6.5
	수출없음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45.9	13.4	0.0	12.5	0.0
	50~100명미만	48.7	11.6	13.1	1.4	16.2
	100~200명미만	46.0	10.7	6.8	13.0	7.1
	200~300명미만	54.5	10.2	8.4	4.0	5.6
	300~500명미만	56.3	10.0	9.2	6.7	6.8
	500~1,000명미만	57.0	12.6	6.2	6.8	3.9
	1,000명이상	44.0	12.2	11.9	14.6	2.5
업력	0~7년미만	34.7	25.6	6.6	15.1	4.0
	7~20년미만	48.6	9.0	6.3	6.4	8.5
	20~30년미만	56.9	8.2	15.4	6.2	5.3
	30~40년미만	60.5	15.9	4.2	4.6	1.3
	40~50년미만	53.2	8.3	4.5	10.6	11.3
	50년이상	42.3	13.4	8.3	12.3	5.7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0.3	11.3	8.1	7.2	5.9
	진입4~5년차	48.7	9.4	12.6	6.4	10.9
	진입6~9년차	49.1	20.1	0.0	14.4	1.8
	진입10년차이상	59.9	9.3	5.3	7.6	4.4
매출유형	B2B	51.8	10.8	7.9	6.6	7.2
	B2C	53.4	10.4	9.0	17.6	2.0
	B2G	19.1	43.4	0.0	0.0	0.0
상장	상장	52.6	11.1	7.9	8.7	6.1
	비상장	50.7	11.4	7.9	7.1	6.7

[표 3-61] 수출시 애로사항 : 1순위(계속)

(단위 : %, 수출기업 1,182개사)

구분		기술규제	무역금융 활용애로	수출 전문인력 부족	기타	없음
전체		3.8	3.3	2.8	1.1	4.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5	3.9	2.4	1.3	4.9
	관계기업	5.1	0.0	4.7	0.0	0.0
업종	제조업	4.7	2.4	3.1	0.5	3.7
	비제조업	0.0	7.0	1.6	3.5	5.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0.0	4.4	0.0	8.6
	1백억원~5백억원미만	0.0	5.0	5.0	0.0	2.6
	5백억원~1천억원미만	7.0	0.0	3.5	0.0	2.1
	1천억원~2천억원미만	4.1	5.1	2.8	1.5	6.4
	2천억원~3천억원미만	4.6	2.3	1.1	1.0	4.5
	3천억원~5천억원미만	5.3	0.0	4.0	2.6	1.3
	5천억원~1조원미만	4.1	2.0	0.0	2.1	6.1
	1조원이상	0.0	15.9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3.8	3.3	2.8	1.1	4.1
	수출없음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4.7	8.6	4.3	2.1	8.5
	50~100명미만	1.6	0.0	2.9	1.4	3.0
	100~200명미만	1.1	3.5	6.4	0.0	5.5
	200~300명미만	6.1	1.3	2.7	1.3	5.8
	300~500명미만	4.7	2.2	0.0	1.9	2.4
	500~1,000명미만	4.8	5.7	0.9	1.0	1.2
	1,000명이상	2.5	4.0	3.1	0.0	5.2
업력	0~7년미만	3.4	0.0	2.4	0.0	8.2
	7~20년미만	3.9	5.1	5.3	1.3	5.8
	20~30년미만	1.7	1.8	0.0	0.8	3.6
	30~40년미만	7.3	1.4	2.3	0.0	2.5
	40~50년미만	3.2	4.8	1.6	1.2	1.2
	50년이상	3.2	3.9	3.4	3.3	4.1
성장단계	진입1~3년차	2.6	3.7	4.2	0.8	6.1
	진입4~5년차	5.9	0.9	2.1	1.4	1.5
	진입6~9년차	6.4	4.2	0.0	2.0	1.9
	진입10년차이상	2.8	5.1	1.1	1.0	3.4
매출유형	B2B	4.1	2.8	3.2	1.1	4.5
	B2C	1.5	4.1	0.0	0.0	2.0
	B2G	0.0	25.7	0.0	11.8	0.0
상장	상장	5.3	2.8	1.7	0.4	3.4
	비상장	2.7	3.7	3.5	1.6	4.7

[표 3-62] 수출시 애로사항 : 1+2순위

(단위 : %, 중복응답, 수출기업 1,182개사)

구분		환율변동 환차손	해외시장 정보부족	현지마케팅	질차관련 규제	수출 부대비용 부담
전체		57.8	24.5	21.8	18.3	17.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0.9	25.4	20.2	17.0	17.0
	관계기업	41.8	19.9	29.9	24.6	17.2
업종	제조업	59.1	23.2	20.7	20.1	18.5
	비제조업	52.5	29.5	25.9	11.1	11.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5.7	22.6	17.0	18.8	4.2
	1백억원~5백억원미만	43.5	22.7	38.8	13.0	10.3
	5백억원~1천억원미만	55.7	23.1	16.7	20.7	22.0
	1천억원~2천억원미만	53.0	22.7	21.1	19.5	21.4
	2천억원~3천억원미만	65.8	29.0	18.5	21.6	13.7
	3천억원~5천억원미만	72.4	27.6	17.1	17.1	14.5
	5천억원~1조원미만	69.4	22.4	12.3	16.3	24.4
	1조원이상	53.8	23.5	31.1	15.2	15.2
수출여부	수출있음	57.8	24.5	21.8	18.3	17.0
	수출없음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52.3	28.1	25.7	11.6	5.9
	50~100명미만	57.7	16.5	18.2	18.0	25.3
	100~200명미만	51.4	21.6	26.2	19.5	17.9
	200~300명미만	57.4	22.9	23.1	20.3	13.5
	300~500명미만	61.8	25.1	19.3	19.8	22.8
	500~1,000명미만	65.3	28.1	18.2	16.0	16.1
	1,000명이상	52.2	36.1	23.7	21.0	9.1
업력	0~7년미만	38.1	33.9	23.3	12.8	6.3
	7~20년미만	55.4	20.1	27.3	17.1	18.2
	20~30년미만	62.2	23.2	12.8	25.7	18.6
	30~40년미만	65.3	29.7	14.4	19.1	13.0
	40~50년미만	62.6	24.5	26.7	13.7	24.0
	50년이상	48.8	27.2	27.4	14.2	13.2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6.6	24.4	18.9	18.6	16.2
	진입4~5년차	53.6	17.4	22.5	23.9	21.0
	진입6~9년차	60.7	30.9	37.1	4.5	10.6
	진입10년차이상	65.1	30.9	20.7	16.8	17.1
매출유형	B2B	57.8	25.0	19.7	18.9	17.9
	B2C	60.1	15.4	40.0	15.9	12.4
	B2G	35.4	62.5	0.0	0.0	0.0
상장	상장	60.2	27.3	23.4	20.2	19.6
	비상장	56.1	22.5	20.6	16.9	15.2

[표 3-63] 수출시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단위 : %, 중복응답, 수출기업 1,182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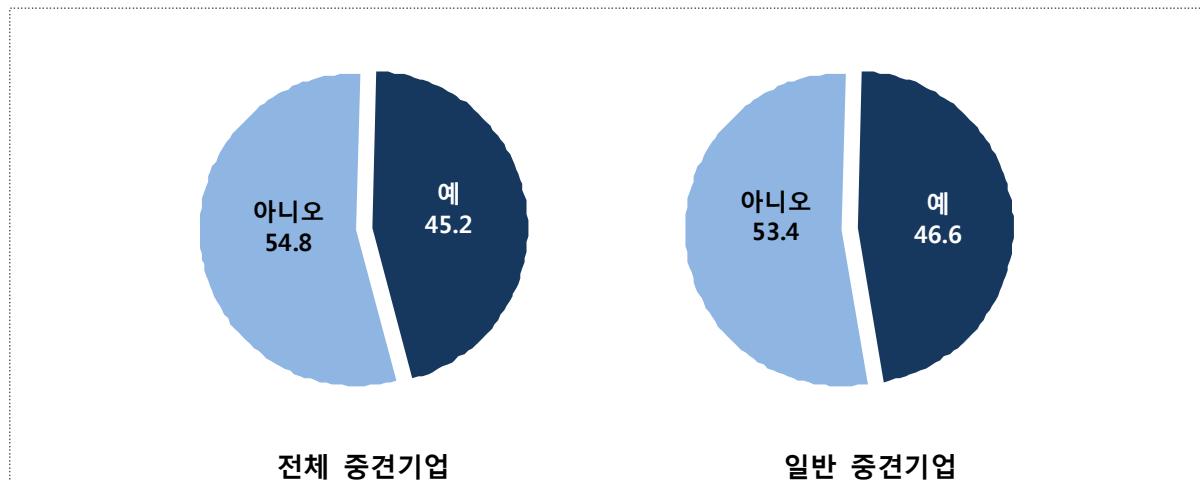
구분		기술규제	수출 전문인력 부족	무역금융 활용애로	기타	없음
전체		9.1	7.0	6.3	1.7	4.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9.3	6.2	7.5	2.0	4.9
	관계기업	7.6	11.1	0.0	0.0	0.0
업종	제조업	10.1	6.5	4.4	0.7	3.7
	비제조업	4.9	9.2	13.4	5.4	5.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22.7	0.0	0.0	8.6
	1백억원~5백억원미만	5.0	7.4	7.5	2.6	2.6
	5백억원~1천억원미만	16.6	14.5	2.1	0.0	2.1
	1천억원~2천억원미만	8.0	5.7	8.1	1.5	6.4
	2천억원~3천억원미만	8.0	5.7	3.3	1.0	4.5
	3천억원~5천억원미만	9.2	5.3	6.6	2.6	1.3
	5천억원~1조원미만	12.3	2.1	8.1	4.2	6.1
	1조원이상	15.2	0.0	15.9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9.1	7.0	6.3	1.7	4.1
	수출없음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4.7	9.7	12.6	6.6	8.5
	50~100명미만	4.9	11.4	5.9	1.4	3.0
	100~200명미만	9.1	12.2	4.4	0.0	5.5
	200~300명미만	8.3	6.5	3.6	1.3	5.8
	300~500명미만	7.3	0.9	4.5	1.9	2.4
	500~1,000명미만	14.6	4.0	9.4	1.9	1.2
	1,000명이상	14.4	6.5	6.5	0.0	5.2
업력	0~7년미만	12.8	10.2	3.1	6.5	8.2
	7~20년미만	8.9	7.2	8.0	1.8	5.8
	20~30년미만	6.2	6.3	4.7	0.8	3.6
	30~40년미만	16.4	5.7	2.4	0.0	2.5
	40~50년미만	4.9	6.0	11.1	1.2	1.2
	50년이상	7.5	9.6	5.5	3.3	4.1
성장단계	진입1~3년차	7.1	8.2	7.0	0.8	6.1
	진입4~5년차	8.8	8.0	4.3	3.0	1.5
	진입6~9년차	18.9	4.0	4.2	2.0	1.9
	진입10년차이상	9.7	4.0	7.9	1.9	3.4
매출유형	B2B	9.1	7.2	6.2	1.7	4.5
	B2C	6.3	5.2	4.1	0.0	2.0
	B2G	25.7	12.2	25.7	11.8	0.0
상장	상장	10.7	5.0	4.9	0.4	3.4
	비상장	7.9	8.4	7.2	2.5	4.7

□ 해외진출 고려 여부

- 중견기업의 45.2%는 향후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반 중견기업은 46.6%가 향후 해외진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2] 해외진출 고려 여부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46.6%, 관계기업의 39.3%가 신규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74.1%, 비제조업의 21.8%가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고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1000명이상 제외),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음
 - 이는 중견기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내수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후 해외시장에서의 입지 확보를 위해 해외로의 신규진출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 내수기업의 10.5%는 신규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음
-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10년차 이상 기업 중 59.7%가 신규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어 타 기업군보다 높게 나타남

[표 3-64] 해외진출 고려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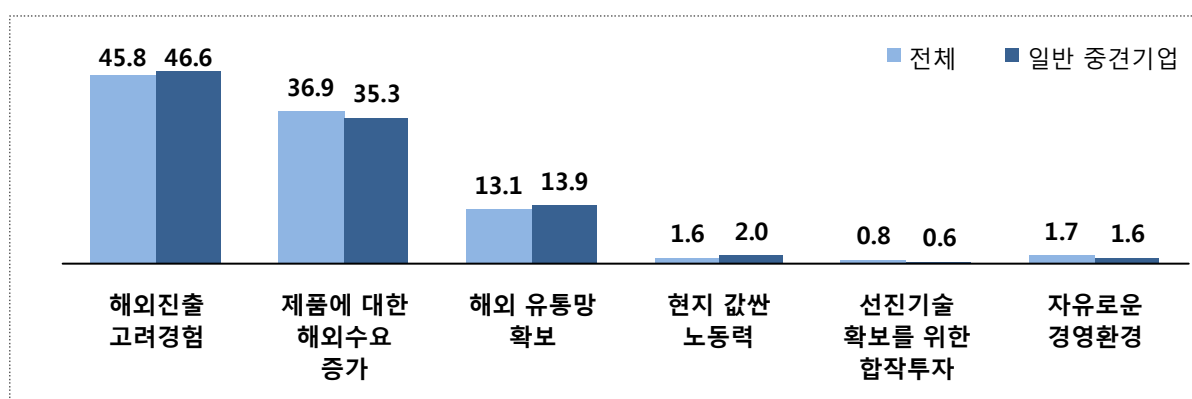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해외진출 고려	해외진출 미고려
전체		(2,979)	45.2	54.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46.6	53.4
	관계기업	(600)	39.3	60.7
업종	제조업	(1,331)	74.1	25.9
	비제조업	(1,648)	21.8	78.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19.8	80.2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23.4	76.6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47.7	52.3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63.9	36.1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69.1	30.9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60.9	39.1
	5천억원~1조원미만	(153)	68.6	31.4
	1조원이상	(51)	86.7	13.3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97.9	2.1
	수출없음	(1,797)	10.5	89.5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18.4	81.6
	50~100명미만	(758)	38.0	62.0
	100~200명미만	(454)	48.9	51.1
	200~300명미만	(289)	66.5	33.5
	300~500명미만	(351)	66.5	33.5
	500~1,000명미만	(301)	81.8	18.2
	1,000명이상	(146)	42.2	57.8
업력	0~7년미만	(583)	24.4	75.6
	7~20년미만	(1,134)	38.9	61.1
	20~30년미만	(550)	49.3	50.7
	30~40년미만	(308)	57.3	42.7
	40~50년미만	(240)	64.5	35.5
	50년이상	(164)	65.1	34.9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42.1	57.9
	진입4~5년차	(750)	43.2	56.8
	진입6~9년차	(220)	47.5	52.5
	진입10년차이상	(361)	59.7	40.3
매출유형	B2B	(2,261)	50.5	49.5
	B2C	(620)	28.3	71.7
	B2G	(98)	29.6	70.4
상장	상장	(644)	75.1	24.9
	비상장	(2,335)	36.2	63.8

□ 해외진출 고려 이유

-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가장 큰 이유는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의 증가(45.8%), 해외 유통망 확보(36.9%), 현지 값싼 노동력(13.1%)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46.6%가 향후 해외진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해외수요의 증가(46.6%), 해외유통망 확보(35.3%), 현지 값싼 노동력(13.9%) 순임

[그림 3-43] 해외진출 고려 이유

(단위: %, 해외진출 고려 기업)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49.3%가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로 인해 해외진출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50.1%가 ‘해외 유통망의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을 고려함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음
- 수출여부에 따라서는 수출기업은 상대적으로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48.0%) 및 ‘해외 유통망의 확보’(34.6%) 때문에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내수기업은 ‘해외 유통망의 확보’(51.1%)를 위해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는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중견기업 진입 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자유로운 경영환경’의 경우 업력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65] 해외진출 고려 이유 : 1순위

(단위 : %, 해외진출 고려 기업 1,347개사)

구분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해외 유통망 확보	현지 값싼 노동력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합작투자	자유로운 경영환경	기타
전체		45.8	36.9	13.1	1.6	0.8	1.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6.6	35.3	13.9	2.0	0.6	1.6
	관계기업	42.0	44.8	9.4	0.0	1.8	2.1
업종	제조업	49.3	32.1	15.8	1.4	0.4	1.0
	비제조업	36.1	50.1	5.8	2.3	1.9	3.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9	57.9	0.0	2.2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35.6	51.1	6.7	4.4	2.2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46.1	36.5	11.0	0.0	0.0	6.5
	1천억원~2천억원미만	46.6	36.3	12.8	0.7	1.7	1.9
	2천억원~3천억원미만	51.9	27.3	18.7	2.0	0.0	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51.3	26.3	21.1	0.0	0.0	1.3
	5천억원~1조원미만	44.1	32.8	19.3	3.8	0.0	0.0
	1조원이상	49.0	36.4	7.0	0.0	0.0	7.7
수출여부	수출있음	48.0	34.6	14.0	1.4	0.6	1.4
	수출없음	32.4	51.1	7.6	3.3	2.2	3.4
종사자수	50명미만	37.0	51.2	4.5	1.1	4.3	1.9
	50~100명미만	48.6	37.0	7.3	2.3	2.2	2.7
	100~200명미만	41.7	41.0	14.1	0.9	0.0	2.2
	200~300명미만	43.3	34.8	19.7	0.0	0.0	2.1
	300~500명미만	50.5	26.3	21.2	2.0	0.0	0.0
	500~1,000명미만	50.2	35.1	10.8	3.1	0.0	0.8
	1,000명이상	47.4	39.6	6.8	2.3	0.0	3.9
업력	0~7년미만	48.7	29.9	14.3	2.3	4.8	0.0
	7~20년미만	44.7	39.3	11.3	2.3	1.4	1.0
	20~30년미만	41.4	43.6	9.5	0.7	0.0	4.7
	30~40년미만	47.5	29.5	19.4	1.3	0.0	2.3
	40~50년미만	49.0	33.0	15.3	2.7	0.0	0.0
	50년이상	50.2	35.5	14.3	0.0	0.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0.3	32.3	14.1	0.3	0.9	2.0
	진입4~5년차	36.6	44.5	12.8	4.0	1.4	0.7
	진입6~9년차	35.5	45.4	15.4	0.0	0.0	3.8
	진입10년차이상	50.4	35.7	9.7	2.8	0.0	1.4
매출유형	B2B	46.9	34.7	13.9	1.8	1.0	1.7
	B2C	41.4	47.9	8.8	0.0	0.0	1.9
	B2G	26.7	60.1	7.3	5.9	0.0	0.0
상장	상장	50.8	29.4	18.8	0.4	0.0	0.7
	비상장	42.7	41.6	9.6	2.4	1.3	2.4

[표 3-66] 해외진출 고려 이유 : 1+2순위

(단위 : %, 해외진출 고려 기업 1,347개사,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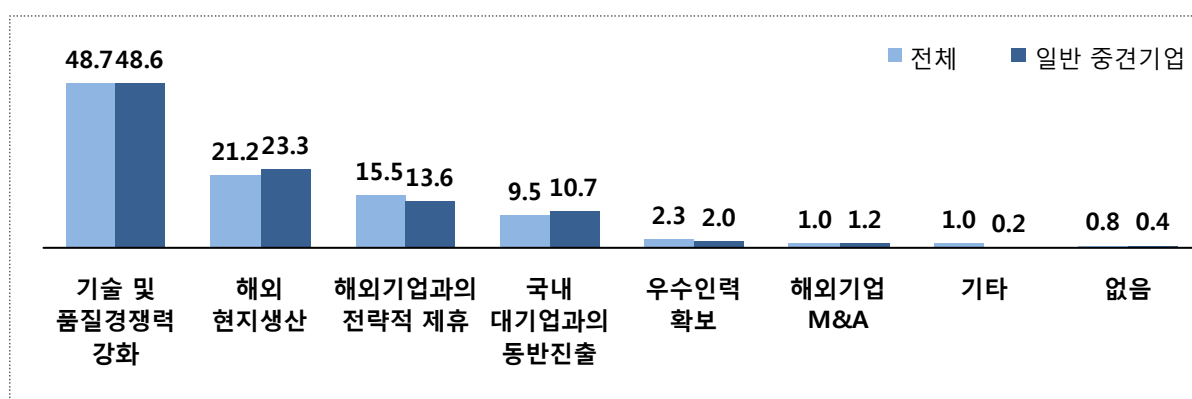
구분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해외 유통망 확보	현지 값싼 노동력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합작투자	자유로운 경영환경	현지 연구인력 채용	기타
전체		66.4	63.6	18.1	4.2	3.6	1.0	2.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6.7	64.0	19.5	5.1	3.6	1.3	2.4
	관계기업	64.6	61.6	11.4	0.0	3.8	0.0	3.3
업종	제조업	70.6	63.0	21.1	4.5	2.7	1.0	1.2
	비제조업	54.7	65.3	9.7	3.6	6.2	1.2	6.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8.4	85.1	0.0	4.3	0.0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64.6	57.6	11.1	4.4	6.6	2.2	2.2
	5백억원~1천억원미만	65.7	56.3	15.7	0.0	2.9	0.0	6.5
	1천억원~2천억원미만	64.6	68.5	19.7	4.1	4.9	2.0	2.7
	2천억원~3천억원미만	70.7	61.8	21.8	4.1	1.9	0.9	1.1
	3천억원~5천억원미만	73.7	61.8	23.7	5.3	2.6	0.0	2.6
	5천억원~1조원미만	67.4	59.5	28.8	5.7	3.8	0.0	0.0
	1조원이상	56.6	64.3	14.0	14.0	0.0	0.0	7.7
수출여부	수출있음	69.4	62.9	19.3	4.0	2.7	1.2	1.8
	수출없음	47.8	67.6	10.2	5.8	9.7	0.0	7.4
종사자수	50명미만	55.1	73.2	10.5	2.1	7.3	0.0	1.9
	50~100명미만	69.7	55.7	9.6	4.8	7.0	0.0	5.1
	100~200명미만	60.6	66.7	16.5	3.1	1.0	2.0	2.2
	200~300명미만	69.4	63.0	26.2	1.2	4.0	1.0	2.1
	300~500명미만	70.5	60.4	26.1	2.8	0.9	0.0	3.2
	500~1,000명미만	71.4	63.2	16.9	7.7	2.9	3.2	0.8
	1,000명이상	61.5	66.6	15.0	11.6	4.6	0.0	3.9
업력	0~7년미만	69.0	65.2	21.2	4.0	9.7	0.0	0.0
	7~20년미만	68.5	65.4	16.3	3.9	6.1	0.5	3.2
	20~30년미만	63.8	64.8	13.1	3.1	0.7	0.0	4.7
	30~40년미만	65.1	58.8	22.8	5.0	1.1	3.4	2.3
	40~50년미만	64.3	64.6	23.5	7.0	1.2	0.0	0.0
	50년이상	67.0	59.5	18.4	3.1	3.7	3.8	1.5
성장단계	진입1~3년차	69.2	63.9	18.8	3.0	4.4	0.3	2.6
	진입4~5년차	58.2	60.7	18.7	4.0	3.4	2.2	3.0
	진입6~9년차	75.4	66.1	17.7	4.0	0.0	0.0	3.8
	진입10년차이상	65.6	65.5	15.2	8.0	3.6	2.0	1.4
매출유형	B2B	66.4	61.1	19.1	4.6	3.9	1.0	2.5
	B2C	68.7	75.2	12.9	1.5	2.7	1.5	3.6
	B2G	51.9	92.7	7.3	5.9	0.0	0.0	0.0
상장	상장	73.4	65.7	26.6	3.7	2.0	0.9	1.1
	비상장	62.0	62.3	12.7	4.5	4.6	1.1	3.5

□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중견기업의 해외수출(진출)시 전략으로는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48.7%), 해외 현지생산(21.2%),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15.5%)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해외수출(진출)시 전략은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48.6%), 해외 현지생산(23.3%),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13.6%) 순임

[그림 3-44]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

(단위: %)



특성별 분석

- 제조업(51.8%), 비제조업(40.2%) 모두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가장 우선적인 해외진출 전략이라고 응답함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해외 현지생산’을 우선적 해외진출전략으로 선택한 기업의 비중이 높고 매출액이 낮은 기업일수록 ‘우수인력의 확보’를 선택한 기업의 비중이 높음
-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 업력이 짧은 기업일수록 ‘우수인력의 확보’를 우선전략으로 선택한 기업의 비중이 높음
-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1~3년차 기업의 약 40%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선택했으며, 진입 10년차 이상 기업은 다른 기업군에 비해 ‘해외 현지생산’을 고려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 진입 6~9년차 기업의 경우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가 다른 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표 3-67]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	해외 현지생산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전체		(2,979)	48.7	21.2	15.5	9.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48.6	23.3	13.6	10.7
	관계기업	(600)	49.2	11.1	24.3	4.1
업종	제조업	(1,331)	51.8	25.5	11.9	7.8
	비제조업	(1,648)	40.2	9.4	25.3	14.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49.7	2.2	13.0	4.3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52.8	15.4	27.4	2.2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58.5	12.7	12.3	16.4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48.4	24.3	12.2	9.4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53.6	26.4	9.1	5.9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38.2	29.0	17.1	14.5
	5천억원~1조원미만	(153)	38.5	26.8	9.6	19.2
	1조원이상	(51)	28.0	21.0	44.1	7.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50.0	22.9	14.9	8.9
	수출없음	(1,797)	40.5	10.9	18.9	13.6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47.4	16.0	13.4	8.5
	50~100명미만	(758)	53.3	19.7	11.4	7.7
	100~200명미만	(454)	61.9	10.9	15.9	8.2
	200~300명미만	(289)	43.0	25.5	19.4	9.4
	300~500명미만	(351)	45.9	32.3	11.9	8.8
	500~1,000명미만	(301)	46.8	22.2	14.2	11.7
	1,000명이상	(146)	34.6	16.0	29.6	15.1
업력	0~7년미만	(583)	51.0	19.0	13.4	4.0
	7~20년미만	(1,134)	51.3	15.1	17.3	8.5
	20~30년미만	(550)	49.9	26.9	12.6	7.4
	30~40년미만	(308)	46.1	28.4	11.5	11.6
	40~50년미만	(240)	40.9	23.9	17.8	17.3
	50년이상	(164)	48.9	17.3	19.9	8.7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48.1	21.3	14.6	9.6
	진입4~5년차	(750)	51.8	19.9	12.0	10.4
	진입6~9년차	(220)	48.1	17.1	25.4	7.3
	진입10년차이상	(361)	46.5	24.5	17.8	9.2
매출유형	B2B	(2,261)	51.3	22.3	11.9	10.6
	B2C	(620)	33.5	17.4	35.7	1.5
	B2G	(98)	36.7	0.0	33.5	15.0
상장	상장	(644)	44.5	25.9	14.7	11.3
	비상장	(2,335)	51.3	18.2	15.9	8.4

[표 3-68]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계속)

(단위 : %)

구분		사례수	우수인력 확보	해외기업 M&A	기타	없음
전체		(2,979)	2.3	1.0	1.0	0.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2.0	1.2	0.2	0.4
	관계기업	(600)	4.2	0.0	4.7	2.4
업종	제조업	(1,331)	1.3	1.0	0.6	0.3
	비제조업	(1,648)	5.2	1.2	2.2	2.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9.4	0.0	14.3	7.3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2.2	0.0	0.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0.0	0.0	0.0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2.4	1.3	0.6	1.3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2.0	3.1	0.0	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1.3	0.0	0.0	0.0
	5천억원~1조원미만	(153)	4.0	1.9	0.0	0.0
	1조원이상	(51)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1.5	0.8	0.2	0.9
	수출없음	(1,797)	7.7	2.4	5.9	0.0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6.1	0.0	7.2	1.4
	50~100명미만	(758)	3.7	0.0	1.1	3.0
	100~200명미만	(454)	3.1	0.0	0.0	0.0
	200~300명미만	(289)	1.8	1.0	0.0	0.0
	300~500명미만	(351)	0.0	1.0	0.0	0.0
	500~1,000명미만	(301)	0.9	3.1	0.0	1.1
	1,000명이상	(146)	2.4	2.3	0.0	0.0
업력	0~7년미만	(583)	8.2	4.4	0.0	0.0
	7~20년미만	(1,134)	3.2	0.5	2.4	1.7
	20~30년미만	(550)	1.6	0.8	0.8	0.0
	30~40년미만	(308)	0.0	1.2	0.0	1.3
	40~50년미만	(240)	0.0	0.0	0.0	0.0
	50년이상	(164)	3.2	2.1	0.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3.1	1.3	1.7	0.3
	진입4~5년차	(750)	2.7	0.7	0.0	2.5
	진입6~9년차	(220)	0.0	0.0	2.0	0.0
	진입10년차이상	(361)	0.9	1.1	0.0	0.0
매출유형	B2B	(2,261)	1.2	0.6	1.2	0.9
	B2C	(620)	8.0	3.9	0.0	0.0
	B2G	(98)	14.8	0.0	0.0	0.0
상장	상장	(644)	2.2	1.4	0.0	0.0
	비상장	(2,335)	2.5	0.8	1.6	1.3

[표 3-69]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2순위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해외 현지생산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전체		(2,979)	61.2	34.9	26.4	19.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62.0	33.8	29.3	20.4
	관계기업	(600)	57.4	40.1	12.9	14.3
업종	제조업	(1,331)	65.2	35.2	31.2	16.7
	비제조업	(1,648)	50.1	34.2	13.1	26.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65.5	17.3	2.2	8.6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55.0	42.7	15.4	20.4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66.2	34.4	14.4	19.9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61.1	32.8	30.4	20.3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69.4	29.9	31.4	17.4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59.2	39.5	40.8	23.7
	5천억원~1조원미만	(153)	55.7	32.6	38.3	21.2
	1조원이상	(51)	42.0	65.0	28.0	14.7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63.2	34.0	28.7	18.8
	수출없음	(1,797)	48.8	40.3	12.0	23.0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64.2	24.7	16.0	17.8
	50~100명미만	(758)	58.3	19.8	20.7	22.5
	100~200명미만	(454)	66.8	42.5	16.3	13.4
	200~300명미만	(289)	55.7	35.6	31.5	22.4
	300~500명미만	(351)	66.3	35.4	35.5	17.2
	500~1,000명미만	(301)	61.5	38.5	32.5	20.4
	1,000명이상	(146)	47.5	54.2	28.8	25.1
업력	0~7년미만	(583)	76.9	27.7	21.1	4.0
	7~20년미만	(1,134)	61.2	37.1	21.0	22.8
	20~30년미만	(550)	61.5	24.6	32.6	21.4
	30~40년미만	(308)	56.9	40.9	30.3	20.0
	40~50년미만	(240)	58.1	37.1	33.7	20.6
	50년이상	(164)	59.6	42.3	20.7	10.8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62.5	32.5	26.5	17.6
	진입4~5년차	(750)	63.2	27.9	24.2	19.7
	진입6~9년차	(220)	57.7	49.5	20.8	31.4
	진입10년차이상	(361)	56.3	44.7	31.7	18.2
매출유형	B2B	(2,261)	63.7	32.2	27.2	19.0
	B2C	(620)	47.8	49.7	24.0	19.0
	B2G	(98)	42.6	51.1	7.5	34.3
상장	상장	(644)	61.2	40.7	35.6	17.8
	비상장	(2,335)	61.2	31.3	20.7	20.3

[표 3-70]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2순위(계속)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우수인력 확보	해외기업 M&A	기타	없음
전체		(2,979)	10.1	2.5	1.3	0.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9.4	3.0	0.6	0.4
	관계기업	(600)	13.5	0.0	4.7	2.4
업종	제조업	(1,331)	8.1	2.1	0.8	0.3
	비제조업	(1,648)	15.7	3.5	2.8	2.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18.5	2.2	14.3	7.3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13.2	0.0	0.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11.7	0.0	0.0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10.5	2.6	1.3	1.3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7.1	5.0	0.0	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6.6	1.3	0.0	0.0
	5천억원~1조원미만	(153)	9.8	5.7	2.0	0.0
	1조원이상	(51)	0.0	7.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8.9	2.3	0.6	0.9
	수출없음	(1,797)	17.6	3.6	5.9	0.0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13.5	1.4	7.2	1.4
	50~100명미만	(758)	16.8	0.0	1.1	3.0
	100~200명미만	(454)	10.7	0.0	0.0	0.0
	200~300명미만	(289)	9.8	4.8	1.2	0.0
	300~500명미만	(351)	6.9	1.9	0.0	0.0
	500~1,000명미만	(301)	6.5	4.8	0.9	1.1
	1,000명이상	(146)	7.1	5.8	0.0	0.0
업력	0~7년미만	(583)	14.0	8.4	0.0	0.0
	7~20년미만	(1,134)	12.0	1.4	2.4	1.7
	20~30년미만	(550)	13.0	2.4	0.8	0.0
	30~40년미만	(308)	4.2	2.7	1.3	1.3
	40~50년미만	(240)	2.7	1.2	0.0	0.0
	50년이상	(164)	13.0	3.6	1.6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10.9	3.0	2.1	0.3
	진입4~5년차	(750)	9.3	0.7	0.0	2.5
	진입6~9년차	(220)	7.4	1.8	2.0	0.0
	진입10년차이상	(361)	10.5	4.1	0.9	0.0
매출유형	B2B	(2,261)	8.9	2.2	1.4	0.9
	B2C	(620)	15.8	5.1	0.0	0.0
	B2G	(98)	22.3	0.0	7.3	0.0
상장	상장	(644)	8.1	4.1	0.5	0.0
	비상장	(2,335)	11.4	1.5	1.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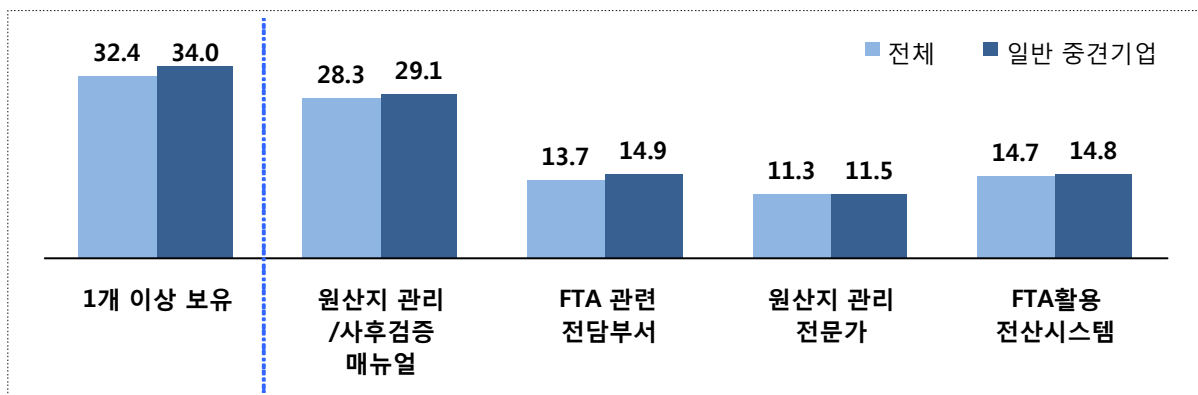
3. FTA 활용

□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 중견기업의 32.4%는 1개 이상의 FTA 내부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관리/사후검증 매뉴얼(28.3%), FTA활용 전산시스템(14.7%), FTA 관련 전담부서(13.7%) 순으로 구축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34.0%가 1개 이상의 FTA 내부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관리/사후검증 매뉴얼(29.1%), FTA관련 전담부서(14.9%), FTA활용 전산시스템(14.8%) 순으로 구축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3-45]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34.0%가 FTA 활용을 위해 1개 이상의 시스템을 구축함
- 가장 많이 구축한 시스템은 ‘원산지 관리 및 사후검증 매뉴얼’로 전체 일반 중견기업의 29.1%가 해당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FTA 관련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도 14.9%로 나타남
- 관계기업의 경우 24.5%가 FTA 활용을 위해 1개 이상의 시스템을 보유 하고 있으며 ‘원산지 관리 및 사후검증 매뉴얼’ 보유 비율은 24.5%, ‘FTA활용을 위한 전산 시스템’ 보유 비율은 14.3%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39.5%가 FTA활용을 위한 내부시스템을 1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반면 비제조업은 12.8%만이 관련 시스템을 보유함
-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FTA활용을 위한 내부시스템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규모 1천억원 미만 기업의 FTA활용 내부 시스템 구축 비율은 약 30%에 그쳤으나, 1조원 이상 기업은 약 50% 구축
 - 특히 1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원산지관리 및 사후검증매뉴얼’ 보유율 42.0%, ‘FTA관련 전담부서’ 보유율 21.0%, ‘FTA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보유율 28.0% 등 다른 규모의 기업에 비해 시스템별 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수출기업의 FTA활용 내부 시스템 구축 비율은 35.4%로 내수기업의 14.0%보다 2배 이상 많게 나타남
-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10년차이상 기업의 42.1%가 1개 이상의 시스템을 구축한 반면, 진입 4~5년차 기업의 구축률은 27.7%로 가장 낮음
- 매출 유형별로는 B2B 기업의 35.1%가 1개 이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상장기업의 시스템 구축률은 39.0%로 비상장 기업 28.2%보다 구축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71]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1개 이상 시스템 구축	FTA활용 내부시스템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매뉴얼	FTA관련 전담부서	원산지관리 전문가	FTA활용 전산시스템
전체		(2,979)	32.4	28.3	13.7	11.3	14.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34.0	29.1	14.9	11.5	14.8
	관계기업	(600)	24.5	24.5	7.9	10.6	14.3
업종	제조업	(1,331)	39.5	35.1	17.1	14.1	18.8
	비제조업	(1,648)	12.8	9.5	4.3	3.7	3.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11.3	11.3	2.2	9.2	2.2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13.4	11.1	0.0	2.2	6.8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32.0	30.2	13.9	16.9	14.7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31.9	28.5	18.0	8.6	12.2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35.8	31.6	16.8	14.8	21.2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44.8	38.2	18.4	15.8	21.1
	5천억원~1조원미만	(153)	55.5	44.0	17.3	19.2	19.3
	1조원이상	(51)	49.0	42.0	21.0	7.0	28.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35.4	30.8	14.9	12.1	16.1
	수출없음	(1,797)	14.0	12.9	6.2	6.6	5.8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31.5	25.3	8.9	12.6	7.2
	50~100명미만	(758)	9.9	8.8	2.9	2.4	2.4
	100~200명미만	(454)	28.5	25.3	14.5	6.7	14.8
	200~300명미만	(289)	32.3	28.6	9.4	8.3	15.2
	300~500명미만	(351)	33.3	31.3	21.0	14.9	18.0
	500~1,000명미만	(301)	51.0	43.3	20.4	20.7	22.2
	1,000명이상	(146)	40.2	34.3	17.6	12.8	23.9
업력	0~7년미만	(583)	34.7	34.7	5.5	8.4	12.5
	7~20년미만	(1,134)	32.0	29.5	15.1	12.6	12.5
	20~30년미만	(550)	23.3	16.6	12.5	8.1	13.3
	30~40년미만	(308)	37.6	33.4	20.2	17.0	26.8
	40~50년미만	(240)	34.1	29.3	8.7	10.8	13.6
	50년이상	(164)	41.4	35.4	13.1	7.2	9.1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30.3	26.1	13.0	11.1	13.4
	진입4~5년차	(750)	27.7	25.7	11.8	8.2	14.1
	진입6~9년차	(220)	37.9	31.7	13.7	17.2	14.8
	진입10년차이상	(361)	42.1	36.3	18.5	13.5	18.9
매출유형	B2B	(2,261)	35.1	30.3	14.7	12.6	15.8
	B2C	(620)	20.2	20.2	9.4	4.7	9.8
	B2G	(98)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644)	39.0	34.8	15.8	15.2	14.8
	비상장	(2,335)	28.2	24.3	12.4	8.9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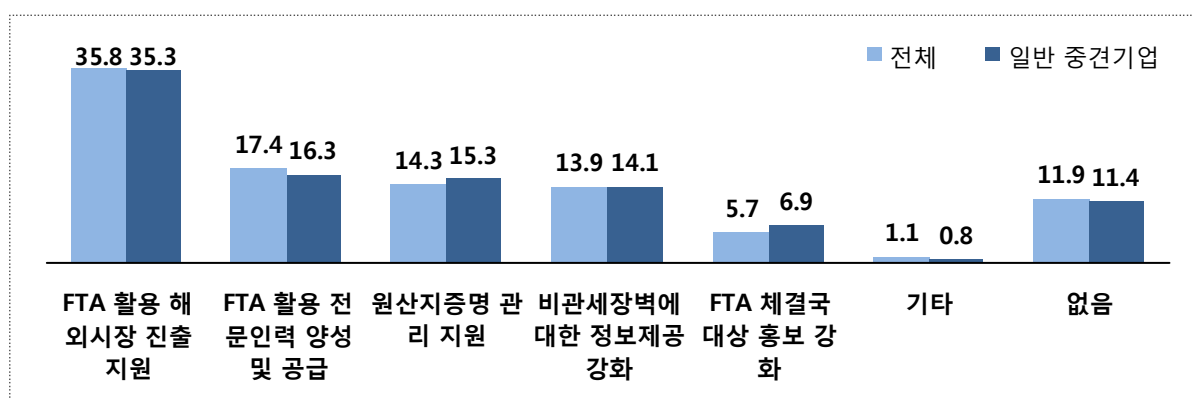
□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중견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으로는 FTA 활용해외시장 진출지원(35.8%)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17.4%),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14.3%),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13.9%)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은 FTA 활용해외시장 진출지원(35.3%),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16.3%),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15.3%) 순임

[그림 3-46]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

(단위: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37.5%, 비제조업의 30.9%가 ‘FTA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비제조업은 특성 상 FTA활용이 어려운 업종이 많아 ‘정부지원 필요없음’ 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FTA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높음
- 중견기업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6년차 이상 기업의 40% 이상이 ‘FTA 활용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진입 5년차 이하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FTA활용 전문 인력 양성 및 공급’ 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음

[표 3-72]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
전체		(2,979)	35.8	17.4	14.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35.3	16.3	15.3
	관계기업	(600)	38.1	22.5	9.6
업종	제조업	(1,331)	37.5	18.5	16.8
	비제조업	(1,648)	30.9	14.3	7.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34.8	18.6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33.6	28.8	9.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45.3	11.1	8.1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37.9	14.4	16.4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33.6	18.4	12.6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30.3	17.1	23.7
	5천억원~1조원미만	(153)	30.6	13.4	19.3
	1조원이상	(51)	35.7	14.7	35.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36.4	17.0	15.1
	수출없음	(1,797)	32.0	19.5	9.1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42.7	16.1	5.6
	50~100명미만	(758)	31.9	16.7	10.9
	100~200명미만	(454)	36.6	24.3	8.4
	200~300명미만	(289)	36.9	10.4	21.5
	300~500명미만	(351)	33.2	18.3	14.8
	500~1,000명미만	(301)	34.3	19.3	16.5
	1,000명이상	(146)	37.7	13.6	25.7
업력	0~7년미만	(583)	26.7	18.7	24.8
	7~20년미만	(1,134)	40.8	14.9	12.9
	20~30년미만	(550)	33.5	18.6	14.0
	30~40년미만	(308)	34.0	24.1	14.4
	40~50년미만	(240)	35.1	10.8	15.6
	50년이상	(164)	32.9	20.2	10.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33.2	18.7	13.5
	진입4~5년차	(750)	36.4	19.2	13.1
	진입6~9년차	(220)	40.2	14.5	16.4
	진입10년차이상	(361)	40.0	12.2	17.1
매출유형	B2B	(2,261)	34.0	16.3	15.6
	B2C	(620)	49.0	22.5	8.1
	B2G	(98)	23.3	28.4	0.0
상장	상장	(644)	35.5	18.1	20.4
	비상장	(2,335)	35.9	16.9	10.5

[표 3-73]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계속)

(단위 : %)

구분		사례수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FTA 체결국 대상 홍보 강화	기타	없음
전체		(2,979)	13.9	5.7	1.1	11.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4.1	6.9	0.8	11.4
	관계기업	(600)	13.3	0.0	2.3	14.2
업종	제조업	(1,331)	13.7	5.4	1.3	6.8
	비제조업	(1,648)	14.5	6.4	0.6	25.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11.3	2.1	7.1	26.1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11.1	6.5	0.0	11.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13.4	8.7	0.0	13.4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11.9	5.5	1.4	12.5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18.5	5.0	0.9	11.1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21.1	2.6	1.3	3.9
	5천억원~1조원미만	(153)	15.3	7.6	0.0	13.7
	1조원이상	(51)	0.0	7.7	0.0	7.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15.3	5.5	0.8	9.9
	수출없음	(1,797)	5.7	6.9	2.9	23.9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10.0	3.9	3.5	18.1
	50~100명미만	(758)	19.1	2.3	0.0	19.0
	100~200명미만	(454)	9.8	10.0	1.2	9.7
	200~300명미만	(289)	16.0	3.4	0.0	11.9
	300~500명미만	(351)	15.7	7.3	0.9	9.8
	500~1,000명미만	(301)	14.3	5.8	2.0	7.8
	1,000명이상	(146)	9.6	6.2	0.0	7.3
업력	0~7년미만	(583)	16.3	1.7	0.0	11.9
	7~20년미만	(1,134)	11.5	5.3	1.6	13.1
	20~30년미만	(550)	11.7	12.7	0.0	9.4
	30~40년미만	(308)	13.5	4.7	0.0	9.3
	40~50년미만	(240)	19.5	1.3	2.9	14.7
	50년이상	(164)	19.6	1.6	2.1	13.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14.3	6.9	0.8	12.5
	진입4~5년차	(750)	13.3	4.1	0.8	13.1
	진입6~9년차	(220)	11.9	3.6	1.8	11.6
	진입10년차이상	(361)	14.7	5.3	2.0	8.7
매출유형	B2B	(2,261)	15.0	5.1	1.1	12.8
	B2C	(620)	7.9	7.1	1.5	3.9
	B2G	(98)	7.6	17.6	0.0	23.2
상장	상장	(644)	15.7	3.5	1.4	5.4
	비상장	(2,335)	12.9	7.0	0.9	15.9

[표 3-74]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2순위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전체		(2,979)	45.9	33.1	31.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46.7	31.9	31.2
	관계기업	(600)	42.2	38.6	33.8
업종	제조업	(1,331)	49.0	35.2	32.7
	비제조업	(1,648)	37.5	27.2	28.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37.0	20.8	22.6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37.9	39.9	29.2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56.3	27.5	29.2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51.3	36.8	26.6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47.8	32.2	31.9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39.5	35.5	50.0
	5천억원~1조원미만	(153)	42.1	30.7	30.7
	1조원이상	(51)	35.7	14.7	49.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46.9	32.9	33.3
	수출없음	(1,797)	40.0	34.1	21.6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45.3	26.2	26.7
	50~100명미만	(758)	34.6	32.3	35.8
	100~200명미만	(454)	51.8	39.1	28.1
	200~300명미만	(289)	50.2	26.6	33.4
	300~500명미만	(351)	45.7	37.1	32.9
	500~1,000명미만	(301)	47.4	34.2	27.6
	1,000명이상	(146)	42.4	34.8	43.6
업력	0~7년미만	(583)	34.6	21.2	31.9
	7~20년미만	(1,134)	49.3	28.3	31.7
	20~30년미만	(550)	45.1	40.4	25.7
	30~40년미만	(308)	47.1	43.9	34.0
	40~50년미만	(240)	42.9	25.2	38.1
	50년이상	(164)	45.7	35.8	32.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45.2	31.3	29.0
	진입4~5년차	(750)	42.3	38.7	28.5
	진입6~9년차	(220)	55.5	34.8	44.9
	진입10년차이상	(361)	48.5	29.6	37.5
매출유형	B2B	(2,261)	44.4	31.7	32.0
	B2C	(620)	56.7	39.5	31.4
	B2G	(98)	38.2	49.2	17.7
상장	상장	(644)	48.7	39.6	37.7
	비상장	(2,335)	44.2	29.0	27.9

[표 3-75]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2순위(계속)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	FTA 체결국 대상 홍보 강화	기타	없음
전체		(2,979)	25.5	15.0	1.5	11.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27.6	16.1	0.8	11.4
	관계기업	(600)	15.7	10.1	4.4	14.2
업종	제조업	(1,331)	30.5	15.1	1.8	6.8
	비제조업	(1,648)	11.8	14.7	0.6	25.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11.3	17.6	7.1	26.1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17.7	17.5	0.0	11.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16.1	15.0	2.9	13.4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26.6	14.0	1.4	12.5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27.3	14.0	0.9	11.1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35.6	15.8	1.3	3.9
	5천억원~1조원미만	(153)	40.2	9.5	0.0	13.7
	1조원이상	(51)	35.0	22.4	0.0	7.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27.1	15.8	1.2	9.9
	수출없음	(1,797)	15.8	10.1	2.9	23.9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13.4	14.5	3.5	18.1
	50~100명미만	(758)	21.5	15.7	0.0	19.0
	100~200명미만	(454)	25.0	18.7	1.2	9.7
	200~300명미만	(289)	27.8	11.2	2.2	11.9
	300~500명미만	(351)	25.8	14.1	0.9	9.8
	500~1,000명미만	(301)	32.0	15.3	2.0	7.8
	1,000명이상	(146)	32.6	16.5	0.0	7.3
업력	0~7년미만	(583)	34.8	11.5	0.0	11.9
	7~20년미만	(1,134)	25.2	16.0	2.6	13.1
	20~30년미만	(550)	21.5	20.6	0.0	9.4
	30~40년미만	(308)	23.2	10.9	0.0	9.3
	40~50년미만	(240)	30.4	16.0	2.9	14.7
	50년이상	(164)	26.2	7.1	2.1	13.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24.7	16.9	0.8	12.5
	진입4~5년차	(750)	23.3	14.5	2.3	13.1
	진입6~9년차	(220)	25.0	7.8	1.8	11.6
	진입10년차이상	(361)	30.9	13.8	2.0	8.7
매출유형	B2B	(2,261)	27.4	15.0	1.5	12.8
	B2C	(620)	17.4	12.6	1.5	3.9
	B2G	(98)	0.0	29.4	0.0	23.2
상장	상장	(644)	32.4	12.5	2.4	5.4
	비상장	(2,335)	21.2	16.5	0.9	15.9

6절 수·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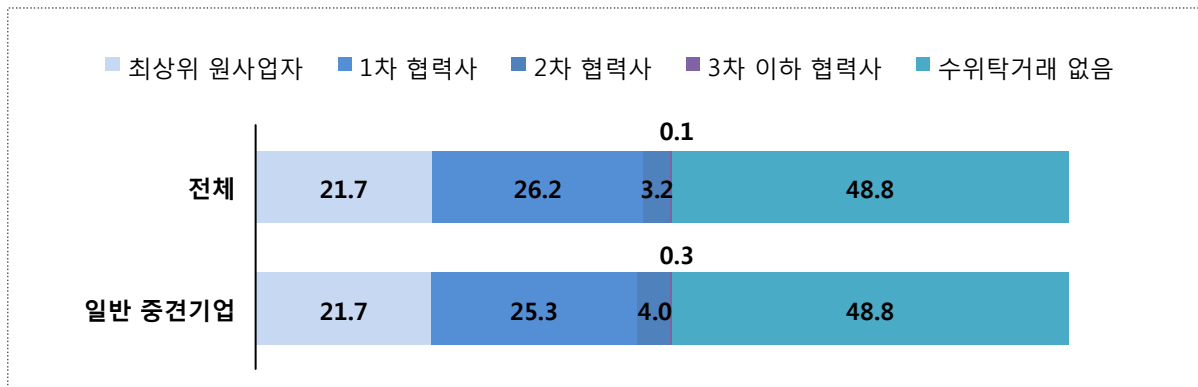
1. 수·위탁 거래 현황

□ 수·위탁 거래 단계

- 중견기업의 51.2%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으며, 일반 중견기업 역시 51.2%가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계별로는 1차 협력사인 경우가 26.2%로 가장 많았고 최상위 원사업자인 경우가 21.7%, 2차 협력사인 경우가 3.2%, 3차 이하 협력사인 경우가 0.1%순임

[그림 3-47] 수·위탁거래 단계

(단위: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일반 중견기업이 51.2%, 관계기업이 51.4%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26.2%가 1차 협력사, 21.7%는 최상위 원사업자, 3.2%는 2차 협력사이며 관계기업은 일반 중견기업에 비해 2차 협력사 비중은 높고 1차 협력사, 최상위 원사업자 비중은 낮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65.6%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은 39.6%만이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수·위탁거래 단계를 보면, 매출액 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최상위 원사업자의 비중이 높음

[표 3-76] 수·위탁거래 단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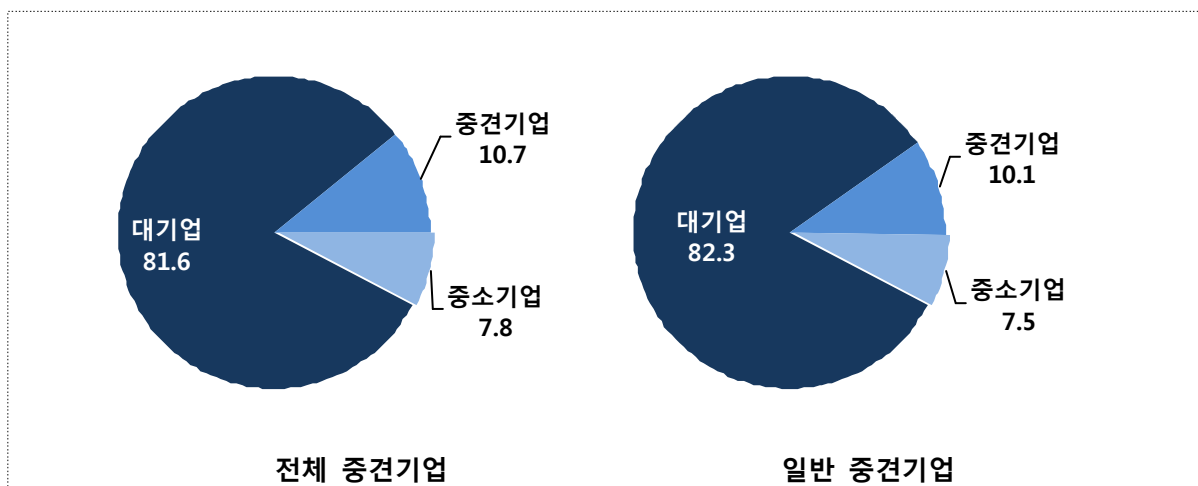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하도금 관계없음	최상위 원사업자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이하 협력사
전체		(2,979)	48.8	21.7	25.3	4.0	0.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48.8	21.7	26.2	3.2	0.1
	관계기업	(600)	48.6	21.7	21.7	7.2	0.8
업종	제조업	(1,331)	34.4	22.7	34.3	8.1	0.6
	비제조업	(1,648)	60.4	20.9	18.0	0.7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67.0	15.6	15.6	1.8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61.0	15.9	19.4	3.7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41.5	23.0	25.6	8.5	1.4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38.4	22.8	33.0	5.3	0.5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36.8	25.0	34.6	3.6	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34.3	29.6	34.5	1.6	0.0
	5천억원~1조원미만	(153)	40.4	31.9	25.1	2.6	0.0
	1조원이상	(51)	37.6	56.4	6.1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35.3	25.2	33.6	5.3	0.6
	수출없음	(1,797)	57.7	19.3	19.8	3.2	0.0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61.2	17.1	16.7	5.1	0.0
	50~100명미만	(758)	55.6	17.5	23.9	2.1	1.0
	100~200명미만	(454)	44.2	19.8	28.6	7.3	0.0
	200~300명미만	(289)	40.1	31.4	25.7	2.1	0.8
	300~500명미만	(351)	40.0	24.2	33.2	2.7	0.0
	500~1,000명미만	(301)	31.7	29.9	34.4	4.0	0.0
	1,000명이상	(146)	44.5	23.1	29.6	2.8	0.0
업력	0~7년미만	(583)	53.4	23.3	19.2	4.2	0.0
	7~20년미만	(1,134)	53.8	15.7	26.4	3.7	0.4
	20~30년미만	(550)	45.1	25.7	24.3	4.9	0.0
	30~40년미만	(308)	34.3	24.7	37.4	3.6	0.0
	40~50년미만	(240)	46.0	28.3	19.4	5.3	1.0
	50년이상	(164)	50.4	29.4	18.2	2.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48.7	20.3	26.5	4.4	0.2
	진입4~5년차	(750)	56.1	18.6	19.9	4.7	0.6
	진입6~9년차	(220)	40.0	23.6	34.5	1.9	0.0
	진입10년차이상	(361)	40.6	32.1	24.9	2.5	0.0
매출유형	B2B	(2,261)	44.8	19.6	30.0	5.2	0.3
	B2C	(620)	67.2	25.5	7.0	0.3	0.0
	B2G	(98)	24.4	45.1	30.4	0.0	0.0
상장	상장	(644)	32.8	31.4	31.6	3.8	0.4
	비상장	(2,335)	53.6	18.8	23.4	4.1	0.2

□ 위탁거래 현황

- 하도급관계가 있는 중견기업의 거래대상별 매출 비중을 보면 81.6%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10.7%는 중견기업, 7.8%는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82.3%가 대기업과의 거래를 하고 있으며, 10.1%는 중견기업, 7.5%는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8] 위탁거래기업과의 거래 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 기업)



특성별 분석

- 매출규모가 클수록 대기업과의 거래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조원이상 기업은 대기업만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 50~100명미만 기업은 타 규모에 비해 중소기업(22.9%)과의 거래비중이, 100~200명미만 기업은 중견기업(20.7%)과의 거래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3-77] 위탁거래 현황

(단위 : %, 백만원, 하도급 관계 기업 88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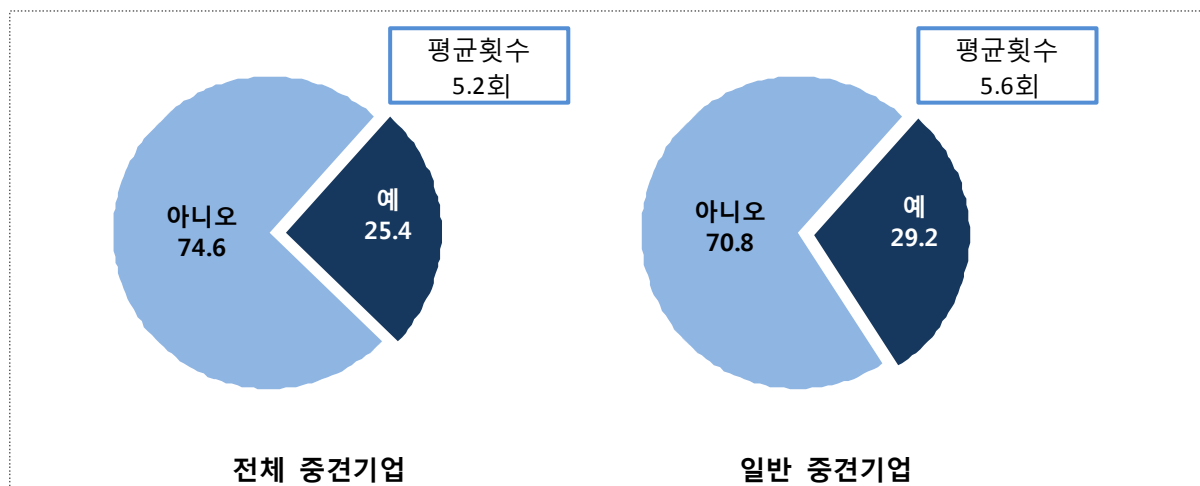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비율
전체		117,272.7	100	95,675.7	81.6	12,503.1	10.7	9,093.9	7.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40,661.6	100	115,833.7	82.3	14,240.0	10.1	10,588.0	7.5
	관계기업	28,242.3	100	18,944.0	67.1	5,891.7	20.9	3,406.7	12.1
업종	제조업	144,181.5	100	118,429.7	82.1	13,627.2	9.5	12,124.6	8.4
	비제조업	67,727.0	100	53,779.9	79.4	10,433.6	15.4	3,513.5	5.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047.6	100	1,944.0	48.0	1,551.2	38.3	552.4	13.6
	1백억원~5백억원미만	17,226.8	100	8,419.1	48.9	6,619.5	38.4	2,188.2	12.7
	5백억원~1천억원미만	57,678.6	100	47,690.0	82.7	8,659.6	15.0	1,329.0	2.3
	1천억원~2천억원미만	98,116.6	100	78,365.0	79.9	11,380.4	11.6	8,371.2	8.5
	2천억원~3천억원미만	182,317.1	100	143,866.0	78.9	21,914.0	12.0	16,537.1	9.1
	3천억원~5천억원미만	283,978.6	100	233,577.4	82.3	22,751.9	8.0	27,649.3	9.7
	5천억원~1조원미만	527,252.0	100	472,563.3	89.6	29,485.6	5.6	25,203.1	4.8
	1조원이상	390,000.0	100	390,000.0	100.0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167,761.0	100	143,002.3	85.2	14,792.6	8.8	9,966.1	5.9
	수출없음	60,864.7	100	42,800.0	70.3	9,945.3	16.3	8,119.4	13.3
종사자수	50명미만	29,552.8	100	22,777.8	77.1	5,531.5	18.7	1,243.5	4.2
	50~100명미만	64,105.2	100	39,763.9	62.0	9,663.4	15.1	14,677.8	22.9
	100~200명미만	97,013.5	100	70,580.4	72.8	20,041.9	20.7	6,391.1	6.6
	200~300명미만	150,553.3	100	122,115.6	81.1	13,685.5	9.1	14,752.3	9.8
	300~500명미만	191,376.4	100	175,342.5	91.6	10,894.2	5.7	5,139.7	2.7
	500~1,000명미만	229,423.8	100	185,491.4	80.9	20,309.2	8.9	23,623.2	10.3
	1,000명이상	161,340.8	100	148,458.5	92.0	9,561.9	5.9	3,320.4	2.1
업력	0~7년미만	62,135.8	100	41,432.8	66.7	13,669.8	22.0	7,033.2	11.3
	7~20년미만	94,493.6	100	83,361.2	88.2	7,708.0	8.2	3,424.4	3.6
	20~30년미만	133,903.0	100	114,400.8	85.4	14,007.0	10.5	5,495.2	4.1
	30~40년미만	167,189.9	100	124,853.7	74.7	14,768.1	8.8	27,568.0	16.5
	40~50년미만	125,876.2	100	98,476.1	78.2	16,729.9	13.3	10,670.2	8.5
	50년이상	183,095.0	100	138,843.6	75.8	33,386.7	18.2	10,864.7	5.9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11,808.8	100	89,600.1	80.1	12,259.5	11.0	9,949.2	8.9
	진입4~5년차	78,365.2	100	61,764.6	78.8	10,757.8	13.7	5,842.8	7.5
	진입6~9년차	117,455.3	100	94,119.2	80.1	10,352.2	8.8	12,983.9	11.1
	진입10년차이상	218,432.0	100	191,612.2	87.7	18,773.0	8.6	8,046.9	3.7
매출유형	B2B	121,347.9	100	99,375.5	81.9	12,553.9	10.3	9,418.5	7.8
	B2C	103,987.4	100	77,550.8	74.6	18,030.4	17.3	8,406.2	8.1
	B2G	30,485.2	100	26,170.7	85.8	2,702.4	8.9	1,612.1	5.3
상장	상장	186,242.5	100	155,592.0	83.5	18,811.2	10.1	11,839.3	6.4
	비상장	90,158.3	100	72,120.5	80.0	10,023.2	11.1	8,014.6	8.9

□ 납품단가 인하

- 중견기업의 25.4%는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균 5.2회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29.2%가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균 5.6회로 나타남

[그림 3-49] 납품단가 인하 요구 경험

(단위: %, 하도급 관계 기업)



특성별 분석

- 납품단가 인하 요구 경험율은 일반 중견기업(29.2%)이 관계기업(10.6%)보다 높고, 평균 인하요구 횟수도 일반 중견기업(5.6회)이 관계기업(2.0회)보다 높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27.8%가 평균 3.8회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20.9%가 8.0회의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비제조업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인하 요구를 받은 기업 중 제조업의 경우 44.4%, 비제조업의 경우 56.3%가 3~5% 미만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조사됨
- 납품단가 인하 요구 경험 기업의 비중 및 평균 인하 요구 횟수는 대체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높음

[표 3-78] 납품단가 인하 요구 경험 및 평균단가인하율

(단위 : %, 하도급 관계 기업 88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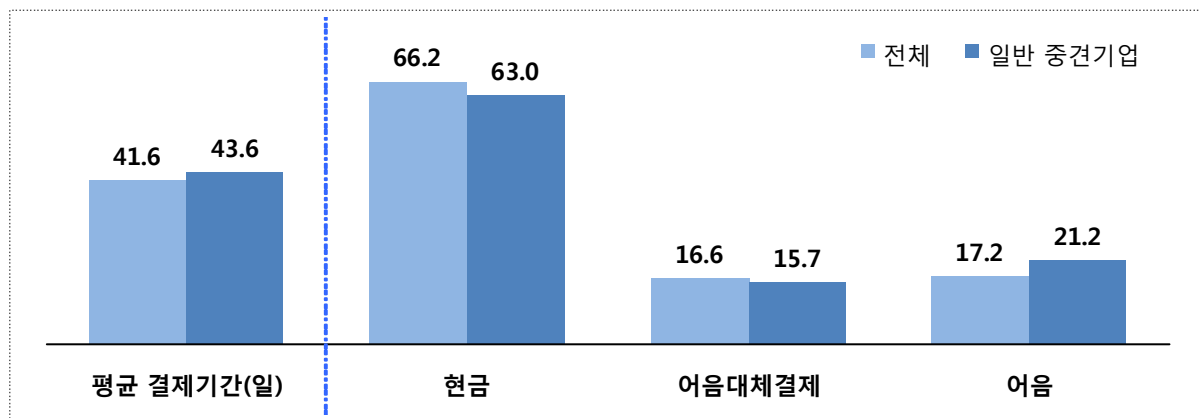
구분		경험 있음	횟수	경험 없음	평균 단가인하율				
					3% 미만	3~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전체		25.4	5.2	74.6	22.6	47.5	23.4	5.6	0.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9.2	5.6	70.8	24.6	44.8	23.5	6.1	1.0
	관계기업	10.6	2.0	89.4	0.0	77.9	22.1	0.0	0.0
업종	제조업	27.8	3.8	72.2	23.7	44.0	27.4	4.9	0.0
	비제조업	20.9	8.0	79.1	19.9	56.3	13.4	7.1	3.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5.5	5.2	74.5	28.9	61.4	0.0	9.7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17.8	11.2	82.2	12.6	62.6	24.8	0.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15.6	1.7	84.4	29.7	40.5	0.0	29.7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21.2	5.6	78.8	11.1	52.3	31.0	5.6	0.0
	2천억원~3천억원미만	36.2	2.4	63.8	26.5	31.8	36.5	5.3	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46.7	3.2	53.3	38.1	38.1	23.8	0.0	0.0
	5천억원~1조원미만	38.0	4.7	62.0	12.4	62.1	12.4	0.0	13.1
	1조원이상	0.0	-	100.0	-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33.6	4.2	66.4	23.2	44.1	27.4	5.3	0.0
	수출없음	16.2	7.5	83.8	21.1	55.5	14.0	6.2	3.2
종사자수	50명미만	19.2	10.2	80.8	17.3	68.9	5.6	8.2	0.0
	50~100명미만	18.9	5.6	81.1	35.1	25.7	28.3	10.9	0.0
	100~200명미만	28.0	3.5	72.0	10.8	44.6	40.9	3.8	0.0
	200~300명미만	30.2	2.0	69.8	12.5	55.1	15.1	17.4	0.0
	300~500명미만	30.3	3.0	69.7	31.9	51.0	11.6	0.0	5.6
	500~1,000명미만	40.3	6.5	59.7	24.2	40.2	35.6	0.0	0.0
	1,000명이상	8.8	7.7	91.2	66.8	33.2	0.0	0.0	0.0
업력	0~7년미만	26.1	13.0	73.9	24.3	45.6	11.2	18.9	0.0
	7~20년미만	25.1	5.2	74.9	23.5	46.5	24.2	5.8	0.0
	20~30년미만	18.7	4.4	81.3	7.7	55.3	28.6	8.4	0.0
	30~40년미만	27.8	2.7	72.2	33.9	31.4	34.7	0.0	0.0
	40~50년미만	27.7	4.1	72.3	25.7	74.3	0.0	0.0	0.0
	50년이상	42.3	2.9	57.7	11.7	52.3	23.5	0.0	12.5
성장단계	진입1~3년차	26.5	6.3	73.5	18.2	47.7	24.6	9.5	0.0
	진입4~5년차	20.5	3.6	79.5	23.8	52.7	23.5	0.0	0.0
	진입6~9년차	20.2	3.0	79.8	25.7	48.7	25.7	0.0	0.0
	진입10년차이상	33.2	3.6	66.8	35.4	41.0	17.7	0.0	5.9
매출유형	B2B	26.1	5.3	73.9	24.0	46.1	23.9	5.9	0.0
	B2C	21.1	2.6	78.9	0.0	79.2	20.8	0.0	0.0
	B2G	13.7	5.7	86.3	0.0	48.2	0.0	0.0	51.8
상장	상장	44.5	4.8	55.5	13.0	49.6	33.2	2.2	1.9
	비상장	18.0	5.6	82.0	31.7	45.6	14.0	8.8	0.0

□ 위탁거래 결제기간/수단

- 중견기업의 위탁기업 평균 결제기간은 41.6일이며, 결제 수단 비중은 현금(66.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어음(17.2%), 어음대체결제(16.6%)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위탁기업 평균 결제기간은 43.6일이며, 결제 수단 비중은 현금(63.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어음(21.2%), 어음대체결제(15.7%) 순으로 나타남

[그림 3-50] 위탁결제 수단 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기업)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경우 대금결제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5.3일, 비제조업은 평균 34.7일로 나타남
- 결제수단별 비중은 제조업은 현금(58.5%), 어음대체결제(22.0%), 어음(19.5%)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현금(80.7%), 어음대체결제(6.6%), 어음(12.8%) 순으로 나타나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현금결제 비중이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종사자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현금보다는 어음 결제 비중이 높고, 매출액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종사자수가 작은 기업일수록 현금 결제 비중이 월등히 높음

[표 3-79] 위탁거래 기업과의 결제기간/수단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88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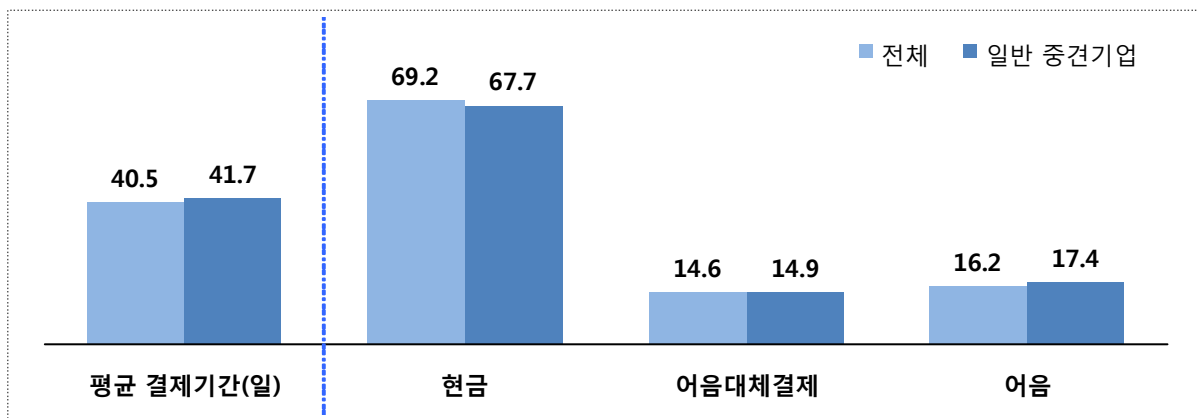
구분		평균 결제기간	결제수단별 비중		
			현금	어음대체결제	어음
전체		41.6	66.2	16.6	17.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3.6	63.0	15.7	21.2
	관계기업	33.9	78.7	19.9	1.4
업종	제조업	45.3	58.5	22.0	19.5
	비제조업	34.7	80.7	6.6	12.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7.8	93.1	0.0	6.9
	1백억원~5백억원미만	35.1	76.3	12.7	11.1
	5백억원~1천억원미만	35.9	68.7	21.2	10.1
	1천억원~2천억원미만	47.7	59.6	19.6	20.9
	2천억원~3천억원미만	40.4	57.3	19.8	22.9
	3천억원~5천억원미만	45.7	56.3	24.1	19.6
	5천억원~1조원미만	57.4	54.1	10.2	35.8
	1조원이상	60.0	0.0	0.0	100.0
수출여부	수출있음	47.7	54.3	25.0	20.8
	수출없음	34.7	79.7	7.2	13.1
종사자수	50명미만	33.1	84.2	10.8	5.0
	50~100명미만	42.0	63.0	18.9	18.1
	100~200명미만	46.2	59.7	20.0	20.3
	200~300명미만	49.0	60.4	12.2	27.4
	300~500명미만	39.4	60.6	22.8	16.6
	500~1,000명미만	50.1	56.5	21.7	21.8
	1,000명이상	32.5	74.8	6.0	19.2
업력	0~7년미만	33.1	81.5	0.5	17.9
	7~20년미만	41.2	77.6	14.0	8.4
	20~30년미만	38.5	52.4	22.2	25.4
	30~40년미만	44.1	56.8	17.3	25.9
	40~50년미만	53.5	41.1	41.1	17.8
	50년이상	49.3	60.3	10.1	29.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41.3	68.7	13.9	17.4
	진입4~5년차	41.2	63.2	20.4	16.4
	진입6~9년차	40.7	76.2	14.3	9.5
	진입10년차이상	44.3	52.2	24.1	23.7
매출유형	B2B	41.9	64.9	17.7	17.4
	B2C	43.3	70.5	8.0	21.5
	B2G	30.1	97.9	0.0	2.1
상장	상장	49.0	56.1	21.5	22.4
	비상장	38.7	70.3	14.6	15.1

□ 수탁거래 결제기간/수단

- 중견기업의 수탁기업 평균 결제기간은 40.5일이며, 결제 수단 비중은 현금(69.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어음(16.2%), 어음대체결제(14.6%)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수탁기업 평균 결제기간은 41.7일이며, 결제 수단 비중은 현금(67.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어음(17.4%), 어음대체결제(14.9%) 순으로 나타남

[그림 3-51] 수탁거래 결제수단 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기업)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협력사에 평균 45.1일만에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제조업은 33.9일이 소요됨
- 결제수단별로는 제조업은 현금(59.5%), 어음대체결제(19.4%), 어음(21.0%)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은 현금(83.1%), 어음대체결제(7.7%), 어음(9.3%) 순으로 나타나 비제조업의 현금 결제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종사자수가 작은 기업일수록 현금 결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80] 수탁거래 기업과의 결제기간/수단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880개사)

구분		평균 결제기간	결제수단별 비중		
			현금	어음대체결제	어음
전체		40.5	69.2	14.6	16.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1.7	67.7	14.9	17.4
	관계기업	35.6	75.2	13.4	11.4
업종	제조업	45.1	59.5	19.4	21.0
	비제조업	33.9	83.1	7.7	9.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7	89.9	2.0	8.1
	1백억원~5백억원미만	34.9	80.0	9.4	10.6
	5백억원~1천억원미만	35.9	72.2	10.7	17.1
	1천억원~2천억원미만	42.9	66.2	19.0	14.9
	2천억원~3천억원미만	44.8	63.7	17.3	19.1
	3천억원~5천억원미만	45.8	53.2	23.0	23.8
	5천억원~1조원미만	45.2	61.3	15.6	23.2
	1조원이상	32.6	58.0	15.1	26.9
수출여부	수출있음	45.7	57.9	22.5	19.6
	수출없음	34.8	81.7	5.9	12.5
종사자수	50명미만	34.5	88.1	6.6	5.4
	50~100명미만	39.7	70.4	7.7	21.9
	100~200명미만	42.1	65.8	16.1	18.1
	200~300명미만	41.7	66.8	14.5	18.7
	300~500명미만	43.5	63.4	22.4	14.2
	500~1,000명미만	45.4	51.9	24.9	23.2
	1,000명이상	38.8	67.4	14.9	17.7
업력	0~7년미만	36.8	77.0	9.5	13.5
	7~20년미만	40.6	75.2	10.8	14.1
	20~30년미만	38.9	67.9	15.8	16.3
	30~40년미만	43.0	67.6	15.9	16.5
	40~50년미만	44.1	48.8	34.0	17.2
	50년이상	41.4	62.5	8.4	29.2
성장단계	진입1~3년차	39.4	74.4	12.0	13.6
	진입4~5년차	42.4	66.6	14.7	18.8
	진입6~9년차	38.8	66.4	18.3	15.3
	진입10년차이상	42.6	56.8	21.3	22.0
매출유형	B2B	42.1	67.4	15.9	16.6
	B2C	37.3	71.4	10.4	18.2
	B2G	23.9	92.0	5.6	2.4
상장	상장	43.8	62.1	18.9	18.9
	비상장	39.0	72.4	12.6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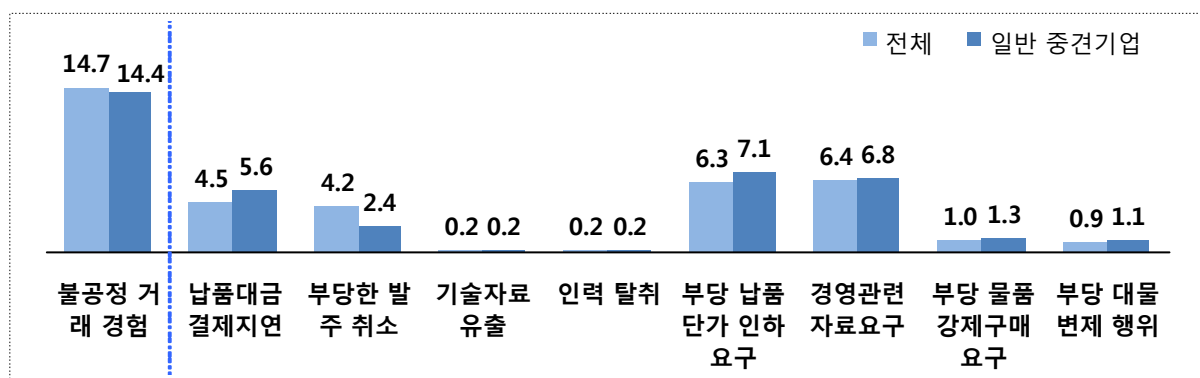
2.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 불공정 거래

- 1차 이하 협력사들 중 14.7%는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유형은 경영관련 자료요구(6.4%), 부당 납품단가 인하요구(6.3%), 납품대금 결제지연(4.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14.4%가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유형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 요구(7.1%), 경영관련 자료요구(6.8%), 납품대금 결제지연(5.6%) 순으로 나타남

[그림 3-52] 불공정거래 경험율

(단위: %, 하도급 관계기업)



특성별 분석

- 기업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이 14.4%, 관계기업이 16.0%로 불공정거래를 경험
- 제조업의 14.6%, 비제조업의 15.0%가 주거래 위탁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를 경험함
-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나 ‘경영관련 자료 요구’를 받은 경험이 많고 매출액이 작은 기업일수록 ‘납품대금의 결제 지연’을 경험한 기업이 많음
- 성장단계별로는 진입 6~9년차 기업의 경우 ‘부당한 발주취소’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진입 10년차이상 기업의 경우 ‘경영관련 자료요구’를 경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표 3-81] 불공정거래 경험율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880개사)

구분		불공정거래 경험율	불공정거래 유형별 경험율			
			납품대금 결제지연	부당한 발주취소	기술자료 유출	인력탈취
전체		14.7	4.5	4.2	0.2	0.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4.4	5.6	2.4	0.2	0.2
	관계기업	16.0	0.0	11.0	0.0	0.0
업종	제조업	14.6	3.5	2.0	0.0	0.0
	비제조업	15.0	6.3	8.2	0.5	0.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9.9	5.0	5.0	2.5	2.5
	1백억원~5백억원미만	18.2	6.6	7.2	0.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12.5	2.4	6.3	0.0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9.5	4.1	1.0	0.0	0.0
	2천억원~3천억원미만	11.3	3.6	3.6	0.0	0.0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4	4.5	4.5	0.0	0.0
	5천억원~1조원미만	23.6	4.7	0.0	0.0	0.0
	1조원이상	100.0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8.1	6.3	4.3	0.0	0.0
	수출없음	10.9	2.5	4.0	0.4	0.4
종사자수	50명미만	9.7	6.2	2.5	0.9	0.9
	50~100명미만	8.8	3.3	0.0	0.0	0.0
	100~200명미만	15.0	3.8	5.7	0.0	0.0
	200~300명미만	18.3	7.0	6.3	0.0	0.0
	300~500명미만	12.3	3.3	1.6	0.0	0.0
	500~1,000명미만	20.8	6.0	0.0	0.0	0.0
	1,000명이상	29.5	0.0	22.0	0.0	0.0
업력	0~7년미만	19.6	9.3	4.2	0.0	0.0
	7~20년미만	16.3	5.0	7.7	0.5	0.5
	20~30년미만	11.8	2.7	0.0	0.0	0.0
	30~40년미만	10.5	1.3	1.6	0.0	0.0
	40~50년미만	16.2	3.3	0.0	0.0	0.0
	50년이상	14.9	9.9	4.9	0.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3.0	5.0	3.6	0.3	0.3
	진입4~5년차	9.1	1.1	1.1	0.0	0.0
	진입6~9년차	31.9	7.6	17.4	0.0	0.0
	진입10년차이상	19.5	5.7	1.8	0.0	0.0
매출유형	B2B	15.4	4.4	4.3	0.0	0.0
	B2C	12.5	8.1	3.7	3.7	3.7
	B2G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18.8	4.4	2.7	0.0	0.0
	비상장	13.2	4.5	4.7	0.3	0.3

[표 3-82] 불공정거래 경험율(계속)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88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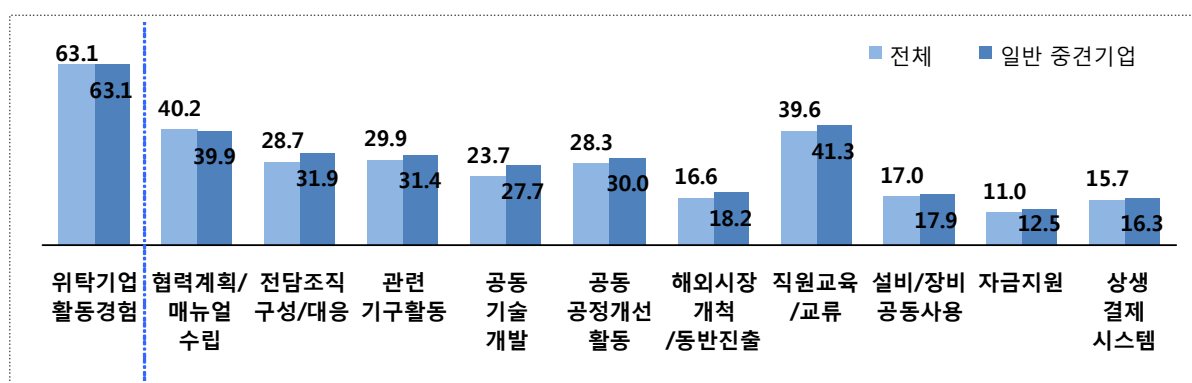
구분		불공정거래 경험율	불공정거래 유형별 경험율			
			부당 납품단가 인하요구	경영관련 자료요구	부당 물품 강제구매 요구	부당대물 변제행위
전체		14.7	6.3	6.4	1.0	0.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4.4	7.1	6.8	1.3	1.1
	관계기업	16.0	2.7	5.1	0.0	0.0
업종	제조업	14.6	6.7	8.0	0.5	0.0
	비제조업	15.0	5.4	3.4	2.0	2.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9.9	7.4	5.0	5.0	5.0
	1백억원~5백억원미만	18.2	4.4	0.0	0.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12.5	8.6	8.6	4.6	0.0
	1천억원~2천억원미만	9.5	1.2	6.4	0.0	1.0
	2천억원~3천억원미만	11.3	9.4	5.8	0.0	1.7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4	11.1	13.3	0.0	0.0
	5천억원~1조원미만	23.6	14.1	14.1	0.0	0.0
	1조원이상	100.0	0.0	10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8.1	9.0	9.3	1.6	1.3
	수출없음	10.9	3.1	3.2	0.4	0.4
종사자수	50명미만	9.7	3.4	5.1	2.5	0.9
	50~100명미만	8.8	5.5	2.1	2.1	0.0
	100~200명미만	15.0	7.3	4.0	0.0	0.0
	200~300명미만	18.3	11.7	8.6	1.8	4.0
	300~500명미만	12.3	4.7	9.1	0.0	1.7
	500~1,000명미만	20.8	11.2	11.8	0.0	0.0
	1,000명이상	29.5	0.0	7.5	0.0	0.0
업력	0~7년미만	19.6	7.3	10.3	4.9	4.2
	7~20년미만	16.3	6.7	5.1	1.3	0.5
	20~30년미만	11.8	8.0	3.8	0.0	0.0
	30~40년미만	10.5	1.3	7.6	0.0	0.0
	40~50년미만	16.2	6.8	16.2	0.0	3.3
	50년이상	14.9	9.9	0.0	0.0	0.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3.0	7.5	5.7	1.8	1.1
	진입4~5년차	9.1	3.2	4.7	0.0	0.0
	진입6~9년차	31.9	2.3	7.0	0.0	0.0
	진입10년차이상	19.5	9.2	12.2	0.0	2.0
매출유형	B2B	15.4	6.4	6.6	0.9	0.7
	B2C	12.5	8.1	8.1	3.7	3.7
	B2G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18.8	8.7	10.1	0.0	0.9
	비상장	13.2	5.3	5.0	1.4	0.9

□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

- 중견기업의 63.1%는 위탁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40.2%), 직원교육/교류(39.6%), 관련기구 활동(29.9%)이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위탁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은 63.1%로 나타났으며, 직원 교육/교류(41.3%), 협력계획 매뉴얼 수립(39.9%), 전담조직 구성/대응(31.9%) 등이 높게 나타남

[그림 3-53]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 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63.1%가 동반성장/상생협력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업(62.8%)보다 동반성장/상생협력 활동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제조업의 67.9%, 비제조업의 54.2%가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을 진행 중으로 제조업의 활동이 높게 나타남
 -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 활동’을 44.6%, 32.2%로 가장 많이 시행함
-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활동을 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음
 - 특히 매출액 규모가 큰 수탁기업들은 위탁기업과 대부분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표 3-83]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880개사)

구분		동반성장/상 생협력 추진율	동반성장/상생협력활동 유형별 추진 여부				
			협력계획/매 뉴얼 수립	전담조직 구성/대응	관련 기구활동	공동 기술 개발	공동 공정개선 활동
전체		63.1	40.2	28.7	29.9	23.7	28.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3.1	39.9	31.9	31.4	27.7	30.0
	관계기업	62.8	41.5	16.2	23.8	8.0	21.4
업종	제조업	67.9	44.6	35.4	41.3	32.5	38.3
	비제조업	54.2	32.2	16.4	8.6	7.4	9.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4.5	39.6	15.7	0.0	9.9	2.5
	1백억원~5백억원미만	61.5	36.4	17.9	15.8	6.8	22.4
	5백억원~1천억원미만	51.6	29.6	12.4	29.5	10.8	22.6
	1천억원~2천억원미만	64.9	40.3	34.6	35.2	26.9	29.6
	2천억원~3천억원미만	68.6	51.6	44.1	47.8	43.9	47.8
	3천억원~5천억원미만	66.7	37.8	33.4	31.1	35.6	28.9
	5천억원~1조원미만	80.9	57.3	57.3	57.3	57.1	43.2
	1조원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출여부	수출있음	70.1	44.9	36.0	41.8	34.9	39.5
	수출없음	55.1	35.0	20.6	16.4	11.0	15.7
종사자수	50명미만	58.3	45.5	14.3	10.5	8.4	20.5
	50~100명미만	47.8	20.2	19.3	30.1	8.8	20.7
	100~200명미만	58.2	35.7	30.9	24.0	22.5	25.0
	200~300명미만	71.1	47.3	37.8	50.0	51.1	46.5
	300~500명미만	64.6	43.6	40.6	34.8	34.1	40.8
	500~1,000명미만	78.2	57.5	48.7	52.1	39.9	37.9
	1,000명이상	79.0	32.2	14.4	21.8	13.5	7.6
업력	0~7년미만	59.8	40.8	27.7	20.9	22.1	28.0
	7~20년미만	58.8	33.7	24.6	29.4	21.0	29.9
	20~30년미만	71.7	51.0	33.6	25.4	27.2	29.0
	30~40년미만	62.3	40.8	33.0	39.9	23.6	26.9
	40~50년미만	65.6	42.2	26.0	31.4	33.8	20.3
	50년이상	71.9	49.4	37.5	32.9	22.2	29.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62.8	43.8	29.8	29.9	25.6	29.4
	진입4~5년차	54.1	32.3	22.3	30.8	16.8	22.5
	진입6~9년차	74.1	37.8	29.0	22.3	15.0	19.3
	진입10년차이상	71.4	40.1	35.0	34.0	34.2	40.6
매출유형	B2B	62.4	38.8	29.3	31.0	24.2	30.4
	B2C	70.8	66.4	25.2	25.2	13.1	5.3
	B2G	69.1	40.7	20.1	7.1	28.2	7.1
상장	상장	70.3	46.4	38.4	43.5	40.1	38.0
	비상장	60.3	37.9	25.0	24.6	17.4	24.5

[표 3-84]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계속)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88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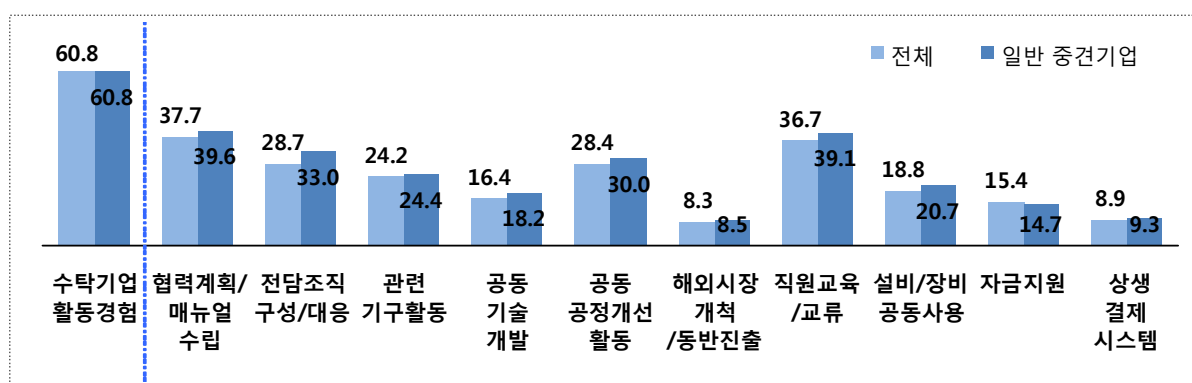
구분		동반성장/상생협력 추진율	동반성장/상생협력활동 유형별 추진 여부				
			해외시장 개척/동반진출	직원교육/교류	설비/장비 공동사용	자금지원	상생 결제 시스템
전체		63.1	16.6	39.6	17.0	11.0	15.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3.1	18.2	41.3	17.9	12.5	16.3
	관계기업	62.8	10.5	32.7	13.5	5.3	13.3
업종	제조업	67.9	21.2	39.5	20.2	13.0	21.6
	비제조업	54.2	8.2	39.7	11.0	7.4	4.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4.5	0.0	28.1	18.2	9.9	2.5
	1백억원~5백억원미만	61.5	13.6	39.0	9.0	6.8	9.2
	5백억원~1천억원미만	51.6	7.0	26.5	8.5	2.4	8.5
	1천억원~2천억원미만	64.9	14.5	41.3	21.6	17.1	20.6
	2천억원~3천억원미만	68.6	30.5	43.9	26.9	15.3	26.6
	3천억원~5천억원미만	66.7	28.9	48.9	20.0	15.6	20.0
	5천억원~1조원미만	80.9	23.8	52.6	19.6	5.0	14.6
	1조원이상	100.0	100.0	100.0	0.0	0.0	100.0
수출여부	수출있음	70.1	24.9	44.1	19.5	13.8	24.0
	수출없음	55.1	7.2	34.4	14.2	7.9	6.2
종사자수	50명미만	58.3	5.1	34.3	12.9	8.5	10.5
	50~100명미만	47.8	17.8	23.1	8.5	6.1	7.0
	100~200명미만	58.2	10.3	39.9	19.6	11.7	13.6
	200~300명미만	71.1	27.9	39.4	26.8	15.3	18.6
	300~500명미만	64.6	24.9	39.7	25.5	10.8	22.9
	500~1,000명미만	78.2	28.3	50.0	19.2	19.5	29.8
	1,000명이상	79.0	10.5	69.5	5.9	6.9	11.2
업력	0~7년미만	59.8	15.4	41.5	17.3	19.7	17.0
	7~20년미만	58.8	14.9	35.5	18.3	9.4	15.8
	20~30년미만	71.7	19.1	46.5	11.2	12.8	16.2
	30~40년미만	62.3	21.8	36.7	21.8	11.6	16.0
	40~50년미만	65.6	7.5	35.5	10.1	6.1	9.8
	50년이상	71.9	20.7	61.6	22.6	5.5	17.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62.8	16.7	40.4	16.5	11.8	13.1
	진입4~5년차	54.1	13.9	26.2	14.6	8.8	16.3
	진입6~9년차	74.1	15.3	57.5	13.6	10.4	19.9
	진입10년차이상	71.4	22.0	45.6	26.1	11.9	22.7
매출유형	B2B	62.4	17.6	41.1	17.1	11.3	16.0
	B2C	70.8	0.0	29.8	12.9	13.9	11.1
	B2G	69.1	14.4	14.4	20.1	0.0	14.4
상장	상장	70.3	25.6	46.7	21.1	11.3	19.8
	비상장	60.3	13.1	36.8	15.4	11.0	14.0

□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

- 중견기업의 60.8%는 수탁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37.7%), 직원교육/교류(36.7%), 전담조직 구성/대응(28.7%)이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수탁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은 60.8%로 나타났으며, 협력계획 매뉴얼 수립(39.6%), 직원교육/교류(39.1%), 전담조직 구성/대응(33.0%) 등이 높게 나타남

[그림 3-54]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기업)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64.8%, 비제조업의 55.1%가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을 수행 중임
- 대체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크고 중견기업으로의 진입연수가 높을수록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을 진행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음
 - 특히 매출규모 1조원 이상의 기업은 80.6%가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직원교육/교류’ (80.6%), ‘관련 기구활동’ (70.9%), ‘공동 공정개선활동’ (69.9%)활동을 하고 있음
- B2C기업의 71.2%는 수탁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을 하고 있으나, B2B기업의 경우 58.5%만이 해당 활동을 하고 있어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표 3-85]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880개사)

구분		동반성장/상 생협력 추진율	동반성장/상생협력활동 유형별 추진 여부				
			협력계획/매 뉴얼 수립	전담조직 구성/대응	관련 기구활동	공동 기술 개발	공동 공정개선 활동
전체		60.8	37.7	28.7	24.2	16.4	28.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0.8	39.6	33.0	24.4	18.2	30.0
	관계기업	61.1	30.2	11.0	23.1	8.9	21.9
업종	제조업	64.8	41.3	34.6	30.6	22.7	38.8
	비제조업	55.1	32.6	20.2	14.7	7.4	13.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1.7	24.8	8.0	10.8	2.0	2.0
	1백억원~5백억원미만	57.5	25.7	10.9	14.2	12.6	15.6
	5백억원~1천억원미만	58.9	34.8	26.9	24.2	8.3	30.2
	1천억원~2천억원미만	59.2	36.5	30.2	22.3	15.9	28.4
	2천억원~3천억원미만	64.9	46.7	43.1	33.6	25.9	44.5
	3천억원~5천억원미만	69.8	52.7	42.1	30.3	17.1	34.3
	5천억원~1조원미만	68.7	47.5	40.3	28.7	23.7	33.4
	1조원이상	80.6	60.2	60.2	70.9	59.2	69.9
수출여부	수출있음	65.3	40.8	35.4	31.6	23.7	39.4
	수출없음	55.9	34.4	21.3	15.9	8.4	16.3
종사자수	50명미만	55.6	40.0	14.8	9.8	6.3	18.1
	50~100명미만	50.1	17.1	16.0	18.6	16.7	22.8
	100~200명미만	42.3	22.6	23.7	20.9	15.0	19.9
	200~300명미만	69.6	38.1	27.3	31.8	19.6	37.2
	300~500명미만	69.5	49.5	45.5	30.8	16.9	36.0
	500~1,000명미만	75.4	51.9	47.2	38.2	22.4	39.2
	1,000명이상	77.1	57.7	42.6	30.4	31.4	36.7
업력	0~7년미만	65.2	49.6	23.5	25.1	12.5	23.8
	7~20년미만	60.1	30.6	27.9	22.6	14.7	31.1
	20~30년미만	59.5	36.0	26.7	20.5	16.4	20.1
	30~40년미만	67.0	44.7	37.8	33.0	19.6	38.3
	40~50년미만	53.2	40.6	26.0	20.7	17.7	27.5
	50년이상	59.4	42.0	31.6	28.8	23.1	30.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7.9	33.4	24.7	21.1	14.9	24.6
	진입4~5년차	59.4	39.7	28.1	28.5	14.9	29.1
	진입6~9년차	69.9	39.6	30.1	12.4	8.8	27.0
	진입10년차이상	67.9	48.5	42.0	34.2	27.0	41.0
매출유형	B2B	58.5	35.8	26.8	23.6	16.5	29.5
	B2C	71.2	49.6	39.3	27.2	16.2	26.2
	B2G	68.3	33.2	27.7	24.1	15.8	17.1
상장	상장	69.0	46.4	40.5	33.0	22.7	38.3
	비상장	57.1	33.7	23.3	20.1	13.6	23.9

[표 3-86]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계속)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880개사)

구분		동반성장/상생협력 추진율	동반성장/상생협력활동 유형별 추진 여부				
			해외시장 개척/동반진 출	직원교육/교 류	설비/장비 공동사용	자금지원	상생 결제 시스템
전체		60.8	8.3	36.7	18.8	15.4	8.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0.8	8.5	39.1	20.7	14.7	9.3
	관계기업	61.1	7.2	26.8	11.0	18.6	7.4
업종	제조업	64.8	9.4	40.6	26.0	19.4	11.7
	비제조업	55.1	6.6	31.1	8.3	9.7	5.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1.7	0.0	22.9	6.1	2.0	2.0
	1백억원~5백억원미만	57.5	4.8	25.3	9.3	9.8	4.8
	5백억원~1천억원미만	58.9	6.2	34.3	16.9	14.8	7.3
	1천억원~2천억원미만	59.2	8.3	35.9	18.5	17.8	12.1
	2천억원~3천억원미만	64.9	14.5	45.3	32.4	17.1	14.7
	3천억원~5천억원미만	69.8	10.5	46.1	22.4	17.1	5.3
	5천억원~1조원미만	68.7	2.3	45.0	16.7	21.3	7.3
	1조원이상	80.6	40.8	80.6	59.2	50.5	30.1
수출여부	수출있음	65.3	12.0	44.2	26.2	20.4	11.2
	수출없음	55.9	4.1	28.4	10.6	10.0	6.4
종사자수	50명미만	55.6	4.1	25.6	14.4	7.5	6.8
	50~100명미만	50.1	4.4	33.6	9.2	3.3	4.4
	100~200명미만	42.3	8.0	29.9	11.4	14.1	6.0
	200~300명미만	69.6	12.8	34.5	20.4	22.9	11.0
	300~500명미만	69.5	6.9	41.1	27.5	18.9	10.4
	500~1,000명미만	75.4	13.6	49.9	30.9	28.8	13.7
	1,000명이상	77.1	13.1	63.0	24.6	20.7	15.4
업력	0~7년미만	65.2	9.6	32.4	20.6	13.1	9.3
	7~20년미만	60.1	6.1	33.6	17.5	15.1	8.2
	20~30년미만	59.5	11.4	37.5	12.6	14.0	8.2
	30~40년미만	67.0	12.0	42.9	30.9	24.0	14.6
	40~50년미만	53.2	7.3	37.4	20.0	12.2	6.7
	50년이상	59.4	0.0	41.7	15.4	11.9	5.8
성장단계	진입1~3년차	57.9	7.3	32.9	16.8	12.9	5.9
	진입4~5년차	59.4	6.0	35.6	16.2	16.5	11.4
	진입6~9년차	69.9	6.2	41.9	14.2	16.9	15.7
	진입10년차이상	67.9	15.3	48.1	30.6	21.7	12.6
매출유형	B2B	58.5	8.4	35.2	20.0	14.5	9.6
	B2C	71.2	5.9	45.7	13.8	13.8	6.3
	B2G	68.3	13.9	34.0	13.9	37.6	7.1
상장	상장	69.0	13.6	45.5	23.8	19.9	13.7
	비상장	57.1	5.8	32.6	16.5	13.4	6.8

7절 금융 및 자금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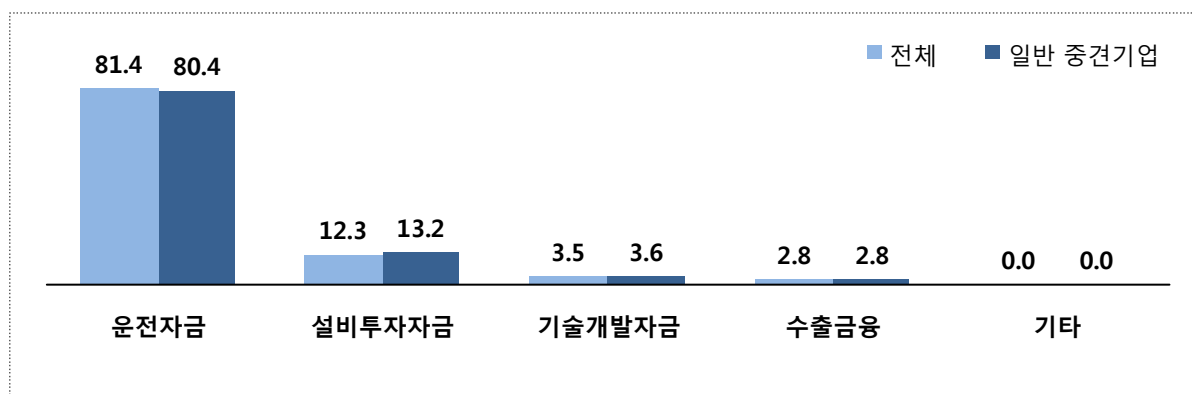
1. 자금조달

□ 자금조달 용도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용도는 운전자금(81.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설비투자자금(12.3%), 기술개발자금(3.5%)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용도는 운전자금(80.4%), 설비투자자금(13.2%), 기술개발자금(3.6%) 순임

[그림 3-55] 주요 자금조달 용도

(단위: %)



특성별 분석

- ‘운전자금 용도’로 조달한 자금의 비중이 제조업은 72.5%, 비제조업은 88.5%로 모두 운전자금이 가장 높았지만, 제조업은 ‘설비투자자금’ (16.5%) 및 ‘기술개발자금’ (6.0%) 비중이 비제조업에 비해 약 1.8배 이상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운전자금 용도’로 자금을 조달한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자금을 조달한 비중이 높음
- 수출 여부에 따라서는 수출기업은 내수기업에 비해 ‘운전자금’의 비중이 낮은 반면, ‘설비투자·기술개발·수출금융’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 비중이 크게 높았음

[표 3-87] 주요 자금조달 용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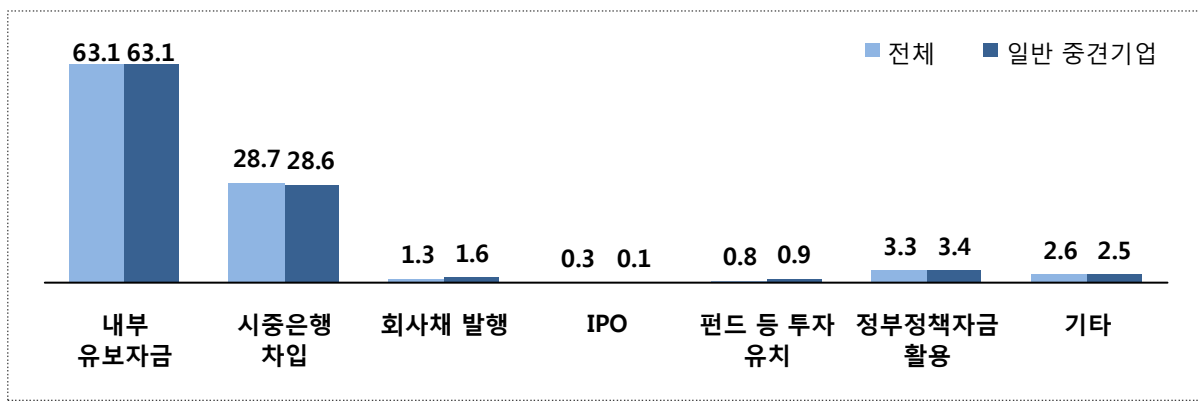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운전자금	설비투자 자금	기술개발 자금	수출금융	기타
전체		(2,979)	81.4	12.3	3.5	2.8	0.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80.4	13.2	3.6	2.8	0.0
	관계기업	(600)	85.4	9.0	3.1	2.5	0.0
업종	제조업	(1,331)	72.5	16.5	6.0	5.0	0.0
	비제조업	(1,648)	88.5	9.0	1.5	0.9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90.6	7.3	2.0	0.1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86.9	10.5	1.8	0.8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82.0	10.9	3.5	3.5	0.1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76.8	13.9	4.8	4.4	0.0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72.7	16.9	4.2	6.1	0.1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75.4	15.7	5.7	3.2	0.0
	5천억원~1조원미만	(153)	71.3	17.0	5.9	5.7	0.0
	1조원이상	(51)	73.5	18.6	7.0	1.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71.7	15.1	6.2	7.0	0.0
	수출없음	(1,797)	87.7	10.5	1.8	0.0	0.0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88.5	9.4	1.0	1.1	0.0
	50~100명미만	(758)	83.0	13.1	2.4	1.5	0.0
	100~200명미만	(454)	77.3	13.8	4.2	4.7	0.1
	200~300명미만	(289)	77.3	14.0	5.3	3.4	0.0
	300~500명미만	(351)	75.2	13.8	5.8	5.1	0.0
	500~1,000명미만	(301)	73.0	15.9	6.5	4.7	0.0
	1,000명이상	(146)	85.6	9.6	4.1	0.7	0.0
업력	0~7년미만	(583)	84.4	12.9	2.3	0.4	0.0
	7~20년미만	(1,134)	84.6	9.9	3.0	2.5	0.0
	20~30년미만	(550)	83.4	10.5	3.7	2.4	0.0
	30~40년미만	(308)	75.9	16.8	4.2	3.1	0.0
	40~50년미만	(240)	68.9	19.8	5.0	6.3	0.0
	50년이상	(164)	75.8	13.9	5.5	4.6	0.2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82.3	11.8	3.2	2.7	0.0
	진입4~5년차	(750)	81.6	13.2	2.8	2.4	0.1
	진입6~9년차	(220)	81.0	10.9	4.2	4.0	0.0
	진입10년차이상	(361)	77.3	13.9	5.7	3.1	0.0
매출유형	B2B	(2,261)	79.8	13.0	3.7	3.4	0.0
	B2C	(620)	85.9	10.9	2.6	0.7	0.0
	B2G	(98)	89.1	6.1	4.0	0.9	0.0
상장	상장	(644)	72.1	16.2	6.6	4.9	0.1
	비상장	(2,335)	84.1	11.2	2.6	2.1	0.0

□ 자금조달원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원은 내부 유보자금(63.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시중은행 차입(28.7%), 정부정책자금 활용(3.3%)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원은 내부 유보자금(63.1%), 시중은행 차입(28.6%), 정부정책자금 활용(3.4%) 순임

[그림 3-56] 주요 자금조달원 비중

(단위: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부유보자금’ (63.1%)의 비중이 높고 관계기업 또한, ‘내부유보자금’의 비중이 63.2%로 높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시중은행 차입’과 ‘정책자금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기업의 매출규모가 클수록 ‘회사채 발행’이나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음
- 매출유형별로 B2G 기업의 경우 75% 이상이 ‘내부유보자금’을 활용하는 반면, B2C 기업의 경우 58.3%만이 ‘내부유보자금’을 활용

[표 3-88] 주요 자금조달원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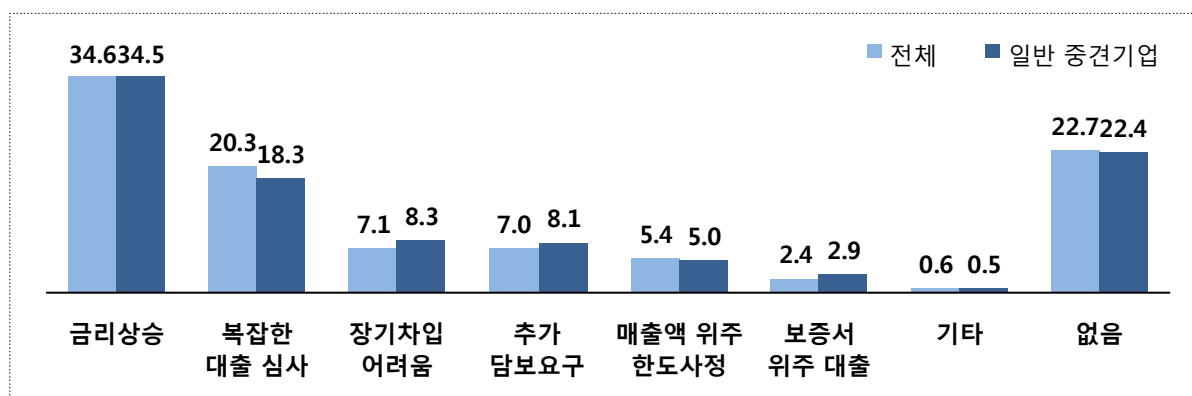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내부 유보자금	시중은행 차입	회사채 발행	IPO	펀드 등 투자유치	정부정책 자금활용	기타
전체		(2,979)	63.1	28.7	1.3	0.3	0.8	3.3	2.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63.1	28.6	1.6	0.1	0.9	3.4	2.5
	관계기업	(600)	63.2	29.3	0.2	1.0	0.5	2.9	2.9
업종	제조업	(1,331)	59.3	33.0	1.5	0.4	0.5	4.7	0.6
	비제조업	(1,648)	66.1	25.3	1.1	0.2	1.0	2.2	4.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78.0	12.9	0.3	0.7	2.6	1.1	4.4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64.5	26.9	1.1	0.0	1.2	2.2	4.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63.6	28.2	1.0	1.0	0.0	4.1	2.2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58.6	35.7	1.2	0.2	0.1	3.2	1.0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58.7	33.0	0.7	0.0	0.2	5.1	2.3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56.1	36.9	1.2	0.1	0.5	4.7	0.5
	5천억원~1조원미만	(153)	55.8	31.6	6.0	0.1	0.4	5.9	0.3
	1조원이상	(51)	53.7	32.3	6.1	0.0	0.0	7.1	0.8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60.6	31.2	1.9	0.4	0.1	4.7	1.0
	수출없음	(1,797)	64.7	27.0	0.9	0.2	1.2	2.4	3.6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66.2	25.3	0.8	0.3	1.9	3.0	2.4
	50~100명미만	(758)	62.0	26.3	0.9	0.0	0.0	4.4	6.5
	100~200명미만	(454)	54.8	40.0	0.7	0.9	0.9	1.5	1.3
	200~300명미만	(289)	60.0	33.6	1.3	0.2	0.5	3.0	1.4
	300~500명미만	(351)	62.5	30.0	1.7	0.0	0.2	3.5	2.2
	500~1,000명미만	(301)	65.8	24.6	2.7	0.1	0.6	5.8	0.6
	1,000명이상	(146)	73.4	19.4	3.2	0.2	0.0	2.1	1.7
업력	0~7년미만	(583)	68.0	23.0	1.2	0.0	2.6	2.3	2.8
	7~20년미만	(1,134)	64.4	27.6	1.4	0.6	1.0	2.8	2.1
	20~30년미만	(550)	58.9	33.8	0.2	0.0	0.2	3.4	3.6
	30~40년미만	(308)	62.8	30.3	0.7	0.2	0.0	3.6	2.4
	40~50년미만	(240)	59.8	27.7	3.4	0.0	0.0	5.9	3.2
	50년이상	(164)	62.3	30.1	2.2	0.1	0.0	3.8	1.4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62.7	29.3	0.8	0.3	0.8	3.4	2.7
	진입4~5년차	(750)	60.3	31.5	1.1	0.4	1.2	2.6	3.0
	진입6~9년차	(220)	69.0	23.1	2.1	0.0	0.8	1.9	3.0
	진입10년차이상	(361)	66.7	24.3	3.3	0.1	0.0	4.8	0.8
매출유형	B2B	(2,261)	63.9	28.0	1.2	0.3	0.7	3.5	2.4
	B2C	(620)	58.3	33.3	1.7	0.0	1.0	2.1	3.6
	B2G	(98)	75.7	14.9	0.9	0.0	2.1	6.5	0.0
상장	상장	(644)	60.0	30.2	3.3	0.2	0.1	5.2	1.0
	비상장	(2,335)	64.0	28.3	0.7	0.3	1.0	2.7	3.0

□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중견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애로사항으로는 금리상승(34.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복잡한 대출심사(20.3%), 장기차입 어려움(7.1%)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애로사항은 금리상승(34.5%), 복잡한 대출심사(18.3%), 장기차입 어려움(8.3%) 순임

[그림 3-57]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단위: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34.6%)과 관계기업(34.5%) 모두 ‘금리상승’ 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함
 - 일반 중견기업에 비해 관계기업은 ‘장기차입의 어려움’ (8.3%)과 ‘추가 담보요구’ (8.1%)를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높음
- 수출여부에 상관없이 ‘금리상승’ 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순위 애로사항으로 수출기업은 ‘장기차입의 어려움’ (19.4%), 내수기업은 ‘복잡한 대출심사’ (18.6%)를 응답함
- 중견기업으로의 진입단계가 초기일수록 ‘금리상승’ 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진입 10년차 이상의 기업은 ‘복잡한 대출심사’ (31.2%)로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조사됨
- 비상장기업에 비해 상장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복잡한 대출심사’ (29.4%)로 나타남

[표 3-89]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단위 : %)

구분		사례수	금리상승	복잡한 대출 심사	장기차입 어려움	추가 담보요구
전체		(2,979)	34.6	20.3	7.1	7.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34.6	20.3	7.1	7.0
	관계기업	(600)	34.5	18.3	8.3	8.1
업종	제조업	(1,331)	35.2	28.2	2.3	2.8
	비제조업	(1,648)	40.4	16.3	8.6	7.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29.9	23.4	5.9	7.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22.3	22.4	2.6	4.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32.5	25.4	4.1	3.6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42.0	16.3	7.0	5.6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37.6	14.1	9.5	13.5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34.8	20.8	7.6	10.4
	5천억원~1조원미만	(153)	39.2	21.6	11.2	7.2
	1조원이상	(51)	40.1	16.0	15.8	7.9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42.4	12.7	19.4	0.0
	수출없음	(1,797)	39.0	18.6	10.1	8.1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31.8	21.3	5.2	6.3
	50~100명미만	(758)	28.4	23.1	6.8	6.4
	100~200명미만	(454)	40.0	20.4	3.0	7.2
	200~300명미만	(289)	36.9	17.0	7.9	7.1
	300~500명미만	(351)	39.7	20.6	5.5	8.4
	500~1,000명미만	(301)	36.3	19.3	8.1	10.1
	1,000명이상	(146)	35.7	16.6	11.6	6.4
업력	0~7년미만	(583)	29.5	21.2	11.2	2.1
	7~20년미만	(1,134)	28.6	17.3	3.8	7.2
	20~30년미만	(550)	31.0	22.6	7.3	6.0
	30~40년미만	(308)	38.7	24.0	5.1	7.6
	40~50년미만	(240)	36.9	20.5	10.0	7.8
	50년이상	(164)	40.4	11.5	11.0	8.7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44.7	11.6	8.1	8.0
	진입4~5년차	(750)	33.2	22.2	5.1	7.2
	진입6~9년차	(220)	34.8	16.5	8.2	8.3
	진입10년차이상	(361)	29.1	31.2	9.4	5.3
매출유형	B2B	(2,261)	43.1	13.2	11.5	4.9
	B2C	(620)	34.1	19.7	7.3	7.3
	B2G	(98)	38.0	20.9	6.9	5.1
상장	상장	(644)	26.1	29.4	3.5	12.7
	비상장	(2,335)	44.8	16.2	12.3	6.9

[표 3-90]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계속)

(단위 : %)

구분		사례수	매출액 위주 한도사정	보증서 위주 대출	기타	없음
전체		(2,979)	5.4	2.4	0.6	22.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5.0	2.9	0.5	22.4
	관계기업	(600)	6.6	0.0	0.9	24.1
업종	제조업	(1,331)	6.0	2.0	0.4	19.2
	비제조업	(1,648)	4.8	2.7	0.7	25.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7.6	2.1	1.4	37.6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6.3	2.5	0.5	25.0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5.0	0.0	0.8	23.3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5.8	2.8	0.0	16.7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3.5	3.3	0.7	18.8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0.8	3.2	0.8	16.0
	5천억원~1조원미만	(153)	6.7	2.8	0.0	10.8
	1조원이상	(51)	0.0	0.0	0.0	25.5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4.7	2.2	0.2	17.2
	수출없음	(1,797)	5.8	2.5	0.8	26.3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6.8	1.6	1.0	25.9
	50~100명미만	(758)	4.5	3.9	0.0	21.1
	100~200명미만	(454)	5.7	3.0	1.0	21.4
	200~300명미만	(289)	4.5	1.2	0.7	19.3
	300~500명미만	(351)	6.8	1.9	0.6	16.9
	500~1,000명미만	(301)	4.6	3.0	0.0	22.0
	1,000명이상	(146)	1.0	2.0	0.0	32.9
업력	0~7년미만	(583)	5.9	2.4	0.0	34.8
	7~20년미만	(1,134)	6.2	2.5	1.0	23.4
	20~30년미만	(550)	5.8	2.6	0.4	15.9
	30~40년미만	(308)	4.0	0.7	0.8	19.3
	40~50년미만	(240)	3.6	4.4	0.0	20.4
	50년이상	(164)	2.8	1.1	0.0	23.8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6.0	2.4	0.2	23.7
	진입4~5년차	(750)	5.0	2.0	1.4	23.8
	진입6~9년차	(220)	5.5	0.0	0.0	19.6
	진입10년차이상	(361)	3.5	4.3	1.2	18.5
매출유형	B2B	(2,261)	5.1	2.5	0.6	23.4
	B2C	(620)	5.7	2.0	0.7	20.7
	B2G	(98)	9.4	0.0	0.0	18.8
상장	상장	(644)	3.8	1.3	0.4	14.3
	비상장	(2,335)	5.8	2.7	0.7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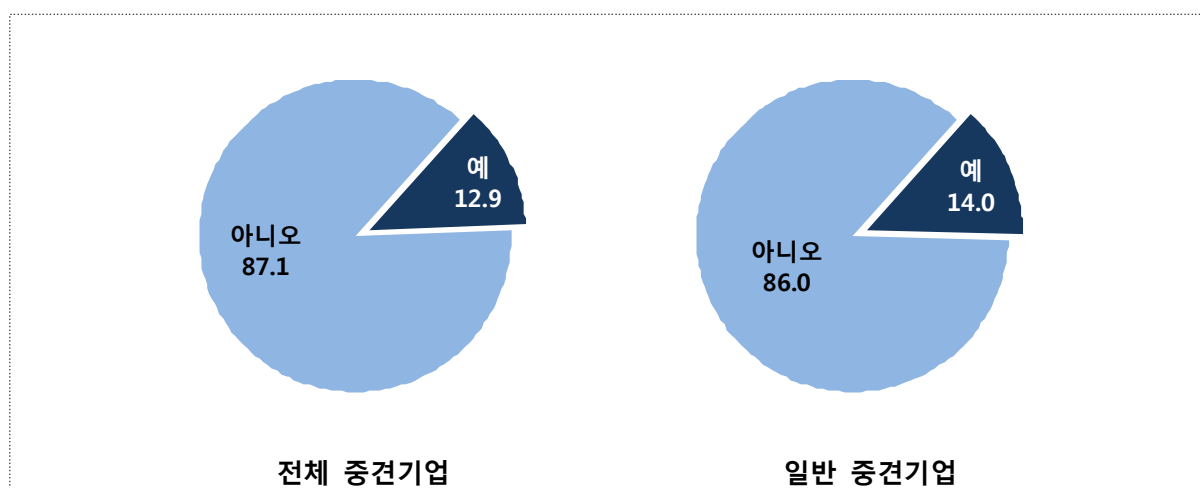
2. 정책자금의 활용

□ 정책자금 활용 여부

- 중견기업의 12.9%는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중견기업은 14.0%로 나타남

[그림 3-58] 정책자금 활용 여부

(단위: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20.4%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데 반해 비제조업은 6.8%만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비제조업의 활용 비중이 크게 낮음
-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으로 갈수록 정책자금 활용률이 높음(2천억원~3천억원 제외)
- 수출기업의 22.3%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내수기업은 6.6%만이 정책자금을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종사자수별로는 500~1,000명 기업의 30.7%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임
- B2B기업은 14.0%, B2C기업은 8.3%, B2G기업은 16.3%로 개인보다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이 주거래처인 기업들이 정책자금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임

[표 3-91] 정책자금 활용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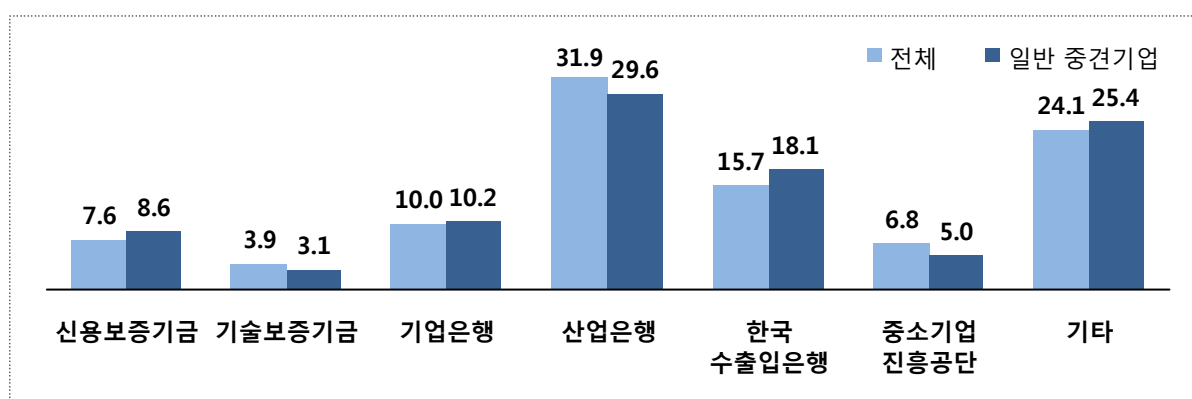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정책자금 활용	정책자금 미활용
전체		(2,979)	12.9	87.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4.0	86.0
	관계기업	(600)	8.3	91.7
업종	제조업	(1,331)	20.4	79.6
	비제조업	(1,648)	6.8	93.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3.0	97.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4.8	95.2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8.4	91.6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19.2	80.8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22.3	77.7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21.6	78.4
	5천억원~1조원미만	(153)	30.5	69.5
	1조원이상	(51)	31.5	68.5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22.3	77.7
	수출없음	(1,797)	6.6	93.4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8.3	91.7
	50~100명미만	(758)	7.9	92.1
	100~200명미만	(454)	10.6	89.4
	200~300명미만	(289)	16.4	83.6
	300~500명미만	(351)	16.0	84.0
	500~1,000명미만	(301)	30.7	69.3
	1,000명이상	(146)	12.8	87.2
업력	0~7년미만	(583)	10.1	89.9
	7~20년미만	(1,134)	9.7	90.3
	20~30년미만	(550)	13.2	86.8
	30~40년미만	(308)	15.1	84.9
	40~50년미만	(240)	25.4	74.6
	50년이상	(164)	16.5	83.5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12.3	87.7
	진입4~5년차	(750)	9.7	90.3
	진입6~9년차	(220)	12.2	87.8
	진입10년차이상	(361)	21.9	78.1
매출유형	B2B	(2,261)	14.0	86.0
	B2C	(620)	8.3	91.7
	B2G	(98)	16.3	83.7
상장	상장	(644)	24.0	76.0
	비상장	(2,335)	9.5	90.5

□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 중견기업의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은 산업은행(31.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한국수출입은행(15.7%), 기업은행(10.0%)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정책자금 기관별 출처는 산업은행(29.6%), 한국수출입은행(18.1%), 기업은행(10.2%) 순임

[그림 3-59]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단위: %, 정책자금 활용 기업)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산업은행’을 통해 조달한 비중이 일반 중견기업 29.6%, 관계기업 47.5%로 일반 중견기업에 비해 관계기업이 더 많은 활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규모 1백억원 미만의 기업은 ‘기타’ (57.8%)가 가장 높았으며, 2천억원~3천억원의 기업은 ‘산업은행’ (45.0%), 1조원 이상의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42.3%)으로부터 조달한 정책자금의 비중이 높아 매출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임
- 매출유형별로 보면 B2B기업은 ‘산업은행’ (36.7%), B2C기업은 ‘기타’ (51.2%), B2G기업은 ‘신용보증기금’ (50.1%)로 나타나 매출 규모 및 주 거래처별로 정책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이 서로 다를 수 있음
- ‘산업은행’에 대한 비중이 상장기업은 42.0%로 큰 반면, 비상장기업은 24.4%에 못미쳐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산업은행’에서 조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임

[표 3-92] 정책자금 활용 애로사항

(단위 : %, 정책자금 활용 기업 384개사)

구분		신용보증 기금	기술보증 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 입은행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타
전체		7.6	3.9	10.0	31.9	15.7	6.8	24.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8.6	3.1	10.2	29.6	18.1	5.0	25.4
	관계기업	0.6	9.7	8.3	47.5	0.0	18.8	15.1
업종	제조업	2.2	5.6	11.1	35.2	18.5	8.8	18.6
	비제조업	20.5	0.0	7.2	24.1	8.9	2.0	37.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0	18.3	2.8	0.0	0.0	14.1	57.8
	1백억원~5백억원미만	10.8	0.0	7.4	34.8	0.0	25.4	21.7
	5백억원~1천억원미만	2.0	16.7	12.1	21.8	3.0	0.0	44.4
	1천억원~2천억원미만	12.9	6.4	18.1	24.4	10.3	4.3	23.7
	2천억원~3천억원미만	0.0	1.0	8.6	45.0	26.8	0.1	18.6
	3천억원~5천억원미만	1.7	0.6	6.1	39.1	21.9	9.6	21.1
	5천억원~1조원미만	2.1	0.0	3.4	32.6	33.6	8.1	20.0
	1조원이상	42.3	0.0	0.0	32.7	5.8	0.0	19.2
수출여부	수출있음	5.3	3.1	11.9	31.8	21.2	8.0	18.7
	수출없음	12.6	5.8	5.8	32.2	3.5	4.2	35.9
종사자수	50명미만	14.3	3.0	9.1	30.5	1.0	5.1	37.0
	50~100명미만	17.0	12.2	7.8	13.3	12.1	27.0	10.4
	100~200명미만	6.5	1.4	13.9	35.5	17.4	10.8	14.4
	200~300명미만	0.0	1.3	9.9	36.9	28.5	3.6	19.7
	300~500명미만	2.7	9.5	8.9	36.2	20.0	0.0	22.7
	500~1,000명미만	8.2	1.6	12.3	32.2	18.8	3.0	23.8
	1,000명이상	1.5	0.0	2.6	37.1	10.7	7.6	40.5
업력	0~7년미만	0.0	0.0	0.0	54.9	8.9	4.2	32.1
	7~20년미만	11.3	6.2	15.7	20.6	13.0	6.1	27.1
	20~30년미만	8.6	6.3	7.2	14.5	14.6	16.2	32.5
	30~40년미만	10.8	0.7	17.1	40.4	6.7	3.6	20.7
	40~50년미만	5.3	4.1	7.8	51.1	22.7	2.1	6.9
	50년이상	0.0	0.0	0.0	33.2	37.3	5.5	24.0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0.6	5.0	8.1	29.3	16.3	5.5	25.3
	진입4~5년차	1.2	0.0	22.0	28.3	12.6	14.7	21.3
	진입6~9년차	0.0	9.3	5.8	37.6	22.3	3.1	21.8
	진입10년차이상	8.5	3.0	5.5	39.2	14.9	4.4	24.5
매출유형	B2B	4.6	4.3	10.7	36.7	16.8	7.7	19.2
	B2C	12.6	3.2	8.8	11.5	9.2	3.5	51.2
	B2G	50.1	0.0	0.0	2.4	14.4	0.0	33.1
상장	상장	4.5	3.6	9.8	42.0	20.8	4.5	14.7
	비상장	9.9	4.1	10.1	24.4	11.8	8.6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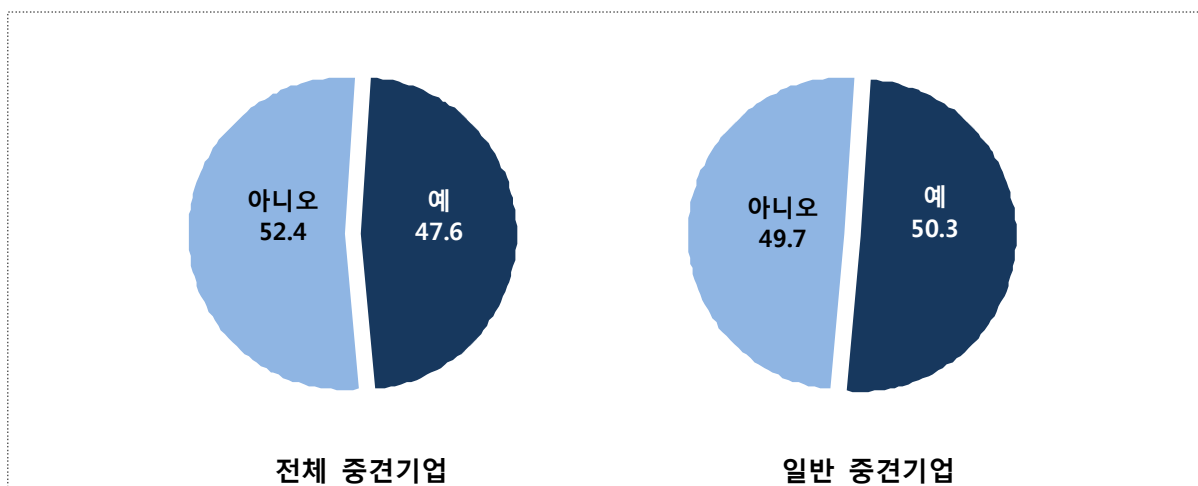
8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사회공헌활동 수행 여부

- 중견기업의 47.6%는 사회공헌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중견기업은 50.3%로 나타남

[그림 3-60] 사회공헌활동 수행 여부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50.3%, 관계기업의 36.6%가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여 일반 중견기업이 관계기업의 약 1.4배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임
- 1백억원 미만은 18.3%만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조원 이상의 기업은 93.3%가 응답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 매출규모와 사회공헌활동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유형으로는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B기업은 46.1%, B2C는 56.1%, B2G는 27.5%로 응답하여 기업마다 사회공헌활동에 기여하는 비율이 매우 다름
- 상장기업의 71.6%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비상장기업은 40.3%만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93] 사회공헌활동 수행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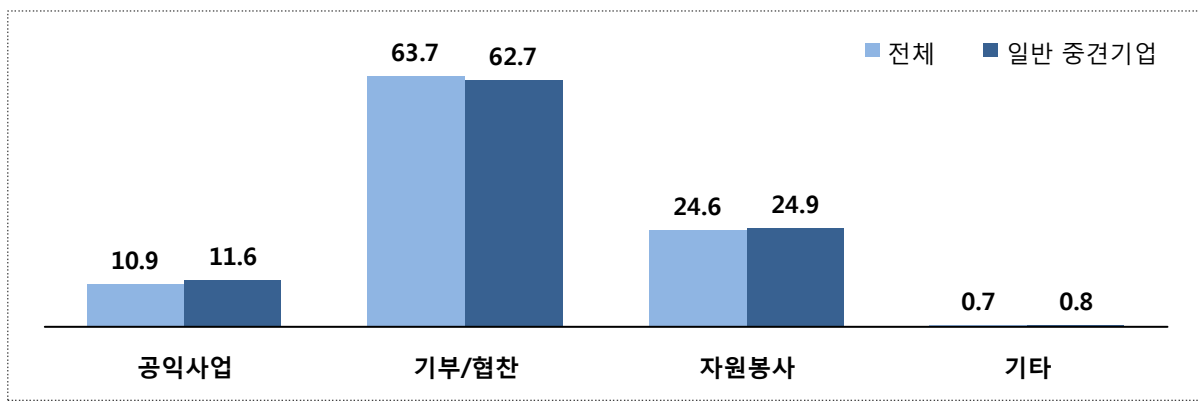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수행	미수행
전체		(2,979)	47.6	52.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50.3	49.7
	관계기업	(600)	36.6	63.4
업종	제조업	(1,331)	56.6	43.4
	비제조업	(1,648)	40.2	59.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18.3	81.7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33.2	66.8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48.5	51.5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55.6	44.4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64.8	35.2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71.2	28.8
	5천억원~1조원미만	(153)	82.6	17.4
	1조원이상	(51)	93.3	6.7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58.6	41.4
	수출없음	(1,797)	40.3	59.7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26.5	73.5
	50~100명미만	(758)	36.4	63.6
	100~200명미만	(454)	51.1	48.9
	200~300명미만	(289)	53.0	47.0
	300~500명미만	(351)	71.6	28.4
	500~1,000명미만	(301)	66.9	33.1
	1,000명이상	(146)	76.4	23.6
업력	0~7년미만	(583)	26.4	73.6
	7~20년미만	(1,134)	44.8	55.2
	20~30년미만	(550)	47.2	52.8
	30~40년미만	(308)	62.2	37.8
	40~50년미만	(240)	62.7	37.3
	50년이상	(164)	60.8	39.2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39.9	60.1
	진입4~5년차	(750)	47.1	52.9
	진입6~9년차	(220)	60.6	39.4
	진입10년차이상	(361)	71.5	28.5
매출유형	B2B	(2,261)	46.1	53.9
	B2C	(620)	56.1	43.9
	B2G	(98)	27.5	72.5
상장	상장	(644)	71.6	28.4
	비상장	(2,335)	40.3	59.7

□ 사회공헌활동 유형

- 중견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행 유형으로는 기부/협찬(63.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자원봉사(24.6%), 공익사업(10.9%)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행 유형은 기부/협찬(62.7%), 자원봉사(24.9%), 공익사업(11.6%) 순임

[그림 3-61] 사회공헌활동 유형별 비중-

(단위 : %, 사회공헌활동기업)



특성별 분석

- 제조업, 비제조업 상관없이 ‘기부/협찬’, ‘자원봉사활동’, ‘공익사업’ 순으로 나타나 기부와 협찬 활동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공익사업’ 및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수출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가장 많은 유형은 ‘기부/협찬’ (59.5%)이었으며 이어서 ‘자원봉사’ (27.0%), ‘공익사업’ (12.7%), ‘기타’ (0.8%)로 응답하였으며 내수기업 또한 ‘기부/협찬’ (67.8%), ‘자원봉사’ (22.3%), ‘공익사업’ (9.3%)으로 조사됨

[표 3-94] 사회공헌활동 유형별 비중

(단위 : %, 사회공헌활동기업 1,417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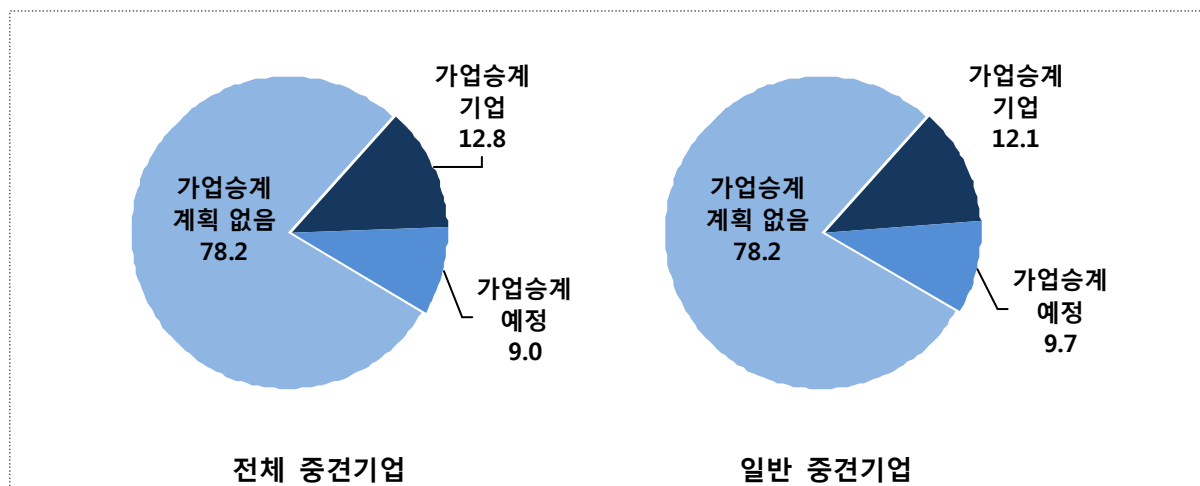
구분		공익사업	기부/협찬	자원봉사	기타
전체		10.9	63.7	24.6	0.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1.6	62.7	24.9	0.8
	관계기업	7.1	69.5	23.0	0.4
업종	제조업	11.6	63.0	24.7	0.7
	비제조업	10.2	64.6	24.5	0.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5	63.6	29.9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10.5	72.6	16.9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6.3	69.8	22.4	1.4
	1천억원~2천억원미만	9.9	64.1	25.2	0.8
	2천억원~3천억원미만	10.9	59.3	27.9	1.9
	3천억원~5천억원미만	13.9	60.3	25.5	0.3
	5천억원~1조원미만	15.3	53.5	30.9	0.3
	1조원이상	21.4	45.2	33.4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2.7	59.5	27.0	0.8
	수출없음	9.3	67.8	22.3	0.6
종사자수	50명미만	3.4	73.3	22.8	0.4
	50~100명미만	15.9	70.9	13.3	0.0
	100~200명미만	6.3	72.4	21.1	0.2
	200~300명미만	17.3	56.4	26.4	0.0
	300~500명미만	10.5	58.4	28.7	2.3
	500~1,000명미만	13.5	61.1	25.1	0.3
	1,000명이상	13.0	49.4	36.3	1.4
업력	0~7년미만	3.5	69.3	27.2	0.0
	7~20년미만	8.0	66.6	25.1	0.3
	20~30년미만	11.4	64.0	24.3	0.3
	30~40년미만	11.1	63.0	25.7	0.2
	40~50년미만	22.1	57.1	19.1	1.7
	50년이상	14.4	55.4	26.3	3.8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0.4	65.1	24.3	0.2
	진입4~5년차	7.0	67.7	24.7	0.7
	진입6~9년차	9.8	58.9	31.2	0.1
	진입10년차이상	17.8	58.1	22.0	2.2
매출유형	B2B	10.4	63.3	25.6	0.7
	B2C	13.0	65.3	21.6	0.1
	B2G	6.6	58.6	26.0	8.8
상장	상장	11.6	60.6	26.7	1.1
	비상장	10.6	65.4	23.5	0.5

□ 가업승계

- 중견기업의 78.2%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8%는 가업승계 기업, 9.0%는 가업승계 예정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78.2%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1%는 가업승계 기업, 9.7%는 가업승계 예정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2] 가업승계 도입 여부

(단위: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19.6%는 이미 ‘가업승계기업’ 이라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7.4%만이 ‘가업승계기업’ 으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 또한, 가업승계예정인 기업도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수출기업의 경우 ‘가업승계기업’ 및 ‘예정기업’ 이 전체의 약 30%이며, 내수기업은 15%에 못 미쳐 약 2배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됨
- 신생기업에서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가업승계기업’ 이 많으며, ‘가업승계 예정 기업’ 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력이 0~7년 미만인 기업은 ‘가업승계기업’ 이 4.6%인 반면, 50년 이상인 기업은 38.9%로 신생기업보다 약 8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의 영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업승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임

[표 3-95] 가업승계 도입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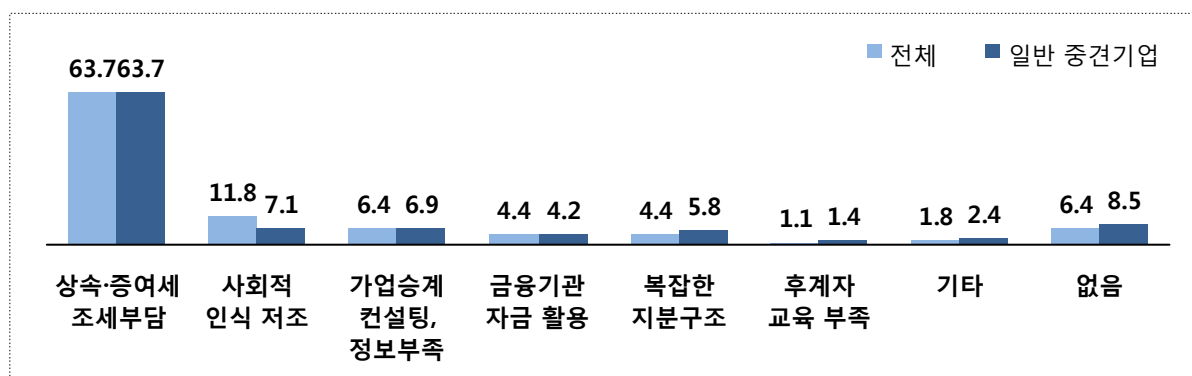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가업승계기업	가업승계예정	가업승계계획없음
전체		(2,979)	12.8	9.0	78.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379)	12.1	9.7	78.2
	관계기업	(600)	15.8	6.1	78.1
업종	제조업	(1,331)	19.6	11.4	69.0
	비제조업	(1,648)	7.4	7.0	85.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3)	1.3	0.4	98.3
	1백억원~5백억원미만	(882)	6.9	7.4	85.7
	5백억원~1천억원미만	(347)	20.4	2.5	77.1
	1천억원~2천억원미만	(577)	17.6	12.0	70.4
	2천억원~3천억원미만	(330)	18.4	23.2	58.4
	3천억원~5천억원미만	(246)	20.8	10.4	68.8
	5천억원~1조원미만	(153)	14.6	9.4	76.1
	1조원이상	(51)	18.2	12.7	69.1
수출여부	수출있음	(1,182)	18.7	12.2	69.1
	수출없음	(1,797)	9.0	6.9	84.1
종사자수	50명미만	(680)	5.2	5.3	89.6
	50~100명미만	(758)	7.7	8.7	83.6
	100~200명미만	(454)	20.3	9.5	70.2
	200~300명미만	(289)	12.4	11.4	76.2
	300~500명미만	(351)	18.8	12.6	68.6
	500~1,000명미만	(301)	27.5	14.6	57.9
	1,000명이상	(146)	10.4	5.8	83.8
업력	0~7년미만	(583)	4.6	1.7	93.7
	7~20년미만	(1,134)	4.7	6.7	88.6
	20~30년미만	(550)	14.2	9.5	76.3
	30~40년미만	(308)	23.2	14.8	62.0
	40~50년미만	(240)	25.8	16.5	57.6
	50년이상	(164)	38.9	15.5	45.6
성장단계	진입1~3년차	(1,648)	10.6	8.1	81.3
	진입4~5년차	(750)	12.2	10.0	77.8
	진입6~9년차	(220)	11.8	5.7	82.6
	진입10년차이상	(361)	23.5	12.6	63.9
매출유형	B2B	(2,261)	12.7	9.1	78.1
	B2C	(620)	11.5	8.7	79.8
	B2G	(98)	23.2	7.9	68.9
상장	상장	(644)	24.9	16.6	58.5
	비상장	(2,335)	9.2	6.7	84.1

□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증여세 조세부담(63.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사회적 인식 저조(11.8%),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 부족(6.4%)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조세부담(63.7%), 사회적 인식 저조(7.1%),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부족(6.9%)순임

[그림 3-63]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단위: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71.7%가 ‘상속/증여세 조세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46.6%만이 ‘상속/증여세 조세부담’을 응답하여 50.0%도 미치지 못함
 - 비제조업은 ‘사회적 인식저조’ (23.2%),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부족’ (7.1%), ‘금융기관 자금활용’ (5.5%) 등 상대적으로 다른 요건들을 애로사항으로 선택한 비중이 높음
- 업력별로는 7~20년 미만의 업력을 가진 기업이 ‘금융기관 자금활용’ (16.6%)을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B2B기업과 B2C기업은 ‘상속/증여세 조세부담’이 각각 65.8%, 69.9%로 제일 높는데 비해 B2G기업은 ‘상속/증여세 조세부담’ (18.3%)보다도 ‘사회적 인식 저조’ (39.1%)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다고 응답하여 매출유형과 주 거래처에 따라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지 됨

[표 3-96]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순위

(단위 : %, 가업승계기업 382개사)

구분		상속·종여세 조세부담	사회적 인식저조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부족	금융기관 자금활용
전체		63.7	11.8	6.4	4.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3.7	7.1	6.9	4.2
	관계기업	64.0	25.8	5.1	5.1
업종	제조업	71.7	6.4	6.1	3.9
	비제조업	46.6	23.2	7.1	5.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6.7	33.3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53.5	31.7	7.3	7.5
	5백억원~1천억원미만	56.0	17.9	6.9	6.9
	1천억원~2천억원미만	68.0	2.6	6.9	5.2
	2천억원~3천억원미만	58.8	7.5	7.1	3.5
	3천억원~5천억원미만	73.1	0.0	3.9	0.0
	5천억원~1조원미만	72.6	18.4	9.0	0.0
	1조원이상	10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64.5	9.7	7.2	3.4
	수출없음	62.7	14.6	5.4	5.8
종사자수	50명미만	40.9	37.4	10.1	0.0
	50~100명미만	51.7	0.0	11.2	24.5
	100~200명미만	71.9	13.0	2.4	2.9
	200~300명미만	76.4	5.7	11.5	6.3
	300~500명미만	63.8	7.2	7.0	3.3
	500~1,000명미만	62.4	8.3	5.3	0.0
	1,000명이상	77.2	13.6	0.0	0.0
업력	0~7년미만	83.6	0.0	0.0	0.0
	7~20년미만	56.5	6.8	11.6	16.6
	20~30년미만	59.2	23.8	2.4	0.0
	30~40년미만	59.9	17.6	8.4	3.1
	40~50년미만	82.9	3.1	0.0	0.0
	50년이상	57.2	6.5	11.7	6.3
성장단계	진입1~3년차	66.1	15.4	6.7	3.1
	진입4~5년차	64.9	7.8	4.8	5.2
	진입6~9년차	38.8	27.4	7.2	0.0
	진입10년차이상	65.7	4.4	7.3	7.2
매출유형	B2B	65.8	11.5	7.8	3.5
	B2C	69.9	4.1	3.1	0.0
	B2G	18.3	39.1	0.0	29.7
상장	상장	75.7	6.7	4.0	1.5
	비상장	54.0	15.9	8.4	6.7

[표 3-97]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순위(계속)

(단위 : %, 가업승계기업 382개사)

구분		복잡한 지분구조	후계자 교육부족	기타	없음
전체		4.4	1.1	1.8	6.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8	1.4	2.4	8.5
	관계기업	0.0	0.0	0.0	0.0
업종	제조업	3.7	0.0	1.8	6.3
	비제조업	5.8	3.4	1.8	6.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0.0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0.0	0.0	0.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4.1	0.0	0.0	8.2
	1천억원~2천억원미만	7.3	0.0	2.6	7.3
	2천억원~3천억원미만	4.0	3.5	3.5	11.9
	3천억원~5천억원미만	7.7	3.8	3.9	7.7
	5천억원~1조원미만	0.0	0.0	0.0	0.0
	1조원이상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4.4	0.0	2.1	8.8
	수출없음	4.4	2.5	1.3	3.2
종사자수	50명미만	6.7	4.9	0.0	0.0
	50~100명미만	0.0	5.1	0.0	7.6
	100~200명미만	4.5	0.0	2.4	2.9
	200~300명미만	0.0	0.0	0.0	0.0
	300~500명미만	4.0	0.0	4.0	10.7
	500~1,000명미만	8.9	0.0	0.0	15.1
	1,000명이상	0.0	0.0	9.2	0.0
업력	0~7년미만	16.4	0.0	0.0	0.0
	7~20년미만	0.0	0.0	0.0	8.6
	20~30년미만	2.7	2.4	2.7	6.9
	30~40년미만	2.3	0.0	0.0	8.6
	40~50년미만	3.0	3.3	4.0	3.7
	50년이상	10.0	0.0	2.6	5.7
성장단계	진입1~3년차	2.5	2.4	1.3	2.5
	진입4~5년차	3.1	0.0	0.0	14.1
	진입6~9년차	16.9	0.0	9.7	0.0
	진입10년차이상	5.4	0.0	2.1	7.8
매출유형	B2B	1.7	1.4	1.7	6.7
	B2C	16.7	0.0	2.8	3.4
	B2G	0.0	0.0	0.0	12.9
상장	상장	5.7	0.0	2.7	3.7
	비상장	3.3	1.9	1.0	8.6

[표 3-98]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2순위

(단위 : %, 가업승계기업 382개사,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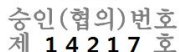
구분		상속·종여세 조세부담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부족	복잡한 지분구조	사회적 인식저조
전체		64.4	22.6	17.1	15.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4.6	21.9	18.7	11.1
	관계기업	64.0	25.0	12.3	30.2
업종	제조업	72.7	27.4	17.5	11.6
	비제조업	46.6	12.5	16.4	24.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6.7	0.0	33.3	33.3
	1백억원~5백억원미만	53.5	38.1	0.0	31.7
	5백억원~1천억원미만	56.0	6.9	20.7	21.8
	1천억원~2천억원미만	70.6	34.6	22.9	6.7
	2천억원~3천억원미만	58.8	18.6	23.0	11.5
	3천억원~5천억원미만	73.1	15.4	23.1	3.9
	5천억원~1조원미만	72.6	17.9	0.0	36.8
	1조원이상	10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65.7	23.8	20.7	11.7
	수출없음	62.7	21.0	12.2	21.4
종사자수	50명미만	40.9	10.1	6.7	37.4
	50~100명미만	51.7	18.0	16.9	0.0
	100~200명미만	71.9	33.3	14.9	18.7
	200~300명미만	76.4	40.2	16.7	20.6
	300~500명미만	67.8	13.7	29.0	10.2
	500~1,000명미만	62.4	23.7	15.6	10.9
	1,000명이상	77.2	0.0	18.4	13.6
업력	0~7년미만	83.6	22.2	29.9	0.0
	7~20년미만	56.5	36.5	3.0	6.8
	20~30년미만	59.2	5.4	31.5	29.4
	30~40년미만	63.1	22.6	14.3	24.9
	40~50년미만	82.9	25.8	10.1	3.1
	50년이상	57.2	28.0	18.6	12.8
성장단계	진입1~3년차	67.6	36.0	14.6	21.0
	진입4~5년차	64.9	7.6	16.0	12.3
	진입6~9년차	38.8	16.9	16.9	27.4
	진입10년차이상	65.7	15.1	22.8	6.5
매출유형	B2B	66.7	22.1	15.3	16.1
	B2C	69.9	28.9	30.0	7.1
	B2G	18.3	9.5	0.0	39.1
상장	상장	75.7	28.3	26.2	10.3
	비상장	55.3	18.0	9.8	20.3

[표 3-99]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단위 : %, 가업승계기업 382개사, 중복응답)

구분		금융기관 자금활용	후계자 교육부족	기타	없음
전체		9.7	4.6	1.8	6.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8.0	4.5	2.4	8.5
	관계기업	15.0	5.1	0.0	0.0
업종	제조업	9.2	4.4	1.8	6.3
	비제조업	10.9	5.1	1.8	6.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0.0	0.0	0.0
	1백억원~5백억원미만	22.9	0.0	0.0	0.0
	5백억원~1천억원미만	6.9	6.9	0.0	8.2
	1천억원~2천억원미만	11.6	2.6	2.6	7.3
	2천억원~3천억원미만	7.5	3.5	3.5	11.9
	3천억원~5천억원미만	3.9	11.5	3.9	7.7
	5천억원~1조원미만	0.0	9.4	0.0	0.0
	1조원이상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6.4	5.2	2.1	8.8
	수출없음	14.3	3.9	1.3	3.2
종사자수	50명미만	21.4	4.9	0.0	0.0
	50~100명미만	30.1	5.1	0.0	7.6
	100~200명미만	7.9	5.3	2.4	2.9
	200~300명미만	6.3	0.0	0.0	0.0
	300~500명미만	6.3	10.2	4.0	10.7
	500~1,000명미만	2.8	2.5	0.0	15.1
	1,000명이상	0.0	0.0	9.2	0.0
업력	0~7년미만	0.0	0.0	0.0	0.0
	7~20년미만	20.0	0.0	0.0	8.6
	20~30년미만	17.0	2.4	2.7	6.9
	30~40년미만	6.0	2.4	0.0	8.6
	40~50년미만	0.0	13.7	4.0	3.7
	50년이상	9.1	6.2	2.6	5.7
성장단계	진입1~3년차	8.3	2.4	1.3	2.5
	진입4~5년차	15.4	5.2	0.0	14.1
	진입6~9년차	0.0	7.2	9.7	0.0
	진입10년차이상	9.5	7.2	2.1	7.8
매출유형	B2B	10.6	4.7	1.7	6.7
	B2C	0.0	2.8	2.8	3.4
	B2G	29.7	9.3	0.0	12.9
상장	상장	3.0	5.1	2.7	3.7
	비상장	15.2	4.3	1.0	8.6

부 록 설 문 지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hp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주최 : 중소기업청
주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수행 : 한국기업데이터

ID

귀사의 응답내용이 중견기업 시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성명	작성자 소속/부서	작성자 직위	1. 대표이사 3. 부장·차장·과장	2. 임원 4. 대리·주임·사원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자 이메일			

A. 기업 일반현황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기 업 명		주생 산품*													
기 업 주 소	시/도 군/구														

대표이사 성명		대표이사 성별	① 남 ② 여	대표이사 출생년도	19__ __ 년도
대표이사 경영유형	① 창업자 ③ 전문경영인	② 승계자 ④ 기타	대표이사 전공*	① 공학계열 ② 자연과학계열 ③ 상경계열 ④ 인문사회계열 ⑤기타	

* B2B기업 : 주 거래처가 기업 / B2C기업 : 주 거래처가 개인 / B2G기업 : 주 거래처가 정부·공공기관

- 179 -

B1-1. (문 B1의 ‘①’에 응답한 경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중소기업 정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① 기술개발 지원 ② 조세혜택 ③ 전문인력확보 지원 ④ 금융지원
 ⑤ 해외시장 개척 ⑥ 공공조달 지원 ⑦ 중소기업 적합업종 ⑧ 기타()

B2. 귀사는 2014년 M&A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경험있음(인수규모 : 억원) ② 경험없음

B2-1. (문 B2의 ‘①’에 응답한 경우), 귀사가 경험한 인수합병은 어떤 형태입니까?

- ① 동종업종의 중견기업과의 인수합병 ② 타업종의 중견기업과의 인수합병
 ③ 동종업종의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 ④ 타업종의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
 ⑤ 동종업종의 대기업과의 인수합병 ⑥ 타업종의 대기업과의 인수합병
 ⑦ 해외 외국계 기업과의 인수합병 ⑧ 기타(구체적으로 :)

B2-2. 귀사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①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 ② 규제완화(계열사 편입, 중소기업 졸업 유예) ③ 정책자금 확대
 ④ M&A 컨설팅 지원 ⑤ 기타(구체적으로 :)

B3. 귀사의 가장 큰 경영애로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① 내수부진 ② 해외수요 부진 ③ 우수인재 유치 ④ 인건비 부담
 ⑤ 자금조달 애로 ⑥ 동종업계 과다경쟁 ⑦ 과도한 규제 ⑧ 기타()

C. 기술혁신

C1. 귀사의 2014년도 R&D 및 설비투자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 (실적)	① R&D투자 금액 : () 백만원
	② 설비투자 금액 : () 백만원
<p>※ R&D투자 금액 = (a)×(b)×(c)×(d)</p> <p>(a) 대차대조표(개발비 총 증가액) (b) 손익계산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p> <p>(c) 제조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d) 기타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p> <p>※ 설비투자 금액 = 토지 및 토지개발 + 건물 및 구축물 + 기계·장치 + 운수장비 + 기타(공구, 기구, 비품 등)</p>	

C2. 귀사의 2014년도 기술개발 방식별 비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자체(단독) 개발	외부기관과 공동개발	외부기관 위탁개발	국내 기술도입	해외 기술도입	합계
활용비율	%	%	%	%	%	100%

C3. 귀사는 2014년 R&D관련 정부지원사업(자금지원, 인력, 기자재 활용 등)에 수행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지원 R&D 사업 수행 경험	① 있다()건 ② 없다
-------------------	---------------

C3-1. (문 C3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정부지원 R&D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심사업의 부재 ② 지원요건 복잡 ③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 ④ 관련정보 부족
 ⑤ 지원했으나 미선정 ⑥기타(구체적으로 :)

C4. 귀사의 현재(2014년 12월 31일 기준) 연구개발 조직형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기업부설연구소 ② 연구개발전담부서 ③ 연구개발 조직 없고, 인력만 있음 ④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없음

C4-1. (문 C4에서 ‘①,②,③’에 응답한 경우), 현재 귀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몇 명입니까? (명)

* 연구개발인력 : 연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

C5.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술은 세계최고 기술 대비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세계최고 기술대비 수준	%
·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인 수준 : 100% 수준 · 국내시장에서 독보적이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준 : 80%~100% ·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수준 : 60%~80% · 국내시장에서도 범용적인 기술수준 : 60% 미만	

C6.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2014. 12. 31 기준)

구분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장권)	상표권
국내	()건	()건	()건	()건
해외	()건	()건	()건	()건
합계	()건	()건	()건	()건

C6-1. 귀사는 2014년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건 ② 아니오

C6-2. (문 C6-1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귀사의 지재권을 침해한 주체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해외기업 ② 국내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③ 기타()

C7. 귀사는 지난 1년동안(2014년 1월~12월) 대학, 연구소 등과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습니까?

- ① 예()건 ② 아니오

C7-1. (문 C7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협력기관은 어디였나요?(복수응답 가능)

- ①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교수) ② 국공립 연구기관(정부출연, 투자기관포함) ③ 민간연구기관 ④ 해외기업·기관

C8. 귀사는 지난 1년동안(2014년 1월~12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건 ② 아니오

C8-1. (문 C7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기술이전처는 어디였나요?(복수응답 가능)

- ①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교수) ② 국공립 연구기관(정부출연, 투자기관포함) ③ 민간연구기관 ④ 해외기업·기관

D. 인재확보

D1. 귀사의 인력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4. 12. 31 기준)

내국인				외국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명	()명	()명	()명	()명	()명

* 정규직 : 고용계약에 고용기간이 기재되지 않음 / 비정규직 : 고용계약에 고용기간이 기재되어 있음

D2. 귀사의 2014년 채용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포함)

구분		2014년 채용실적	
내국인	남성		명
	여성		명
외국인	남성		명
	여성		명

D3. 귀사의 2014년 신입사원 초임 수준을 말씀해 주십시오.(보너스, 성과금 등 지급되는 모든 비용 포함)

구분	신입사원				
	박 사	석 사	대 줄	전 문 대 줄	고 줄
남성					
여성					
① 1,500만원 미만 ②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③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④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⑤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⑥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⑦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⑧ 4,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⑨ 5,000만원 이상					

D4. 귀사 인력의 재직연수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4. 12. 31 기준)

※ 문D1과 남녀 합계가 일치하도록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남성					
여성					

D4-1. 귀사 인력의 2014년 이직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외국인 직원 제외)

남성	()명	여성	()명
----	------	----	------

D4-2. 귀사 이직자의 주요 이직원인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대기업 스카우트

② 중견기업 스카우트

③ 진학

④ 자사 인원감축

⑤ 낮은 임금 수준

⑥ 복지 수준 불만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D5. 2014년 귀사가 보유한 적이 있는 인력을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대기업 정년퇴직인력	① 있다()명 ② 없다	해외전문인력	① 있다()명 ② 없다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① 있다()명 ② 없다
---------------	---------------	--------	---------------	--------------	---------------

- D6. 귀사 인력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스톡옵션 ② 직무발명제도 ③ 성과급 ④ 해외연수 또는 여행 ⑤ 승진 ⑥ 기타()
- D7. 귀사의 현재(2014. 12. 31 기준) 정년은 몇 세입니까?
- ① 55세 미만 ② 55세~57세 미만 ③ 57세~59세 미만 ④ 60세 이상 ⑤ 정년 없음

E. 국제화 촉진

- E1. 귀사는 2014년 해외수출 실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E2. 귀사의 2014년 주요 수출지역 및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 ※ 1순위~3순위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곳
- | 구분 | 수출지역 | 수출금액 |
|---|------|--------------|
| 1 순위 | | ()천불 |
| 2 순위 | | ()천불 |
| 3 순위 | | ()천불 |
| 수출총액
(1,2,3순위 지역을 포함한 모든 수출지역으로의 수출금액 합계) | | 직접수출 : ()천불 |
| | | 간접수출 : ()천불 |
| ① 미국 ② 중국 ③ 일본 ④ 러시아 ⑤ 동남아시아 ⑥ 유럽 ⑦ 중동
⑧ 캐나다 ⑨ 중앙아시아 ⑩ 오세아니아 ⑪ 아프리카 ⑫ 중남미 ⑬ 기타()
※ 직접수출 비중 : 해외고객과의 직접수출 비중 ※ 간접수출 비중 : 상사 등 중개업체를 통한 수출비중 | | |

- E2-1. 2014년에 신규진출한 국가가 있습니까?
- ① 예(국가명 : / 수출금액 : 천불) ② 아니오
- E3. 귀사는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있습니까?(합작투자, 기술투자 등 포함, 2014. 12. 31 기준)
- ① 예 ② 아니오

- E3-1. (문 E3에서 ‘예’에 응답한 경우), 진출한 국가는 어디입니까?(진출규모에 따라 응답)
- | 구분 | 진출지역 | 현지법인 수 |
|--|------|--------|
| 1 순위 | | ()개 |
| 2 순위 | | ()개 |
| 3 순위 | | ()개 |
| ① 미국 ② 중국 ③ 일본 ④ 러시아 ⑤ 동남아시아 ⑥ 유럽 ⑦ 중동
⑧ 캐나다 ⑨ 중앙아시아 ⑩ 오세아니아 ⑪ 아프리카 ⑫ 남미 ⑬ 기타() | | |
- * 현지법인에 해외지사는 포함하지 않음

- E4. 귀사는 향후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E4-1. (문 E4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귀사가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현지의 값싼 노동력 ②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③ 해외 유통망 확보 ④ 자유로운 경영환경
 ⑤ 현지 연구인력 채용 ⑥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합작투자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E5. 해외 수출 및 진출 시 귀사가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해외 현지생산 ②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 ③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④ 해외기업 M&A
 ⑤ 우수인력 확보 ⑥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E6. 귀사의 FTA 활용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2014. 12. 31 기준, 해당란에 V 표시)

세부내용	있음	없음
원산지 관리 및 사후검증을 위한 업무 매뉴얼 보유		
FTA 관련 전담부서		
원산지 관리 전문가(원산지 관리자, 관세사 등) 보유		
FTA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E6-1. FTA를 활용하기 위해 귀사가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은 무엇입니까?(해당란에 V 표시)

1순위

2순위

- ①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②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③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 ④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⑤ FTA 체결국 대상 홍보 강화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E7. 귀사가 지난 1년동안(2014년 1월~12월) 수출시 겪은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② 무역금융 활용애로 ③ 인증 등 기술규제
 ④ 통관 등 절차관련 규제 ⑤ 수출 부대비용 부담 ⑥ 해외시장 정보부족
 ⑦ 수출 전문인력 부족 ⑧ 현지 마케팅 ⑨ 기타(_____)

F. 수·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

※ 용어정의

- 위탁기업(모기업) : 귀사에게 용역 등을 의뢰하는 기업
- 수탁기업(협력사) : 귀사로부터 용역 등을 의뢰받은 기업
- 주거래 위탁기업 : 귀사가 거래하는 위탁기업 중 거래비중이 가장 큰 기업

F1. 귀사는 수·위탁거래 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합니까?

- ① 하도급관계 없음(G항목으로 이동) ② 최상위 원사업자 ③ 1차 협력사
④ 2차 협력사 ⑤ 3차 이하 협력사

F1-1. (문 F1에서 ‘③, ④, ⑤’에 응답한 경우), 2014년 전체 위탁기업과의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및 비중은 얼마입니까?

구 분	위탁기업과의 거래금액 및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거래금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비 중	%	%	%	100%

F2. 귀사는 2014년 주거래 위탁기업과의 거래에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_____회) ② 아니오

F2-1. (문 F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평균 단가인하율은 얼마나 됩니까?

- ① 3%미만 ② 3~5%미만 ③ 5~10%미만 ④ 10~20%미만 ⑤ 20~30%미만

F3. 2014년 수·위탁 거래 기업과의 결제기간 및 수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제기간	위탁기업(모기업)으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는 기간 (평균 _____일)			수탁기업(협력사)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간 (평균 _____일)		
결제수단별 비중	현금 (수표포함)	어음결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어음 (전자어음 포함)	현금 (수표포함)	어음결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어음 (전자어음 포함)
	%	%	%	%	%	%

F4. 귀사는 2014년 주거래 위탁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해당란에 V 표시)

구 분	경험있음	경험없음
납품대금 결제지연(지연이자 미지급 포함)		
부당한 발주(구주발주) 취소		
기술자료 유출		
인력 탈취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경영 관련자료(재무 및 인력자료 등) 요구		
부당한 물품 등의 강제구매 요구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F5. 귀사는 지난 1년 동안(2014년 1월~2014년 12월)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까?
(해당란에 V 표시)

구 분	위탁기업(모기업)과의 활동		수탁기업(협력사)과의 활동	
	활동있음	활동없음	활동있음	활동없음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				
전담조직 구성 및 대응				
협력회 등 관련 기구활동				
공동기술개발				
공동 공정개선활동				
해외시장 개척 및 동반진출				
직원교육 및 교류				
생산설비 및 실험장비 공동사용				
자금지원				
상생결제시스템('15년 산업부 시행)				

G. 금융 및 자금조달

G1. 귀사의 2014년 주요 자금조달 용도는 무엇입니까?

구 분	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기술개발자금	수출금융	기타(_____)	합 계
비 중	%	%	%	%	%	100 %

G2. 귀사의 2014년 주요 자금조달원은 무엇입니까?

구 분	내부 유보자금	시중은행 차입	회사채 발행	IPO(주식공개상장)	펀드 등 투자유치	정부정책자금 활용	기타	합 계
비 중	%	%	%	%	%	%	%	100 %

* 정책자금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

G3. 귀사가 외부 자금 조달시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금리상승 ② 복잡한 대출 심사 ③ 대출액 위주의 한도사정 ④ 보증서 위주의 대출
⑤ 추가 담보요구 ⑥ 장기차입의 어려움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G4. 귀사는 2014년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G4-1. (문 G4에서 '①' 에 응답한 경우), 기관별 활용 비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타	합 계
비 중	%	%	%	%	%	%	%	100 %

H. 기업사회적 책임 등

H1. 귀사는 2014년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 [illegible]

H1-1. (문 H1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귀사의 사회공헌활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구 분	공익사업활동	기부/협찬활동	자원봉사활동	기타	합 계
비 중	%	%	%	%	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활동 : 문화예술지원, 체육진흥, 교육/학습지원, 지역홍보, 지역행사지원, 지역공공시설 건립, 환경보호 등 · 기부협찬활동 : 기부금/성금, 아동·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불우이웃돕기, 재해구호, 난민구호 등 · 자원봉사활동 :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사회복지시설 방문, 의료활동, 의료/보건/재활서비스 제공 등 					

H2. 귀사는 가업승계기업인가요?

- ① 예 ② 아니오 (☐ 가업승계 예정 ☐ 가업승계 예정 없음)

* 가업승계 :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경영권(소유권)과 경영자의 창업정신, 경영노하우 등 무형자산까지 상속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승계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이어가는 것

H2-1. (문 H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가업승계 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 ② 복잡한 지분구조 ③ 금융기관 자금 활용 곤란 ④ 후계자 교육 부족
⑤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 부족 ⑥ 사회적 인식 저조 ⑦ 기타()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백장미 주임 02-3275-2108,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이영순 주무관 042-481-6816

♠ 수고 하셨습니다. 귀사의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5년 중견기업실태조사

2016년 5월 4일 인쇄

2016년 5월 4일 발행

발행처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화 : 042-481-6816

팩스 : 042-481-6829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획총괄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4(도원빌딩)

전화 : 02-3275-2108

팩스 : 02-3275-2980

인쇄 : 경성문화사
